



서울문화재단

대학로 공연예술 정보확산 및 교류를 위한 기초조사

- 결과 보고서 -

2025. 12



조사결과 요약

제1절 정량조사 결과

1. 대학로 공간·시설 이용 행태

1) 대학로 방문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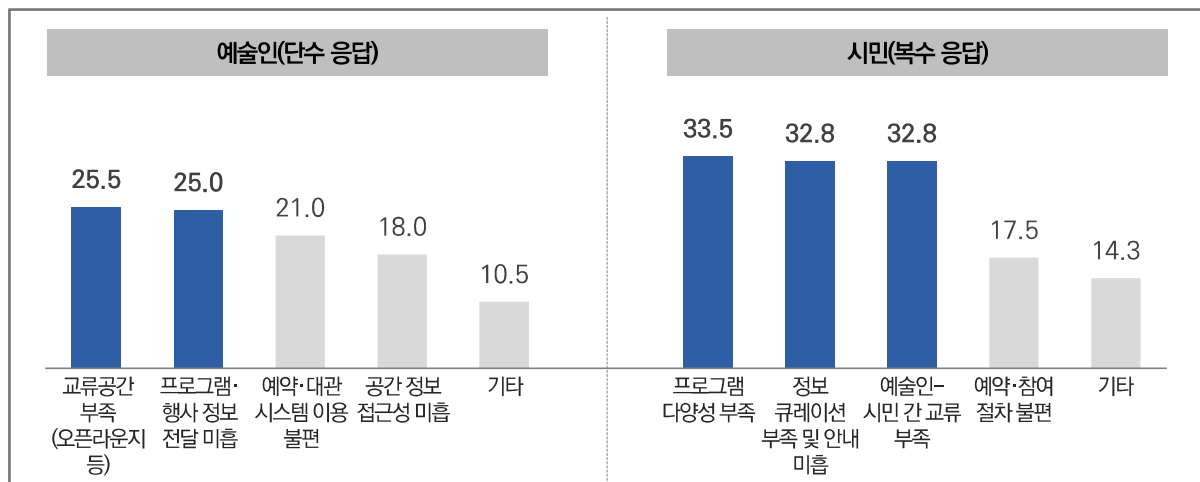
- (종사자) 대학로에 방문해서 하는 활동으로 **‘공연 관람’이 73.5%**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창작활동(54.5%)’**, **‘네트워킹·교류(35.5%)’**, **‘연구·교육·세미나(27.5%)’** 등 순임
- (시민) **‘공연·전시·축제 관람’이 89.0%**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식사·카페 이용(44.3%)’**, **‘모임·약속(38.0%)’**, **‘교육·세미나 참석(13.3%)’** 등의 순으로 나타남

2) 대학로 이용 시 개선(불편) 사항

- (종사자) 대학로에서 공간/시설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가장 개선이 필요한 사항으로 **‘교류공간 부족(오픈라운지 등)’과 ‘프로그램·행사 정보 전달 미흡’이 25.0% 내외**로 가장 높았으며, **‘예약·대관 시스템 이용 불편(21.0%)’**, **‘공간 정보 접근성 미흡(18.0%)’** 등의 순임
- (시민) 대학로 이용 시, 불편하거나 아쉬웠던 점으로 **‘프로그램 다양성 부족(33.5%)’**, **‘정보 큐레이션 부족 및 안내 미흡(32.8%)’**, **‘예술인-시민 간 교류 부족(32.8%)’** 모두 30% 이상을 보임

〈그림 1〉 대학로 이용 시 불편하거나 아쉬운 점

[단위: %]



2. 대학로 공연예술 정보 접근 및 교류 환경

1) 공연예술 관련 탐색 정보

- (종사자) 평소 공연예술과 관련해서 찾아보는 정보로 ‘공모·지원사업·정책’이 77.0%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공연·예매 정보(72.5%)’, ‘프로그램·교육·워크숍(58.5%)’, ‘대관·장비·스튜디오(35.0%)’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시민) 시민은 ‘공연·프로그램 예매 정보(작품 내용, 후기, 일정, 티켓가격 등)’가 88.0%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아티스트 토크·관객 참여 행사 정보(31.5%)’, ‘관람 참고·현장 이용 정보(30.3%)’ 등의 순으로 나타남

2) 공연예술 관련 정보 습득 채널

- (종사자) 공연예술 관련 정보를 찾아보는 채널로 ‘SNS(인스타그램·페이스북·유튜브 등)’가 70.0%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공식 홈페이지(문화재단, 공연장 등)(67.0%)’, ‘포털 검색(네이버·구글 등)(37.5%)’, ‘동료·지인 추천(30.5%)’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시민) 시민도 ‘SNS’가 64.8%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공식 홈페이지(문화재단, 공연장 등)(43.0%)’, ‘예매·대관 플랫폼(38.8%)’ 등의 순으로 나타남

3) 공연예술 관련 정보 탐색 시 불편 사항

- (종사자) 대학로의 공연예술 정보 탐색과 관련해서 불편한 사항으로 ‘정보 분산·과잉 등으로 핵심 정보 파악 어려움’이 62.5%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예약 시스템, 맞춤형 검색 등 기능 미흡(28.5%)’, ‘업데이트·알림 등 불규칙하거나 늦음(28.0%)’, ‘신뢰성·출처 검증 어려움(17.0%)’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시민) 시민도 ‘정보 분산·과잉 등으로 핵심 정보 파악 어려움’이 54.3%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업데이트·알림 등 불규칙하거나 늦음(31.5%)’, ‘기능 미흡(예약 시스템, 맞춤형 검색 등)(28.0%)’ 등의 순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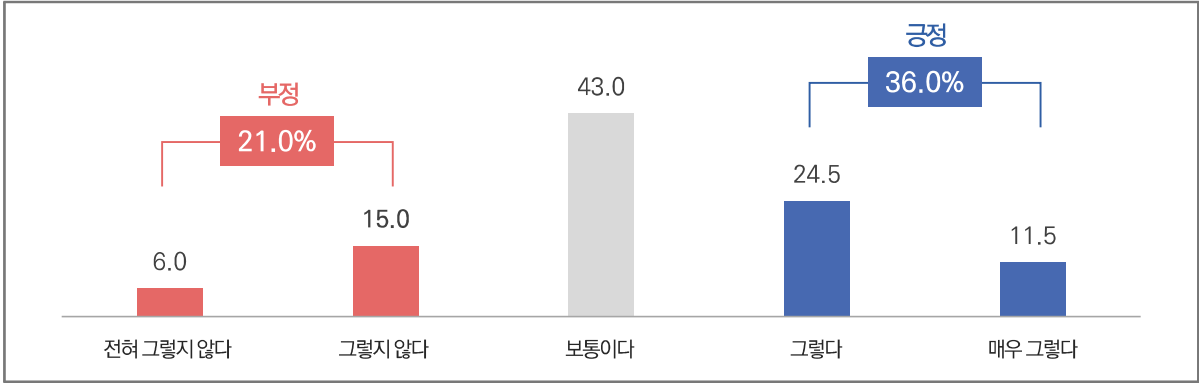
4) (종사자) 교류 활동

- 다른 예술인 또는 다른 장르와 교류하는 방식으로 ‘공동창작·협업’이 65.5%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행사·페스티벌(31.5%)’, ‘세미나·포럼·라운드테이블(29.5%)’, ‘리딩·오픈리허설·쇼케이스(23.5%)’ 등의 순으로 나타남
- 교류하는 공간으로 ‘주로 오프라인 공간’에서 교류하는 빈도가 58.2%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오프라인과 온라인 병행(30.4%)’, ‘주로 온라인상에서(11.4%)’ 순임

- 대학로가 예술인 간 교류·네트워크 등이 충분히 잘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인지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36.0%가 긍정적으로 응답함

〈그림 2〉 대학로의 교류 활동 환경에 대한 인식

[단위: %]



5) (시민) 대학로 내 공연예술 관련 프로그램 참여 경험

- 전체 응답자의 70%가 대학로에서 공연예술 관련 교육·프로그램 등에 참여한 경험이 있으며, 경험한 프로그램으로 ‘아티스트 토크·관객과의 대화(38.8%)’와 ‘행사·페스티벌(37.8%)’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오픈 리허설·리딩·메이킹 콘텐츠(창작 과정 공개·전시·상영)(23.8%)’, ‘워크숍·강연(23.0%)’ 등의 순으로 나타남
- 대학로의 공연예술 관련 교육·프로그램 등에 참여할 때 불편한 사항으로 ‘참여 정보를 찾기 어렵다’가 44.3%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예약 시스템 이용이 불편하거나 예약·대기 절차가 번거롭다(23.3%)’, ‘일정이나 마감 안내가 늦거나 맞지 않는다(21.8%)’ 등의 순임
- 대학로가 시민이 공연예술 정보를 얻고 교류하기에 적합한 환경인지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55.5%가 동의하였으나, 45.5%는 보통 또는 그렇지 않다고 인식함

〈표 1〉 대학로의 공연예술 정보 탐색 및 교육·프로그램 참여 환경에 대한 인식

[단위: %]

구분	부정	보통	긍정
대학로의 공연·전시·행사 정보는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어 한곳에서 확인하기 쉽다	13.5	47.3	39.3
안내와 홍보가 제때 전달되고 이해하기 쉽다	13.5	50.3	36.3
시민이 만나고 소통할 수 있는 교류 공간과 네트워크 인프라가 충분하다	15.5	44.5	40.0
종합적으로 볼 때, 대학로는 시민이 공연예술 정보를 얻고 교류하기에 적합한 환경이다	6.5	38.0	55.5

3. 서울문화재단 운영공간 인식 및 이용 경험

1) 서울문화재단 운영 공간/시설 인지도

- 서울문화재단 운영 공간/시설에 대해 예술인은 각 공간/시설에 대해 50% 이상 인지하고 있었으나, 시민은 각 공간/시설에 대해 10명 중 4~5명 정도가 인지함

〈표 2〉 서울문화재단 운영 공간/시설 인지도

[단위: %]

	서울예술인지원센터	대학로극장 쿼드	서울연극센터	서울연극창작센터	4개 공간/시설 모두 알지 못한다
예술인	65.0	59.5	56.5	52.5	8.5
시민	37.0	46.5	40.0	34.3	20.0

2) 서울문화재단 운영 공간/시설 이미지

- (종사자) 서울문화재단 운영 공간/시설에 대한 이미지로 ‘공연·창작활동 지원 공간’이 79.2%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예술인 정보·교류 거점(32.8%)’, ‘행정·지원 중심 공간(21.9%)’, ‘대관 중심 공간(20.8%)’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시민) 시민도 ‘공연·창작활동 지원 공간’이 74.1%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예술인 정보·교류 거점(43.1%)’, ‘시민과 소통하는 열린 문화공간(37.5%)’, ‘대관 중심 공간(19.4%)’ 등의 순으로 나타남

3) 최근 서울문화재단 운영 공간/시설 이용 현황

① 이용 목적

- (종사자) 가장 최근에 이용한 서울문화재단 운영 공간/시설을 기준으로 이용한 목적을 살펴본 결과, ‘창작활동(공연, 리허설, 회의)’이 28.6%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공연 관람(26.0%)’, ‘연구·교육·세미나(21.4%)’, ‘네트워킹·교류(8.4%)’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시민) ‘라운지 내 자료 열람·휴식’이 41.7%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공연 관람·예매(36.4%)’, ‘프로그램 참여(14.8%)’, ‘정보 확인(공연 일정·이용 안내 등)(5.7%)’ 등의 순으로 나타남

② 이용 만족도

- 가장 최근에 이용한 서울문화재단 운영 공간/시설에 대한 만족도를 살펴본 결과, 예술인 및 이용 시민 모두 **전반적으로 약 70% 이상이 만족**하고 있었으며, 예술인 대비 시민에서 만족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표 3〉 최근 서울문화재단 운영 공간/시설 이용 만족도 - 예술인

[단위: %]

구분	불만족	보통	만족
찾아가기 쉽고, 이동이 편리하다	3.2	19.5	77.3
시설과 장비 상태가 좋다	3.2	18.2	78.6
운영과 예약 과정이 간편하다	9.1	30.5	60.4
제공되는 프로그램 · 지원 · 정보는 유용하고 도움이 된다	3.2	27.9	68.8
공간에 대한 전반적인 이용 경험이 긍정적이다	4.5	19.5	76.0

〈표 4〉 최근 서울문화재단 운영 공간/시설 이용 만족도 - 시민

[단위: %]

구분	불만족	보통	만족
찾아가기 쉽고 안내가 명확하다	1.9	17.8	80.3
공간의 쾌적성과 편의시설(좌석 · 화장실 등)이 좋다	0.8	18.6	80.7
예매 · 예약 · 입장 등 이용 과정이 간편하다	1.9	26.1	72.0
제공되는 프로그램 · 정보는 유용하고 도움이 된다	0.8	28.8	70.5
공간에 대한 전반적인 이용 경험이 긍정적이다	0.4	16.7	83.0

③ 공간/시설 이용 시 불편점

- (종사자) 공간/시설 이용 시, 불편 사항으로 26.0%가 ‘불편 사항이 없다’고 응답하였으며, 불편 사항을 응답한 예술인은 **‘예약·참여 절차 불편(18.2%)’, ‘안내·정보 부족(17.5%)’, ‘교류 공간(라운지 등)·네트워킹 환경 부족(16.9%)’** 등을 응답함
- (시민) 공간/시설 이용 시, 불편 사항으로 30.7%가 ‘불편 사항이 없다’고 응답하였으며, 불편 사항을 응답한 시민은 **‘프로그램 정보의 적시성(알림·변경 안내) 미흡’과 ‘교류 공간(라운지 등)·네트워킹 환경 부족’이 17.0%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안내·표지·현장 정보 부족(14.8%)’, ‘예약·참여 절차 불편(11.4%)’ 등의 순으로 나타남

④ 서울문화재단 운영 공간/시설 역할/기능에 대한 인식

- (종사자) 서울문화재단 운영 공간/시설의 역할/기능에 대해 ‘공연장 등 공간·장비 지원’이 62.3%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예술가 교육 프로그램 운영(48.1%)’, ‘공연예술 정보·자료 제공(큐레이션·아카이브)(40.3%)’, ‘예술인 네트워킹·교류 지원(33.1%)’ 등의 순임
- (시민) ‘공연’이 54.5%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공연예술 정보·자료 제공(큐레이션, 아카이브)(44.3%)’, ‘예술가 교육 프로그램 운영(35.6%)’, ‘예술인 네트워킹·교류 지원(30.3%)’ 등의 순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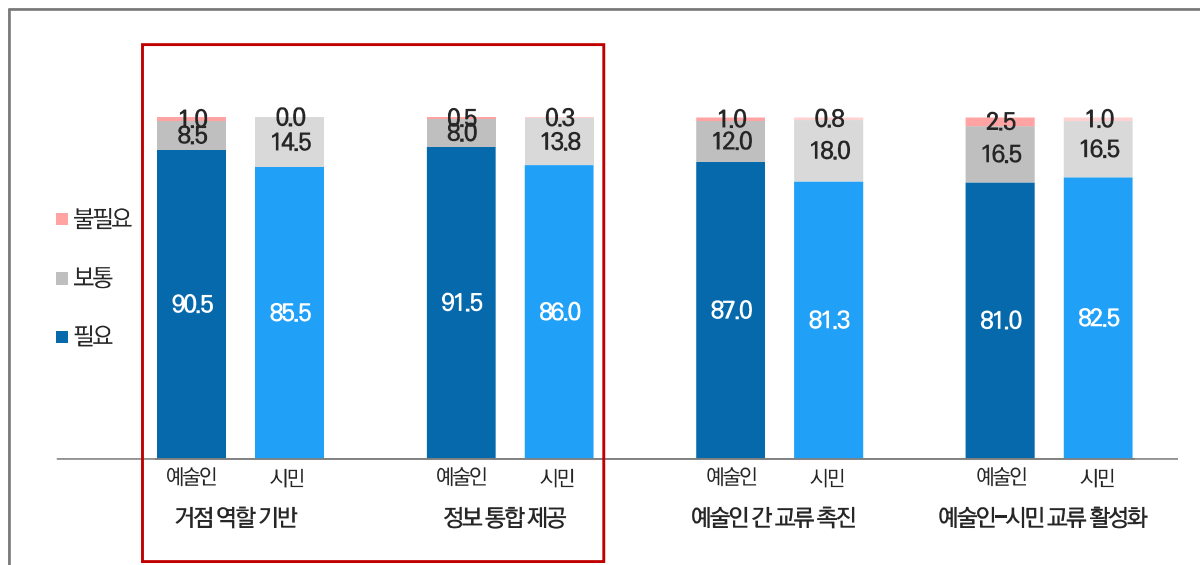
4. 향후 공연예술 정보·교류 거점 역할/기능 인식

1) 서울문화재단 운영공간 활성화를 위한 역할/기능 필요도

- 향후 대학로 공연예술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서울문화재단 운영 공간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 예술인과 시민 모두 모든 항목에 대해 80%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특히 거점 역할 기반과 정보 통합 제공에 대해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85% 이상으로 상대적으로 높음

〈그림 3〉 서울문화재단 운영 공간 활성화를 위한 역할/기능 필요도

[단위: %]



2) 공연예술 정보·교류 기능 강화를 위한 필요한 프로그램

- (종사자) 공연예술 정보·교류 기능 강화를 위해 필요한 프로그램으로 ‘예술인 네트워킹’이 68.0%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정보 큐레이션(지원사업·공모·대관 등)(65.5%)’, ‘프로젝트 피칭·쇼케이스(42.5%)’, ‘오픈 라운지(회의·작업 등)(42.0%)’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시민) ‘통합 정보 및 큐레이션(공연 및 공연예술인 정보 등)’이 58.8%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시민 참여 프로그램(48.0%)’, ‘예술인-시민 교류 프로그램(45.3%)’, ‘창작과정 공유(오픈리허설, 아카이브 자료 열람 등)(35.3%)’ 등의 순으로 나타남

3) 예술인과 시민 간 교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프로그램

- (종사자) 예술인과 시민 간 교류를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프로그램으로 ‘시민 대상 공연예술 연계 교육 프로그램’이 61.0%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오픈리허설·메이킹 콘텐츠(57.0%)’, ‘아티스트 토크(54.0%)’, ‘시민 공동창작(31.5%)’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시민) ‘아티스트 토크’가 63.5%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창작과정 공유(오픈리허설·메이킹 영상 상영 등)(56.0%)’, ‘시민 대상 공연예술 연계 교육 프로그램(43.0%)’, ‘시민 공동창작(23.0%)’ 등의 순으로 나타남

4) 향후 서울문화재단 운영 공간의 정보·교류 거점 역할 시, 이용 의향

- 향후 대학로 내 서울문화재단 운영 공간이 ‘공연예술 정보·교류 거점’으로 발전한다면, 현재보다 더 자주 이용할 의향을 확인한 결과, 예술인은 89.0%, 시민은 89.3%가 ‘자주 이용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
- (종사자) 자주 이용할 의향이 있는 이유(178명 응답)로 ‘예술인 간 네트워킹 기회가 늘어날 것 같다(57.9%)’와 ‘공간·라운지 등 교류 인프라가 더 잘 갖춰질 것 같다(57.3%)’에 대한 응답이 가장 높았으며, 자주 이용할 의향이 없는 이유(22명 응답)로는 ‘프로그램이 기대만큼 매력적이지 않을 것 같아서’가 54.5%로 가장 높음
- (시민) 자주 이용할 의향이 있는 이유(357명 응답)로 ‘프로그램 내용과 질이 우수해질 것 같다(55.5%)’와 ‘공간·라운지 등 교류 인프라가 더 잘 갖춰질 것 같다(54.6%)’가 가장 높았으며, 자주 이용할 의향이 없는 이유(43명 응답)로 ‘프로그램이 기대만큼 매력적이지 않을 것 같아서’가 37.2%로 가장 높게 나타남

제2절 정성조사 결과

1. 대학로 방문 및 문화공간 이용 행태

1) 대학로 이미지

- 대학로 하면 종사자와 시민 모두 오래전부터 ‘연극’의 중심지로 각인되어 있으며, 연극을 접하는 대표적인 장소(지역)로 인식되고 있음
- 그러나 과거에 비해 대학로는 젊은 사람들이 많이 줄어들고, 버스킹 공연 등이 줄어들음에 따라 시민들은 젊고 활기찬 이미지는 약화되고 있다고 인식함. 종사자도 대학로는 점차 운영의 어려움으로 소극장이 점차 줄어들고 있으며, 주변 상권의 프랜차이즈화, 포스터 부착 규제 등으로 대학로만의 낭만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고 인식함
- (시민) 반면, 젊은 세대를 위한 공간/지역을 벗어나 다양한 연령대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지역/공간으로 변화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인식되고 있음

2) (종사자) 주 활동 지역

- (연극·뮤지컬 분야) 각 분야 특성에 맞춰 구성된 연습실 인근에서 주로 활동하고 있으며, 연극·뮤지컬 분야는 주로 시설과 비용 측면을 고려하여 한성대입구역 또는 성신여대 인근의 연습실을 대관하여 이용함
- (무용·음악 분야) 무용·음악 분야는 시설 규모, 친숙도 등을 고려하여, 서초, 사당, 홍대 등의 연습실을 대관하여 이용함

3) (종사자) 연습 공간/시설 이용 현황

- 연습 공간/시설 이용 시, 비용이 가장 중요하며, 이외에 시설 환경, 규모, 접근성 등도 고려하여 연습실을 선택함
- 연습실 이용 시, 대부분 지하에 연습실이 있어 쾌적한 환경이 부족하며, 대규모 연습 공간을 대여할 수 있는 연습실이 부족한 상황임

4) (시민) 대학로 방문 현황

- 대학로를 방문하는 목적은 무엇보다 공연 관람 목적이 가장 크며, 이외에 우수한 접근성 및 다양한 즐길 거리가 있어 지인들과의 만남의 장소임. 또한 서울 내 다른 지역과 비교하여, ‘연극’이라는 분명한 문화적 키워드를 가진 지역이라는 강점이 있으며, 다양한

불거리/즐길 거리가 있어 복합 문화·여가 활동을 할 수 있는 지역으로 인식함

- 그러나, 대학로 공연 콘텐츠의 새로운 변화가 없어 점차 대학로 공연만의 차별성이 줄어들고 있으며, 불편한 공연장 시설에 불편함을 느낌

2. 대학로의 공연예술 정보 접근 및 교류 환경

1) 평소 공연예술 관련 정보 탐색 채널

- (종사자) 종사자는 대부분 공모사업에 대한 정보를 찾아보며, 공모사업에 대한 정보는 SNS, 기관 사이트, 민간 운영 사이트 등을 통해 정보를 찾고 있음. 그러나 여러 채널을 통해 공모사업을 찾아볼 수 밖에 없는 불편함이 있어, 공모사업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채널(창구)이 필요하다고 인식함
- (시민) 시민은 대부분 공연 관련 정보를 찾아보며, 전반적으로 20~30대는 SNS, 40~50대는 공공기관 홍보채널을 통해 공연예술 관련 정보를 습득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으며, 이외에 예매 플랫폼, 포털 검색 등을 통해 정보를 습득함. 그러나 정보 탐색 시, 지나친 후기, 광고성 후기 등으로 공연 정보에 대한 신뢰도가 저하되며, 유사한 정보 및 분산된 정보 채널로 정보 습득 과정에서 불편함을 경험함. 또한 대학로 내 공연 정보를 한 번에 볼 수 있는 통합된 채널이 없는 것에 대한 불편함을 경험하였으며, 분산된 예매처, 관람 연령 미제시, 할인 정보 등도 불편 사항으로 언급함

2) 대학로가 예술인 간 교류·네트워킹 등 충분한 환경 조성

- (종사자) 최근 오프라인에서 온라인 중심의 교류 방식이 변화됨에 따라 정보탐색, 네트워킹 등을 위해 대학로를 찾지 않으나, 예술인이 편하게 모일 수 있는 공간이 있다면 자연스럽게 교류 및 네트워킹이 이뤄질 수 있다고 인식함

3. 서울문화재단 운영공간 인식·이용 경험

1) 서울문화재단 운영 공간 이용 현황

① 서울연극센터

- (종사자) 서울연극센터 1층은 출구 바로 앞에 위치 및 통유리 구조를 통해 시민 접근성이 높은 공간으로 공연에 대한 정보 제공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인식함. 그러나 방음 시설, 공연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공간 설계 등에 대해 불편함을 느낌

② 서울연극창작센터

- (종사자) 서울연극창작센터 개관을 통해 부족하고 열악했던 민간 연습실을 대체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었으나, 효율적인 공간 설계 부족으로 실제 창작활동을 할 수 있는 연습 공간은 부족하다고 인식함

③ 대학로센터(대학로극장 퀴드, 서울예술인지원센터)

- (종사자) 대학로센터는 실험적인 시도와 창작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있으나, 점차 열람실 분위기로 변화 등 본연의 취지가 약해지고 있다고 인식함

2) 서울연극센터와 서울연극창작센터 간 기능 구분

- (종사자) 현재 서울연극센터와 서울연극창작센터의 기능/역할은 유사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향후 서울연극센터와 서울연극창작센터 간 명확한 기능/역할 정의를 통해 이에 맞는 공간 구성이 필요하다고 언급함

3) 서울문화재단 운영 공간/시설 이용 시 불편점

- (종사자) 연습 및 창작활동을 위한 공간이 많지 않으며, 대관 신청 기간, 신청 서류, 당일/전날 취소 공간 이용 불가 등에 대한 불편점을 언급함
- (시민) FGI 참석자 중 일부 휴식, 화장실 이용, 콘서트 관람 등을 위해 서울연극센터와 대학로센터에 방문함. 서울문화재단 운영 공간/시설은 예술인을 위한 지원 공간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사무실 같은 이미지’와 ‘센터 명칭’으로 일반인이 쉽게 접근할 수 없는 공간으로 인식됨

4. 향후 ‘공연예술 정보·교류 거점’ 역할·기능 인식

1) 향후 공간/시설의 이상적인 기능/역할

- (종사자) 우선 현재 서울연극센터, 서울연극창작센터, 대학로센터의 명확한 기능/역할 정의가 필요하며, 이를 통해 예술인과 시민을 위한 별도의 공간 구성이 필요하다고 인식함. 또한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위한 공간 구성이 무엇보다 필요하며, 이외에 소속감과 네트워킹할 수 있는 환경 조성, 통합된 정보 제공, 상담, 예술인 프로그램 등의 예술인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도 필요하다고 언급함

- (시민) 시민들은 전반적으로 예술인을 지원하고 창작활동을 할 수 있는 기능은 유지하되 관객과 예술인을 연결하는 교류·소통 공간의 기능/역할로 확대되기를 기대함. 또한, 대학로에 방문한 시민들이 누구나 머물 수 있는 휴식 공간, 시민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공간 등 시민이 자유롭게 방문할 수 있는 공간 조성이 필요하다고 언급함

2) 예술인과 시민 간 교류 활성화를 위한 필요 프로그램

- (종사자) 예술인과 시민 간 직접적인 만남·교류보다는 시민이 대학로 공연에 대한 관심도를 높일 수 있는 우수한 콘텐츠 제공 또는 홍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를 위해 창작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 및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식함
- (시민) 전시 분야에 비해 공연예술은 창작자(배우뿐 아니라 연출, 스태프 등)와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부족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창작자와 소통할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을 기대함. 또한, 일회성 행사보다 지속적으로 공연에 대한 관심도를 높일 수 있는 참여형 프로그램 운영도 언급함

제3절 결론 및 제언

1. 대학로 내 서울문화재단 운영 공간/시설에 대한 명확한 기능/역할 정의 필요

- 정량조사 결과, 서울문화재단 운영 공간/시설의 이용 목적으로 예술인은 ‘창작활동(28.6%)’, ‘공연 관람(26.0%)’, ‘연구·교육·세미나(21.4%)’ 등의 순이며, 시민은 ‘라운지 내 자료 열람·휴식(41.7%)’, ‘공연 관람·예매(36.4%)’, ‘프로그램 참여(14.8%)’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정성조사 결과, 서울연극센터, 서울연극창작센터, 대학로센터 간 기능과 역할이 유사하게 인식되고 있으며, 최근 개관한 서울연극창작센터는 창작·연습 공간에 대한 기대가 컸으나, 실제 창작활동을 위한 공간은 부족하다고 인식함
- 이에 서울문화재단 운영 공간별로 핵심 역할을 명확히 정의하고, 이에 부합하는 공간 구성과 운영 전략을 단계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음

[예]

- 서울연극창작센터 : 창작·연습 기능에 집중한 창작 지원 특화 공간
- 서울연극센터 : 시민에게 공연 관련 정보 제공 및 시민-예술인 간 교류 공간
- 대학로센터 : 시민의 휴식 공간(1층) 제공 및 종사자의 개방형 정보 교류·창작활동 공간

2. 예술인-시민 교류 활성화를 위한 오픈형 공간 및 라운지 기능 필요

- 대학로 이용 시 불편 사항으로 예술인은 ‘교류 공간 부족’ 25.0%, 시민은 ‘예술인-시민 간 교류 부족’ 32.8%를 응답함
- 정성조사에서도 예술인은 “편하게 모일 수 있는 공간이 있다면 자연스럽게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시민 또한 공연 관람 외에 머무를 수 있는 휴식·소통 공간의 필요성을 언급함
- 이에 예술인이 창작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시설은 유지하되, 서울연극센터와 대학로센터 1층을 활용하여 자연스럽게 예술인 간, 예술인-시민 간 소통하고 휴식할 수 있는 오픈형 공간 구성이 필요함. 또한, 정기적으로 해당 공간에서 프로그램(공연 홍보, 창작과정 설명, 아티스트 토크 등)을 운영하여, 예술인-시민 간 소통할 수 있도록 유도함

3. 공연예술 관련 정보 제공 및 상담 창구 운영

- 공연예술 정보 탐색 과정에서 예술인은 ‘정보 분산·과잉으로 핵심 정보 파악이 어렵다(62.5%)’, 시민 또한 ‘정보 분산·과잉으로 핵심 정보 파악이 어렵다(54.3%)’가 가장 큰 불편 사항으로 도출됨. 이는 공연, 교육, 지원사업, 행사 정보가 다수의 채널에 분산되어 제공되고 있음을 보여줌
- 정성조사에서도 예술인은 공모·지원사업 정보를 얻기 위해 SNS, 기관 홈페이지, 민간 사이트 등을 반복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구조적 불편을 호소하였으며, 시민 역시 대학로 공연 정보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통합 채널 부재, 광고성·후기 중심 정보로 인한 신뢰도 저하를 문제로 인식함
- 이에 서울문화재단 운영 공간에서 공연예술 정보를 통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기능 강화가 필요함. 또한 단순 정보 나열이 아닌, 예술인·시민 대상별, 이용 목적별로 선별·정리된 정보 큐레이션 기능, 상담 창구 운영 등에 대한 검토도 필요함

목 차

Part I

조사 개요

1. 조사 배경 및 목적	3
2. 조사 설계	3
3. 주요 조사내용	4
4. 응답자 특성	6
5. 조사 결과 해석 시, 유의 사항	10

Part II

공연예술 분야 종사자 조사 결과

[제1장 정량조사 결과]

제1절 대학로 활동 및 공간·시설 이용 행태	13
1. 대학로 방문 현황	13
2. 대학로 방문 이유	15
3. 대학로 내 이용 공간/시설	17
4. 대학로 내 공간/시설 이용 시 중요 고려 요인	19
5. 대학로 내 공간/시설 이용 시 개선 사항	21
제2절 대학로의 공연예술 정보 접근·교류 환경	23
1. 공연예술 관련 탐색 정보	23
2. 공연예술 관련 정보 습득 채널	25
3. 대학로 내 공연예술 정보 탐색 시 불편 사항	27
4. 다른 예술인(장르)과의 교류 방식	29
5. 다른 예술인(장르)과의 교류 빈도 및 공간	31
6. 예술인 간 교류 활동을 위한 대학로 환경 충분성	33
제3절 서울문화재단 운영공간 인식·이용 경험	35
1. 서울문화재단 운영 공간/시설 인지도	35
2. 서울문화재단 운영 공간/시설 이용 현황	37
3. 서울문화재단 운영 공간/시설 인지 경로	39
4. 서울문화재단 운영 공간/시설 이미지	41

5. 서울문화재단 운영 공간/시설 이용 목적	43
6. 서울문화재단 운영 공간/시설 만족도	45
7. 서울문화재단 운영 공간/시설 이용 시 불편/개선 사항	47
8. 서울문화재단 운영 공간/시설의 역할/기능	49
9. 향후 서울문화재단 운영 공간/시설 이용 의향	51
제4절 향후 '공연예술 정보·교류 거점' 역할·기능 인식	53
1. 서울문화재단 운영 공간/시설 활성화를 위한 필요 기능/역할	53
2. 공연예술 정보·교류 기능 강화를 위해 필요한 프로그램	55
3. 정보 제공 측면에서 강화/보완이 필요한 공연예술 장르	57
4. 정보 교류 또는 네트워킹하고 싶은 공연예술 장르	59
5. 예술인과 시민 간 교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프로그램	61
6. 향후 서울문화재단 운영 공간의 정보·교류 거점 역할 시, 이용 의향	63

[제2장 정성조사 결과]

제1절 대학로 방문 및 문화공간 이용 행태	69
1. 대학로 이미지	69
2. 주 활동 지역	70
3. 연습 공간/시설 이용 현황	71
제2절 대학로의 공연예술 정보 접근 및 교류 환경	72
1. 평소 공연예술 관련 정보 습득 채널	72
2. 대학로가 예술인 간 교류·네트워킹 등 충분한 환경 조성	73
제3절 서울문화재단 운영공간 인식·이용 경험	74
1. 서울문화재단 운영 공간 이용 현황	74
2. 서울연극센터와 서울연극창작센터 간 기능 구분	75
3. 서울문화재단 운영 공간/시설 이용 시 불편점	76
제4절 향후 '공연예술 정보·교류 거점' 역할·기능 인식	77
1. 향후 공간/시설의 이상적인 기능/역할	77
2. 예술인과 시민 간 교류 활성화를 위한 필요 프로그램	78

Part III

시민 조사 결과

[제1장 정량조사 결과]

제1절 대학로 방문 및 문화공간 이용 행태	81
1. 대학로 방문 현황	81
2. 대학로 방문 시 체류 시간	83
3. 대학로 방문 시 동반인	85

4. 대학로 방문 목적	87
5. 대학로 내 문화공간 이용 목적	89
6. 문화공간 이용 시 중요 고려 요인	91
7. 대학로 내 문화 향유 환경	93
8. 대학로 이용 시 불편 사항	95
제2절 대학로의 공연예술 정보 접근 및 교류 환경	97
1. 공연예술 관련 탐색 정보	97
2. 공연예술 관련 정보 습득 채널	99
3. 대학로 내 공연예술 정보 탐색 시 불편 사항	101
4. 대학로 내 공연예술 관련 프로그램 참여 경험	103
5. 대학로 내 공연예술 관련 프로그램 참여 횟수	105
6. 대학로 내 공연예술 관련 프로그램 참여 시 불편사항	107
7. 공연예술 정보 탐색 및 프로그램 참여를 위한 대학로 환경	109
제3절 서울문화재단 운영공간 인식·이용 경험	111
1. 서울문화재단 운영 공간/시설 인지도	111
2. 서울문화재단 운영 공간/시설 이용 현황	113
3. 서울문화재단 운영 공간/시설 인지 경로	115
4. 서울문화재단 운영 공간/시설 이미지	117
5. 서울문화재단 운영 공간/시설 이용 목적	119
6. 서울문화재단 운영 공간/시설 체류 경험	121
7. 서울문화재단 운영 공간/시설 공간 분위기	123
8. 서울문화재단 운영 공간/시설 만족도	125
9. 서울문화재단 운영 공간/시설 이용 시 불편/개선 사항	127
10. 서울문화재단 운영 공간/시설의 역할/기능	129
11. 향후 서울문화재단 운영 공간/시설 이용 의향	131
제4절 향후 ‘공연예술 정보·교류 거점’ 역할·기능 인식	133
1. 서울문화재단 운영 공간/시설 활성화를 위한 필요 기능/역할	133
2. 공연예술 정보·교류 기능 강화를 위해 필요한 프로그램	135
3. 정보 제공 측면에서 강화/보완이 필요한 공연예술 장르	137
4. 정보 교류 또는 네트워킹하고 싶은 공연예술 장르	139
5. 예술인과 시민 간 교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프로그램	141
6. 향후 서울문화재단 운영 공간의 정보·교류 거점 역할 시, 이용 의향	143

[제2장 정성조사 결과]

제1절 대학로 방문 및 문화공간 이용 행태	149
1. 대학로 이미지	149
2. 서울 내 방문 지역	150
3. 대학로 방문 현황	151
4. 문화공간 선택 시, 중요 고려요인	152

5. 대학로의 문화 향유 환경에 대한 인식	152
제2절 대학로의 공연예술 정보 접근 및 교류 환경	154
1. 평소 공연예술 관련 정보 습득 불편사항	154
2. 대학로 내 공연예술 관련 정보 습득 불편사항	155
제3절 서울문화재단 운영공간 인식·이용 경험	156
1. 서울문화재단 운영 공간/시설 이용 경험	156
2. 서울문화재단 운영 공간/시설에 대한 이미지	157
제4절 향후 ‘공연예술 정보·교류 거점’ 역할·기능 인식	158
1. 향후 공간/시설의 이상적인 기능/역할	158
2. 향후 서울문화재단 운영 공간의 필요 콘텐츠	159
부록. 설문지	161

Part I

조사개요



조사 개요

1. 조사 배경 및 목적

- 대학로 공연예술의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하여, 정보확산 및 교류 구조를 실증적으로 진단하고 예술인과 시민이 함께 활용할 수 있는 공연예술 거점 공간의 발전 방향을 도출하고자 함
- 공연예술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이용자 기반 데이터 구축 및 서울문화재단 운영공간의 전략적 활용 방안 마련을 목표로 함

2. 조사 설계

1) 공연예술 분야 종사자

- 조사 대상 : 공연예술 장르(연극·뮤지컬·무용·음악 등) 종사자
- 조사 방법 : 온라인 조사 및 FGI(Focus Group Interview)
- 조사 규모 : 온라인 조사 200명, FGI 2그룹(12명)

2) 시민

- 조사 대상 : 대학로 방문 경험이 있는 시민
- 조사 방법 : 온라인 조사 및 FGI(Focus Group Interview)
- 조사 규모 : 온라인 조사 400명, FGI 4그룹(21명)

3. 주요 조사내용

1) 공연예술 분야 종사자

구분	세부 항목
대학로 활동 및 공간·시설 이용 행태	• 대학로 방문 현황 • 대학로 방문 이유 • 대학로 내 이용 공간/시설 • 대학로 내 공간/시설 이용 시 중요 고려 요인 • 대학로 내 공간/시설 이용 시 개선 사항
대학로의 공연예술 정보 접근·교류 환경	• 공연예술 관련 탐색 정보 • 공연예술 관련 정보 습득 채널 • 대학로 내 공연예술 정보 탐색 시 불편 사항 • 다른 예술인(장르)과의 교류 방식 • 다른 예술인(장르)과의 교류 빈도 및 공간 • 예술인 간 교류 활동을 위한 대학로 환경 충분성
서울문화재단 운영공간 인식·이용 경험	• 서울문화재단 운영 공간/시설 인지도 • 서울문화재단 운영 공간/시설 이용 현황 • 서울문화재단 운영 공간/시설 인지 경로 • 서울문화재단 운영 공간/시설 이미지 • 서울문화재단 운영 공간/시설 이용 목적 • 서울문화재단 운영 공간/시설 만족도 • 서울문화재단 운영 공간/시설 이용 시 불편/개선 사항 • 서울문화재단 운영 공간/시설의 역할/기능 • 향후 서울문화재단 운영 공간/시설 이용 의향
향후 '공연예술 정보·교류 거점' 역할·기능 인식	• 서울문화재단 운영 공간/시설 활성화를 위한 필요 기능/역할 • 공연예술 정보·교류 기능 강화를 위해 필요한 프로그램 • 정보 제공 측면에서 강화/보완이 필요한 공연예술 장르 • 정보 교류 또는 네트워킹하고 싶은 공연예술 장르 • 예술인과 시민 간 교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프로그램 • 향후 서울문화재단 운영 공간의 정보·교류 거점 역할 시, 이용 의향

2) 시민

구분	세부 항목
대학로 방문 및 문화공간 이용 행태	• 대학로 방문 현황 • 대학로 방문 시 체류 시간 • 대학로 방문 시 동반인 • 대학로 방문 목적 • 대학로 내 문화공간 이용 목적 • 문화공간 이용 시 중요 고려 요인 • 대학로 내 문화 향유 환경 • 대학로 이용 시 불편 사항
대학로의 공연예술 정보 접근 및 교류 환경	• 공연예술 관련 탐색 정보 • 공연예술 관련 정보 습득 채널 • 대학로 내 공연예술 정보 탐색 시 불편 사항 • 대학로 내 공연예술 관련 프로그램 참여 경험 • 대학로 내 공연예술 관련 프로그램 참여 횟수 • 대학로 내 공연예술 관련 프로그램 참여 시 불편사항 • 공연예술 정보 탐색 및 프로그램 참여를 위한 대학로 환경
서울문화재단 운영공간 인식·이용 경험	• 서울문화재단 운영 공간/시설 인지도 • 서울문화재단 운영 공간/시설 이용 현황 • 서울문화재단 운영 공간/시설 인지 경로 • 서울문화재단 운영 공간/시설 이미지 • 서울문화재단 운영 공간/시설 이용 목적 • 서울문화재단 운영 공간/시설 체류 경험 • 서울문화재단 운영 공간/시설 공간 분위기 • 서울문화재단 운영 공간/시설 만족도 • 서울문화재단 운영 공간/시설 이용 시 불편/개선 사항 • 서울문화재단 운영 공간/시설의 역할/기능 • 향후 서울문화재단 운영 공간/시설 이용 의향
향후 '공연예술 정보·교류 거점' 역할·기능 인식	• 서울문화재단 운영 공간/시설 활성화를 위한 필요 기능/역할 • 공연예술 정보·교류 기능 강화를 위해 필요한 프로그램 • 정보 제공 측면에서 강화/보완이 필요한 공연예술 장르 • 정보 교류 또는 네트워킹하고 싶은 공연예술 장르 • 예술인과 시민 간 교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프로그램 • 향후 서울문화재단 운영 공간의 정보·교류 거점 역할 시, 이용 의향

4. 응답자 특성

1) 공연예술 분야 종사자

① 정량조사

구분		사례수(명)	비율(%)
전체		(200)	100.0
주 활동 장르	연극	(102)	51.0
	뮤지컬	(22)	11.0
	무용	(24)	12.0
	클래식	(17)	8.5
	국악	(11)	5.5
	대중음악	(19)	9.5
	기타	(5)	2.5
분야	연출·감독	(23)	11.5
	배우·퍼포머	(61)	30.5
	작가·극작가·작곡가	(32)	16.0
	기획·프로듀서	(26)	13.0
	안무가·무용수	(15)	7.5
	연주가·성악가·보컬	(22)	11.0
	기타	(21)	10.5
주 활동 분야 경력	2년 이하	(36)	18.0
	3 ~ 5년	(50)	25.0
	6 ~ 10년	(45)	22.5
	11 ~ 15년	(31)	15.5
	16년 이상	(38)	19.0
성별	남성	(62)	31.0
	여성	(138)	69.0
연령대	18~29세	(52)	26.0
	30~39세	(74)	37.0
	40~49세	(48)	24.0
	50세 이상	(26)	13.0

② 정성조사

그룹	No	성함	성별	연령	활동 분야	직업(업무)	공연예술 분야 경력
연극/뮤지컬 분야 종사자	1	김O원	남성	30대	연극	기획, 연출	9년
	2	김O민	남성	30대	연극	배우, 작가, 연출	10년
	3	강O인	여성	20대	연극	작가	2년
	4	최O윤	여성	40대	뮤지컬, 연극	배우, 작가, 연출, 기획	24년
	5	방O혁	남성	30대	뮤지컬	기획	7년
	6	최O혜	여성	30대	뮤지컬, 연극	작가	4년
무용 및 음악 분야 종사자	1	손O찬	남성	30대	국악	실연자	16년
	2	박O주	여성	30대	국악	기획, 연주, 행정	9년
	3	김O연	남성	40대	무용	무용수	15년
	4	김O은	여성	30대	무용	연출, 실연자	10년
	5	이O호	남성	30대	클래식	기획, 연출, 행정	16년
	6	서O영	여성	30대	클래식	작가, 연주자	10년

2) 시민

① 정량조사

구분		사례수(명)	비율(%)
전체		(400)	100.0
성별	남성	(82)	20.5
	여성	(318)	79.5
연령대	18~29세	(104)	26.0
	30~39세	(116)	29.0
	40~49세	(111)	27.8
	50세 이상	(69)	17.3
거주지역	서울시	(254)	63.5
	인천/경기	(124)	31.0
	수도권 외	(22)	5.5
직업	학생	(70)	17.5
	직장인	(159)	39.8
	자영업	(20)	5.0
	전업주부	(55)	13.8
	프리랜서	(87)	21.8
	기타	(9)	2.3

② 정성조사

그룹	No	성함	성별	연령	직업	공연예술 관심도	대학로 방문 경험
20대	1	김O호	남성	20대	학생	상	있음
	2	김O주	여성	20대	학생	상	있음
	3	김O을	여성	20대	직장인	상	있음
	4	양O미	여성	20대	직장인	중	있음
	5	방O비	여성	20대	공예가	중상	있음
30대	1	차O환	남성	30대	취업준비 중	하	있음
	2	박O형	남성	30대	영화 연출	중상	있음
	3	방O윤	여성	30대	직장인	하	있음
	4	박O수	여성	30대	직장인	중상	있음
	5	김O임	여성	30대	직장인	상	있음
40대	1	정O석	남성	40대	직장인	중하	있음
	2	정O주	여성	40대	직장인	중	있음
	3	김O영	여성	40대	직장인	상	있음
	4	주O영	여성	40대	학생	중	있음
	5	김O연	여성	40대	전업주부	중	있음
50대 이상	1	정O근	남성	60세 이상	퇴직	중상	있음
	2	손O철	남성	60세 이상	컨설턴트	중	있음
	3	김O선	여성	60세 이상	부동산중개업	중	있음
	4	황O경	여성	50대	전업주부	상	있음
	5	박O숙	여성	50대	전업주부	중	있음
	6	김O영	여성	50대	전업주부	상	있음

5. 조사 결과 해석 시, 유의 사항

- 일부 비율(%)로 제시된 결과표의 경우 결괏값이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된 소수점 첫째 자릿값이 제시되기 때문에 백분율 합산 시 라운딩 에러가 나타날 수 있음
 - * 라운딩 에러(Rounding Error)란 반올림 오차이며, 실제 전체 합은 100%이지만 소수점 반올림 과정에서 합이 100.1% 또는 99.9%로 나타나는 현상
- 응답자 특성으로 제시된 결과표의 경우, 응답 사례수가 30명 미만으로 나타나는 경우 표본오차로 인해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한 분석 결과를 도출하기 어려움에 따라 결과 해석 시 유의해야 함

Part II

공연예술 분야 종사자 조사 결과



제1장 정량조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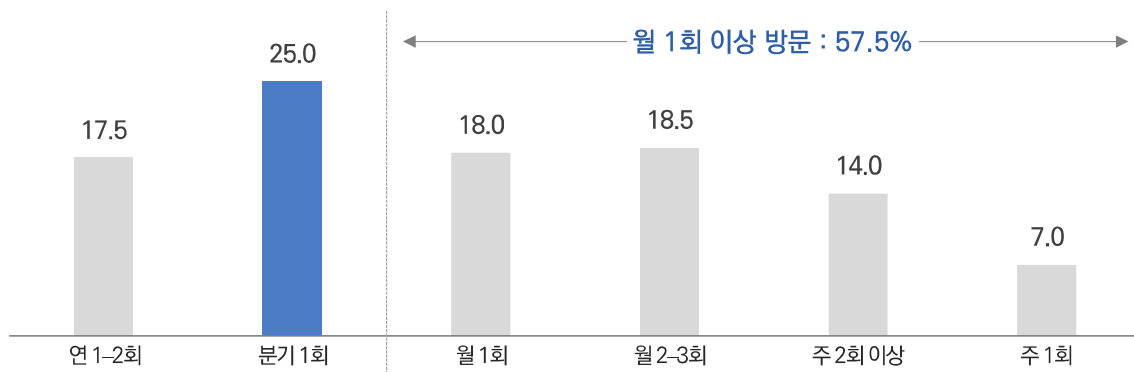
제1절 대학로 활동 및 공간·시설 이용 행태

1. 대학로 방문 현황

- 최근 1년 동안 공연예술 관련 목적으로 대학로에 방문한 빈도를 조사한 결과, ‘분기 1회’가 25.0%로 가장 높았으나, 전체 응답자의 57.5%가 ‘월 1회 이상’ 방문하는 것으로 나타남
 - ‘월 1회 이상’ 방문 비율은 주 활동 장르별로 ‘연극(74.5%)’, 분야별로 ‘배우·퍼포머(75.4%)’, 주 활동 분야 경력별로 ‘16년 이상(65.8%)’, 연령별로 ‘50세 이상(73.1%)’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그림 2-1〉 대학로 방문 현황

[Base: 전체, 사례수: 200명, 단위: %]



Q. 최근 1년 동안 귀하께서는 공연예술 관련 목적으로 대학로에 얼마나 방문하셨습니다?

〈표 2-1〉 대학로 방문 현황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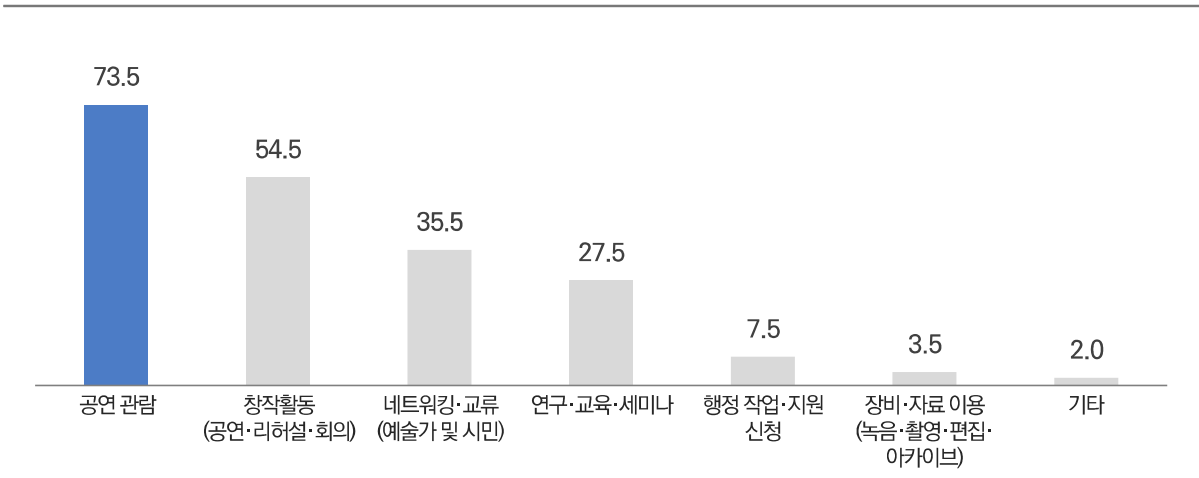
구분		사례수	연 1~2회	분기 1회					월 1회 이상 방문
					월 1회	월 2~3회	주 2회 이상	주 1회	
전체		(200)	17.5	25.0	18.0	18.5	14.0	7.0	57.5
주 활동 장르	연극	(102)	8.8	16.7	20.6	22.5	21.6	9.8	74.5
	뮤지컬	(22)	13.6	31.8	4.5	18.2	27.3	4.5	54.5
	무용	(24)	16.7	37.5	25.0	16.7	0.0	4.2	45.8
	클래식	(17)	52.9	23.5	11.8	5.9	0.0	5.9	23.5
	국악	(11)	36.4	45.5	18.2	0.0	0.0	0.0	18.2
	대중음악	(19)	26.3	31.6	15.8	21.1	0.0	5.3	42.1
	기타	(5)	20.0	40.0	20.0	20.0	0.0	0.0	40.0
분야	연출·감독	(23)	17.4	13.0	26.1	17.4	17.4	8.7	69.6
	배우·퍼포머	(61)	3.3	21.3	21.3	21.3	23.0	9.8	75.4
	작가·극작가·작곡가	(32)	25.0	25.0	9.4	21.9	15.6	3.1	50.0
	기획·프로듀서	(26)	19.2	23.1	11.5	19.2	15.4	11.5	57.7
	안무가·무용수	(15)	13.3	46.7	33.3	6.7	0.0	0.0	40.0
	연주가·성악가·보컬	(22)	59.1	18.2	18.2	4.5	0.0	0.0	22.7
	기타	(21)	4.8	42.9	9.5	28.6	4.8	9.5	52.4
주 활동 분야 경력	2년 이하	(36)	16.7	25.0	13.9	19.4	13.9	11.1	58.3
	3 ~ 5년	(50)	16.0	30.0	16.0	16.0	10.0	12.0	54.0
	6 ~ 10년	(45)	17.8	28.9	24.4	13.3	15.6	0.0	53.3
	11 ~ 15년	(31)	19.4	22.6	16.1	25.8	12.9	3.2	58.1
	16년 이상	(38)	18.4	15.8	18.4	21.1	18.4	7.9	65.8
성별	남성	(62)	19.4	24.2	14.5	19.4	11.3	11.3	56.5
	여성	(138)	16.7	25.4	19.6	18.1	15.2	5.1	58.0
연령대	18~29세	(52)	17.3	26.9	21.2	15.4	13.5	5.8	55.8
	30~39세	(74)	23.0	24.3	14.9	14.9	14.9	8.1	52.7
	40~49세	(48)	12.5	29.2	20.8	20.8	12.5	4.2	58.3
	50세 이상	(26)	11.5	15.4	15.4	30.8	15.4	11.5	73.1

2. 대학로 방문 이유

- 대학로 방문 이유로 ‘공연 관람’이 73.5%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창작활동(54.5%)’, ‘네트워킹·교류(35.5%)’, ‘연구·교육·세미나(27.5%)’ 등의 순으로 나타남
 - ‘공연 관람’ 비율은 주 활동 장르별로 ‘연극(80.4%)’, 분야별로 ‘연출·감독(82.6%)’, 주 활동 분야 경력별로 ‘2년 이하(77.8%)’, 연령별로 ‘30~39세(77.0%)’와 ‘18~29세(76.9%)’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그림 2-2〉 대학로 방문 이유

[Base: 전체, 사례수: 200명, 단위: %, 복수응답]



Q. 최근 1년 동안 귀하께서는 대학로에서 어떤 활동을 하셨습니까? 해당하는 항목을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표 2-2〉 대학로 방문 이유

[단위: %, 복수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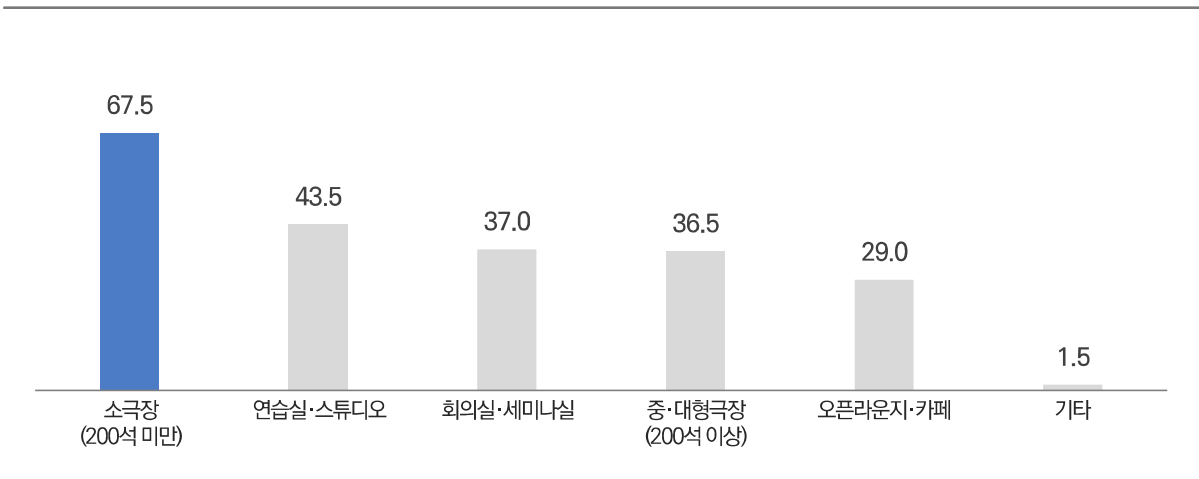
구분		사례수	공연 관람	창작활동 (공연·리허설·회의)	네트워킹·교류 (예술가 및 시민)	연구·교육·세미나	행정 직업·지원 신청	장비·자료 이용 (녹음·촬영·편집·아카이브)	기타
전체		(200)	73.5	54.5	35.5	27.5	7.5	3.5	2.0
주 활동 장르	연극	(102)	80.4	66.7	34.3	25.5	6.9	2.0	1.0
	뮤지컬	(22)	72.7	59.1	50.0	36.4	9.1	9.1	0.0
	무용	(24)	70.8	50.0	33.3	25.0	4.2	0.0	0.0
	클래식	(17)	76.5	5.9	41.2	17.6	17.6	0.0	5.9
	국악	(11)	63.6	72.7	27.3	36.4	9.1	0.0	9.1
	대중음악	(19)	42.1	36.8	21.1	26.3	5.3	15.8	5.3
	기타	(5)	80.0	0.0	60.0	60.0	0.0	0.0	0.0
분야	연출·감독	(23)	82.6	56.5	39.1	34.8	8.7	0.0	0.0
	배우·퍼포머	(61)	77.0	70.5	34.4	27.9	4.9	1.6	1.6
	작가·극작가·작곡가	(32)	71.9	53.1	34.4	21.9	9.4	9.4	9.4
	기획·프로듀서	(26)	73.1	50.0	50.0	26.9	15.4	0.0	0.0
	안무가·무용수	(15)	66.7	60.0	26.7	26.7	0.0	0.0	0.0
	연주가·성악가·보컬	(22)	72.7	31.8	27.3	27.3	4.5	9.1	0.0
	기타	(21)	61.9	33.3	33.3	28.6	9.5	4.8	0.0
주 활동 분야 경력	2년 이하	(36)	77.8	55.6	30.6	27.8	11.1	8.3	0.0
	3 ~ 5년	(50)	74.0	46.0	38.0	28.0	8.0	4.0	4.0
	6 ~ 10년	(45)	75.6	62.2	31.1	24.4	6.7	2.2	0.0
	11 ~ 15년	(31)	71.0	54.8	45.2	35.5	6.5	3.2	3.2
	16년 이상	(38)	68.4	55.3	34.2	23.7	5.3	0.0	2.6
성별	남성	(62)	72.6	61.3	30.6	29.0	9.7	4.8	0.0
	여성	(138)	73.9	51.4	37.7	26.8	6.5	2.9	2.9
연령대	18~29세	(52)	76.9	59.6	26.9	17.3	9.6	9.6	0.0
	30~39세	(74)	77.0	52.7	39.2	41.9	10.8	2.7	2.7
	40~49세	(48)	66.7	58.3	41.7	22.9	2.1	0.0	4.2
	50세 이상	(26)	69.2	42.3	30.8	15.4	3.8	0.0	0.0

3. 대학로 내 이용 공간/시설

- 대학로 방문 시 이용한 공간/시설로 ‘소극장(200석 미만)’이 67.5%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연습실·스튜디오(43.5%)’, ‘회의실·세미나실(37.0%)’, ‘중·대형극장(200석 이상)(36.5%)’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소극장(200석 미만)’을 이용한 비율은 주 활동 장르별로 ‘연극(78.4%)’, 분야별로 ‘배우·퍼포머(77.0%)’, 주 활동 분야 경력별로 ‘3~5년(74.0%)’, 연령별로 ‘18~29세(73.1%)’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그림 2-3〉 대학로 내 이용 공간/시설

[Base: 전체, 사례수: 200명, 단위: %, 복수응답]



Q. 최근 1년 동안 귀하께서는 대학로에서 어떤 공간/시설을 이용하셨습니까? 해당하는 항목을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표 2-3〉 대학로 내 이용 공간/시설

[단위: %, 복수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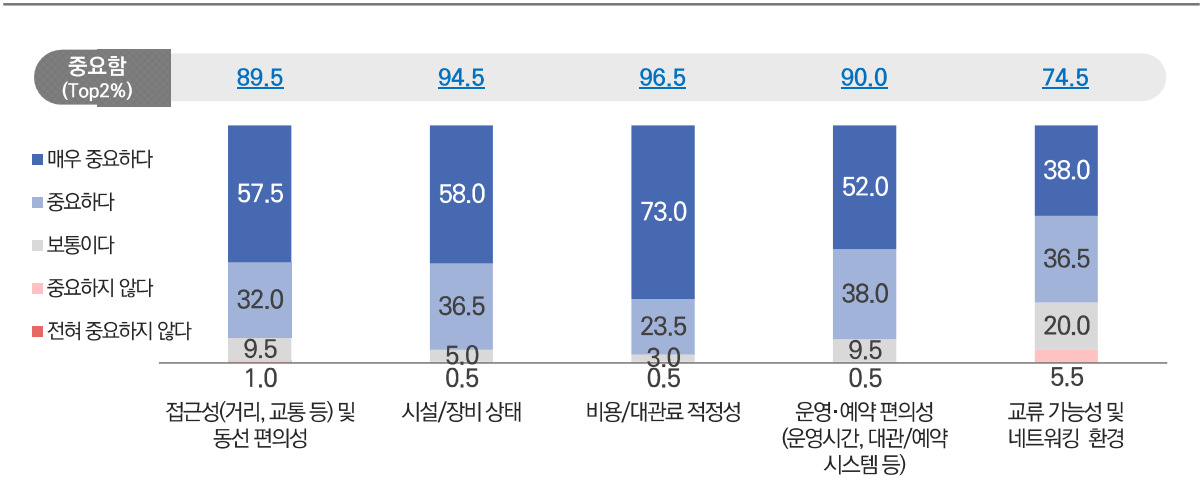
구분		사례수	소극장 (200석 미만)	연습실· 스튜디오	회의실· 세미나실	중·대형극장 (200석 이상)	오픈라운지· 카페	기타
전체		(200)	67.5	43.5	37.0	36.5	29.0	1.5
주 활동 장르	연극	(102)	78.4	54.9	37.3	38.2	29.4	0.0
	뮤지컬	(22)	72.7	45.5	27.3	40.9	36.4	0.0
	무용	(24)	58.3	45.8	45.8	58.3	29.2	4.2
	클래식	(17)	47.1	5.9	29.4	23.5	29.4	5.9
	국악	(11)	63.6	9.1	36.4	36.4	27.3	0.0
	대중음악	(19)	47.4	31.6	36.8	15.8	21.1	5.3
	기타	(5)	20.0	40.0	60.0	0.0	20.0	0.0
분야	연출·감독	(23)	73.9	60.9	56.5	47.8	26.1	0.0
	배우·퍼포머	(61)	77.0	57.4	31.1	32.8	32.8	0.0
	작가·극작가·작곡가	(32)	62.5	43.8	34.4	43.8	28.1	3.1
	기획·프로듀서	(26)	61.5	42.3	30.8	19.2	34.6	7.7
	안무가·무용수	(15)	66.7	46.7	26.7	73.3	20.0	0.0
	연주가·성악가·보컬	(22)	68.2	13.6	36.4	31.8	18.2	0.0
	기타	(21)	47.6	14.3	52.4	23.8	33.3	0.0
주 활동 분야 경력	2년 이하	(36)	66.7	52.8	25.0	22.2	25.0	5.6
	3 ~ 5년	(50)	74.0	46.0	38.0	40.0	36.0	0.0
	6 ~ 10년	(45)	68.9	42.2	33.3	31.1	26.7	2.2
	11 ~ 15년	(31)	54.8	38.7	58.1	45.2	38.7	0.0
	16년 이상	(38)	68.4	36.8	34.2	44.7	18.4	0.0
성별	남성	(62)	67.7	48.4	35.5	35.5	22.6	1.6
	여성	(138)	67.4	41.3	37.7	37.0	31.9	1.4
연령대	18~29세	(52)	73.1	55.8	19.2	34.6	36.5	1.9
	30~39세	(74)	68.9	41.9	45.9	43.2	31.1	0.0
	40~49세	(48)	60.4	41.7	33.3	37.5	22.9	2.1
	50세 이상	(26)	65.4	26.9	53.8	19.2	19.2	3.8

4. 대학로 내 공간/시설 이용 시 중요 고려 요인

- 대학로 내 공간/시설 이용 시, ‘비용/대관료 적정성’을 중요하게 고려하는 비율이 96.5%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시설/장비 상태(94.5%)’와 ‘운영·예약 편의성(90.0%)’도 중요하게 고려하는 비율이 90% 이상을 보임
 - 주 활동 장르별로 ‘무용’과 ‘국악’, 분야별로 ‘연출·감독’과 ‘안무가·무용수’ 및 ‘기타’, 주 활동 분야 경력별로 ‘16년 이상’, 연령별로 ‘18~29세’에서 ‘비용/대관료 적정성’에 대해 중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100%로 나타남
- 반면, ‘교류 가능성 및 네트워킹 환경’을 중요하게 고려하는 비율은 74.5%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그림 2-4〉 대학로 내 공간/시설 이용 시 중요 고려 요인

[Base: 전체, 사례수: 200명, 단위: %]



Q. 대학로에서 공간/시설을 이용할 때, 아래 요소들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표 2-4〉 대학로 내 공간/시설 이용 시 중요 고려 요인

[단위: Top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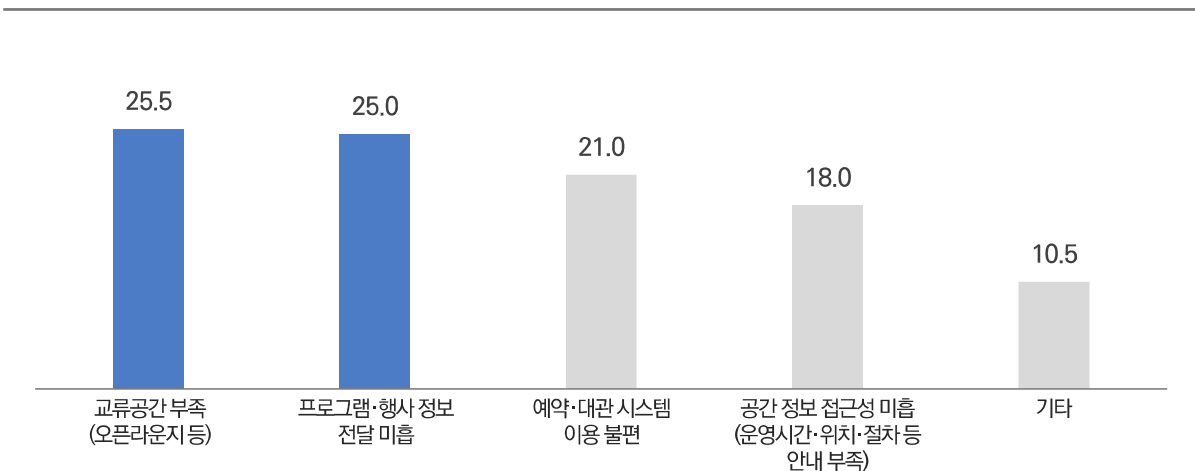
구분		사례수	접근성 (거리, 통 등) 및 동선 편의성	시설/장비 상태	비용/대관료 적정성	운영·예약 편의성 (운영시간, 대관/예약 시스템 등)	교류 가능성/ 네트워킹 환경
전체		(200)	89.5	94.5	96.5	90.0	74.5
주 활동 장르	연극	(102)	90.2	94.1	97.1	91.2	70.6
	뮤지컬	(22)	77.3	100.0	95.5	81.8	68.2
	무용	(24)	95.8	100.0	100.0	100.0	83.3
	클래식	(17)	94.1	82.4	94.1	82.4	76.5
	국악	(11)	90.9	100.0	100.0	81.8	72.7
	대중음악	(19)	84.2	94.7	94.7	89.5	84.2
	기타	(5)	100.0	80.0	80.0	100.0	100.0
분야	연출·감독	(23)	82.6	91.3	100.0	91.3	69.6
	배우·퍼포머	(61)	86.9	95.1	96.7	90.2	73.8
	작가·극작가·작곡가	(32)	93.8	90.6	93.8	90.6	78.1
	기획·프로듀서	(26)	88.5	96.2	92.3	76.9	65.4
	안무가·무용수	(15)	100.0	100.0	100.0	100.0	86.7
	연주가·성악가·보컬	(22)	81.8	90.9	95.5	86.4	77.3
	기타	(21)	100.0	100.0	100.0	100.0	76.2
주 활동 분야 경력	2년 이하	(36)	83.3	88.9	94.4	80.6	75.0
	3 ~ 5년	(50)	90.0	94.0	98.0	90.0	84.0
	6 ~ 10년	(45)	84.4	97.8	97.8	95.6	55.6
	11 ~ 15년	(31)	93.5	93.5	90.3	90.3	77.4
	16년 이상	(38)	97.4	97.4	100.0	92.1	81.6
성별	남성	(62)	82.3	90.3	96.8	83.9	64.5
	여성	(138)	92.8	96.4	96.4	92.8	79.0
연령대	18~29세	(52)	90.4	94.2	100.0	88.5	78.8
	30~39세	(74)	85.1	93.2	95.9	89.2	66.2
	40~49세	(48)	91.7	95.8	95.8	93.8	79.2
	50세 이상	(26)	96.2	96.2	92.3	88.5	80.8

5. 대학로 내 공간/시설 이용 시 개선 사항

- 대학로 내 공간/시설 이용 시 개선이 필요한 사항으로 ‘교류공간 부족(25.5%)’과 ‘프로그램·행사 정보 전달 미흡(25.0%)’이 가장 높으며, 다음으로 ‘예약·대관 시스템 이용 불편(21.0%)’, ‘공간 정보 접근성 미흡(18.0%)’ 등의 순으로 나타남
 - ‘교류공간 부족’은 주 활동 장르별로 ‘클래식(41.2%)’, 분야별로 ‘안무가·무용수(33.3%)’, 연령별로 ‘18~29세(30.8%)’와 ‘40~49세(29.2%)’에서 응답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 ‘프로그램·행사 정보 전달 미흡’은 주 활동 장르별로 ‘국악(36.4%)’, 분야별로 ‘안무가·무용수(33.3%)’, 주 활동 분야 경력별로 ‘6~10년(31.1%)’, 성별로 ‘남성(16.1%)’ 대비 ‘여성(29.0%)’에서 응답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그림 2-5〉 대학로 내 공간/시설 이용 시 개선 사항

[Base: 전체, 사례수: 200명, 단위: %]



Q. 대학로에서 공간/시설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가장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무엇입니까?

〈표 2-5〉 대학로 내 공간/시설 이용 시 개선 사항

[단위: %]

구분		사례수	교류공간 부족 (오픈라운지 등)	프로그램· 행사 정보 전달 미흡	예약·대관 시스템 이용 불편	공간 정보 접근성 미흡 (운영시간·위치· 절차 등 안내 부족)	기타
전체		(200)	25.5	25.0	21.0	18.0	10.5
주 활동 장르	연극	(102)	19.6	26.5	22.5	21.6	9.8
	뮤지컬	(22)	18.2	22.7	31.8	18.2	9.1
	무용	(24)	33.3	33.3	16.7	4.2	12.5
	클래식	(17)	41.2	11.8	17.6	23.5	5.9
	국악	(11)	36.4	36.4	9.1	9.1	9.1
	대중음악	(19)	31.6	15.8	15.8	15.8	21.1
	기타	(5)	40.0	20.0	20.0	20.0	0.0
분야	연출·감독	(23)	21.7	21.7	34.8	13.0	8.7
	배우·퍼포머	(61)	23.0	24.6	23.0	19.7	9.8
	작가·극작가·작곡가	(32)	25.0	31.3	25.0	12.5	6.3
	기획·프로듀서	(26)	30.8	19.2	23.1	23.1	3.8
	안무가·무용수	(15)	33.3	33.3	13.3	0.0	20.0
	연주가·성악가·보컬	(22)	22.7	22.7	9.1	22.7	22.7
	기타	(21)	28.6	23.8	9.5	28.6	9.5
주 활동 분야 경력	2년 이하	(36)	33.3	25.0	16.7	16.7	8.3
	3 ~ 5년	(50)	30.0	24.0	20.0	10.0	16.0
	6 ~ 10년	(45)	8.9	31.1	17.8	33.3	8.9
	11 ~ 15년	(31)	35.5	19.4	35.5	3.2	6.5
	16년 이상	(38)	23.7	23.7	18.4	23.7	10.5
성별	남성	(62)	29.0	16.1	25.8	19.4	9.7
	여성	(138)	23.9	29.0	18.8	17.4	10.9
연령대	18~29세	(52)	30.8	26.9	15.4	11.5	15.4
	30~39세	(74)	18.9	24.3	28.4	17.6	10.8
	40~49세	(48)	29.2	25.0	16.7	27.1	2.1
	50세 이상	(26)	26.9	23.1	19.2	15.4	15.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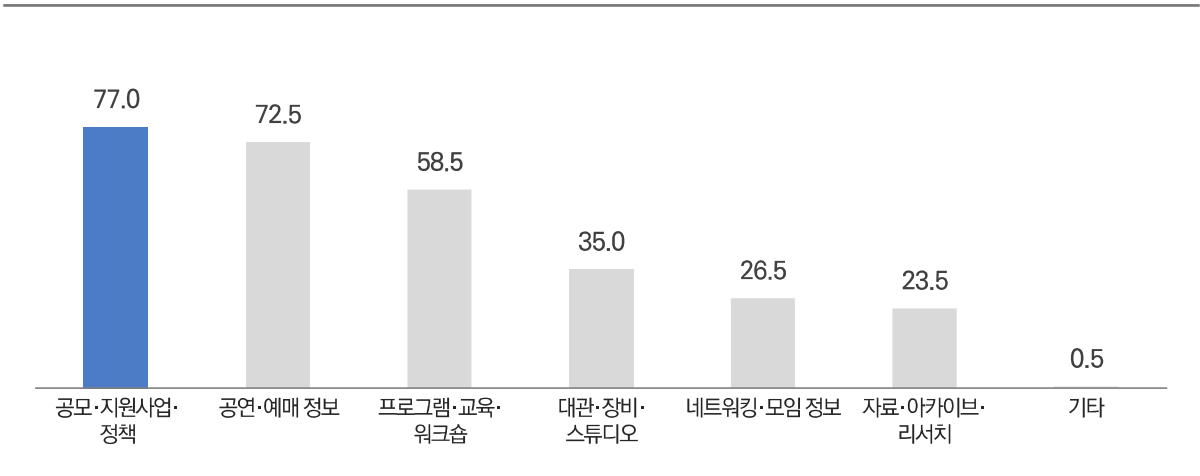
제2절 대학로의 공연예술 정보 접근·교류 환경

1. 공연예술 관련 탐색 정보

- 평소 공연예술과 관련해서 찾아보는 정보로 ‘공모·지원사업·정책’이 77.0%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공연·예매 정보(72.5%)’, ‘프로그램·교육·워크숍(58.5%)’, ‘대관·장비·스튜디오(35.0%)’ 등의 순으로 나타남
- ‘공모·지원사업·정책’을 찾아보는 비율은 주 활동 장르별로 ‘국악(90.9%)’, 분야별로 ‘연출·감독(95.7%)’, 연령별로 ‘30~39세(83.8%)’와 ‘40~49세(81.3%)’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그림 2-6〉 공연예술 관련 탐색 정보

[Base: 전체, 사례수: 200명, 단위: %, 복수응답]



Q. 귀하께서는 평소 공연예술 관련해서 어떤 정보를 찾아보십니까? 해당하는 것을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표 2-6〉 공연예술 관련 탐색 정보

[단위: %, 복수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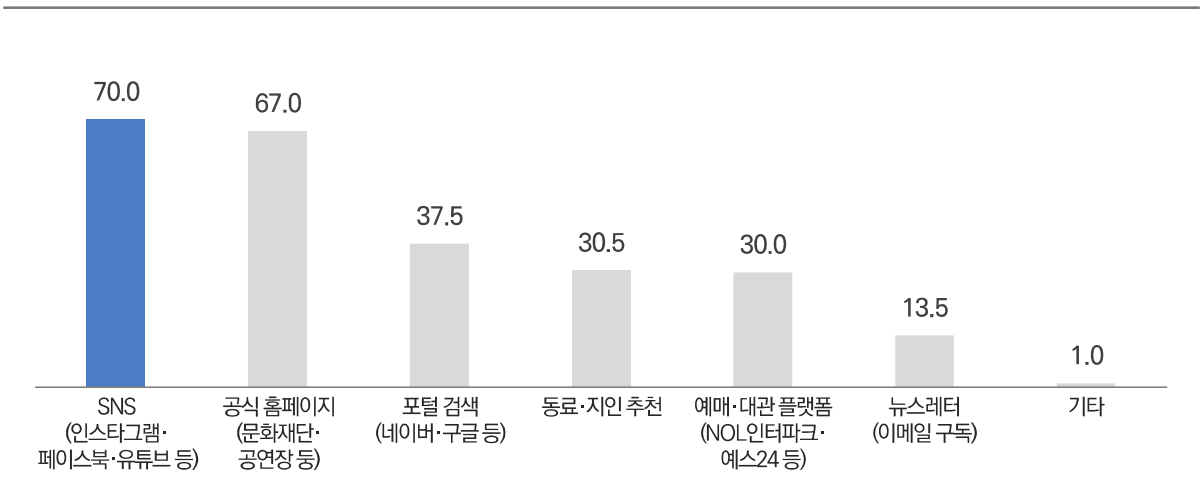
구분		사례수	공모·지원사업·정책	공연·예매 정보	프로그램·교육·워크숍	대관·장비·스튜디오	네트워킹·모임 정보	자료·아카이브·리서치	기타
전체		(200)	77.0	72.5	58.5	35.0	26.5	23.5	0.5
주 활동 장르	연극	(102)	78.4	74.5	58.8	35.3	22.5	27.5	1.0
	뮤지컬	(22)	77.3	81.8	54.5	27.3	18.2	13.6	0.0
	무용	(24)	75.0	58.3	70.8	37.5	25.0	20.8	0.0
	클래식	(17)	76.5	70.6	52.9	41.2	29.4	23.5	0.0
	국악	(11)	90.9	72.7	63.6	18.2	27.3	27.3	0.0
	대중음악	(19)	68.4	73.7	47.4	47.4	42.1	15.8	0.0
	기타	(5)	60.0	60.0	60.0	20.0	80.0	20.0	0.0
분야	연출·감독	(23)	95.7	69.6	73.9	39.1	34.8	21.7	0.0
	배우·퍼포머	(61)	82.0	70.5	59.0	39.3	21.3	21.3	0.0
	작가·극작가·작곡가	(32)	78.1	71.9	46.9	31.3	31.3	25.0	3.1
	기획·프로듀서	(26)	69.2	69.2	57.7	30.8	19.2	26.9	0.0
	안무가·무용수	(15)	73.3	73.3	73.3	26.7	26.7	26.7	0.0
	연주가·성악가·보컬	(22)	68.2	86.4	50.0	40.9	27.3	27.3	0.0
	기타	(21)	61.9	71.4	57.1	28.6	33.3	19.0	0.0
주 활동 분야 경력	2년 이하	(36)	77.8	75.0	66.7	36.1	36.1	33.3	2.8
	3 ~ 5년	(50)	70.0	78.0	66.0	34.0	32.0	18.0	0.0
	6 ~ 10년	(45)	86.7	66.7	55.6	37.8	24.4	26.7	0.0
	11 ~ 15년	(31)	87.1	67.7	51.6	29.0	22.6	16.1	0.0
	16년 이상	(38)	65.8	73.7	50.0	36.8	15.8	23.7	0.0
성별	남성	(62)	79.0	64.5	40.3	41.9	33.9	17.7	0.0
	여성	(138)	76.1	76.1	66.7	31.9	23.2	26.1	0.7
연령대	18~29세	(52)	65.4	86.5	57.7	40.4	30.8	30.8	1.9
	30~39세	(74)	83.8	70.3	67.6	29.7	31.1	20.3	0.0
	40~49세	(48)	81.3	66.7	56.3	41.7	16.7	20.8	0.0
	50세 이상	(26)	73.1	61.5	38.5	26.9	23.1	23.1	0.0

2. 공연예술 관련 정보 습득 채널

- 공연예술 관련 정보를 찾아보는 채널로 ‘SNS(인스타그램·페이스북·유튜브 등)’가 70.0%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공식 홈페이지(67.0%)’, ‘포털 검색(37.5%)’, ‘동료·지인 추천(30.5%)’ 등의 순으로 나타남
- 대부분 응답자 특성에서 ‘SNS’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공연예술 관련 정보를 찾아보는 비율이 높으며, 전반적으로 연령이 낮을수록 ‘SNS’와 ‘공식 홈페이지’, 연령이 높을수록 ‘포털 검색’과 ‘뉴스레터’를 통해 공연예술 관련 정보를 찾아보는 비율이 높아짐

〈그림 2-7〉 공연예술 관련 정보 습득 채널

[Base: 전체, 사례수: 200명, 단위: %, 복수응답]



Q. 공연예술 정보는 주로 어디에서 찾나요? 해당하는 것을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표 2-7〉 공연예술 관련 정보 습득 채널

[단위: %, 복수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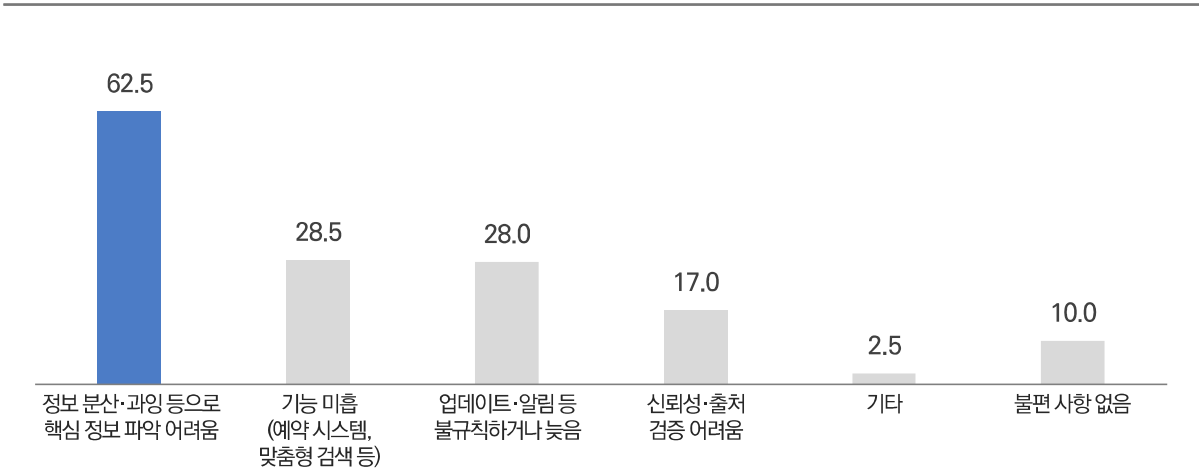
구분		사례수	SNS (인스타 그램· 페이스북· 유튜브 등)	공식 홈페이지 (문화재단· 공연장 등)	포털 검색 (네이버· 구글 등)	동료· 자인 추천	예매· 대관 플랫폼 (NOL 인터파크· 에스24 등)	뉴스레터 (이메일 구독)	기타
전체		(200)	70.0	67.0	37.5	30.5	30.0	13.5	1.0
주 활동 장르	연극	(102)	65.7	62.7	39.2	35.3	36.3	16.7	1.0
	뮤지컬	(22)	68.2	68.2	40.9	31.8	54.5	4.5	0.0
	무용	(24)	79.2	70.8	29.2	33.3	20.8	16.7	4.2
	클래식	(17)	76.5	70.6	23.5	11.8	5.9	0.0	0.0
	국악	(11)	72.7	90.9	45.5	9.1	0.0	36.4	0.0
	대중음악	(19)	78.9	68.4	36.8	21.1	21.1	5.3	0.0
	기타	(5)	60.0	60.0	60.0	60.0	20.0	0.0	0.0
분야	연출·감독	(23)	65.2	69.6	34.8	34.8	21.7	0.0	4.3
	배우·퍼포머	(61)	68.9	60.7	36.1	39.3	34.4	8.2	0.0
	작가·극작가·작곡가	(32)	68.8	75.0	50.0	28.1	34.4	25.0	0.0
	기획·프로듀서	(26)	84.6	65.4	26.9	30.8	46.2	15.4	0.0
	안무가·무용수	(15)	73.3	73.3	33.3	40.0	20.0	13.3	6.7
	연주가·성악가·보컬	(22)	77.3	63.6	36.4	18.2	13.6	9.1	0.0
	기타	(21)	52.4	71.4	42.9	9.5	23.8	28.6	0.0
주 활동 분야 경력	2년 이하	(36)	86.1	66.7	27.8	30.6	41.7	13.9	0.0
	3 ~ 5년	(50)	76.0	66.0	36.0	28.0	28.0	12.0	2.0
	6 ~ 10년	(45)	66.7	71.1	33.3	26.7	26.7	6.7	0.0
	11 ~ 15년	(31)	67.7	71.0	32.3	38.7	29.0	22.6	0.0
	16년 이상	(38)	52.6	60.5	57.9	31.6	26.3	15.8	2.6
성별	남성	(62)	67.7	59.7	40.3	30.6	24.2	14.5	1.6
	여성	(138)	71.0	70.3	36.2	30.4	32.6	13.0	0.7
연령대	18~29세	(52)	88.5	67.3	30.8	32.7	40.4	7.7	0.0
	30~39세	(74)	68.9	67.6	31.1	33.8	24.3	8.1	1.4
	40~49세	(48)	62.5	70.8	45.8	20.8	35.4	20.8	2.1
	50세 이상	(26)	50.0	57.7	53.8	34.6	15.4	26.9	0.0

3. 대학로 내 공연예술 정보 탐색 시 불편 사항

- 대학로의 공연예술 정보 탐색과 관련해서 불편한 사항으로 ‘정보 분산·과잉 등으로 핵심 정보 파악 어려움’이 62.5%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예약 시스템, 맞춤형 검색 등 기능 미흡(28.5%)’, ‘업데이트·알림 등 불규칙하거나 늦음(28.0%)’, ‘신뢰성·출처 검증 어려움(17.0%)’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정보 분산·과잉 등으로 핵심 정보 파악 어려움’은 주 활동 장르별로 ‘대중음악(73.7%)’, 분야별로 ‘작가·극작가·작곡가(71.9%)’와 ‘기타(71.4%)’, 주 활동 분야 경력별로 ‘6~10년(77.8%)’, 성별로 ‘남성(56.5%)’ 대비 ‘여성(65.2%)’, 연령별로 ‘40~49세(66.7%)’에서 응답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그림 2-8〉 대학로 내 공연예술 정보 탐색 시 불편 사항

[Base: 전체, 사례수: 200명, 단위: %, 복수응답]



Q. 대학로의 공연예술 정보 탐색과 관련해서 불편한 사항은 무엇입니까? 해당하는 것을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표 2-8〉 대학로 내 공연예술 정보 탐색 시 불편 사항

[단위: %, 복수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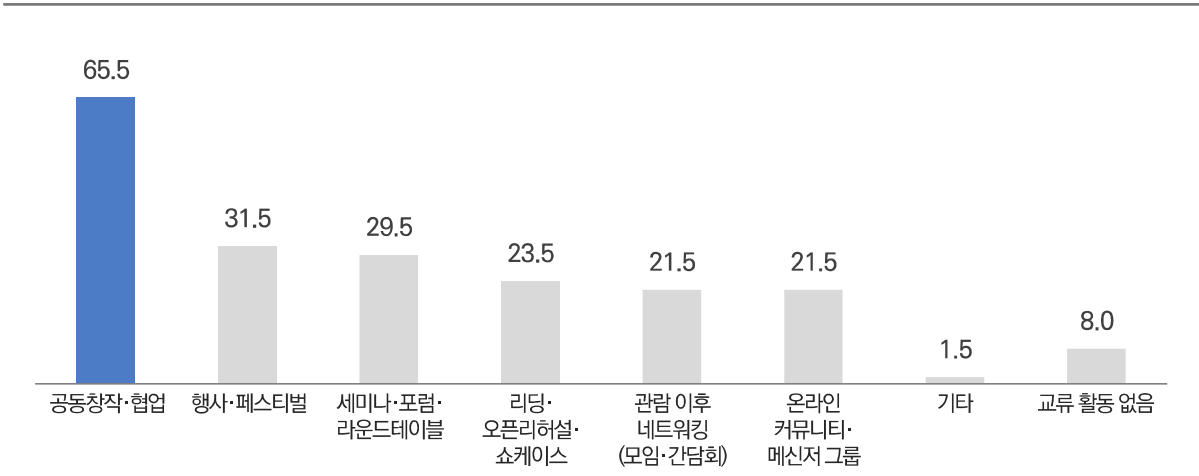
구분		사례수	정보 분산·과잉 등으로 핵심 정보 파악 어려움	기능 미흡 (예약 시스템, 맞춤형 검색 등)	업데이트·알림 등 불규칙하거나 늦음	신뢰성·출처 검증 어려움	기타	불편 사항 없음
전체		(200)	62.5	28.5	28.0	17.0	2.5	10.0
주 활동 장르	연극	(102)	63.7	29.4	26.5	19.6	3.9	8.8
	뮤지컬	(22)	68.2	36.4	27.3	22.7	4.5	0.0
	무용	(24)	54.2	29.2	50.0	8.3	0.0	12.5
	클래식	(17)	47.1	11.8	29.4	23.5	0.0	17.6
	국악	(11)	63.6	36.4	36.4	0.0	0.0	0.0
	대중음악	(19)	73.7	15.8	10.5	10.5	0.0	21.1
	기타	(5)	60.0	60.0	0.0	20.0	0.0	20.0
분야	연출·감독	(23)	52.2	43.5	26.1	17.4	8.7	13.0
	배우·퍼포머	(61)	62.3	29.5	26.2	27.9	1.6	6.6
	작가·극작가·작곡가	(32)	71.9	21.9	21.9	12.5	6.3	12.5
	기획·프로듀서	(26)	65.4	34.6	30.8	11.5	0.0	3.8
	안무가·무용수	(15)	40.0	33.3	46.7	13.3	0.0	20.0
	연주가·성악가·보컬	(22)	63.6	13.6	22.7	4.5	0.0	18.2
	기타	(21)	71.4	23.8	33.3	14.3	0.0	4.8
주 활동 분야 경력	2년 이하	(36)	58.3	22.2	16.7	22.2	0.0	16.7
	3 ~ 5년	(50)	58.0	30.0	38.0	16.0	0.0	10.0
	6 ~ 10년	(45)	77.8	31.1	22.2	15.6	0.0	4.4
	11 ~ 15년	(31)	58.1	35.5	38.7	16.1	6.5	6.5
	16년 이상	(38)	57.9	23.7	23.7	15.8	7.9	13.2
성별	남성	(62)	56.5	30.6	25.8	22.6	3.2	8.1
	여성	(138)	65.2	27.5	29.0	14.5	2.2	10.9
연령대	18~29세	(52)	63.5	21.2	28.8	17.3	0.0	15.4
	30~39세	(74)	62.2	31.1	29.7	17.6	1.4	6.8
	40~49세	(48)	66.7	39.6	25.0	14.6	4.2	4.2
	50세 이상	(26)	53.8	15.4	26.9	19.2	7.7	19.2

4. 다른 예술인(장르)과의 교류 방식

- 다른 예술인 또는 다른 장르와 교류하는 방식으로 ‘공동창작·협업’이 65.5%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행사·페스티벌(31.5%)’, ‘세미나·포럼·라운드테이블(29.5%)’, ‘리딩·오픈리허설·쇼케이스(23.5%)’ 등의 순으로 나타남
 - ‘공동창작·협업’은 주 활동 장르별로 ‘연극(70.6%)’, 분야별로 ‘연출·감독(82.6%)’, 연령별로 ‘40~49세(75.0%)’에서 응답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그림 2-9〉 다른 예술인(장르)과의 교류 방식

[Base: 전체, 사례수: 200명, 단위: %, 복수응답]



Q. 귀하께서는 다른 예술인 또는 다른 장르와 어떤 방식으로 교류하고 있습니까? 해당하는 항목을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표 2-9〉 다른 예술인(장르)과의 교류 방식

[단위: %, 복수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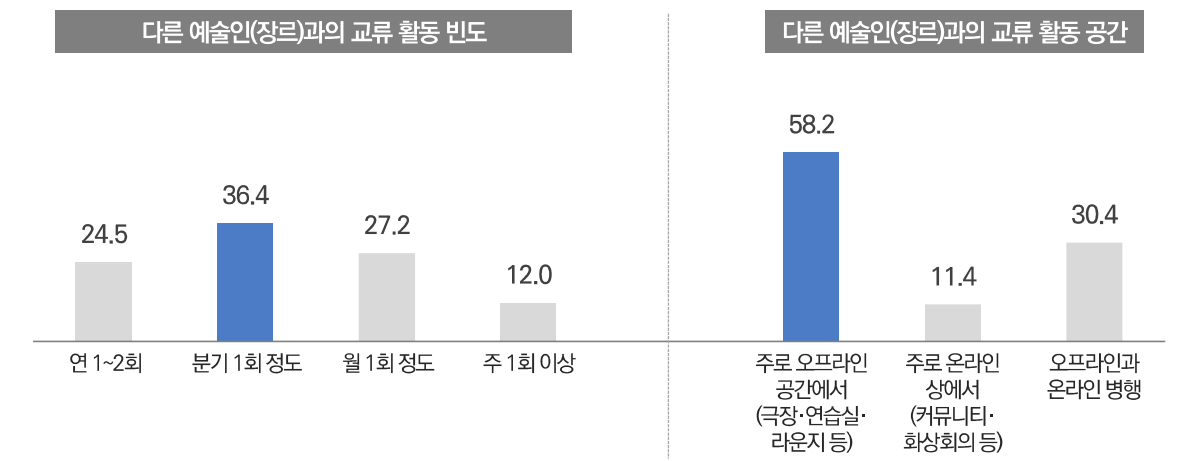
구분		사례수	공동창작·협업	행사·페스티벌	세미나·포럼·라운드 테이블	리딩·오픈 리허설·쇼케이스	관람 이후 네트워킹 (모임·간담회)	온라인 커뮤니티·메신저 그룹	기타	교류 활동 없음
전체		(200)	65.5	31.5	29.5	23.5	21.5	21.5	1.5	8.0
주 활동 장르	연극	(102)	70.6	23.5	29.4	29.4	21.6	13.7	1.0	9.8
	뮤지컬	(22)	59.1	31.8	22.7	36.4	13.6	36.4	4.5	0.0
	무용	(24)	62.5	41.7	20.8	20.8	20.8	20.8	0.0	16.7
	클래식	(17)	47.1	47.1	47.1	11.8	17.6	11.8	0.0	5.9
	국악	(11)	63.6	36.4	45.5	9.1	36.4	27.3	9.1	0.0
	대중음악	(19)	57.9	42.1	31.6	5.3	26.3	52.6	0.0	5.3
	기타	(5)	100.0	40.0	0.0	0.0	20.0	20.0	0.0	0.0
분야	연출·감독	(23)	82.6	30.4	26.1	21.7	17.4	13.0	0.0	4.3
	배우·퍼포머	(61)	67.2	18.0	19.7	26.2	13.1	21.3	0.0	11.5
	작가·극작가·작곡가	(32)	71.9	31.3	34.4	25.0	34.4	21.9	6.3	6.3
	기획·프로듀서	(26)	53.8	42.3	46.2	30.8	23.1	23.1	0.0	0.0
	안무가·무용수	(15)	60.0	46.7	13.3	13.3	6.7	20.0	0.0	26.7
	연주가·성악가·보컬	(22)	59.1	54.5	27.3	13.6	27.3	31.8	4.5	9.1
	기타	(21)	57.1	23.8	47.6	23.8	33.3	19.0	0.0	0.0
주 활동 분야 경력	2년 이하	(36)	55.6	36.1	36.1	25.0	16.7	30.6	0.0	5.6
	3 ~ 5년	(50)	70.0	34.0	22.0	26.0	20.0	20.0	0.0	8.0
	6 ~ 10년	(45)	68.9	26.7	31.1	24.4	24.4	22.2	2.2	8.9
	11 ~ 15년	(31)	58.1	29.0	45.2	19.4	16.1	12.9	3.2	9.7
	16년 이상	(38)	71.1	31.6	18.4	21.1	28.9	21.1	2.6	7.9
성별	남성	(62)	67.7	40.3	24.2	29.0	27.4	25.8	0.0	8.1
	여성	(138)	64.5	27.5	31.9	21.0	18.8	19.6	2.2	8.0
연령대	18~29세	(52)	61.5	40.4	26.9	26.9	13.5	32.7	0.0	7.7
	30~39세	(74)	64.9	28.4	33.8	23.0	16.2	12.2	2.7	12.2
	40~49세	(48)	75.0	27.1	22.9	20.8	25.0	29.2	0.0	6.3
	50세 이상	(26)	57.7	30.8	34.6	23.1	46.2	11.5	3.8	0.0

5. 다른 예술인(장르)과의 교류 빈도 및 공간

- 다른 예술인 또는 다른 장르와 교류하는 빈도는 ‘분기 1회 정도’가 36.4%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월 1회 정도(27.2%)’, ‘연 1~2회(24.5%)’, ‘주 1회 이상(12.0%)’ 순으로 나타남
 - 주 활동 분야별로 ‘연극’은 주 1회 이상 교류하는 비율이 16.3%로 가장 높음
- 다른 예술인 또는 다른 장르와 교류하는 공간으로 ‘주로 오프라인 공간’에서 교류하는 빈도가 58.2%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오프라인과 온라인 병행(30.4%)’, ‘주로 온라인상에서(11.4%)’ 순임
 - ‘주로 오프라인 공간’에서 교류하는 비율은 주 활동 장르별로 ‘연극(66.3%)’, 분야별로 ‘작가·극작가·작곡가(63.3%)’와 ‘배우·퍼포머(63.0%)’, 연령별로 ‘30~39세(64.6%)’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그림 2-10〉 다른 예술인(장르)과의 교류 빈도 및 공간

[Base: 다른 예술인(장르)과 교류 활동을 하는 응답자, 사례수: 184명, 단위: %]



Q. 교류 활동의 빈도는 어떻게 됩니까?

Q. 교류 활동은 주로 어디에서 이루어집니까?

〈표 2-10〉 다른 예술인(장르)과의 교류 빈도 및 공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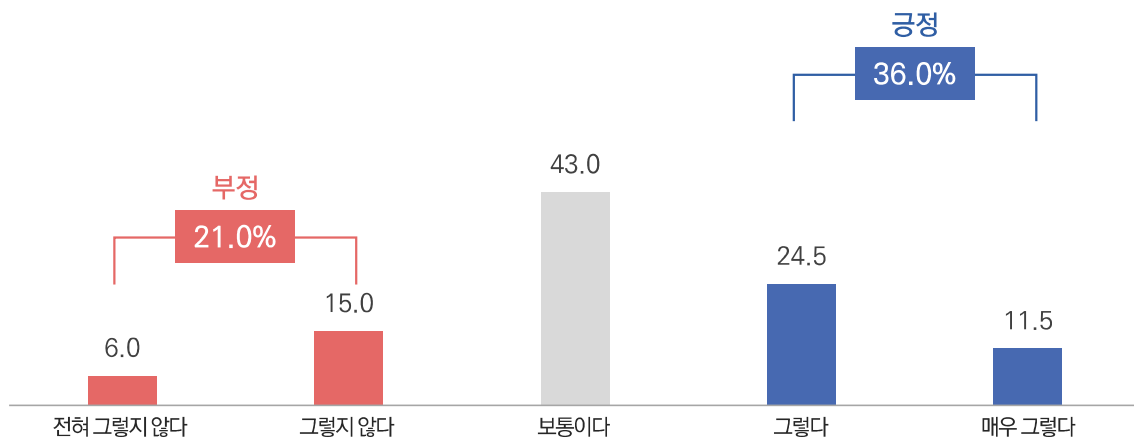
구분		사례수	교류 활동 빈도				교류 활동 공간		
			연 1~2회	분기 1회 정도	월 1회 정도	주 1회 이상	주로 오프라인 공간에서 (극장·연습실·라운지 등)	주로 온라인 상에서 (커뮤니티·화상회의 등)	오프라인과 온라인 병행
전체		(184)	24.5	36.4	27.2	12.0	58.2	11.4	30.4
주 활동 장르	연극	(92)	21.7	31.5	30.4	16.3	66.3	13.0	20.7
	뮤지컬	(22)	31.8	31.8	27.3	9.1	50.0	18.2	31.8
	무용	(20)	25.0	35.0	25.0	15.0	50.0	5.0	45.0
	클래식	(16)	37.5	43.8	18.8	0.0	50.0	12.5	37.5
	국악	(11)	36.4	45.5	18.2	0.0	54.5	0.0	45.5
	대중음악	(18)	11.1	50.0	27.8	11.1	50.0	11.1	38.9
	기타	(5)	20.0	60.0	20.0	0.0	40.0	0.0	60.0
분야	연출·감독	(22)	27.3	50.0	13.6	9.1	59.1	13.6	27.3
	배우·퍼포머	(54)	20.4	27.8	35.2	16.7	63.0	11.1	25.9
	작가·극작가·작곡가	(30)	30.0	20.0	33.3	16.7	63.3	10.0	26.7
	기획·프로듀서	(26)	23.1	50.0	19.2	7.7	53.8	15.4	30.8
	안무가·무용수	(11)	27.3	45.5	18.2	9.1	36.4	9.1	54.5
	연주가·성악가·보컬	(20)	30.0	40.0	20.0	10.0	60.0	10.0	30.0
	기타	(21)	19.0	42.9	33.3	4.8	52.4	9.5	38.1
주 활동 분야 경력	2년 이하	(34)	26.5	32.4	26.5	14.7	55.9	17.6	26.5
	3 ~ 5년	(46)	30.4	26.1	28.3	15.2	52.2	13.0	34.8
	6 ~ 10년	(41)	17.1	41.5	34.1	7.3	63.4	2.4	34.1
	11 ~ 15년	(28)	14.3	50.0	21.4	14.3	67.9	10.7	21.4
	16년 이상	(35)	31.4	37.1	22.9	8.6	54.3	14.3	31.4
성별	남성	(57)	28.1	33.3	24.6	14.0	56.1	12.3	31.6
	여성	(127)	22.8	37.8	28.3	11.0	59.1	11.0	29.9
연령대	18~29세	(48)	29.2	29.2	27.1	14.6	52.1	16.7	31.3
	30~39세	(65)	24.6	40.0	24.6	10.8	64.6	7.7	27.7
	40~49세	(45)	20.0	44.4	24.4	11.1	60.0	8.9	31.1
	50세 이상	(26)	23.1	26.9	38.5	11.5	50.0	15.4	34.6

6. 예술인 간 교류 활동을 위한 대학로 환경 충분성

- 대학로가 예술인 간 교류·네트워크 등이 충분히 잘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인지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36.0%가 긍정적으로 응답함
 - ‘긍정’ 비율은 주 활동 장르별로 ‘클래식(58.8%)’, 분야별로 ‘안무가·무용수(53.3%)’와 ‘기타(52.4%)’, 주 활동 분야 경력별로 ‘16년 이상(47.4%)’, 연령별로 ‘40~49세(47.9%)’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 반면, 대학로가 예술인 간 교류·네트워크 등이 충분히 잘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이 아니라고 응답한 비율(부정 응답)은 21.0%로 나타남

〈그림 2-11〉 예술인 간 교류 활동을 위한 대학로 환경 충분성

[Base: 전체, 사례수: 200명, 단위: %]



Q. 귀하께서는 대학로가 예술인 간 교류·네트워크 등이 충분히 잘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교류 기회, 연결 채널, 교류 공간/라운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응답해 주십시오.

〈표 2-11〉 예술인 간 교류 활동을 위한 대학로 환경 충분성

[단위: %]

구분		사례수	부정 (①+②)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긍정 (④+⑤)
				①	②				
전체		(200)	21.0	6.0	15.0	43.0	24.5	11.5	36.0
주 활동 장르	연극	(102)	27.5	8.8	18.6	44.1	18.6	9.8	28.4
	뮤지컬	(22)	22.7	9.1	13.6	40.9	27.3	9.1	36.4
	무용	(24)	12.5	4.2	8.3	45.8	33.3	8.3	41.7
	클래식	(17)	11.8	0.0	11.8	29.4	41.2	17.6	58.8
	국악	(11)	0.0	0.0	0.0	54.5	45.5	0.0	45.5
	대중음악	(19)	15.8	0.0	15.8	42.1	10.5	31.6	42.1
	기타	(5)	20.0	0.0	20.0	40.0	40.0	0.0	40.0
분야	연출·감독	(23)	26.1	13.0	13.0	47.8	17.4	8.7	26.1
	배우·퍼포머	(61)	23.0	9.8	13.1	47.5	18.0	11.5	29.5
	작가·극작가·작곡가	(32)	34.4	3.1	31.3	25.0	25.0	15.6	40.6
	기획·프로듀서	(26)	15.4	7.7	7.7	53.8	30.8	0.0	30.8
	안무가·무용수	(15)	6.7	0.0	6.7	40.0	40.0	13.3	53.3
	연주가·성악가·보컬	(22)	9.1	0.0	9.1	54.5	9.1	27.3	36.4
	기타	(21)	19.0	0.0	19.0	28.6	47.6	4.8	52.4
주 활동 분야 경력	2년 이하	(36)	16.7	2.8	13.9	41.7	33.3	8.3	41.7
	3 ~ 5년	(50)	18.0	8.0	10.0	48.0	28.0	6.0	34.0
	6 ~ 10년	(45)	31.1	11.1	20.0	40.0	20.0	8.9	28.9
	11 ~ 15년	(31)	16.1	3.2	12.9	54.8	22.6	6.5	29.0
	16년 이상	(38)	21.1	2.6	18.4	31.6	18.4	28.9	47.4
성별	남성	(62)	17.7	4.8	12.9	46.8	17.7	17.7	35.5
	여성	(138)	22.5	6.5	15.9	41.3	27.5	8.7	36.2
연령대	18~29세	(52)	17.3	7.7	9.6	50.0	23.1	9.6	32.7
	30~39세	(74)	23.0	5.4	17.6	43.2	27.0	6.8	33.8
	40~49세	(48)	14.6	6.3	8.3	37.5	29.2	18.8	47.9
	50세 이상	(26)	34.6	3.8	30.8	38.5	11.5	15.4	26.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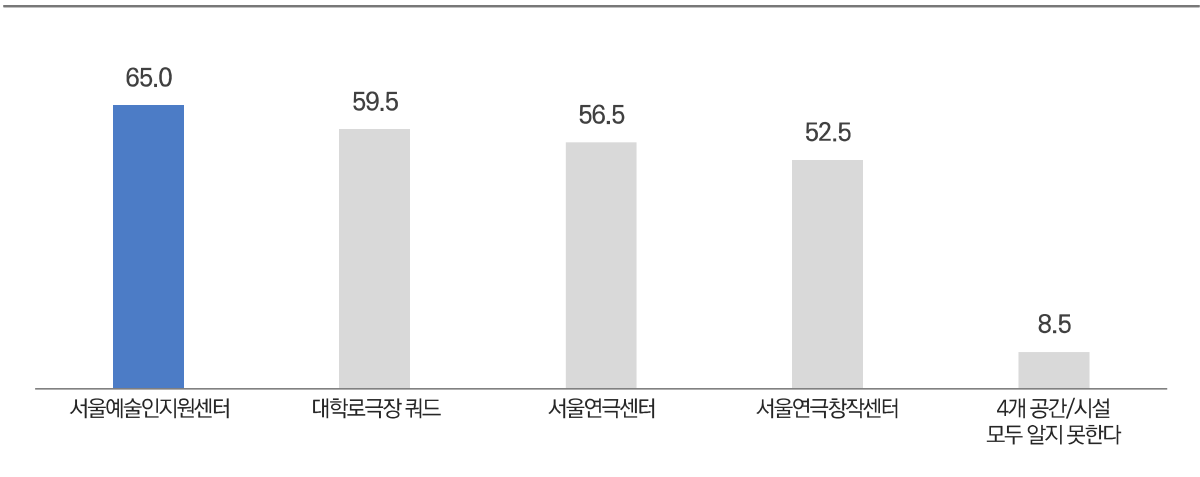
제3절 서울문화재단 운영공간 인식·이용 경험

1. 서울문화재단 운영 공간/시설 인지도

- 대학로 일대에서 서울문화재단이 운영하는 공간/시설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91.5%가 인지하고 있으며, 이중 ‘서울예술인지원센터’를 인지하는 비율이 65.0%로 가장 높음
 - 주 활동 장르별로 ‘연극’ 분야 종사자는 서울문화재단이 운영하는 4개 공간/시설을 인지하는 비율이 60% 이상임
- 이외에 ‘대학로극장 퀴드(59.5%)’, ‘서울연극센터(56.5%)’, ‘서울연극창작센터(52.5%)’에 대한 인지 비율도 50% 이상을 보임

〈그림 2-12〉 서울문화재단 운영 공간/시설 인지도

[Base: 전체, 사례수: 200명, 단위: %, 복수응답]



Q. 귀하께서는 대학로 일대에서 서울문화재단이 운영하는 다음의 공간/시설을 알고 있습니까? 알고 있는 공간/시설을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표 2-12〉 서울문화재단 운영 공간/시설 인지도

[단위: %, 복수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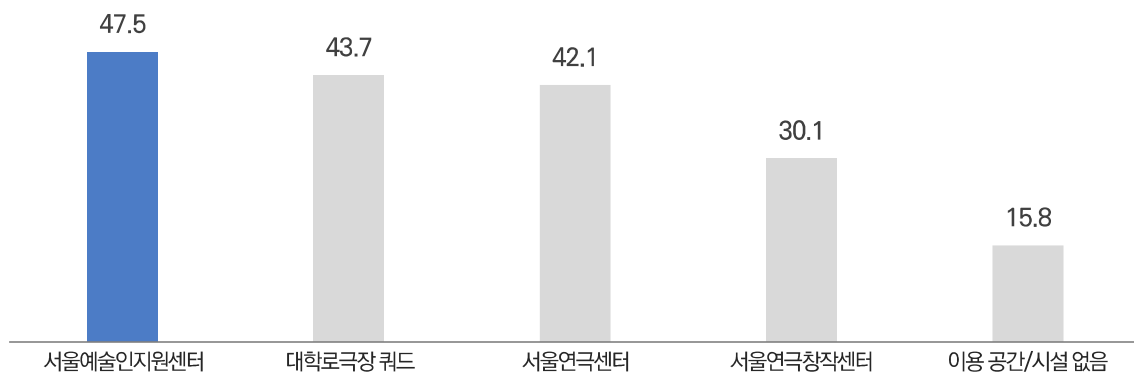
구분		사례수	서울예술인 자원센터	대학로극장 쿼드	서울연극센터	서울연극 창작센터	4개 공간/시설 모두 알지 못한다
전체		(200)	65.0	59.5	56.5	52.5	8.5
주 활동 장르	연극	(102)	62.7	65.7	72.5	69.6	6.9
	뮤지컬	(22)	40.9	59.1	72.7	45.5	9.1
	무용	(24)	75.0	62.5	41.7	45.8	8.3
	클래식	(17)	70.6	41.2	23.5	35.3	11.8
	국악	(11)	63.6	63.6	45.5	18.2	9.1
	대중음악	(19)	78.9	36.8	10.5	10.5	15.8
	기타	(5)	100.0	60.0	40.0	60.0	0.0
분야	연출·감독	(23)	69.6	78.3	69.6	73.9	4.3
	배우·퍼포머	(61)	63.9	67.2	78.7	72.1	4.9
	작가·극작가·작곡가	(32)	65.6	46.9	53.1	53.1	18.8
	기획·프로듀서	(26)	61.5	61.5	38.5	42.3	7.7
	안무가·무용수	(15)	73.3	73.3	33.3	33.3	0.0
	연주가·성악가·보컬	(22)	68.2	36.4	18.2	4.5	18.2
	기타	(21)	57.1	47.6	61.9	47.6	4.8
주 활동 분야 경력	2년 이하	(36)	61.1	61.1	61.1	58.3	8.3
	3 ~ 5년	(50)	68.0	62.0	52.0	54.0	8.0
	6 ~ 10년	(45)	71.1	57.8	55.6	46.7	8.9
	11 ~ 15년	(31)	61.3	54.8	58.1	51.6	6.5
	16년 이상	(38)	60.5	60.5	57.9	52.6	10.5
성별	남성	(62)	54.8	53.2	48.4	48.4	12.9
	여성	(138)	69.6	62.3	60.1	54.3	6.5
연령대	18~29세	(52)	61.5	59.6	48.1	51.9	11.5
	30~39세	(74)	66.2	63.5	56.8	52.7	4.1
	40~49세	(48)	64.6	56.3	60.4	52.1	10.4
	50세 이상	(26)	69.2	53.8	65.4	53.8	11.5

2. 서울문화재단 운영 공간/시설 이용 현황

- 서울문화재단 운영 공간/시설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이용 여부를 조사한 결과, ‘서울예술인지원센터’를 이용한 비율이 47.5%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주 활동 장르별로 ‘연극’ 분야 종사자는 서울문화재단이 운영하는 4개 공간/시설을 이용한 비율이 40% 이상임
- 이외에 ‘대학로극장 쿼드’(43.7%)와 ‘서울연극센터’(42.1%) 이용 비율이 40% 이상을 보임

〈그림 2-13〉 서울문화재단 운영 공간/시설 이용 현황

[Base: 서울문화재단 운영 공간/시설 인지자, 사례수: 183명, 단위: %, 복수응답]



Q. 이중 귀하께서 이용한 공간/시설은 무엇입니까?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표 2-13〉 서울문화재단 운영 공간/시설 이용 현황

[단위: %, 복수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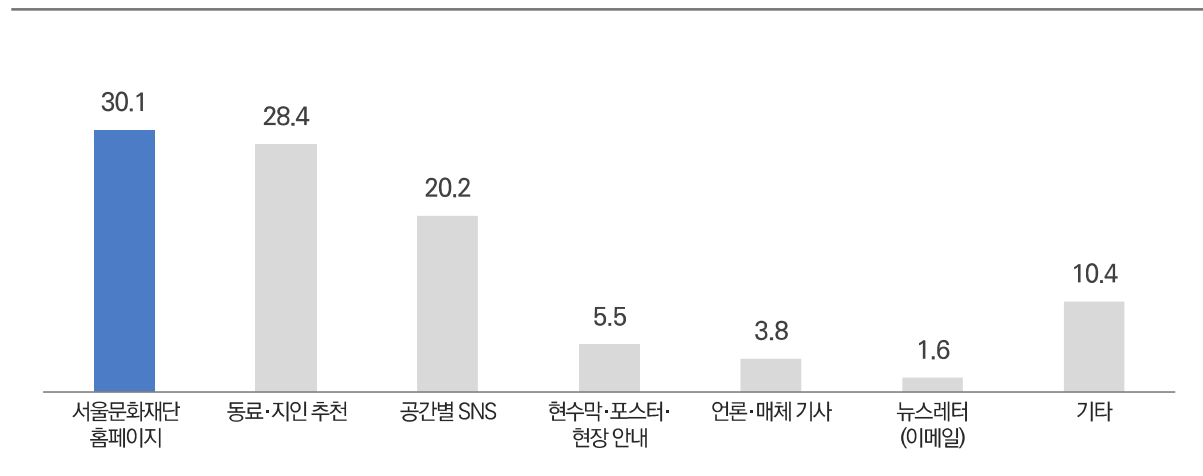
구분		사례수	서울예술인 자원센터	대학로극장 쿼드	서울연극센터	서울연극 창작센터	이용 공간/시설 없음
전체		(183)	47.5	43.7	42.1	30.1	15.8
주 활동 장르	연극	(95)	43.2	55.8	58.9	45.3	11.6
	뮤지컬	(20)	25.0	35.0	55.0	20.0	15.0
	무용	(22)	68.2	45.5	27.3	22.7	9.1
	클래식	(15)	53.3	20.0	6.7	13.3	26.7
	국악	(10)	40.0	40.0	20.0	10.0	40.0
	대중음악	(16)	75.0	18.8	0.0	0.0	18.8
	기타	(5)	40.0	0.0	20.0	0.0	40.0
분야	연출·감독	(22)	50.0	40.9	54.5	31.8	4.5
	배우·퍼포머	(58)	44.8	51.7	60.3	41.4	13.8
	작가·극작가·작곡가	(26)	57.7	50.0	46.2	38.5	19.2
	기획·프로듀서	(24)	29.2	41.7	25.0	25.0	25.0
	안무가·무용수	(15)	60.0	53.3	20.0	13.3	13.3
	연주가·성악가·보컬	(18)	61.1	33.3	0.0	0.0	22.2
	기타	(20)	40.0	20.0	45.0	30.0	15.0
주 활동 분야 경력	2년 이하	(33)	45.5	30.3	39.4	33.3	21.2
	3 ~ 5년	(46)	56.5	50.0	41.3	32.6	8.7
	6 ~ 10년	(41)	51.2	41.5	36.6	14.6	19.5
	11 ~ 15년	(29)	48.3	51.7	51.7	37.9	10.3
	16년 이상	(34)	32.4	44.1	44.1	35.3	20.6
성별	남성	(54)	42.6	37.0	40.7	27.8	22.2
	여성	(129)	49.6	46.5	42.6	31.0	13.2
연령대	18~29세	(46)	45.7	43.5	32.6	30.4	23.9
	30~39세	(71)	53.5	46.5	43.7	28.2	9.9
	40~49세	(43)	39.5	44.2	48.8	30.2	18.6
	50세 이상	(23)	47.8	34.8	43.5	34.8	13.0

3. 서울문화재단 운영 공간/시설 인지 경로

- 서울문화재단 운영 공간/시설을 인지한 경로로 '서울문화재단 홈페이지'가 30.1%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동료·지인 추천(28.4%)', '공간별 SNS(20.2%)', '현수막·포스터·현장 안내(5.5%)'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전반적으로 연령이 낮을수록 '공간별 SNS', 연령이 높을수록 '서울문화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인지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그림 2-14〉 서울문화재단 운영 공간/시설 인지 경로

[Base: 서울문화재단 운영 공간/시설 인지자, 사례수: 183명, 단위: %]



Q. 해당 공간/시설은 처음 어떻게 알게 되셨습니까?

〈표 2-14〉 서울문화재단 운영 공간/시설 인지 경로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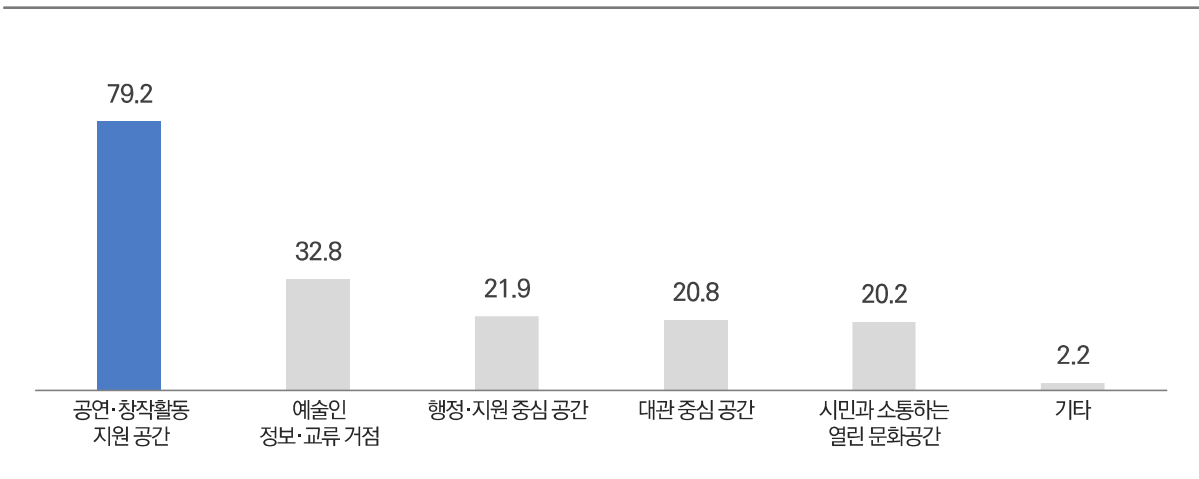
구분		사례수	서울 문화재단 홈페이지	동료· 지인 추천	공간별 SNS	현수막· 포스터· 현장 안내	언론· 매체 기사	뉴스레터 (이메일)	기타
전체		(183)	30.1	28.4	20.2	5.5	3.8	1.6	10.4
주 활동 장르	연극	(95)	26.3	35.8	17.9	7.4	3.2	2.1	7.4
	뮤지컬	(20)	35.0	15.0	30.0	5.0	0.0	0.0	15.0
	무용	(22)	18.2	27.3	31.8	4.5	0.0	0.0	18.2
	클래식	(15)	40.0	20.0	13.3	0.0	6.7	0.0	20.0
	국악	(10)	50.0	10.0	0.0	10.0	20.0	0.0	10.0
	대중음악	(16)	37.5	18.8	31.3	0.0	0.0	6.3	6.3
	기타	(5)	40.0	40.0	0.0	0.0	20.0	0.0	0.0
분야	연출·감독	(22)	31.8	40.9	18.2	0.0	4.5	0.0	4.5
	배우·퍼포머	(58)	24.1	34.5	22.4	8.6	1.7	1.7	6.9
	작가·극작가·작곡가	(26)	30.8	30.8	15.4	3.8	7.7	0.0	11.5
	기획·프로듀서	(24)	29.2	25.0	20.8	8.3	4.2	0.0	12.5
	안무가·무용수	(15)	13.3	26.7	33.3	6.7	0.0	0.0	20.0
	연주가·성악가·보컬	(18)	38.9	11.1	16.7	5.6	11.1	5.6	11.1
	기타	(20)	50.0	15.0	15.0	0.0	0.0	5.0	15.0
주 활동 분야 경력	2년 이하	(33)	24.2	30.3	24.2	3.0	0.0	0.0	18.2
	3 ~ 5년	(46)	37.0	23.9	32.6	2.2	2.2	0.0	2.2
	6 ~ 10년	(41)	26.8	26.8	14.6	9.8	4.9	2.4	14.6
	11 ~ 15년	(29)	37.9	24.1	24.1	0.0	0.0	3.4	10.3
	16년 이상	(34)	23.5	38.2	2.9	11.8	11.8	2.9	8.8
성별	남성	(54)	31.5	33.3	16.7	5.6	1.9	0.0	11.1
	여성	(129)	29.5	26.4	21.7	5.4	4.7	2.3	10.1
연령대	18~29세	(46)	15.2	28.3	41.3	6.5	0.0	0.0	8.7
	30~39세	(71)	33.8	25.4	15.5	4.2	4.2	1.4	15.5
	40~49세	(43)	39.5	32.6	11.6	4.7	4.7	2.3	4.7
	50세 이상	(23)	30.4	30.4	8.7	8.7	8.7	4.3	8.7

4. 서울문화재단 운영 공간/시설 이미지

- 서울문화재단 운영 공간/시설에 대한 이미지로 ‘공연·창작활동 지원 공간’이 79.2%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예술인 정보·교류 거점(32.8%)’, ‘행정·지원 중심 공간(21.9%)’, ‘대관 중심 공간(20.8%)’, ‘대관 중심 공간(20.8%)’ 등의 순으로 나타남
 - ‘공연·창작활동 지원 공간’이라는 이미지는 주 활동 장르별로 ‘대중음악(87.5%)’, 분야별로 ‘연출·감독(90.9%)’, 주 활동 분야 경력별로 ‘16년 이상(91.2%)’, 성별로 ‘남성(74.1%)’ 대비 ‘여성(81.4%)’, 연령별로 ‘40~49세(86.0%)’에서 응답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그림 2-15〉 서울문화재단 운영 공간/시설 이미지

[Base: 서울문화재단 운영 공간/시설 인지자, 사례수: 183명, 단위: %, 복수응답]



Q. 대학로 일대 서울문화재단 운영공간에 대해 떠오르는 이미지를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표 2-15〉 서울문화재단 운영 공간/시설 이미지

[단위: %, 복수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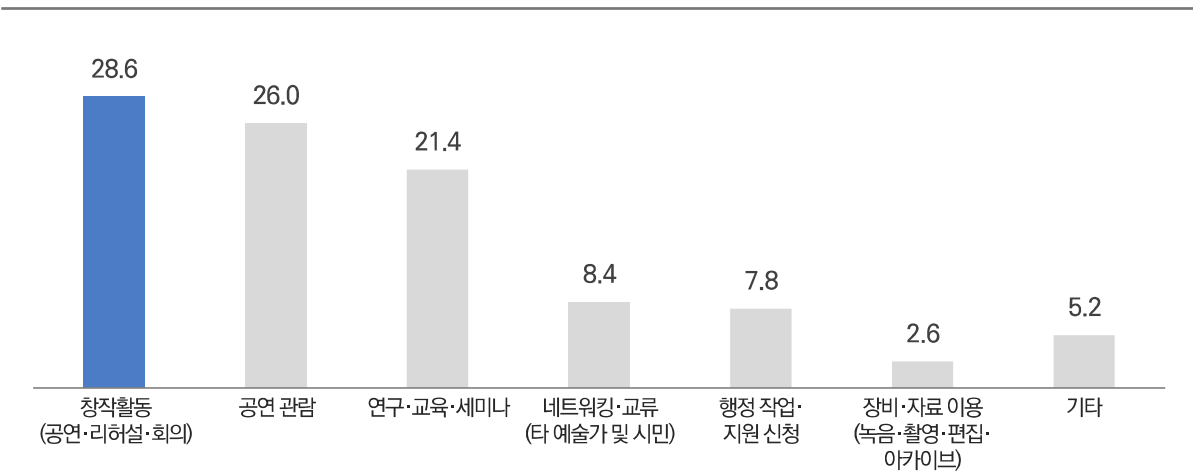
구분		사례수	공연·창작활동 자원 공간	예술인 정보·교류 거점	행정·지원 중심 공간	대관 중심 공간	시민과 소통하는 열린 문화공간	기타
전체		(183)	79.2	32.8	21.9	20.8	20.2	2.2
주 활동 장르	연극	(95)	80.0	29.5	22.1	28.4	20.0	2.1
	뮤지컬	(20)	80.0	25.0	30.0	25.0	20.0	0.0
	무용	(22)	81.8	36.4	22.7	13.6	18.2	4.5
	클래식	(15)	66.7	26.7	20.0	13.3	20.0	6.7
	국악	(10)	80.0	50.0	20.0	10.0	20.0	0.0
	대중음악	(16)	87.5	43.8	6.3	0.0	31.3	0.0
	기타	(5)	60.0	60.0	40.0	0.0	0.0	0.0
분야	연출·감독	(22)	90.9	40.9	18.2	31.8	22.7	4.5
	배우·퍼포머	(58)	84.5	24.1	25.9	22.4	19.0	0.0
	작가·극작가·작곡가	(26)	65.4	34.6	30.8	26.9	23.1	3.8
	기획·프로듀서	(24)	70.8	33.3	16.7	20.8	16.7	0.0
	안무가·무용수	(15)	80.0	40.0	20.0	13.3	13.3	6.7
	연주가·성악가·보컬	(18)	83.3	44.4	16.7	5.6	33.3	0.0
	기타	(20)	75.0	30.0	15.0	15.0	15.0	5.0
주 활동 분야 경력	2년 이하	(33)	69.7	36.4	21.2	21.2	27.3	0.0
	3 ~ 5년	(46)	87.0	39.1	17.4	28.3	13.0	4.3
	6 ~ 10년	(41)	78.0	24.4	22.0	14.6	17.1	2.4
	11 ~ 15년	(29)	65.5	31.0	27.6	20.7	24.1	3.4
	16년 이상	(34)	91.2	32.4	23.5	17.6	23.5	0.0
성별	남성	(54)	74.1	24.1	29.6	22.2	22.2	3.7
	여성	(129)	81.4	36.4	18.6	20.2	19.4	1.6
연령대	18~29세	(46)	82.6	47.8	15.2	26.1	19.6	0.0
	30~39세	(71)	73.2	21.1	29.6	21.1	18.3	4.2
	40~49세	(43)	86.0	30.2	18.6	14.0	23.3	0.0
	50세 이상	(23)	78.3	43.5	17.4	21.7	21.7	4.3

5. 서울문화재단 운영 공간/시설 이용 목적

- 서울문화재단 운영 공간/시설을 이용한 응답자를 대상으로 이용 목적을 조사한 결과, ‘창작활동(공연·리허설·회의)’이 28.6%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공연 관람(26.0%)’, ‘연구·교육·세미나(21.4%)’, ‘네트워킹·교류(타 예술가 및 시민)(8.4%)’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창작활동(공연·리허설·회의)’을 목적으로 방문한 비율은 주 활동 장르별로 ‘연극(40.5%)’, 연령별로 ‘18~29세(31.4%)’와 ‘40~49세(31.4%)’, 최근 이용 공간/시설별로 ‘서울연극센터(43.6%)’ 이용자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그림 2-16〉 서울문화재단 운영 공간/시설 이용 목적

[Base: 서울문화재단 운영 공간/시설 이용자, 사례수: 154명, 단위: %]



Q. 귀하께서 최근에 이용한 (공간/시설)은/는 어떤 목적으로 이용하셨습니다까?

〈표 2-16〉 서울문화재단 운영 공간/시설 이용 목적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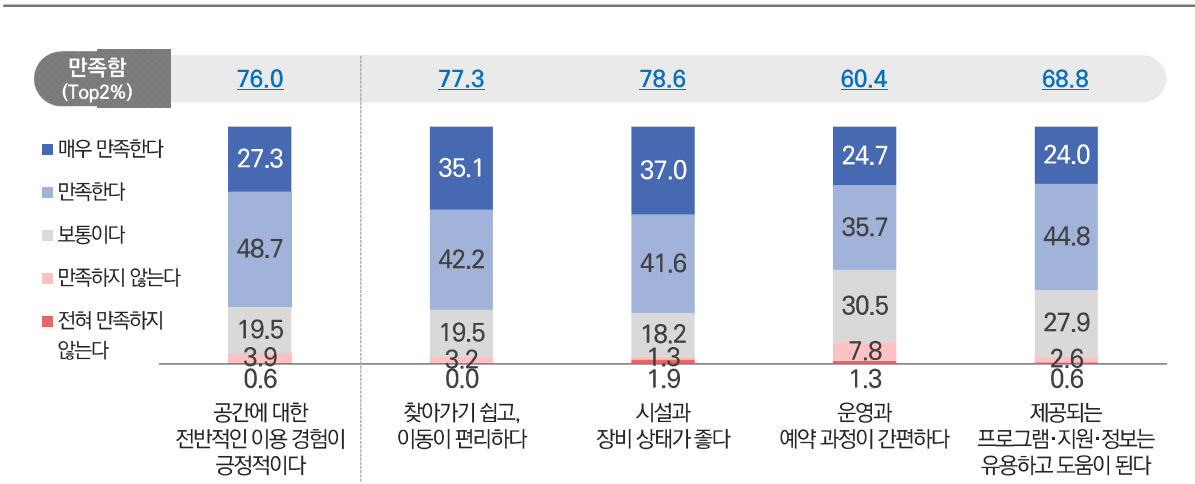
구분		사례수	창작활동 (공연· 리하설· 회의)	공연 관람	연구·교육· 세미나	네트워킹· 교류 (타 예술가 및 시민)	행정 작업· 지원 신청	장비· 자료 이용 (녹음·촬영· 편집· 아카이브)	기타
전체		(154)	28.6	26.0	21.4	8.4	7.8	2.6	5.2
주 활동 장르	연극	(84)	40.5	26.2	14.3	9.5	4.8	2.4	2.4
	뮤지컬	(17)	11.8	29.4	29.4	11.8	0.0	5.9	11.8
	무용	(20)	20.0	35.0	20.0	5.0	5.0	5.0	10.0
	클래식	(11)	9.1	27.3	18.2	9.1	18.2	0.0	18.2
	국악	(6)	16.7	33.3	33.3	0.0	16.7	0.0	0.0
	대중음악	(13)	15.4	0.0	53.8	0.0	30.8	0.0	0.0
	기타	(3)	0.0	33.3	33.3	33.3	0.0	0.0	0.0
분야	연출·감독	(21)	33.3	28.6	28.6	9.5	0.0	0.0	0.0
	배우·퍼포머	(50)	34.0	20.0	18.0	14.0	4.0	4.0	6.0
	작가·극작가·작곡가	(21)	23.8	33.3	19.0	4.8	9.5	4.8	4.8
	기획·프로듀서	(18)	33.3	27.8	16.7	5.6	5.6	5.6	5.6
	안무가·무용수	(13)	23.1	38.5	23.1	0.0	0.0	0.0	15.4
	연주가·성악가·보컬	(14)	14.3	7.1	35.7	7.1	35.7	0.0	0.0
	기타	(17)	23.5	35.3	17.6	5.9	11.8	0.0	5.9
주 활동 분야 경력	2년 이하	(26)	34.6	11.5	30.8	11.5	0.0	7.7	3.8
	3 ~ 5년	(42)	19.0	33.3	23.8	4.8	9.5	2.4	7.1
	6 ~ 10년	(33)	30.3	21.2	18.2	9.1	12.1	3.0	6.1
	11 ~ 15년	(26)	38.5	19.2	23.1	3.8	11.5	0.0	3.8
	16년 이상	(27)	25.9	40.7	11.1	14.8	3.7	0.0	3.7
성별	남성	(42)	33.3	26.2	16.7	11.9	9.5	0.0	2.4
	여성	(112)	26.8	25.9	23.2	7.1	7.1	3.6	6.3
연령대	18~29세	(35)	31.4	20.0	28.6	0.0	8.6	8.6	2.9
	30~39세	(64)	28.1	23.4	18.8	7.8	12.5	1.6	7.8
	40~49세	(35)	31.4	31.4	20.0	11.4	2.9	0.0	2.9
	50세 이상	(20)	20.0	35.0	20.0	20.0	0.0	0.0	5.0
최근 이용 공간/시설	서울예술인지원센터	(56)	17.9	10.7	32.1	14.3	16.1	0.0	8.9
	대학로극장 쿼드	(32)	25.0	56.3	9.4	0.0	3.1	3.1	3.1
	서울연극센터	(39)	43.6	17.9	20.5	7.7	5.1	2.6	2.6
	서울연극창작센터	(27)	33.3	33.3	14.8	7.4	0.0	7.4	3.7

6. 서울문화재단 운영 공간/시설 만족도

- 서울문화재단 운영 공간/시설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공간에 대한 전반적인 이용 경험이 긍정적이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76.0%로 나타남
 - ‘공간에 대한 전반적인 이용 경험이 긍정적이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최근 이용 공간/시설별로 ‘대학교극장 쿼드(71.9%)’ 이용자에서 상대적으로 낮음
- 세부 항목별로 ‘시설과 장비 상태가 좋다(78.6%)’와 ‘찾아가기 쉽고, 이동이 편리하다(77.3%)’에 대해서는 75% 이상이 만족하고 있으나, ‘운영과 예약 과정이 간편하다’에 대해 만족한 비율은 60.4%로 상대적으로 낮음

〈그림 2-17〉 서울문화재단 운영 공간/시설 만족도

[Base: 서울문화재단 운영 공간/시설 이용자, 사례수: 154명, 단위: %]



Q. 귀하께서 이용한 (공간/시설)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각 항목에 대해 만족 정도를 선택해 주십시오.

〈표 2-17〉 서울문화재단 운영 공간/시설 만족도

[단위: Top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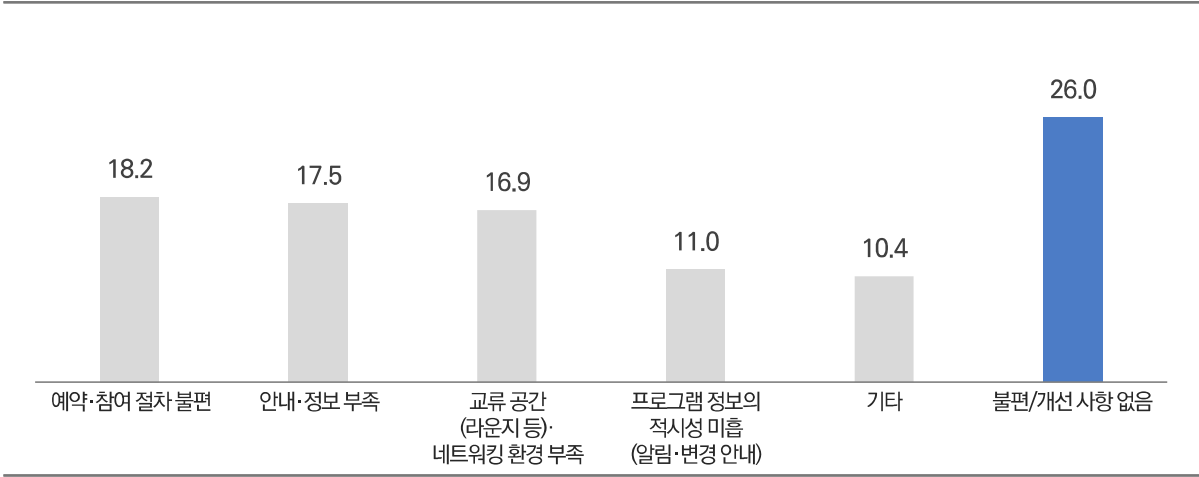
구분		사례수	공간에 대한 전반적인 이용 경험이 긍정적이다	찾아가기 쉽고 이동이 편리하다	시설과 장비 상태가 좋다	운영과 예약 과정이 간편하다	제공되는 프로그램·지원·정보는 유용하고 도움이 된다
전체		(154)	76.0	77.3	78.6	60.4	68.8
주 활동 장르	연극	(84)	83.3	85.7	82.1	59.5	69.0
	뮤지컬	(17)	64.7	70.6	70.6	41.2	64.7
	무용	(20)	70.0	70.0	80.0	75.0	75.0
	클래식	(11)	45.5	36.4	63.6	54.5	45.5
	국악	(6)	83.3	100.0	83.3	66.7	83.3
	대중음악	(13)	69.2	69.2	76.9	69.2	69.2
	기타	(3)	100.0	66.7	66.7	66.7	100.0
분야	연출·감독	(21)	90.5	85.7	90.5	57.1	76.2
	배우·퍼포머	(50)	80.0	84.0	84.0	54.0	72.0
	작가·극작가·작곡가	(21)	76.2	76.2	76.2	61.9	57.1
	기획·프로듀서	(18)	77.8	72.2	77.8	66.7	61.1
	안무가·무용수	(13)	76.9	69.2	84.6	76.9	84.6
	연주가·성악가·보컬	(14)	50.0	57.1	71.4	57.1	57.1
	기타	(17)	64.7	76.5	52.9	64.7	70.6
주 활동 분야 경력	2년 이하	(26)	84.6	69.2	69.2	57.7	73.1
	3 ~ 5년	(42)	78.6	81.0	83.3	66.7	71.4
	6 ~ 10년	(33)	72.7	78.8	75.8	45.5	63.6
	11 ~ 15년	(26)	69.2	76.9	73.1	53.8	57.7
	16년 이상	(27)	74.1	77.8	88.9	77.8	77.8
성별	남성	(42)	73.8	78.6	81.0	59.5	71.4
	여성	(112)	76.8	76.8	77.7	60.7	67.9
연령대	18~29세	(35)	80.0	74.3	77.1	71.4	74.3
	30~39세	(64)	76.6	78.1	76.6	53.1	64.1
	40~49세	(35)	74.3	74.3	85.7	60.0	77.1
	50세 이상	(20)	70.0	85.0	75.0	65.0	60.0
최근 이용 공간/시설	서울예술인지원센터	(56)	76.8	66.1	76.8	58.9	71.4
	대학로극장 쿼드	(32)	71.9	81.3	84.4	62.5	62.5
	서울연극센터	(39)	76.9	84.6	74.4	53.8	71.8
	서울연극창작센터	(27)	77.8	85.2	81.5	70.4	66.7

7. 서울문화재단 운영 공간/시설 이용 시 불편/개선 사항

- 서울문화재단 운영 공간/시설 이용 시 불편/개선 사항으로 ‘불편/개선 사항 없음’이 26.0%로 가장 높게 나타남
 - ‘불편/개선 사항 없음’ 응답 비율은 주 활동 장르별로 ‘무용(40.0%)’, 분야별로 ‘안무가·무용수(38.5%)’, 주 활동 분야 경력별로 ‘3~5년(42.9%)’, 연령별로 ‘18~29세(45.7%)’, 최근 이용 공간/시설별로 ‘서울연극센터(28.2%)’와 ‘대학로극장 퀴드(28.1%)’ 이용자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 불편/개선 사항에 응답한 응답자는 ‘예약·참여 절차 불편’이 18.2%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안내·정보 부족(17.5%)’, ‘교류 공간(라운지 등)·네트워킹 환경 부족(16.9%)’, ‘프로그램 정보의 적시성(알림·변경 안내) 미흡(11.0%)’ 등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2-18〉 서울문화재단 운영 공간/시설 이용 시 불편/개선 사항

[Base: 서울문화재단 운영 공간/시설 이용자, 사례수: 154명, 단위: %]



Q. (공간/시설) 이용 시 가장 불편하거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무엇입니까?

〈표 2-18〉 서울문화재단 운영 공간/시설 이용 시 불편/개선 사항

[단위: %]

구분		사례수	예약·참여 절차 불편	안내·정보 부족	교류 공간 (라운지 등)· 네트워킹 환경 부족	프로그램 정보의 적시성 (알림· 변경 안내) 미흡	기타	불편/ 개선 사항 없음
전체		(154)	18.2	17.5	16.9	11.0	10.4	26.0
주 활동 장르	연극	(84)	21.4	16.7	16.7	9.5	10.7	25.0
	뮤지컬	(17)	17.6	23.5	11.8	11.8	17.6	17.6
	무용	(20)	5.0	15.0	15.0	10.0	15.0	40.0
	클래식	(11)	18.2	27.3	18.2	9.1	0.0	27.3
	국악	(6)	16.7	0.0	33.3	16.7	0.0	33.3
	대중음악	(13)	15.4	23.1	23.1	7.7	7.7	23.1
	기타	(3)	33.3	0.0	0.0	66.7	0.0	0.0
분야	연출·감독	(21)	9.5	28.6	23.8	14.3	9.5	14.3
	배우·퍼포머	(50)	30.0	12.0	12.0	10.0	8.0	28.0
	작가·극작가·작곡가	(21)	14.3	14.3	19.0	14.3	9.5	28.6
	기획·프로듀서	(18)	22.2	22.2	22.2	0.0	11.1	22.2
	안무가·무용수	(13)	0.0	15.4	15.4	7.7	23.1	38.5
	연주가·성악가·보컬	(14)	14.3	21.4	14.3	21.4	0.0	28.6
	기타	(17)	11.8	17.6	17.6	11.8	17.6	23.5
주 활동 분야 경력	2년 이하	(26)	26.9	11.5	15.4	23.1	0.0	23.1
	3 ~ 5년	(42)	9.5	11.9	19.0	11.9	4.8	42.9
	6 ~ 10년	(33)	24.2	27.3	12.1	9.1	9.1	18.2
	11 ~ 15년	(26)	19.2	19.2	19.2	0.0	23.1	19.2
	16년 이상	(27)	14.8	18.5	18.5	11.1	18.5	18.5
성별	남성	(42)	21.4	9.5	16.7	19.0	9.5	23.8
	여성	(112)	17.0	20.5	17.0	8.0	10.7	26.8
연령대	18~29세	(35)	17.1	14.3	14.3	2.9	5.7	45.7
	30~39세	(64)	15.6	12.5	18.8	15.6	12.5	25.0
	40~49세	(35)	22.9	25.7	17.1	14.3	11.4	8.6
	50세 이상	(20)	20.0	25.0	15.0	5.0	10.0	25.0
최근 이용 공간/시설	서울예술인지원센터	(56)	19.6	17.9	16.1	17.9	5.4	23.2
	대학로극장 쿼드	(32)	6.3	15.6	28.1	9.4	12.5	28.1
	서울연극센터	(39)	28.2	15.4	12.8	7.7	7.7	28.2
	서울연극창작센터	(27)	14.8	22.2	11.1	3.7	22.2	25.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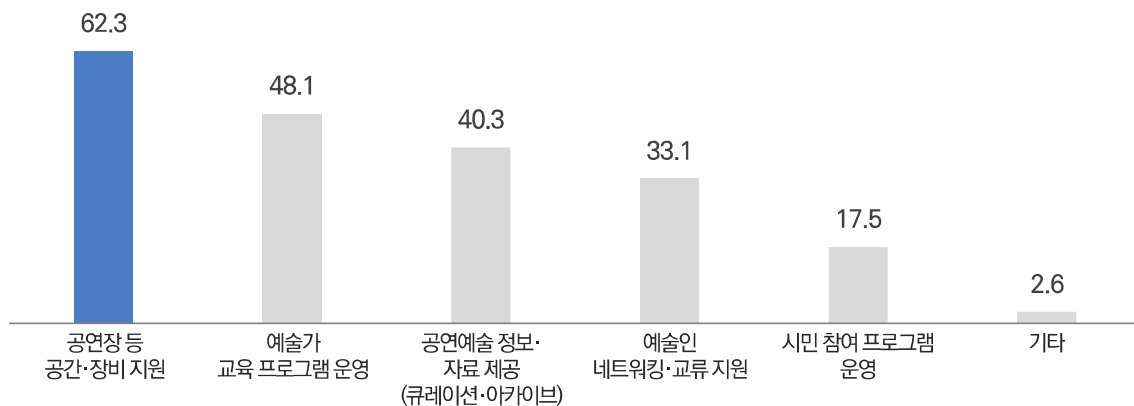
8. 서울문화재단 운영 공간/시설의 역할/기능

- 현재 서울문화재단 운영 공간/시설에 대한 역할/기능으로 ‘공연장 등 공간·장비 지원’이 62.3%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예술가 교육 프로그램 운영(48.1%)’, ‘공연예술 정보·자료 제공(큐레이션·아카이브)(40.3%)’, ‘예술인 네트워킹·교류 지원(33.1%)’ 등의 순으로 나타남

- ‘공연장 등 공간·장비 지원’은 주 활동 장르별로 ‘국악(83.3%)’, 분야별로 ‘작가·극작가·작곡가(81.0%)’, 성별로 ‘남성(50.0%)’ 대비 ‘여성(67.0%)’, 연령별로 ‘50세 이상(70.0%)’, 최근 이용 공간/시설별로 ‘대학로극장 퀴드(78.1%)’와 ‘서울연극창작센터(77.8%)’ 이용자에서 응답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그림 2-19〉 서울문화재단 운영 공간/시설의 역할/기능

[Base: 서울문화재단 운영 공간/시설 이용자, 사례수: 154명, 단위: %, 복수응답]



Q. (공간/시설)은/는 현재 어떤 역할과 기능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해당하는 것을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표 2-19〉 서울문화재단 운영 공간/시설의 역할/기능

[단위: %, 복수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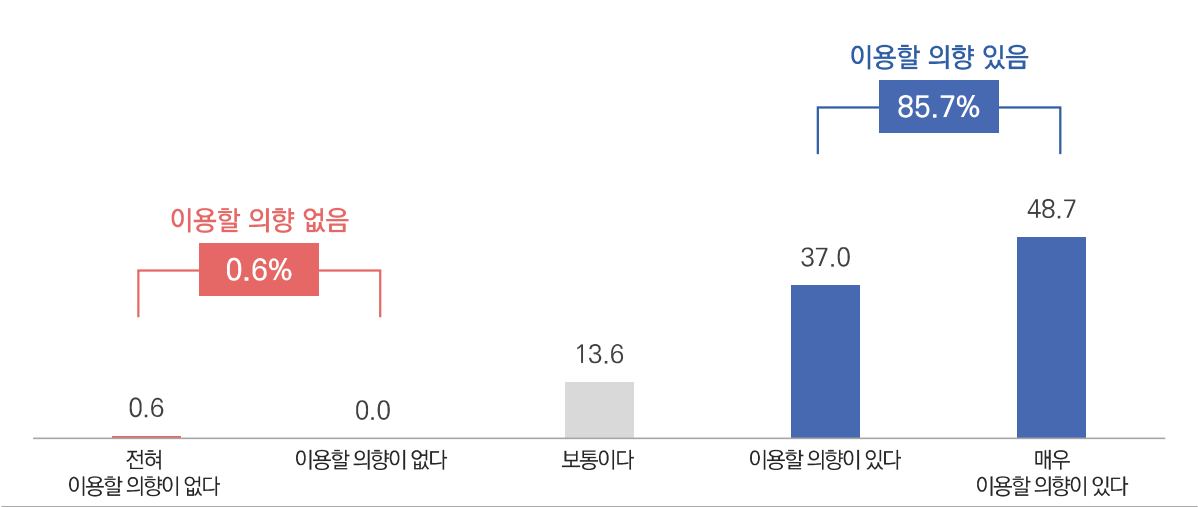
구분		사례수	공연장 등 공간·장비 지원	예술가 교육 프로그램 운영	공연예술 정보·자료 제공 (큐레이션· 아카이브)	예술인 네트워킹· 교류 지원	시민 참여 프로그램 운영	기타
전체		(154)	62.3	48.1	40.3	33.1	17.5	2.6
주 활동 장르	연극	(84)	67.9	41.7	34.5	31.0	15.5	3.6
	뮤지컬	(17)	47.1	47.1	35.3	35.3	23.5	0.0
	무용	(20)	65.0	45.0	50.0	50.0	15.0	0.0
	클래식	(11)	45.5	54.5	36.4	36.4	27.3	0.0
	국악	(6)	83.3	50.0	50.0	16.7	33.3	16.7
	대중음악	(13)	46.2	84.6	61.5	23.1	15.4	0.0
	기타	(3)	66.7	66.7	66.7	33.3	0.0	0.0
분야	연출·감독	(21)	61.9	76.2	52.4	47.6	14.3	0.0
	배우·퍼포머	(50)	60.0	44.0	28.0	18.0	20.0	6.0
	작가·극작가·작곡가	(21)	81.0	42.9	57.1	52.4	14.3	4.8
	기획·프로듀서	(18)	44.4	27.8	16.7	27.8	11.1	0.0
	안무가·무용수	(13)	53.8	46.2	46.2	53.8	7.7	0.0
	연주가·성악가·보컬	(14)	71.4	64.3	57.1	14.3	28.6	0.0
	기타	(17)	64.7	41.2	47.1	41.2	23.5	0.0
주 활동 분야 경력	2년 이하	(26)	57.7	53.8	34.6	42.3	23.1	0.0
	3 ~ 5년	(42)	66.7	50.0	50.0	35.7	14.3	2.4
	6 ~ 10년	(33)	54.5	42.4	39.4	15.2	12.1	3.0
	11 ~ 15년	(26)	69.2	50.0	38.5	30.8	23.1	7.7
	16년 이상	(27)	63.0	44.4	33.3	44.4	18.5	0.0
성별	남성	(42)	50.0	54.8	45.2	40.5	21.4	0.0
	여성	(112)	67.0	45.5	38.4	30.4	16.1	3.6
연령대	18~29세	(35)	65.7	45.7	37.1	28.6	17.1	0.0
	30~39세	(64)	56.3	53.1	45.3	34.4	17.2	4.7
	40~49세	(35)	65.7	45.7	25.7	22.9	22.9	2.9
	50세 이상	(20)	70.0	40.0	55.0	55.0	10.0	0.0
최근 이용 공간/시설	서울예술인지원센터	(56)	53.6	64.3	50.0	33.9	16.1	5.4
	대학로극장 쿼드	(32)	78.1	28.1	28.1	28.1	12.5	0.0
	서울연극센터	(39)	51.3	46.2	41.0	35.9	25.6	0.0
	서울연극창작센터	(27)	77.8	40.7	33.3	33.3	14.8	3.7

9. 향후 서울문화재단 운영 공간/시설 이용 의향

- 전체 응답자의 85.7%가 향후 서울문화재단 운영 공간/시설을 다시 이용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함
 - ‘이용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주 활동 장르별로 ‘대중음악(100.0%)’, 분야별로 ‘연출·감독(95.2%)’, 주 활동 분야 경력별로 ‘2년 이하(92.3%)’와 ‘3~5년(90.5%)’, 연령별로 ‘50세 이상(90.0%)’, 최근 이용 공간/시설별로 ‘서울연극창작센터(88.9%)’ 이용자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 반면, ‘이용할 의향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은 0.6%로 매우 낮음

〈그림 2-20〉 향후 서울문화재단 운영 공간/시설 이용 의향

[Base: 서울문화재단 운영 공간/시설 이용자, 사례수: 154명, 단위: %]



Q. 향후에도 (공간/시설)을/를 다시 이용할 의향이 있습니까? 의향 정도를 선택해 주십시오.

〈표 2-20〉 향후 서울문화재단 운영 공간/시설 이용 의향

[단위: %]

구분		사례수	이용할 의향 없음 (①+②)	전혀 이용할 의향이 없다 ①	이용할 의향이 없다 ②	보통이다 ③	이용할 의향이 있다 ④	매우 이용할 의향이 있다 ⑤	이용할 의향 있음 (④+⑤)
전체		(154)	0.6	0.6	0.0	13.6	37.0	48.7	85.7
주 활동 장르	연극	(84)	1.2	1.2	-	9.5	31.0	58.3	89.3
	뮤지컬	(17)	0.0	0.0	-	17.6	47.1	35.3	82.4
	무용	(20)	0.0	0.0	-	15.0	45.0	40.0	85.0
	클래식	(11)	0.0	0.0	-	45.5	45.5	9.1	54.5
	국악	(6)	0.0	0.0	-	33.3	16.7	50.0	66.7
	대중음악	(13)	0.0	0.0	-	0.0	53.8	46.2	100.0
	기타	(3)	0.0	0.0	-	0.0	33.3	66.7	100.0
분야	연출·감독	(21)	0.0	0.0	-	4.8	33.3	61.9	95.2
	배우·퍼포머	(50)	0.0	0.0	-	12.0	26.0	62.0	88.0
	작가·극작가·작곡가	(21)	0.0	0.0	-	9.5	52.4	38.1	90.5
	기획·프로듀서	(18)	0.0	0.0	-	16.7	55.6	27.8	83.3
	안무가·무용수	(13)	0.0	0.0	-	15.4	38.5	46.2	84.6
	연주가·성악가·보컬	(14)	0.0	0.0	-	28.6	28.6	42.9	71.4
	기타	(17)	5.9	5.9	-	17.6	41.2	35.3	76.5
주 활동 분야 경력	2년 이하	(26)	0.0	0.0	-	7.7	38.5	53.8	92.3
	3 ~ 5년	(42)	0.0	0.0	-	9.5	45.2	45.2	90.5
	6 ~ 10년	(33)	0.0	0.0	-	18.2	45.5	36.4	81.8
	11 ~ 15년	(26)	3.8	3.8	-	19.2	19.2	57.7	76.9
	16년 이상	(27)	0.0	0.0	-	14.8	29.6	55.6	85.2
성별	남성	(42)	2.4	2.4	-	11.9	38.1	47.6	85.7
	여성	(112)	0.0	0.0	-	14.3	36.6	49.1	85.7
연령대	18~29세	(35)	0.0	0.0	-	17.1	37.1	45.7	82.9
	30~39세	(64)	0.0	0.0	-	15.6	32.8	51.6	84.4
	40~49세	(35)	0.0	0.0	-	11.4	42.9	45.7	88.6
	50세 이상	(20)	5.0	5.0	-	5.0	40.0	50.0	90.0
최근 이용 공간/시설	서울예술인지원센터	(56)	0.0	0.0	-	12.5	41.1	46.4	87.5
	대학로극장 쿼드	(32)	0.0	0.0	-	21.9	43.8	34.4	78.1
	서울연극센터	(39)	0.0	0.0	-	12.8	28.2	59.0	87.2
	서울연극창작센터	(27)	3.7	3.7	-	7.4	33.3	55.6	88.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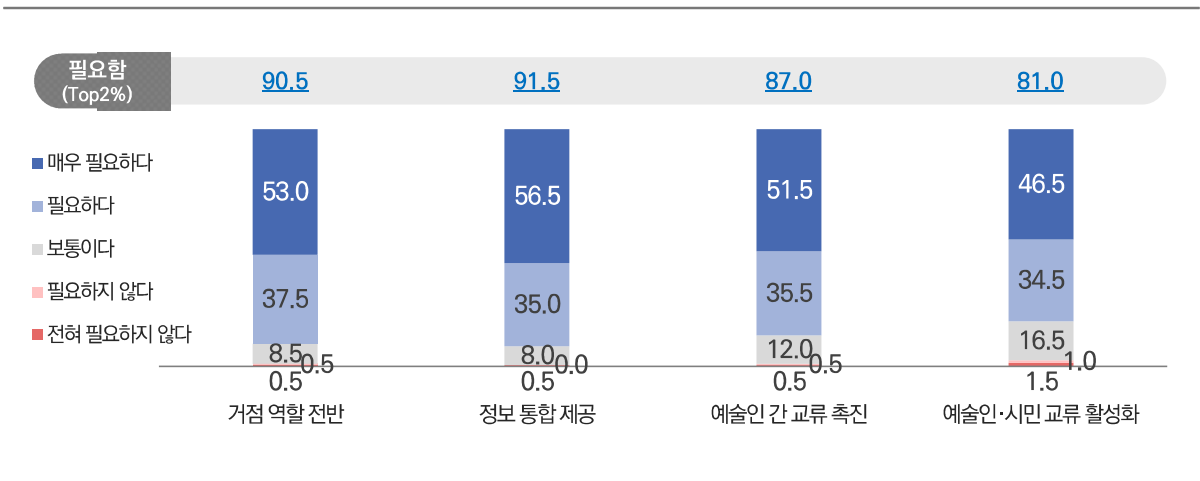
제4절 향후 ‘공연예술 정보·교류 거점’ 역할·기능 인식

1. 서울문화재단 운영 공간/시설 활성화를 위한 필요 기능/역할

- 향후 대학로 공연예술 활성화를 위해 서울문화재단 운영 공간/시설의 필요 기능/역할로 ‘정보 통합 제공(91.5%)’과 ‘거점 역할 전반(90.5%)’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90% 이상을 보임
 - ‘거점 역할 전반’은 분야별로 ‘배우·퍼포머(96.7%)’, 연령별로 ‘40~49세(93.8%)’에서 응답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 ‘정보 통합 제공’은 주 활동 장르별로 ‘국악(100.0%)’, 분야별로 ‘배우·퍼포머(96.7%)’, 주 활동 분야 경력별로 ‘16년 이상(100.0%)’, 연령별로 ‘50세 이상(96.2%)’에서 응답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 이외에 ‘예술인 간 교류 촉진(87.0%)’과 ‘예술인·시민 교류 활성화(81.0%)’도 80% 이상이 필요하다고 응답함

〈그림 2-21〉 서울문화재단 운영 공간/시설 활성화를 위한 필요 기능/역할

[Base: 전체, 사례수: 200명, 단위: %]



Q. 서울문화재단 운영공간이 ‘공연예술 정보·교류 거점’으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는 일이 향후 대학로 공연예술 활성화에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거점 역할 전반 - 공연, 지원, 대관 정보를 한데 모으고, 예술인·시민 교류를 촉진하는 공공 거점
- 정보 통합 제공 - 공연, 지원, 대관 등 정보 제공
- 예술인 간 교류 촉진 - 협업·매칭·네트워크 강화
- 예술인·시민 교류 활성화 - 참여 프로그램과 만남의 장 운영

〈표 2-21〉 서울문화재단 운영 공간/시설 활성화를 위한 필요 기능/역할

[단위: Top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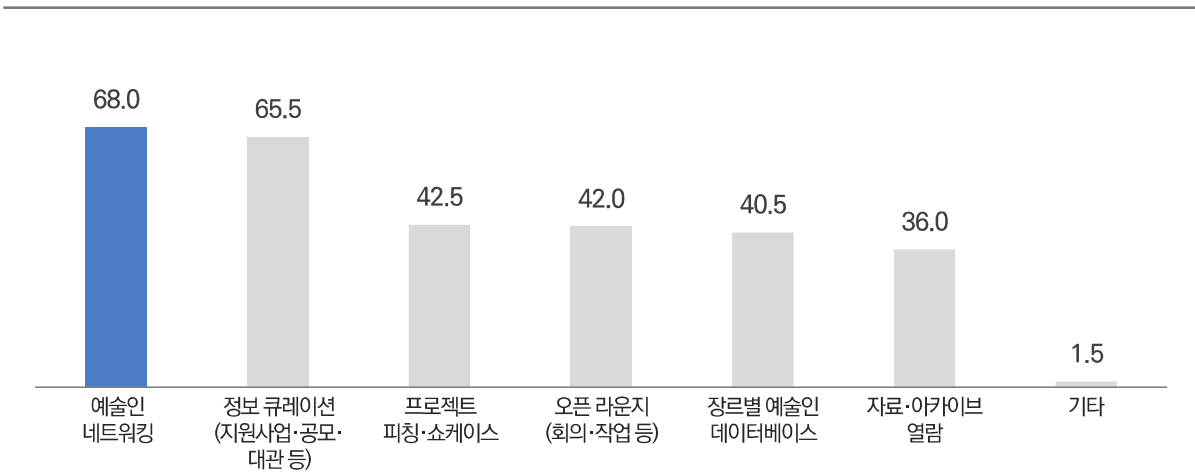
구분		사례수	거점 역할 전반	정보 통합 제공	예술인 간 교류 촉진	예술인·시민 교류 활성화
전체		(200)	90.5	91.5	87.0	81.0
주 활동 장르	연극	(102)	94.1	96.1	92.2	86.3
	뮤지컬	(22)	86.4	81.8	77.3	68.2
	무용	(24)	83.3	87.5	87.5	87.5
	클래식	(17)	94.1	88.2	76.5	70.6
	국악	(11)	81.8	100.0	90.9	72.7
	대중음악	(19)	84.2	84.2	73.7	73.7
	기타	(5)	100.0	80.0	100.0	80.0
분야	연출·감독	(23)	95.7	95.7	87.0	78.3
	배우·퍼포머	(61)	96.7	96.7	93.4	88.5
	작가·극작가·작곡가	(32)	84.4	87.5	90.6	84.4
	기획·프로듀서	(26)	92.3	84.6	84.6	80.8
	안무가·무용수	(15)	80.0	93.3	80.0	80.0
	연주가·성악가·보컬	(22)	81.8	90.9	68.2	63.6
	기타	(21)	90.5	85.7	90.5	76.2
주 활동 분야 경력	2년 이하	(36)	88.9	88.9	88.9	77.8
	3 ~ 5년	(50)	96.0	92.0	94.0	86.0
	6 ~ 10년	(45)	84.4	91.1	80.0	73.3
	11 ~ 15년	(31)	90.3	83.9	80.6	80.6
	16년 이상	(38)	92.1	100.0	89.5	86.8
성별	남성	(62)	90.3	91.9	85.5	85.5
	여성	(138)	90.6	91.3	87.7	79.0
연령대	18~29세	(52)	88.5	86.5	88.5	78.8
	30~39세	(74)	90.5	91.9	81.1	77.0
	40~49세	(48)	93.8	93.8	91.7	89.6
	50세 이상	(26)	88.5	96.2	92.3	80.8

2. 공연예술 정보·교류 기능 강화를 위해 필요한 프로그램

- 공연예술 정보·교류 기능 강화를 위해 필요한 프로그램으로 ‘예술인 네트워킹’이 68.0%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정보 큐레이션(지원사업·공모·대관 등)(65.5%)’, ‘프로젝트 피칭·쇼케이스(42.5%)’, ‘오픈 라운지(회의·작업 등)(42.0%)’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예술인 네트워킹’은 주 활동 장르별로 ‘클래식(82.4%)’, 분야별로 ‘안무가·무용수(80.0%)’, 주 활동 분야 경력별로 ‘2년 이하(83.3%)’, 성별로 ‘여성(65.9%)’ 대비 ‘남성(72.6%)’, 연령별로 ‘18~29세(80.8%)’에서 응답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그림 2-22〉 공연예술 정보·교류 기능 강화를 위해 필요한 프로그램

[Base: 전체, 사례수: 200명, 단위: %, 복수응답]



Q. 공연예술 정보·교류 기능 강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프로그램은 무엇입니까? 해당하는 것을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표 2-22〉 공연예술 정보·교류 기능 강화를 위해 필요한 프로그램

[단위: %, 복수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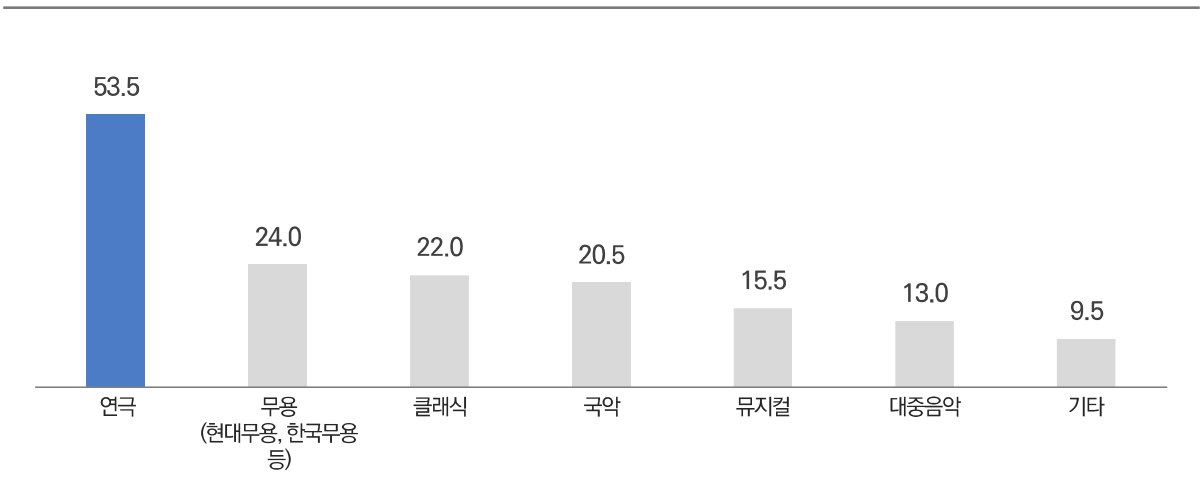
구분		사례수	예술인 네트워킹	정보 큐레이션 (자원사업· 공모·대관 등)	프로젝트 파칭· 쇼케이스	오픈 라운지 (회의·작업 등)	장르별 예술인 데이터 베이스	자료· 아카이브 열람	기타
전체		(200)	68.0	65.5	42.5	42.0	40.5	36.0	1.5
주 활동 장르	연극	(102)	62.7	69.6	41.2	44.1	38.2	34.3	2.0
	뮤지컬	(22)	68.2	72.7	54.5	40.9	63.6	54.5	0.0
	무용	(24)	79.2	45.8	50.0	50.0	37.5	54.2	4.2
	클래식	(17)	82.4	64.7	17.6	23.5	41.2	17.6	0.0
	국악	(11)	72.7	54.5	36.4	63.6	27.3	36.4	0.0
	대중음악	(19)	63.2	68.4	47.4	26.3	26.3	15.8	0.0
	기타	(5)	80.0	60.0	60.0	40.0	80.0	40.0	0.0
분야	연출·감독	(23)	60.9	87.0	56.5	39.1	47.8	39.1	4.3
	배우·퍼포머	(61)	67.2	75.4	42.6	44.3	42.6	34.4	0.0
	작가·극작가·작곡가	(32)	78.1	75.0	53.1	56.3	53.1	43.8	0.0
	기획·프로듀서	(26)	65.4	50.0	34.6	19.2	38.5	26.9	3.8
	안무가·무용수	(15)	80.0	33.3	46.7	53.3	33.3	46.7	6.7
	연주가·성악가·보컬	(22)	63.6	63.6	27.3	40.9	31.8	18.2	0.0
	기타	(21)	61.9	42.9	33.3	38.1	23.8	47.6	0.0
주 활동 분야 경력	2년 이하	(36)	83.3	72.2	47.2	30.6	36.1	33.3	0.0
	3 ~ 5년	(50)	76.0	62.0	58.0	52.0	54.0	50.0	2.0
	6 ~ 10년	(45)	62.2	64.4	42.2	40.0	37.8	26.7	4.4
	11 ~ 15년	(31)	51.6	71.0	29.0	48.4	38.7	32.3	0.0
	16년 이상	(38)	63.2	60.5	28.9	36.8	31.6	34.2	0.0
성별	남성	(62)	72.6	62.9	38.7	38.7	43.5	25.8	1.6
	여성	(138)	65.9	66.7	44.2	43.5	39.1	40.6	1.4
연령대	18~29세	(52)	80.8	59.6	53.8	36.5	36.5	42.3	0.0
	30~39세	(74)	67.6	66.2	45.9	48.6	44.6	32.4	4.1
	40~49세	(48)	56.3	70.8	27.1	41.7	43.8	33.3	0.0
	50세 이상	(26)	65.4	65.4	38.5	34.6	30.8	38.5	0.0

3. 정보 제공 측면에서 강화/보완이 필요한 공연예술 장르

- 공연예술 장르 중 정보 제공 측면에서 강화 또는 보완이 필요한 장르로 ‘연극’이 53.5%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무용(24.0%)’, ‘클래식(22.0%)’, ‘국악(20.5%)’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연극’ 분야에 대한 정보 제공 강화 또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주 활동 장르별로 ‘연극(80.4%)’, 분야별로 ‘배우·퍼포머(82.0%)’, 연령별로 ‘50세 이상(61.5%)’과 ‘40~49세(60.4%)’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그림 2-23〉 정보 제공 측면에서 강화/보완이 필요한 공연예술 장르

[Base: 전체, 사례수: 200명, 단위: %]



Q. 공연예술 장르 중 정보 제공 측면에서 강화 또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장르는 무엇입니까?

〈표 2-23〉 정보 제공 측면에서 강화/보완이 필요한 공연예술 장르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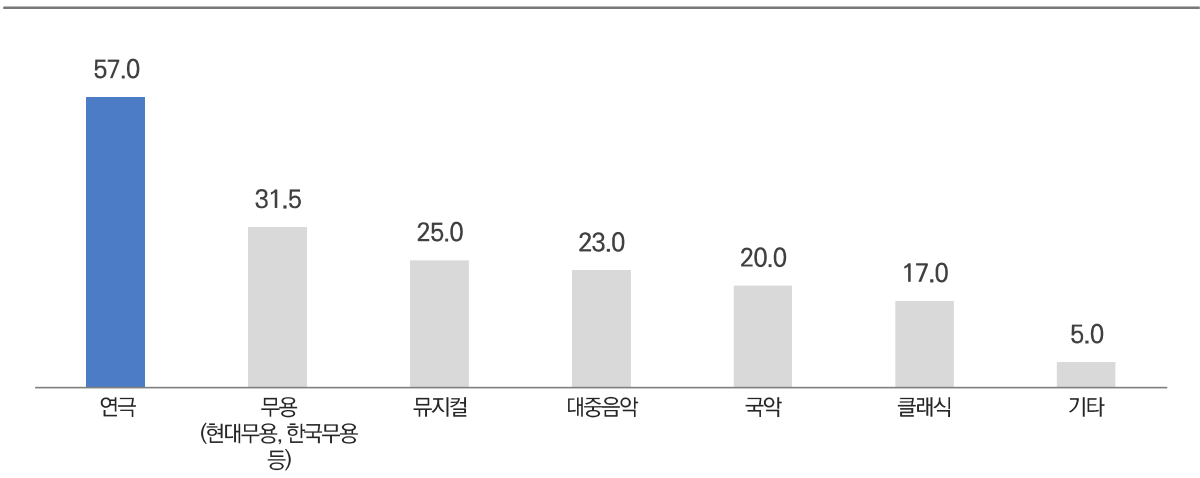
구분		사례수	연극	무용 (현대무용, 한국무용 등)	클래식	국악	뮤지컬	대중음악	기타
전체		(200)	53.5	24.0	22.0	20.5	15.5	13.0	9.5
주 활동 장르	연극	(102)	80.4	23.5	14.7	17.6	13.7	6.9	4.9
	뮤지컬	(22)	40.9	22.7	27.3	27.3	59.1	4.5	4.5
	무용	(24)	12.5	62.5	12.5	16.7	0.0	0.0	25.0
	클래식	(17)	29.4	5.9	70.6	5.9	11.8	0.0	11.8
	국악	(11)	27.3	27.3	36.4	100.0	9.1	27.3	0.0
	대중음악	(19)	21.1	0.0	15.8	5.3	5.3	73.7	10.5
	기타	(5)	20.0	0.0	20.0	0.0	0.0	20.0	60.0
분야	연출·감독	(23)	56.5	26.1	17.4	21.7	13.0	4.3	17.4
	배우·퍼포머	(61)	82.0	19.7	11.5	11.5	13.1	0.0	6.6
	작가·극작가·작곡가	(32)	53.1	18.8	15.6	18.8	15.6	21.9	12.5
	기획·프로듀서	(26)	34.6	19.2	38.5	26.9	23.1	19.2	7.7
	안무가·무용수	(15)	13.3	80.0	0.0	20.0	0.0	0.0	13.3
	연주가·성악가·보컬	(22)	22.7	13.6	50.0	22.7	4.5	45.5	0.0
	기타	(21)	52.4	19.0	33.3	38.1	38.1	14.3	14.3
주 활동 분야 경력	2년 이하	(36)	50.0	16.7	22.2	19.4	11.1	13.9	8.3
	3 ~ 5년	(50)	60.0	18.0	20.0	16.0	22.0	10.0	14.0
	6 ~ 10년	(45)	51.1	26.7	28.9	17.8	17.8	15.6	8.9
	11 ~ 15년	(31)	45.2	19.4	16.1	25.8	12.9	16.1	9.7
	16년 이상	(38)	57.9	39.5	21.1	26.3	10.5	10.5	5.3
성별	남성	(62)	53.2	17.7	19.4	17.7	12.9	21.0	17.7
	여성	(138)	53.6	26.8	23.2	21.7	16.7	9.4	5.8
연령대	18~29세	(52)	50.0	21.2	17.3	13.5	17.3	13.5	5.8
	30~39세	(74)	48.6	20.3	24.3	27.0	14.9	16.2	9.5
	40~49세	(48)	60.4	27.1	22.9	14.6	18.8	8.3	12.5
	50세 이상	(26)	61.5	34.6	23.1	26.9	7.7	11.5	11.5

4. 정보 교류 또는 네트워킹하고 싶은 공연예술 장르

- 공연예술 장르 중 정보 교류 또는 네트워킹하고 싶은 장르로 ‘연극’이 57.0%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무용(31.5%)’, ‘뮤지컬(25.0%)’, ‘대중음악(23.0%)’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연극’ 분야 종사자와 정보 교류 또는 네트워킹하고 싶다고 응답한 비율은 주 활동 장르별로 ‘연극(76.5%)’, 분야별로 ‘배우·퍼포머(83.6%)’, 주 활동 분야 경력별로 ‘3~5년(72.0%)’, 성별로 ‘남성(53.2%)’ 대비 ‘여성(58.7%)’, 연령별로 ‘40~49세(60.4%)’와 ‘50세 이상(57.7%)’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그림 2-24〉 정보 교류 또는 네트워킹하고 싶은 공연예술 장르

[Base: 전체, 사례수: 200명, 단위: %, 복수응답]



Q. 공연예술 장르 중 정보 교류 또는 네트워킹하고 싶은 장르는 무엇입니까?

〈표 2-24〉 정보 교류 또는 네트워킹하고 싶은 공연예술 장르

[단위: %, 복수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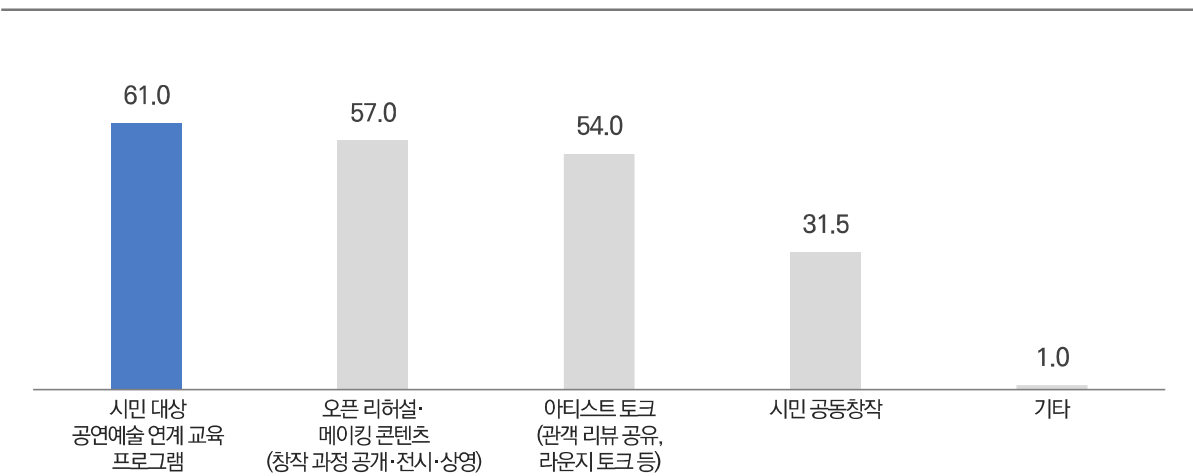
구분		사례수	연극	무용 (현대무용, 한국무용 등)	뮤지컬	대중음악	국악	클래식	기타
전체		(200)	57.0	31.5	25.0	23.0	20.0	17.0	5.0
주 활동 장르	연극	(102)	76.5	34.3	20.6	15.7	17.6	6.9	3.9
	뮤지컬	(22)	68.2	13.6	68.2	9.1	13.6	18.2	0.0
	무용	(24)	25.0	70.8	20.8	12.5	33.3	16.7	12.5
	클래식	(17)	41.2	17.6	17.6	29.4	17.6	70.6	0.0
	국악	(11)	45.5	36.4	18.2	45.5	63.6	36.4	0.0
	대중음악	(19)	5.3	5.3	21.1	78.9	0.0	15.8	0.0
	기타	(5)	40.0	0.0	0.0	0.0	20.0	0.0	60.0
분야	연출·감독	(23)	52.2	43.5	17.4	17.4	39.1	17.4	17.4
	배우·퍼포머	(61)	83.6	32.8	26.2	8.2	14.8	8.2	0.0
	작가·극작가·작곡가	(32)	56.3	28.1	28.1	28.1	15.6	15.6	6.3
	기획·프로듀서	(26)	53.8	23.1	26.9	38.5	23.1	23.1	7.7
	안무가·무용수	(15)	26.7	73.3	20.0	13.3	33.3	13.3	13.3
	연주가·성악가·보컬	(22)	18.2	9.1	18.2	59.1	18.2	36.4	0.0
	기타	(21)	52.4	23.8	33.3	14.3	9.5	19.0	0.0
주 활동 분야 경력	2년 이하	(36)	50.0	22.2	13.9	27.8	16.7	11.1	2.8
	3 ~ 5년	(50)	72.0	32.0	40.0	22.0	12.0	22.0	6.0
	6 ~ 10년	(45)	60.0	28.9	35.6	24.4	24.4	15.6	6.7
	11 ~ 15년	(31)	48.4	32.3	19.4	22.6	19.4	16.1	6.5
	16년 이상	(38)	47.4	42.1	7.9	18.4	28.9	18.4	2.6
성별	남성	(62)	53.2	30.6	21.0	29.0	21.0	17.7	9.7
	여성	(138)	58.7	31.9	26.8	20.3	19.6	16.7	2.9
연령대	18~29세	(52)	55.8	26.9	32.7	25.0	13.5	13.5	1.9
	30~39세	(74)	55.4	29.7	27.0	24.3	23.0	21.6	5.4
	40~49세	(48)	60.4	33.3	20.8	20.8	22.9	18.8	8.3
	50세 이상	(26)	57.7	42.3	11.5	19.2	19.2	7.7	3.8

5. 예술인과 시민 간 교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프로그램

- 예술인과 시민 간 교류를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프로그램으로 ‘시민 대상 공연예술 연계 교육 프로그램’이 61.0%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오픈 리허설·메이킹 콘텐츠(57.0%)’, ‘아티스트 토크(54.0%)’, ‘시민 공동창작(31.5%)’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시민 대상 공연예술 연계 교육 프로그램’은 주 활동 장르별로 ‘무용(83.3%)’과 ‘국악(81.8%)’, 분야별로 ‘안무가·무용수(80.0%)’, 주 활동 분야 경력별로 ‘3~5년(68.0%)’, 성별로 ‘남성(46.8%)’ 대비 ‘여성(67.4%)’, 연령별로 ‘18~29세(63.5%)’와 ‘30~39세(62.2%)’에서 응답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그림 2-25〉 예술인과 시민 간 교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프로그램

[Base: 전체, 사례수: 200명, 단위: %, 복수응답]



Q. 예술인과 시민 간 교류를 활성화하는 데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프로그램은 무엇입니까? 해당하는 것을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표 2-25〉 예술인과 시민 간 교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프로그램

[단위: %, 복수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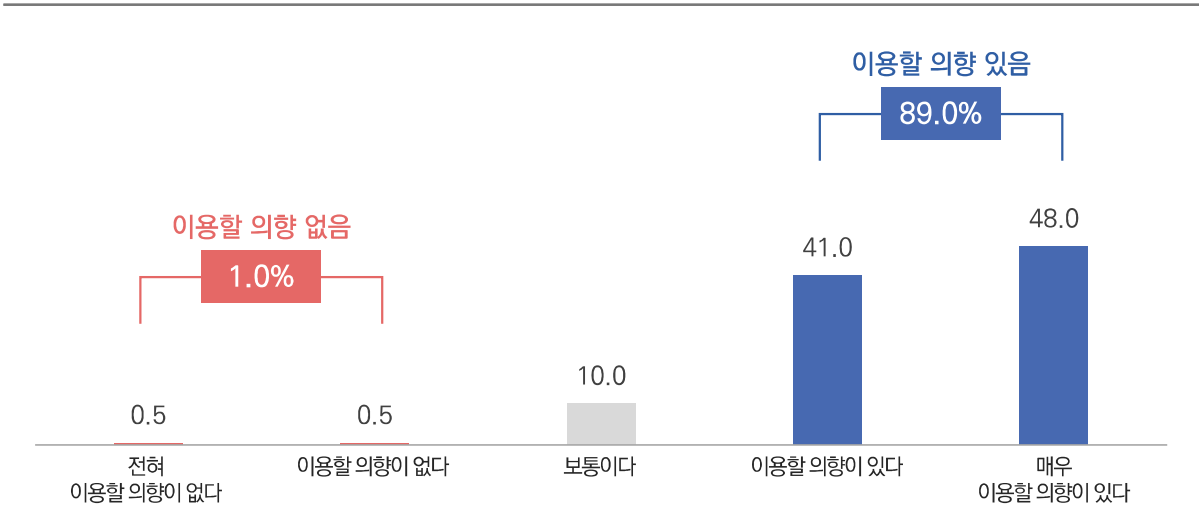
구분		사례수	시민 대상 공연예술 연계 교육 프로그램	오픈 리하설· 메이킹 콘텐츠 (창작 과정 공개·전시· 상영)	아티스트 토크 (관객 리뷰 공유, 라운지 토크 등)	시민 공동창작	기타
전체		(200)	61.0	57.0	54.0	31.5	1.0
주 활동 장르	연극	(102)	58.8	53.9	52.0	32.4	1.0
	뮤지컬	(22)	63.6	45.5	68.2	13.6	0.0
	무용	(24)	83.3	54.2	54.2	50.0	0.0
	클래식	(17)	58.8	58.8	35.3	35.3	0.0
	국악	(11)	81.8	54.5	45.5	36.4	9.1
	대중음악	(19)	36.8	78.9	68.4	21.1	0.0
	기타	(5)	40.0	100.0	60.0	20.0	0.0
분야	연출·감독	(23)	60.9	60.9	47.8	47.8	4.3
	배우·퍼포머	(61)	59.0	52.5	55.7	27.9	0.0
	작가·극작가·작곡가	(32)	68.8	71.9	59.4	40.6	3.1
	기획·프로듀서	(26)	38.5	61.5	50.0	15.4	0.0
	안무가·무용수	(15)	80.0	46.7	60.0	40.0	0.0
	연주가·성악가·보컬	(22)	59.1	68.2	54.5	22.7	0.0
	기타	(21)	71.4	33.3	47.6	33.3	0.0
주 활동 분야 경력	2년 이하	(36)	63.9	50.0	58.3	38.9	0.0
	3 ~ 5년	(50)	68.0	56.0	66.0	40.0	2.0
	6 ~ 10년	(45)	55.6	53.3	48.9	20.0	2.2
	11 ~ 15년	(31)	58.1	71.0	51.6	35.5	0.0
	16년 이상	(38)	57.9	57.9	42.1	23.7	0.0
성별	남성	(62)	46.8	67.7	46.8	35.5	1.6
	여성	(138)	67.4	52.2	57.2	29.7	0.7
연령대	18~29세	(52)	63.5	55.8	65.4	30.8	0.0
	30~39세	(74)	62.2	56.8	54.1	28.4	1.4
	40~49세	(48)	56.3	64.6	52.1	27.1	2.1
	50세 이상	(26)	61.5	46.2	34.6	50.0	0.0

6. 향후 서울문화재단 운영 공간의 정보·교류 거점 역할 시, 이용 의향

- 향후 대학로 내 서울문화재단 운영 공간이 ‘공연예술 정보·교류 거점’으로 발전한다면, 전체 응답자의 89.0%가 현재보다 더 자주 ‘이용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함
 - ‘이용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분야별로 ‘연출·감독(100.0%)’, 주 활동 분야 경력별로 ‘2년 이하(97.2%)’, 성별로 ‘여성(87.7%)’ 대비 ‘남성(91.9%)’, 연령별로 ‘18~29세(98.1%)’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 반면, ‘이용할 의향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은 1.0%로 낮음

〈그림 2-26〉 향후 서울문화재단 운영 공간의 정보·교류 거점 역할 시, 이용 의향

[Base: 전체, 사례수: 200명, 단위: %]



Q. 앞으로 대학로 내 서울문화재단 운영공간이 ‘공연예술 정보·교류 거점’으로 발전한다고 할 때, 현재보다 더 자주 이용할 의향이 얼마나 있으십니까?

〈표 2-26〉 향후 서울문화재단 운영 공간의 정보·교류 거점 역할 시, 이용 의향

[단위: %]

구분		사례수	이용할 의향 없음 (①+②)	전혀 이용할 의향이 없다 ①	이용할 의향이 없다 ②	보통이다 ③	이용할 의향이 있다 ④	매우 이용할 의향이 있다 ⑤	이용할 의향 있음 (④+⑤)
전체		(200)	1.0	0.5	0.5	10.0	41.0	48.0	89.0
주 활동 장르	연극	(102)	0.0	0.0	0.0	6.9	40.2	52.9	93.1
	뮤지컬	(22)	0.0	0.0	0.0	18.2	40.9	40.9	81.8
	무용	(24)	4.2	4.2	0.0	12.5	41.7	41.7	83.3
	클래식	(17)	5.9	0.0	5.9	23.5	35.3	35.3	70.6
	국악	(11)	0.0	0.0	0.0	9.1	54.5	36.4	90.9
	대중음악	(19)	0.0	0.0	0.0	5.3	47.4	47.4	94.7
	기타	(5)	0.0	0.0	0.0	0.0	20.0	80.0	100.0
분야	연출·감독	(23)	0.0	0.0	0.0	0.0	26.1	73.9	100.0
	배우·퍼포머	(61)	0.0	0.0	0.0	4.9	37.7	57.4	95.1
	작가·극작가·작곡가	(32)	0.0	0.0	0.0	12.5	40.6	46.9	87.5
	기획·프로듀서	(26)	0.0	0.0	0.0	19.2	61.5	19.2	80.8
	안무가·무용수	(15)	6.7	6.7	0.0	13.3	40.0	40.0	80.0
	연주가·성악가·보컬	(22)	4.5	0.0	4.5	13.6	27.3	54.5	81.8
	기타	(21)	0.0	0.0	0.0	14.3	57.1	28.6	85.7
주 활동 분야 경력	2년 이하	(36)	0.0	0.0	0.0	2.8	44.4	52.8	97.2
	3 ~ 5년	(50)	2.0	0.0	2.0	10.0	42.0	46.0	88.0
	6 ~ 10년	(45)	2.2	2.2	0.0	11.1	44.4	42.2	86.7
	11 ~ 15년	(31)	0.0	0.0	0.0	19.4	32.3	48.4	80.6
	16년 이상	(38)	0.0	0.0	0.0	7.9	39.5	52.6	92.1
성별	남성	(62)	1.6	0.0	1.6	6.5	41.9	50.0	91.9
	여성	(138)	0.7	0.7	0.0	11.6	40.6	47.1	87.7
연령대	18~29세	(52)	0.0	0.0	0.0	1.9	48.1	50.0	98.1
	30~39세	(74)	2.7	1.4	1.4	14.9	37.8	44.6	82.4
	40~49세	(48)	0.0	0.0	0.0	10.4	35.4	54.2	89.6
	50세 이상	(26)	0.0	0.0	0.0	11.5	46.2	42.3	88.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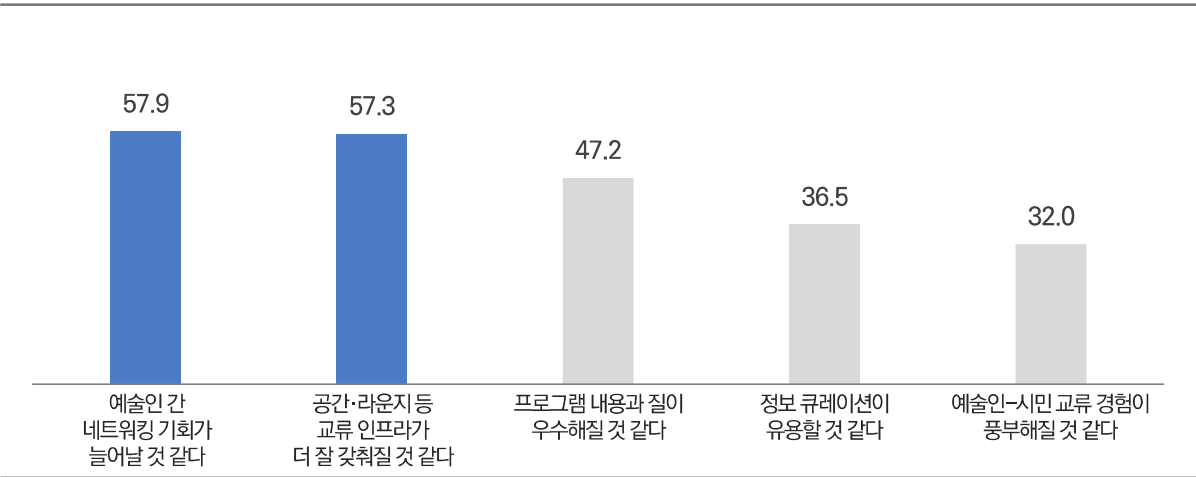
1) 자주 이용할 의향이 있는 이유

○ 향후 대학로 내 서울문화재단 운영 공간이 ‘공연예술 정보·교류 거점’으로 발전한다면, 서울문화재단 운영 공간을 자주 이용할 의향이 있는 이유로 ‘예술인 간 네트워킹 기회가 늘어날 것 같다(57.9%)’와 ‘공간·라운지 등 교류 인프라가 더 잘 갖춰질 것 같다(57.3%)’가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프로그램 내용과 질이 우수해질 것 같다(47.2%)’, ‘정보 큐레이션이 유용할 것 같다(36.5%)’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예술인 간 네트워킹 기회가 늘어날 것 같다’는 분야별로 ‘연출·감독(73.9%)’과 ‘연주가·성악가·보컬(72.2%)’, 주 활동 분야 경력별로 ‘2년 이하(68.6%)’와 ‘3~5년(68.2%)’, 연령별로 ‘18~29세(68.6%)’에서 응답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 ‘공간·라운지 등 교류 인프라가 더 잘 갖춰질 것 같다’는 주 활동 장르별로 ‘무용(70.0%)’과 ‘국악(70.0%)’, 분야별로 ‘안무가·무용수(83.3%)’, 주 활동 분야 경력별로 ‘3~5년(68.2%)’, 연령별로 ‘18~29세(64.7%)’에서 응답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그림 2-27〉 자주 이용할 의향이 있는 이유

[Base: 자주 이용할 의향이 있는 응답자, 사례수: 178명, 단위: %, 복수응답]



Q. 더 자주 이용하려는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해당하는 것을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표 2-27〉 자주 이용할 의향이 있는 이유

[단위: %, 복수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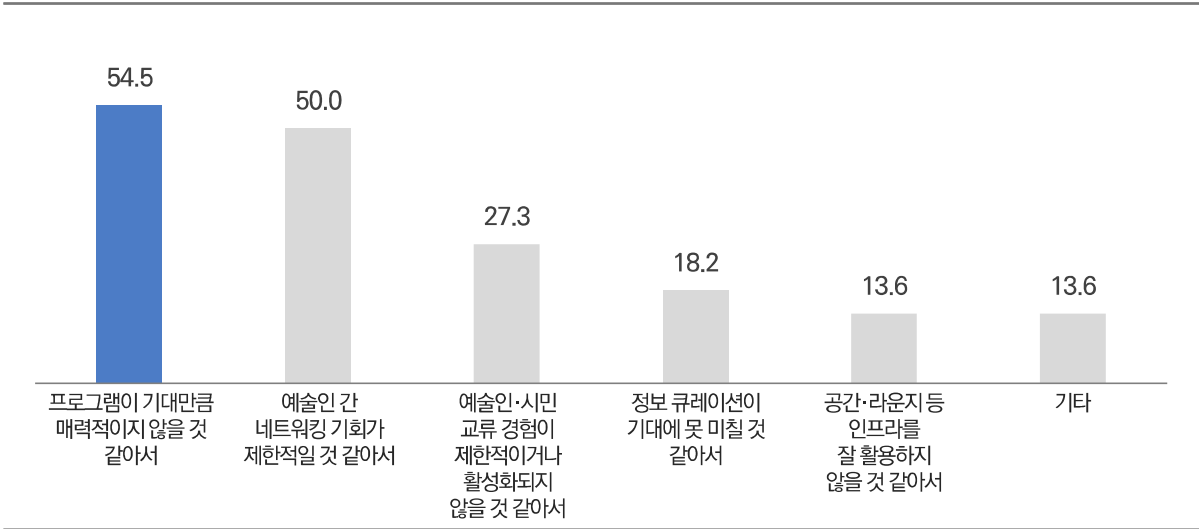
구분		사례수	예술인 간 네트워킹 기회가 늘어날 것 같다	공간·라운지 등 교류 인프라가 더 잘 갖춰질 것 같다	프로그램 내용과 질이 우수해질 것 같다	정보 큐레이션이 유용할 것 같다	예술인-시민 교류 경험이 풍부해질 것 같다
전체		(178)	57.9	57.3	47.2	36.5	32.0
주 활동 장르	연극	(95)	56.8	62.1	48.4	35.8	26.3
	뮤지컬	(18)	44.4	50.0	50.0	33.3	22.2
	무용	(20)	65.0	70.0	35.0	25.0	65.0
	클래식	(12)	66.7	58.3	50.0	33.3	33.3
	국악	(10)	50.0	70.0	60.0	40.0	30.0
	대중음악	(18)	61.1	33.3	44.4	50.0	27.8
	기타	(5)	80.0	0.0	40.0	60.0	60.0
분야	연출·감독	(23)	73.9	52.2	52.2	30.4	17.4
	배우·퍼포머	(58)	56.9	62.1	55.2	41.4	29.3
	작가·극작가·작곡가	(28)	64.3	42.9	46.4	46.4	35.7
	기획·프로듀서	(21)	23.8	52.4	38.1	23.8	23.8
	안무가·무용수	(12)	66.7	83.3	16.7	25.0	58.3
	연주가·성악가·보컬	(18)	72.2	55.6	44.4	44.4	44.4
	기타	(18)	50.0	61.1	50.0	27.8	33.3
주 활동 분야 경력	2년 이하	(35)	68.6	60.0	28.6	34.3	31.4
	3 ~ 5년	(44)	68.2	68.2	47.7	38.6	40.9
	6 ~ 10년	(39)	46.2	46.2	53.8	53.8	23.1
	11 ~ 15년	(25)	56.0	64.0	68.0	24.0	28.0
	16년 이상	(35)	48.6	48.6	42.9	25.7	34.3
성별	남성	(57)	61.4	63.2	47.4	36.8	35.1
	여성	(121)	56.2	54.5	47.1	36.4	30.6
연령대	18~29세	(51)	68.6	64.7	35.3	37.3	31.4
	30~39세	(61)	57.4	60.7	49.2	39.3	31.1
	40~49세	(43)	46.5	44.2	58.1	34.9	32.6
	50세 이상	(23)	56.5	56.5	47.8	30.4	34.8

2) 자주 이용할 의향이 없는 이유

- 반면, 서울문화재단 운영 공간을 자주 이용할 의향이 없는 이유로 ‘프로그램이 기대만큼 매력적이지 않을 것 같아서’가 54.5%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예술인 간 네트워킹 기회가 제한적일 것 같아서(50.0%)’, ‘예술인·시민 교류 경험이 제한적이거나 활성화되지 않을 것 같아서(27.3%)’, ‘정보 큐레이션이 기대에 못 미칠 것 같아서(18.2%)’ 등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2-28〉 자주 이용할 의향이 없는 이유

[Base: 자주 이용할 의향이 없는 응답자, 사례수: 22명, 단위: %, 복수응답]



Q. 이용을 망설이는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해당하는 것을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표 2-28〉 자주 이용할 의향이 없는 이유

[단위: %, 복수응답]

구분		사례수	프로그램이 기대만큼 매력적이지 않을 것 같아서	예술인 간 네트워킹 기회가 제한적일 것 같아서	예술인·시민 교류 경험이 제한적이거나 활성화되지 않을 것 같아서	정보 큐레이션이 기대에 못 마칠 것 같아서	공간·라운지 등 인프라를 잘 활용하지 않을 것 같아서	기타
전체		(22)	54.5	50.0	27.3	18.2	13.6	13.6
주 활동 장르	연극	(7)	85.7	57.1	42.9	14.3	14.3	0.0
	뮤지컬	(4)	75.0	75.0	25.0	25.0	0.0	0.0
	무용	(4)	25.0	50.0	0.0	25.0	0.0	50.0
	클래식	(5)	20.0	20.0	20.0	20.0	40.0	20.0
	국악	(1)	0.0	100.0	0.0	0.0	0.0	0.0
	대중음악	(1)	100.0	0.0	100.0	0.0	0.0	0.0
	기타	(0)	-	-	-	-	-	-
분야	연출·감독	(0)	-	-	-	-	-	-
	배우·퍼포머	(3)	100.0	66.7	66.7	33.3	0.0	0.0
	작가·극작가·작곡가	(4)	100.0	50.0	50.0	25.0	25.0	0.0
	기획·프로듀서	(5)	20.0	80.0	20.0	0.0	0.0	20.0
	안무가·무용수	(3)	0.0	33.3	0.0	0.0	0.0	66.7
	연주가·성악가·보컬	(4)	25.0	25.0	25.0	25.0	50.0	0.0
	기타	(3)	100.0	33.3	0.0	33.3	0.0	0.0
주 활동 분야 경력	2년 이하	(1)	100.0	0.0	100.0	0.0	0.0	0.0
	3 ~ 5년	(6)	83.3	50.0	0.0	16.7	33.3	16.7
	6 ~ 10년	(6)	33.3	50.0	50.0	16.7	0.0	33.3
	11 ~ 15년	(6)	50.0	66.7	16.7	33.3	16.7	0.0
	16년 이상	(3)	33.3	33.3	33.3	0.0	0.0	0.0
성별	남성	(5)	60.0	40.0	40.0	40.0	40.0	0.0
	여성	(17)	52.9	52.9	23.5	11.8	5.9	17.6
연령대	18~29세	(1)	100.0	100.0	0.0	100.0	0.0	0.0
	30~39세	(13)	53.8	53.8	30.8	23.1	15.4	15.4
	40~49세	(5)	20.0	40.0	20.0	0.0	0.0	20.0
	50세 이상	(3)	100.0	33.3	33.3	0.0	33.3	0.0

제2장 정성조사 결과

제1절 대학로 방문 및 문화공간 이용 행태

1. 대학로 이미지

- 대학로 하면 오래전부터 ‘연극’의 중심지로 각인되어 있으며, 연극·뮤지컬 분야 외 다른 분야와는 관련성이 적은 지역으로 인식됨

“연극을 가장 먼저 떠올리는 건 그냥 있는 거죠. 예전부터 존재해 왔기 때문이죠.” (연극·뮤지컬 분야 종사자)

“흔히 연극은 대학로에서 해야 된다는 말이 있잖아요.” (무용·음악 종사자)

“클래식 쪽에서는 대학로가 거의 다른 나라, 다른 세계처럼 느껴져요.” (무용·음악 종사자)

“클래식은 서초동, 연극은 대학로라는 인식이 굉장히 강하죠.” (무용·음악 종사자)

“가깝긴 한데 우리 일이 아닌 느낌이 있어요.” (무용·음악 종사자)

“공연을 하려고 해도 공간 자체가 아예 열려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무용·음악 종사자)

“자유롭게 대관해서 쓰기 쉬운 오픈된 공간이라고는 느껴지지 않았어요.” (무용·음악 종사자)

- 대학로는 점차 운영의 어려움으로 소극장이 점차 줄어들고 있으며, 주변 상권의 프랜차이즈화, 포스터 부착 규제 등으로 대학로만의 낭만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고 인식함

“소극장이 점점 줄어들어요. 운영 자체가 어려워지니까 분위기가 바뀌는 느낌이 있어요.” (연극·뮤지컬 분야 종사자)

“맛집들도 프랜차이즈로 많이 바뀌어서 예전이랑은 확실히 달라졌죠.” (연극·뮤지컬 분야 종사자)

“예전에는 마로니에공원에서 연극하시는 분들이 밤새 놀고 그런 분위기가 있었어요. 공연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낭만이 없어졌죠.” (연극·뮤지컬 분야 종사자)

“포스터도 예전엔 엄청 붙였는데, 지금은 다 규제돼서 그런 문화도 사라졌어요.” (연극·뮤지컬 분야 종사자)

2. 주 활동 지역

- 각 분야 특성에 맞춰 구성된 연습실 인근에서 주로 활동하고 있으며, 연극·뮤지컬 분야는 주로 시설과 비용 측면을 고려하여 한성대입구역 또는 성신여대 인근의 연습실을 대관하여 이용함
- 무용·음악 분야는 시설 규모, 친숙도 등을 고려하여, 서초, 사당, 홍대 등의 연습실을 대관하여 이용함

[연극·뮤지컬 분야]

“대학로도 가지만 요즘은 한성대입구에 더 많이 가요. 가격이 확실히 저렴하고, 대학로는 음식점이나 맛집도 너무 많이 올라서 부담이 커졌거든요.” (연극·뮤지컬 분야 종사자)

“연극하는 분들이랑 모일 때는 한성대에서 많이 모여요. 경력 있는 연극인들이 많이 쓰다 보니 굳이 관리를 안 해도 ‘그냥 편해서’ 가는 느낌이에요.” (연극·뮤지컬 분야 종사자)

“성신여대 쪽은 어린 친구들이 많아서 연습실 관리가 잘 돼 있고, 한성대 쪽은 있는 대로 쓰는 대신 가성비로 쓰는 느낌이에요.” (연극·뮤지컬 분야 종사자)

“혜화 연습실은 거리적인 이점은 좋은데 공간을 구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결국 연습실이 많은 쪽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무용·음악 종사자)

“사당이나 이수 쪽은 연습실이 많아서 작업을 대부분 거기서 해결해요.” (무용·음악 종사자)

[무용·음악 종사자]

“저희는 거의 무조건 서초동이에요. 오케스트라는 적게는 3명, 많게는 80명까지 모이는데, 큰 공간부터 개인 연습실까지 다 갖춰진 곳이 서초동이에요.” (무용·음악 종사자)

“여기서 무료로 대관해 준다고 해도 굳이 서초동으로 가요. 친숙함 때문이에요. 같은 거리여도 ‘서초동에서 연습해야 한다’는 느낌이 있어요.” (무용·음악 종사자)

“연습실만 해도 예술의전당 앞에 거의 200개 가까이 있어요. 그래서 그 근처를 벗어나려고 하지는 않아요.” (무용·음악 종사자)

“사당이나 이수 쪽은 연습실이 많아서 작업을 대부분 거기서 해결해요.” (무용·음악 종사자)

“저는 주로 홍대 쪽이요. 대중음악이랑 협업할 때가 많아서 합정이나 마포 쪽에서 작업을 많이 해요.” (무용·음악 종사자)

“다원이나 융합 예술은 항상 절충을 맞춰야 하는 장르라서 거리적으로 중심을 잡다 보니 요즘엔 용산, 삼각지 쪽을 많이 가게 되는 것 같아요.” (무용·음악 종사자)

3. 연습 공간/시설 이용 현황

- 연습 공간/시설 이용 시, 비용이 가장 중요하며, 이외에 시설 환경, 규모, 접근성 등도 고려하여 연습실을 선택함

“연습 공간을 고를 때는 결국 돈이 제일 중요해요.” (연극·뮤지컬 분야 종사자)

“한두 번이면 모르겠는데, 한 달씩 계속 쓰게 되면 비용 차이가 크게 느껴져요.” (연극·뮤지컬 분야 종사자)

“비용을 크게 고려하지 않더라도 웬만하면 쾌적한 곳을 찾는데, 그런 곳은 거의 없고 항상 예약이 꽉 차 있어요.” (연극·뮤지컬 분야 종사자)

“오케스트라는 보면대나 단상 같은 게 당연히 있어야 하고, 악기도 굉장히 많아요. 그걸 다 갖춘 연습실이 사실 서초동에 몇 군데밖에 없어요. 선택권이 없죠.” (무용·음악 종사자)

“공짜로 빌려줘도 악기 이동 비용 때문에 결국 다 갖춰진 곳을 쓸 수밖에 없어요.” (무용·음악 종사자)

“강남이나 사당·이수 쪽은 이동이 상대적으로 수월해서 많이 가게 돼요.” (무용·음악 종사자)

- 연습실 이용 시, 대부분 지하에 연습실이 있어 쾌적한 환경이 부족하며, 대규모 연습 공간을 대여할 수 있는 연습실이 부족한 상황임

“지하 연습실은 냄새랑 습기가 어쩔 수 없고, 한 달씩 쓰면 몸에도 안 좋아요.” (연극·뮤지컬 분야 종사자)

“햇볕이 들어오는 데서 연습하고 싶은데, 그런 곳이 정말 드물어요.” (무용·음악 종사자)

“작은 연습실은 많은데, 일정 규모 이상 되는 곳은 거의 없어요.” (연극·뮤지컬 분야 종사자)

“연극팀은 자본이 적다 보니 환경이 안 좋은 곳을 찾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연극·뮤지컬 분야 종사자)

“공공기관 연습실은 그런 조건을 충족해 주는 몇 안 되는 선택지예요.” (연극·뮤지컬 분야 종사자)

제2절 대학로의 공연예술 정보 접근 및 교류 환경

1. 평소 공연예술 관련 정보 습득 채널

- 공모사업은 SNS, 기관 사이트, 민간 운영 사이트 등을 통해 정보를 찾아보며, 함께 작업을 할 예술인을 모집할 경우는 지인 추천을 통해 인력을 탐색함

“인스타그램에서 대충 보고, 그다음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는 편이에요. 공모가 뒀다는 걸 알면 바로 들어가서 세부 내용을 확인하죠.” (연극·뮤지컬 분야 종사자)

“요즘은 작은 소극장들도 페스티벌 형태로 공모를 많이 하니까, 그런 정보도 인스타에서 가장 먼저 알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연극·뮤지컬 분야 종사자)

“공공사업이 아트누리에 모여 있다는 건 알고 있어요. 운영도 꽤 잘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연극·뮤지컬 분야 종사자)

“민간 소극장이나 사립재단 정보는 위아츠나 위드 같은 민간 사이트에서 따로 모아서 제공하는 경우가 있어요.” (연극·뮤지컬 분야 종사자)

“저는 플랫폼보다는 해당 기관을 직접 봐요. 서울문화재단, 경기문화재단, 아르코 같은 곳을 즐겨찾기 해놓고 하루에도 몇 번씩 들어가요.” (무용·음악 종사자)

“주변 예술가 지인들 통해서 아름아름 정보를 모아요.” (무용·음악 종사자)

“모르는 사람이랑은 작업하기가 쉽지 않아서, 아는 사람을 통해 연결된 분이면 그분 작업을 보고 신뢰가 생기면 같이 해요.” (무용·음악 종사자)

- 그러나 공모사업의 경우, 여러 채널을 통해 공모사업을 찾아볼 수 밖에 없는 불편함이 있어, 공모사업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채널(창구)이 필요하다고 인식함

“정보가 한 곳에 모여 있지 않고 여기저기 흩어져 있다 보니, 정보 접근성이 좋은 사람들은 더 많은 기회를 얻고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모르고 지나치는 일이 굉장히 많아요.” (연극·뮤지컬 분야 종사자)

“결국 누군가는 더 많은 정보를 갖고, 누군가는 아예 정보 자체를 못 접하는 구조가 반복되는 것 같아요.” (연극·뮤지컬 분야 종사자)

“지금은 사업명을 알아야 검색조차 가능한 구조라서, 그 자체가 굉장히 큰 장벽이에요.” (연극·뮤지컬 분야 종사자)

“조건만 입력하면 맞는 지원이 뜨는 구조가 아니라, 아는 사람만 계속 아는 구조라고 느껴져요.” (연극·뮤지컬 분야 종사자)

“결국 누군가에게서 전해 듣다가, 기간이 지나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연극·뮤지컬 분야 종사자)

“알고 보니 끝났더라, 마감됐더라 하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연극·뮤지컬 분야 종사자)

“연극센터나 창작센터 같은 곳에서 이런 행정적인 정보 탐색을 도와주는 기능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연극·뮤지컬 분야 종사자)

“지원사업이 어디에 있고, 내가 해당되는지 같이 봐줄 수 있는 창구가 있으면 좋겠어요.” (연극·뮤지컬 분야 종사자)

2. 대학로가 예술인 간 교류·네트워킹 등 충분한 환경 조성

- 최근 오프라인에서 온라인 중심의 교류 방식이 변화됨에 따라 정보탐색, 네트워킹 등을 위해 대학로를 찾지 않으나, 예술인이 편하게 모일 수 있는 공간이 있다면 자연스럽게 교류 및 네트워킹이 이뤄질 수 있다고 인식함

“그건 지역의 문제라기보다는 시대의 문제인 것 같아요. 정보 교류는 이미 온라인 중심으로 넘어갔거든요.” (연극·뮤지컬 분야 종사자)

“요즘 누가 직접 만나서 정보를 전달하나요.” (연극·뮤지컬 분야 종사자)

“굳이 정보를 얻기 위해 대학로로 오지는 않죠.” (연극·뮤지컬 분야 종사자)

“약속이 있으면 오지만, 네트워킹을 하려고 오는 공간은 아니에요.” (연극·뮤지컬 분야 종사자)

“연습실이 충분히 많고, 그 옆에 큰 휴게 공간이 있다면 여러 팀이 연습하다가 나와서 자연스럽게 인사하고 대화할 수 있겠죠.” (연극·뮤지컬 분야 종사자)

“네트워킹이 되려면 ‘올 이유’를 만들어줘야 하는데, 지금은 그게 없어요.” (연극·뮤지컬 분야 종사자)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모여서 대화할 수 있는 광장이나 공간이 있어야 하는데, 대학로에는 그런 공간이 거의 없어요.” (연극·뮤지컬 분야 종사자)

제3절 서울문화재단 운영공간 인식·이용 경험

1. 서울문화재단 운영 공간 이용 현황

1) 서울연극센터

- 서울연극센터 1층은 출구 바로 앞에 위치 및 통유리 구조를 통해 시민 접근성이 높은 공간으로 공연에 대한 정보 제공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인식함
- 그러나 방음 시설, 공연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공간 설계 등에 대해 불편함을 느낌

“1층은 일반 시민들도 가볍게 오가고, 지나가면서 지금 어떤 공연이나 프로그램이 있는지 한눈에 볼 수 있어요.” (연극·뮤지컬 분야 종사자)

“2층 회의실이 가벽으로 분리돼 있어서 옆에서 리딩 연습을 하면 소리가 그대로 넘어와요. 유료 공간인데도 방음이 거의 안 돼서 작년 한 해 동안 스터디하면서 꽤 불편했습니다.” (연극·뮤지컬 분야 종사자)

“바로 옆 연습실은 벽이 제대로 설치돼 있어서 방음도 잘 되는데, 회의실만 왜 가벽인지 이해가 안 됐어요.” (연극·뮤지컬 분야 종사자)

“공연을 보러 갔을 때도 ‘여기서 공연을 한다고?’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실제로는 계단이나 복도를 활용한 이머시브 형식이 대부분이더라고요.” (연극·뮤지컬 분야 종사자)

“실질적인 공연 공간이라기보다는 이벤트 공간 같은 인상이 강했어요.” (연극·뮤지컬 분야 종사자)

2) 서울연극창작센터

- 서울연극창작센터 개관을 통해 부족하고 열악했던 민간 연습실을 대체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었으나, 효율적인 공간 설계 부족으로 실제 창작활동을 할 수 있는 연습 공간은 부족하다고 인식함

“연극 창작센터가 들어온다고 해서 공공극장이나 공공 연습실이 늘어날 거라고 기대했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았어요.” (연극·뮤지컬 분야 종사자)

“공연은 대본 리딩부터 동선까지 배우들과 함께 연습해야 해서 반드시 공간이 필요해요. 그런데 그런 공간이 부족해요.” (연극·뮤지컬 분야 종사자)

“시민들이 쉬는 공간으로 쓸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넓은 면적을 로비로 쓸 필요가 있었을까 싶어요.” (연극·뮤지컬 분야 종사자)

“2층 전체를 6인 이상 회의실로 만들어도 충분했을 텐데, 실제로는 예쁘게만 꾸며져 있어서 공간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연극·뮤지컬 분야 종사자)

“인테리어에 비용은 많이 썼지만, 공간 활용은 효율적이지 않다고 느꼈어요.” (연극·뮤지컬 분야 종사자)

“전면에 작품을 전시해 놓은 쇼룸 같은 느낌이 강해요.” (연극·뮤지컬 분야 종사자)

“지금은 ‘예술이 예쁘죠’라는 이미지를 보여주는 공간처럼 느껴집니다.” (연극·뮤지컬 분야 종사자)

3) 대학로센터(대학로극장 쿼드, 서울예술인지원센터)

- 대학로센터는 실험적인 시도와 창작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있으나, 점차 열람실 분위기로 변화 등 본연의 취지가 약해지고 있다고 인식함

“실험적인 시도를 하는 공간이라는 건 이해하지만, 많은 비용을 들여 만든 공간이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아쉽습니다.” (연극·뮤지컬 분야 종사자)

“처음과 지금의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어요. 지금은 거의 독서실이나 열람실 같은 느낌이에요. ‘라운지는 사람들이 오가며 쉬고 이야기하는 공간인데, 칸막이가 생기고 개인화되면서 네트워킹 성격이 약해진 것 같아요.’ (연극·뮤지컬 분야 종사자)

2. 서울연극센터와 서울연극창작센터 간 기능 구분

- 현재 서울연극센터와 서울연극창작센터의 기능/역할은 유사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향후 서울연극센터와 서울연극창작센터 간 명확한 기능/역할 정의를 통해 이에 맞는 공간 구성이 필요하다고 언급함

“지금은 두 공간이 거의 똑같다고 느껴요.” (연극·뮤지컬 분야 종사자)

“저도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기능 차이가 잘 보이지 않아요.” (연극·뮤지컬 분야 종사자)

“앞으로는 분리가 필요하다고 봐요. 창작 중심으로 갈 것인지, 시민과 연극 홍보 중심으로 갈 것인지 명확하게 나눠야 할 것 같습니다.” (연극·뮤지컬 분야 종사자)

“공간별로 목적성을 분명히 하고, 그에 맞게 특성화하는 방식이 더 나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연극센터는 시민 대상 홍보와 접근성에 집중하고, 연습실과 세미나실은 창작센터로 집중시키는 식의 재구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연극·뮤지컬 분야 종사자)

“서울연극센터는 대학로 한가운데에 있으니, 대학로뿐 아니라 서울 전체 공연을 홍보하고 시민들이 친숙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드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연극·뮤지컬 분야 종사자)

“서울연극창작센터는 창작자 중심 공간으로, 세미나실이나 회의실 수를 늘리고 연습실도 확충해서 자유롭게 작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맞다고 봅니다.” (연극·뮤지컬 분야 종사자)

3. 서울문화재단 운영 공간/시설 이용 시 불편점

- 연습 및 창작활동을 위한 공간이 많지 않으며, 대관 신청 기간, 신청 서류, 당일/전날 취소 공간 이용 불가 등에 대한 불편점을 언급함

“연습은 언제 시작될지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한 달 전에 예약해야 하는 것이 너무 불편해요.”
(연극·뮤지컬 분야 종사자)

“절대적으로 공간이 너무 적어요. 팀은 많은데, 예약은 이미 꽉 차 있어서 당장 쓰기가 어렵습니다.”
(연극·뮤지컬 분야 종사자)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은 굉장히 한정적이고, 생각보다 그런 공간들이 많지 않아요.”
(연극·뮤지컬 분야 종사자)

“경쟁률도 치열하고 준비해야 하는 서류가 있어서 번거로운 게 많아요.” (연극·뮤지컬 분야 종사자)

“신청도 그냥 되는 게 아니고, 준비할 게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연극·뮤지컬 분야 종사자)

“당일에 예약이 취소돼서 공간이 비어도 그 정보가 시스템에 뜨지 않아요.” (연극·뮤지컬 분야 종사자)

“전날이나 당일에 바로 이용하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연극·뮤지컬 분야 종사자)

제4절 향후 ‘공연예술 정보·교류 거점’ 역할·기능 인식

1. 향후 공간/시설의 이상적인 기능/역할

- 우선 현재 서울연극센터, 서울연극창작센터, 대학로센터의 명확한 기능/역할 정의가 필요하며, 이를 통해 예술인과 시민을 위한 별도의 공간 구성이 필요하다고 인식함
- 또한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위한 공간 구성이 무엇보다 필요하며, 이외에 소속감과 네트워킹할 수 있는 환경 조성, 통합된 정보 제공, 상담, 예술인 프로그램 등의 예술인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도 필요하다고 언급함

“시민을 위한 공간인지, 예술인을 위한 공간인지 목적이 애매하게 섞이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연극·뮤지컬 분야 종사자)

“연극센터는 시민 대상 홍보와 접근성에 집중하고, 창작센터는 창작자들이 작업에 집중할 수 있는 공간이 되는 게 맞다고 봐요.” (연극·뮤지컬 분야 종사자)

“결국 예술인들이 지속적으로 창작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지 않으면 콘텐츠의 힘도 나올 수 없다고 생각해요.” (연극·뮤지컬 분야 종사자)

“연극이 어려워지는 이유를 보면 홍보 이전에 창작자들이 계속 작업할 수 있는 환경이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느껴요.” (연극·뮤지컬 분야 종사자)

“자율적으로 작업할 수 있는 공간이 주어진다면 예술가는 알아서 성장한다고 봅니다.” (무용·음악 종사자)

“창작자들이 서로의 작업을 보고 배우고, 다시 도전할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연극·뮤지컬 분야 종사자)

“재교육이나 멘토링 같은 기능이 있어야 예술인이 계속 남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연극·뮤지컬 분야 종사자)

“극단을 만들고 소속을 만들려는 이유는 결국 불안정해서 어디엔가 발을 붙이고 싶기 때문이에요.”
(연극·뮤지컬 분야 종사자)

“네트워킹 공간이 잘 만들어지면 그런 불안정함을 조금 덜 수 있을 것 같아요.” (연극·뮤지컬 분야 종사자)

“그 공간에서 일하는 사람이 공연예술을 이해하고 있어야 질문도 하고 상담도 할 수 있어요.”
(무용·음악 종사자)

“주민센터처럼 맞춤형 안내가 있으면 좋겠어요. ‘저한테 맞는 지원사업이 있을까요?’라고 물으면 조건에 맞춰 추천해 주는 서비스요.” (연극·뮤지컬 분야 종사자)

“초기 입문자를 위한 프로그램이 있으면 좋겠어요.” (연극·뮤지컬 분야 종사자)

2. 예술인과 시민 간 교류 활성화를 위한 필요 프로그램

- 예술인과 시민 간 직접적인 만남·교류보다는 시민이 대학로 공연에 대한 관심도를 높일 수 있는 우수한 콘텐츠 제공 또는 홍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를 위해 창작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 및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식함

“예술인과 시민이 다이렉트로 교류하기보다는, 1차 교류는 작품을 통해 일어난다고 봐요.”
(연극·뮤지컬 분야 종사자)

“공연을 봐야 배우나 작품에 대해 알게 되고, 그다음에 교류도 가능해지는 거죠.” (연극·뮤지컬 분야 종사자)

“오히려 접근성을 높이고, 홍보를 강화하고, 퍼레이드나 웰컴 대학로 같은 방식이 더 효과적일 수 있어요.” (연극·뮤지컬 분야 종사자)

“지금은 교류를 이야기하기 전에, 콘텐츠의 질을 높여 공연을 보러 오게 만드는 단계가 먼저라고 생각해요.” (연극·뮤지컬 분야 종사자)

Part III.

시민 조사 결과



제1장 정량조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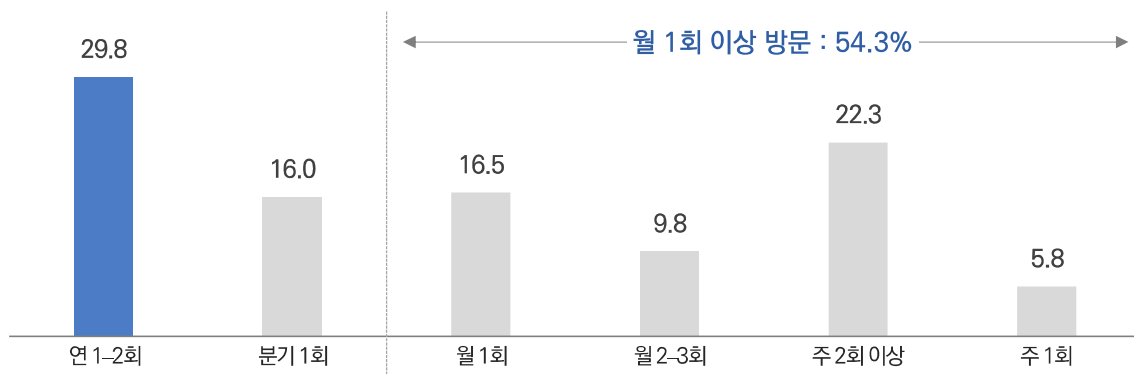
제1절 대학로 방문 및 문화공간 이용 행태

1. 대학로 방문 현황

- 최근 1년 동안 대학로에 방문한 빈도를 조사한 결과, '연 1~2회'가 29.8%로 가장 높았으나, 전체 응답자의 54.3%가 '월 1회 이상' 방문하는 것으로 나타남
 - '월 1회 이상 방문'한 비율은 성별로 '남성(48.8%)' 대비 '여성(55.7%)', 연령별로 '18~29세(73.1%)', 거주지역별로 '서울시(57.5%)', 직업별로 '학생(77.1%)'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그림 3-1〉 대학로 방문 현황

[Base: 전체, 사례수: 400명, 단위: %]



Q. 최근 1년 동안 귀하께서는 대학로에 얼마나 방문하십니까?

〈표 3-1〉 대학로 방문 현황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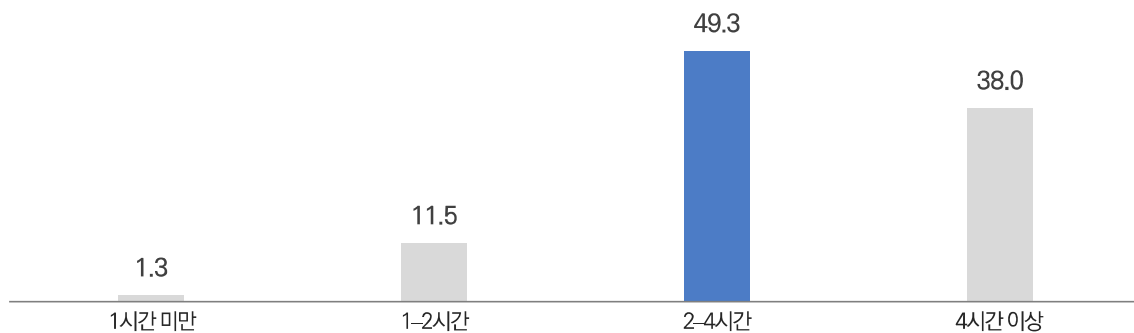
구분		사례수	연 1-2회	분기 1회	월 1회 이상 방문				
					월 1회	월 2-3회	주 2회 이상	주 1회	
전체		(400)	29.8	16.0	16.5	9.8	22.3	5.8	54.3
성별	남성	(82)	34.1	17.1	23.2	12.2	12.2	1.2	48.8
	여성	(318)	28.6	15.7	14.8	9.1	24.8	6.9	55.7
연령대	18~29세	(104)	17.3	9.6	10.6	12.5	44.2	5.8	73.1
	30~39세	(116)	33.6	12.9	14.7	11.2	19.8	7.8	53.4
	40~49세	(111)	33.3	19.8	22.5	7.2	12.6	4.5	46.8
	50세 이상	(69)	36.2	24.6	18.8	7.2	8.7	4.3	39.1
거주지역	서울시	(254)	26.8	15.7	17.7	11.4	22.0	6.3	57.5
	인천/경기	(124)	33.1	17.7	15.3	7.3	22.6	4.0	49.2
	수도권 외	(22)	45.5	9.1	9.1	4.5	22.7	9.1	45.5
직업	학생	(70)	15.7	7.1	7.1	17.1	47.1	5.7	77.1
	직장인	(159)	33.3	15.1	17.6	5.7	23.3	5.0	51.6
	자영업	(20)	25.0	25.0	25.0	10.0	5.0	10.0	50.0
	전업주부	(55)	40.0	30.9	10.9	10.9	5.5	1.8	29.1
	프리랜서	(87)	29.9	14.9	21.8	9.2	16.1	8.0	55.2
	기타	(9)	22.2	0.0	33.3	22.2	11.1	11.1	77.8

2. 대학로 방문 시 체류 시간

- 대학로 방문 시 평균 체류 시간으로 ‘2~4시간’이 49.3%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4시간 이상’이 38.0%로 대부분 2시간 이상 체류하는 것으로 나타남
 - ‘4시간 이상’ 체류한 비율은 성별로 ‘남성(29.3%)’ 대비 ‘여성(40.3%)’, 연령별로 ‘18~29세(46.2%)’, 거주지역별로 ‘수도권 외(50.0%)’, 직업별로 ‘학생(42.9%)’과 ‘프리랜서(42.5%)’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그림 3-2〉 대학로 방문 시 체류 시간

[Base: 전체, 사례수: 400명, 단위: %]



Q. 대학로에 방문하여 머무른 시간은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입니까?

〈표 3-2〉 대학로 방문 시 체류 시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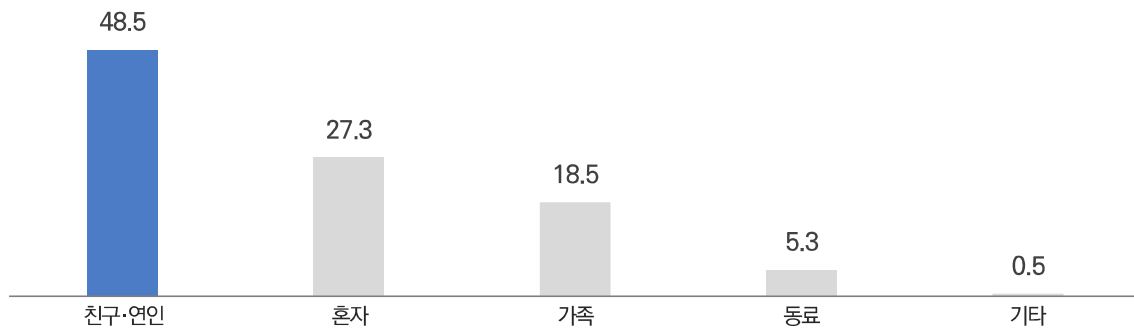
구분		사례수	1시간 미만	1~2시간	2~4시간	4시간 이상
전체		(400)	1.3	11.5	49.3	38.0
성별	남성	(82)	3.7	12.2	54.9	29.3
	여성	(318)	0.6	11.3	47.8	40.3
연령대	18~29세	(104)	1.9	7.7	44.2	46.2
	30~39세	(116)	0.0	11.2	51.7	37.1
	40~49세	(111)	2.7	10.8	52.3	34.2
	50세 이상	(69)	0.0	18.8	47.8	33.3
거주지역	서울시	(254)	1.2	13.4	50.4	35.0
	인천/경기	(124)	1.6	8.1	48.4	41.9
	수도권 외	(22)	0.0	9.1	40.9	50.0
직업	학생	(70)	1.4	10.0	45.7	42.9
	직장인	(159)	0.6	10.1	52.2	37.1
	자영업	(20)	10.0	0.0	55.0	35.0
	전업주부	(55)	0.0	23.6	45.5	30.9
	프리랜서	(87)	1.1	8.0	48.3	42.5
	기타	(9)	0.0	33.3	44.4	22.2

3. 대학로 방문 시 동반인

- 대학로 방문 시 ‘친구·연인’과 방문하는 비율이 48.5%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혼자(27.3%)’, ‘가족(18.5%)’, ‘동료(5.3%)’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친구·연인’과 방문한 비율은 성별로 연령별로 ‘18~29세(55.8%)’와 ‘30~39세(53.4%)’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그림 3-3〉 대학로 방문 시 동반인

[Base: 전체, 사례수: 400명, 단위: %]



Q. 대학로를 방문할 때 주로 누구와 함께 가십니까?

〈표 3-3〉 대학로 방문 시 동반인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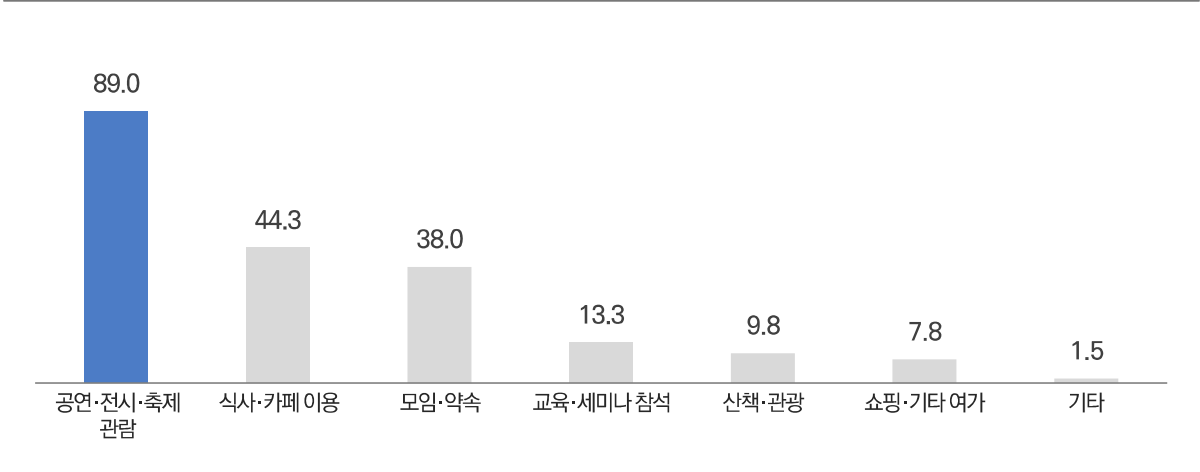
구분		사례수	친구·연인	혼자	가족	동료	기타
전체		(400)	48.5	27.3	18.5	5.3	0.5
성별	남성	(82)	48.8	19.5	24.4	7.3	0.0
	여성	(318)	48.4	29.2	17.0	4.7	0.6
연령대	18~29세	(104)	55.8	35.6	2.9	4.8	1.0
	30~39세	(116)	53.4	34.5	7.8	4.3	0.0
	40~49세	(111)	36.0	19.8	38.7	5.4	0.0
	50세 이상	(69)	49.3	14.5	27.5	7.2	1.4
거주지역	서울시	(254)	48.4	27.6	18.5	5.1	0.4
	인천/경기	(124)	50.8	23.4	21.0	4.8	0.0
	수도권 외	(22)	36.4	45.5	4.5	9.1	4.5
직업	학생	(70)	55.7	35.7	4.3	4.3	0.0
	직장인	(159)	47.8	24.5	22.0	4.4	1.3
	자영업	(20)	65.0	25.0	10.0	0.0	0.0
	전업주부	(55)	49.1	3.6	45.5	1.8	0.0
	프리랜서	(87)	39.1	39.1	10.3	11.5	0.0
	기타	(9)	55.6	44.4	0.0	0.0	0.0

4. 대학로 방문 목적

- 대학로를 방문하는 목적으로 ‘공연·전시·축제 관람’이 89.0%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식사·카페 이용(44.3%)’, ‘모임·약속(38.0%)’, ‘교육·세미나 참석(13.3%)’ 등의 순으로 나타남
 - ‘공연·전시·축제 관람’ 목적으로 방문한 비율은 연령별로 ‘40대 이하’, 직업별로 ‘직장인(93.1%)’과 ‘학생(92.9%)’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그림 3-4〉 대학로 방문 목적

[Base: 전체, 사례수: 400명, 단위: %, 복수응답]



Q. 대학로를 방문하는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해당하는 것을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표 3-4〉 대학로 방문 목적

[단위: %, 복수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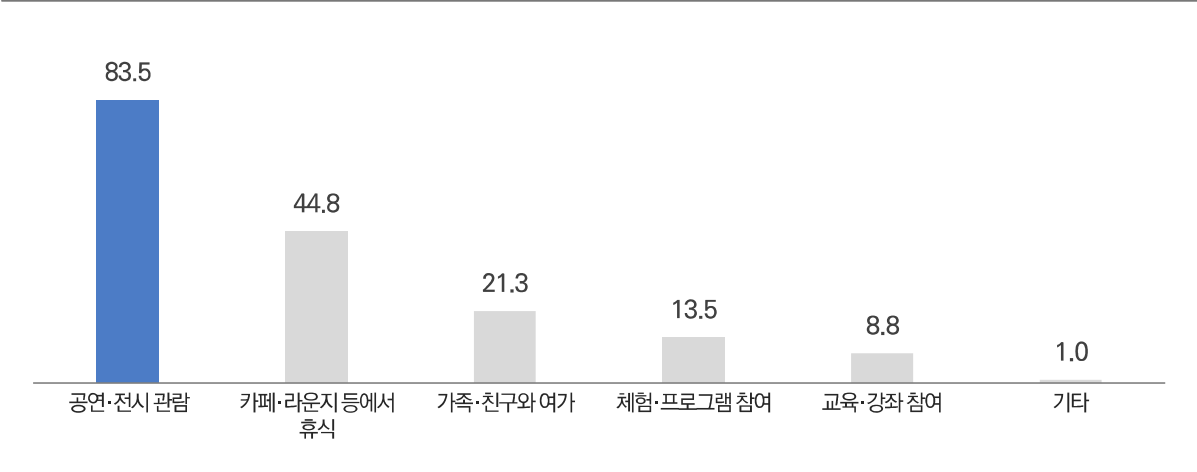
구분		사례수	공연·전시·축제 관람	식사·카페 이용	모임·약속	교육·세미나 참석	산책·관광	쇼핑·기타 여가	기타
전체		(400)	89.0	44.3	38.0	13.3	9.8	7.8	1.5
성별	남성	(82)	86.6	46.3	31.7	9.8	6.1	6.1	1.2
	여성	(318)	89.6	43.7	39.6	14.2	10.7	8.2	1.6
연령대	18~29세	(104)	92.3	49.0	44.2	10.6	11.5	6.7	1.9
	30~39세	(116)	90.5	44.0	38.8	15.5	7.8	5.2	0.0
	40~49세	(111)	91.0	37.8	31.5	18.0	11.7	10.8	1.8
	50세 이상	(69)	78.3	47.8	37.7	5.8	7.2	8.7	2.9
거주지역	서울시	(254)	89.0	44.9	38.6	15.0	11.0	7.9	2.0
	인천/경기	(124)	88.7	45.2	38.7	10.5	7.3	8.9	0.8
	수도권 외	(22)	90.9	31.8	27.3	9.1	9.1	0.0	0.0
직업	학생	(70)	92.9	51.4	47.1	10.0	12.9	8.6	2.9
	직장인	(159)	93.1	44.7	32.1	10.1	8.8	7.5	0.6
	자영업	(20)	80.0	40.0	25.0	0.0	5.0	0.0	5.0
	전업주부	(55)	78.2	49.1	49.1	7.3	7.3	14.5	0.0
	프리랜서	(87)	87.4	39.1	36.8	27.6	11.5	5.7	2.3
	기타	(9)	88.9	11.1	44.4	22.2	11.1	0.0	0.0

5. 대학로 내 문화공간 이용 목적

- 대학로 내 극장, 라운지 등 문화공간을 이용하는 이유로 ‘공연·전시 관람’이 83.5%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카페·라운지 등에서 휴식(44.8%)’, ‘가족·친구와 여가(21.3%)’, ‘체험·프로그램 참여(13.5%)’ 등의 순으로 나타남
 - ‘공연·전시 관람’ 목적으로 이용한 비율은 연령별로 ‘40~49세(86.5%)’와 ‘30~39세(86.2%)’, 거주지역별로 ‘수도권 외(86.4%)’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그림 3-5〉 대학로 내 문화공간 이용 목적

[Base: 전체, 사례수: 400명, 단위: %, 복수응답]



Q. 대학로 내 문화공간(극장, 라운지 등)은 어떤 목적으로 주로 이용하십니까?

〈표 3-5〉 대학로 내 문화공간 이용 목적

[단위: %, 복수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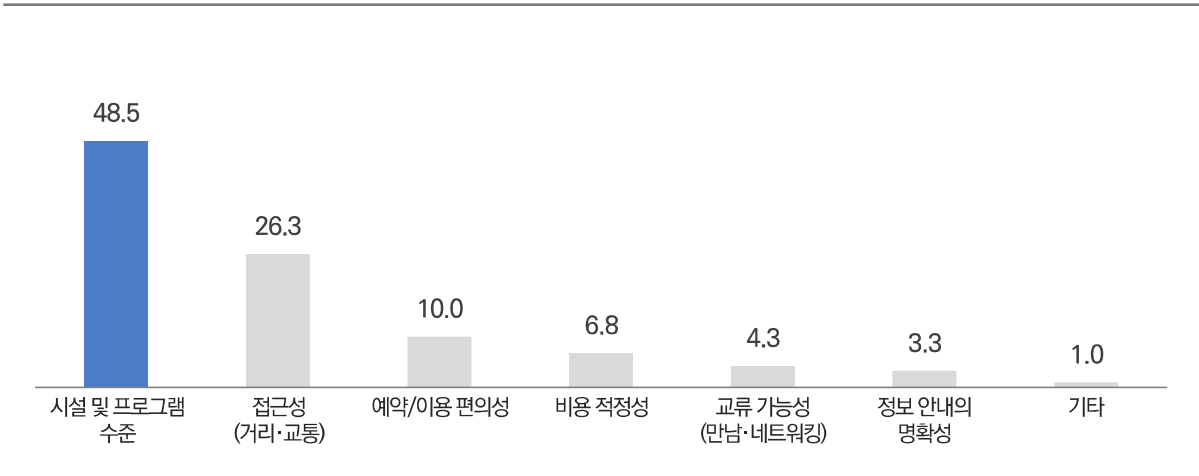
구분		사례수	공연·전시 관람	카페·라운지 등에서 휴식	가족·친구와 여가	체험·프로그램 참여	교육·강좌 참여	기타
전체		(400)	83.5	44.8	21.3	13.5	8.8	1.0
성별	남성	(82)	80.5	34.1	19.5	14.6	9.8	0.0
	여성	(318)	84.3	47.5	21.7	13.2	8.5	1.3
연령대	18~29세	(104)	81.7	51.0	24.0	9.6	3.8	1.0
	30~39세	(116)	86.2	45.7	13.8	13.8	8.6	0.9
	40~49세	(111)	86.5	41.4	18.9	20.7	17.1	0.0
	50세 이상	(69)	76.8	39.1	33.3	7.2	2.9	2.9
거주지역	서울시	(254)	83.9	46.1	20.1	15.0	9.1	0.8
	인천/경기	(124)	82.3	44.4	25.8	12.1	9.7	1.6
	수도권 외	(22)	86.4	31.8	9.1	4.5	0.0	0.0
직업	학생	(70)	82.9	54.3	32.9	5.7	2.9	1.4
	직장인	(159)	87.4	40.9	19.5	10.1	5.7	0.0
	자영업	(20)	90.0	35.0	15.0	25.0	5.0	0.0
	전업주부	(55)	74.5	52.7	34.5	10.9	1.8	1.8
	프리랜서	(87)	80.5	40.2	9.2	24.1	23.0	2.3
	기타	(9)	88.9	55.6	11.1	22.2	22.2	0.0

6. 문화공간 이용 시 중요 고려 요인

- 문화공간 이용 시 중요 고려 요인으로 ‘시설 및 프로그램 수준’이 48.5%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접근성(거리·교통)(26.3%)’, ‘예약/이용 편의성(10.0%)’, ‘비용 적정성(6.8%)’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시설 및 프로그램 수준’을 중요하게 고려하는 비율은 성별로 ‘여성(47.5%)’ 대비 ‘남성(52.4%)’, 연령별로 ‘40~49세(54.1%)’와 ‘30~39세(51.7%)’, 거주지역별로 ‘서울시(52.4%)’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그림 3-6〉 문화공간 이용 시 중요 고려 요인

[Base: 전체, 사례수: 400명, 단위: %]



Q. 문화공간을 선택하고 이용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는 무엇입니까?

〈표 3-6〉 문화공간 이용 시 중요 고려 요인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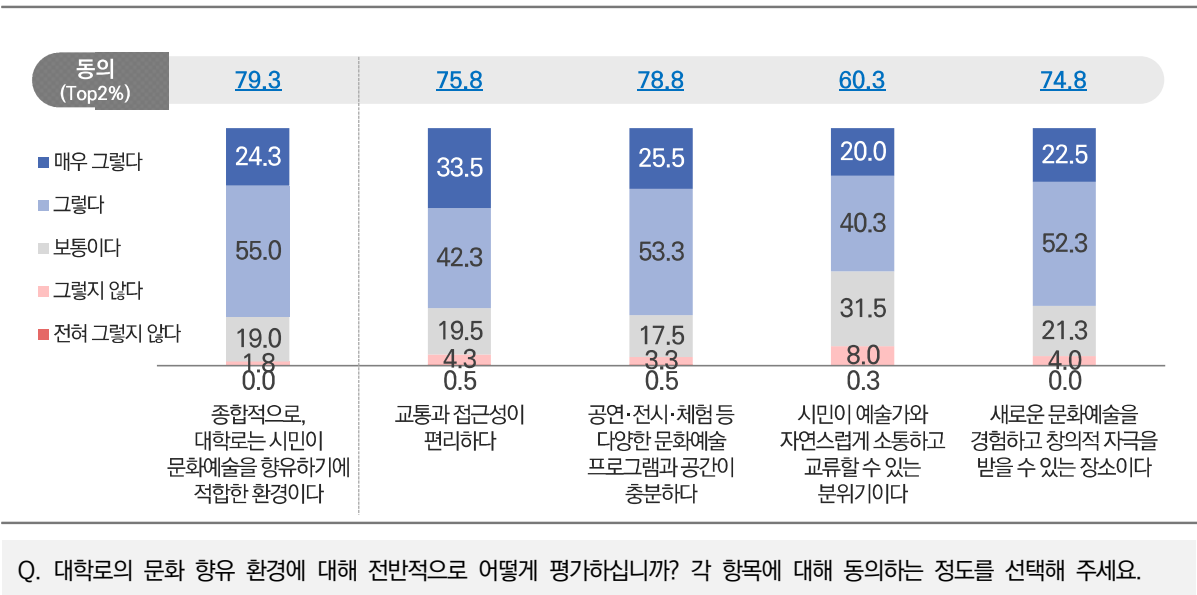
구분		사례수	시설 및 프로그램 수준	접근성 (거리·교통)	예약/이용 편의성	비용 적정성	교류 가능성 (만남·네트워킹)	정보 안내의 명확성	기타
전체		(400)	48.5	26.3	10.0	6.8	4.3	3.3	1.0
성별	남성	(82)	52.4	26.8	4.9	6.1	3.7	6.1	0.0
	여성	(318)	47.5	26.1	11.3	6.9	4.4	2.5	1.3
연령대	18~29세	(104)	41.3	28.8	13.5	9.6	3.8	2.9	0.0
	30~39세	(116)	51.7	22.4	8.6	6.0	6.0	3.4	1.7
	40~49세	(111)	54.1	22.5	9.0	5.4	4.5	3.6	0.9
	50세 이상	(69)	44.9	34.8	8.7	5.8	1.4	2.9	1.4
거주지역	서울시	(254)	52.4	24.4	7.5	7.9	3.1	3.5	1.2
	인천/경기	(124)	41.1	29.8	12.9	5.6	6.5	3.2	0.8
	수도권 외	(22)	45.5	27.3	22.7	0.0	4.5	0.0	0.0
직업	학생	(70)	45.7	27.1	12.9	8.6	4.3	1.4	0.0
	직장인	(159)	42.1	28.9	13.2	6.3	3.8	4.4	1.3
	자영업	(20)	60.0	15.0	10.0	5.0	5.0	0.0	5.0
	전업주부	(55)	41.8	32.7	7.3	10.9	5.5	1.8	0.0
	프리랜서	(87)	62.1	19.5	4.6	4.6	4.6	3.4	1.1
	기타	(9)	66.7	22.2	0.0	0.0	0.0	11.1	0.0

7. 대학로 내 문화 향유 환경

- 대학로 문화 향유 환경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79.3%가 ‘종합적으로 대학로는 시민이 문화예술을 향유하기에 적합한 환경이다’에 대해 긍정적으로 응답함
 - ‘대학로는 시민이 문화예술을 향유하기에 적합한 환경이다’에 대해 긍정적으로 응답한 비율은 성별로 ‘여성(78.0%)’ 대비 ‘남성(84.1%)’, 연령별로 ‘18~29세(84.6%)’, 거주지역별로 ‘서울시(80.3%)’, 직업별로 ‘학생(88.6%)’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 세부 항목별로 대부분 70% 이상이 동의하고 있으며, 특히 ‘공연·전시·체험 등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과 공간이 충분하다’에 대해 동의하는 비율이 78.8%로 가장 높음
- 반면, ‘시민이 예술가와 자연스럽게 소통하고 교류할 수 있는 분위기이다’에 대해 동의하는 비율은 60.3%로 상대적으로 낮음

〈그림 3-7〉 대학로 내 문화 향유 환경

[Base: 전체, 사례수: 400명, 단위: %]



〈표 3-7〉 대학로 내 문화 향유 환경

[단위: Top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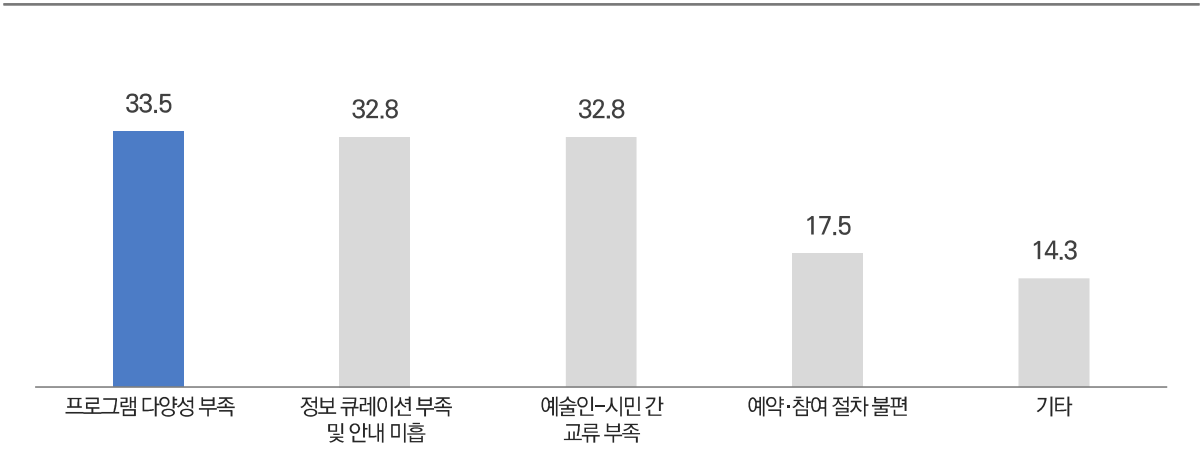
구분		사례수	종합적으로, 대학로는 시민이 문화예술을 향유하기에 적합한 환경이다	교통과 접근성이 편리하다	공연·전시·체험 등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과 공간이 충분하다	시민이 예술가와 자연스럽게 소통하고 교류할 수 있는 분위기이다	새로운 문화예술을 경험하고 창의적 자극을 받을 수 있는 장소이다
전체		(400)	79.3	75.8	78.8	60.3	74.8
성별	남성	(82)	84.1	76.8	85.4	68.3	75.6
	여성	(318)	78.0	75.5	77.0	58.2	74.5
연령대	18~29세	(104)	84.6	76.9	83.7	62.5	79.8
	30~39세	(116)	75.0	74.1	82.8	57.8	69.8
	40~49세	(111)	78.4	73.9	71.2	55.9	75.7
	50세 이상	(69)	79.7	79.7	76.8	68.1	73.9
거주지역	서울시	(254)	80.3	79.1	77.6	59.1	72.8
	인천/경기	(124)	78.2	67.7	81.5	63.7	79.0
	수도권 외	(22)	72.7	81.8	77.3	54.5	72.7
직업	학생	(70)	88.6	80.0	87.1	67.1	81.4
	직장인	(159)	81.1	79.9	79.2	64.2	75.5
	자영업	(20)	65.0	65.0	75.0	55.0	75.0
	전업주부	(55)	74.5	67.3	63.6	60.0	67.3
	프리랜서	(87)	74.7	73.6	79.3	48.3	72.4
	기타	(9)	77.8	66.7	100.0	66.7	77.8

8. 대학로 이용 시 불편 사항

- 대학로 이용 시 불편하거나 아쉬웠던 점으로 ‘프로그램 다양성 부족’이 33.5%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정보 큐레이션 부족 및 안내 미흡’과 ‘예술인-시민 간 교류 부족’도 32.8%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음
 - ‘프로그램 다양성 부족’은 성별로 ‘여성(32.1%)’ 대비 ‘남성(39.0%)’, 연령별로 ‘40~49세(40.5%)’, 거주지역별로 ‘서울시(38.6%)’에서 응답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그림 3-8〉 대학로 이용 시 불편 사항

[Base: 전체, 사례수: 400명, 단위: %]



Q. 귀하께서 대학로를 이용하면서 불편하거나 아쉬웠던 점은 무엇입니까? 해당하는 것을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표 3-8〉 대학로 이용 시 불편 사항

[단위: %]

구분		사례수	프로그램 다양성 부족	정보 큐레이션 부족 및 안내 미흡	예술인-시민 간 교류 부족	예약·참여 절차 불편	기타
전체		(400)	33.5	32.8	32.8	17.5	14.3
성별	남성	(82)	39.0	29.3	34.1	13.4	12.2
	여성	(318)	32.1	33.6	32.4	18.6	14.8
연령대	18~29세	(104)	28.8	26.9	26.0	16.3	25.0
	30~39세	(116)	33.6	31.0	33.6	22.4	12.1
	40~49세	(111)	40.5	31.5	38.7	11.7	11.7
	50세 이상	(69)	29.0	46.4	31.9	20.3	5.8
거주지역	서울시	(254)	38.6	33.1	34.6	16.9	13.8
	인천/경기	(124)	26.6	33.9	25.8	17.7	16.1
	수도권 외	(22)	13.6	22.7	50.0	22.7	9.1
직업	학생	(70)	25.7	34.3	27.1	17.1	27.1
	직장인	(159)	35.2	29.6	33.3	18.9	10.7
	자영업	(20)	30.0	35.0	35.0	20.0	15.0
	전업주부	(55)	34.5	47.3	32.7	12.7	7.3
	프리랜서	(87)	34.5	26.4	36.8	18.4	16.1
	기타	(9)	55.6	44.4	22.2	11.1	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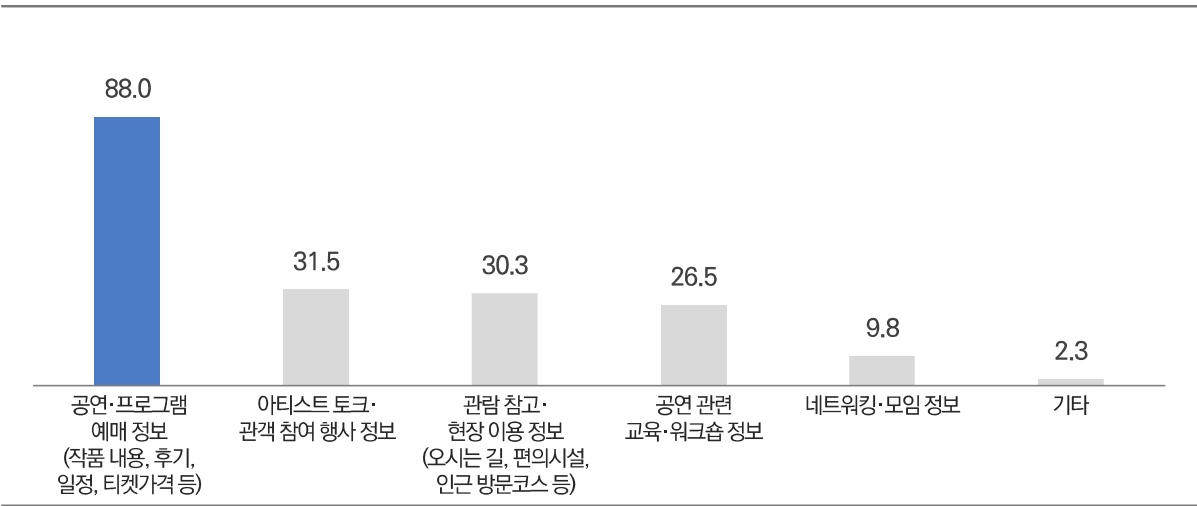
제2절 대학로의 공연예술 정보 접근 및 교류 환경

1. 공연예술 관련 탐색 정보

- 평소 공연예술과 관련해서 찾아보는 정보로 ‘공연·프로그램 예매 정보(작품 내용, 후기, 일정, 티켓가격 등)’이 88.0%로 가장 높음
 - ‘공연·프로그램 예매 정보’는 연령별로 ‘18~29세(94.2%)’, 거주지역별로 ‘수도권 외(100.0%)’, 직업별로 ‘학생(95.7%)’에서 응답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 다음으로 ‘아티스트 토크·관객 참여 행사 정보(31.5%)’, ‘관람 참고·현장 이용 정보(30.3%)’, ‘공연 관련 교육·워크숍 정보(26.5%)’ 등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3-9〉 공연예술 관련 탐색 정보

[Base: 전체, 사례수: 400명, 단위: %, 복수응답]



Q. 귀하께서는 평소 공연예술 관련해서 어떤 정보를 찾아보십니까? 해당하는 것을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표 3-9〉 공연예술 관련 탐색 정보

[단위: %, 복수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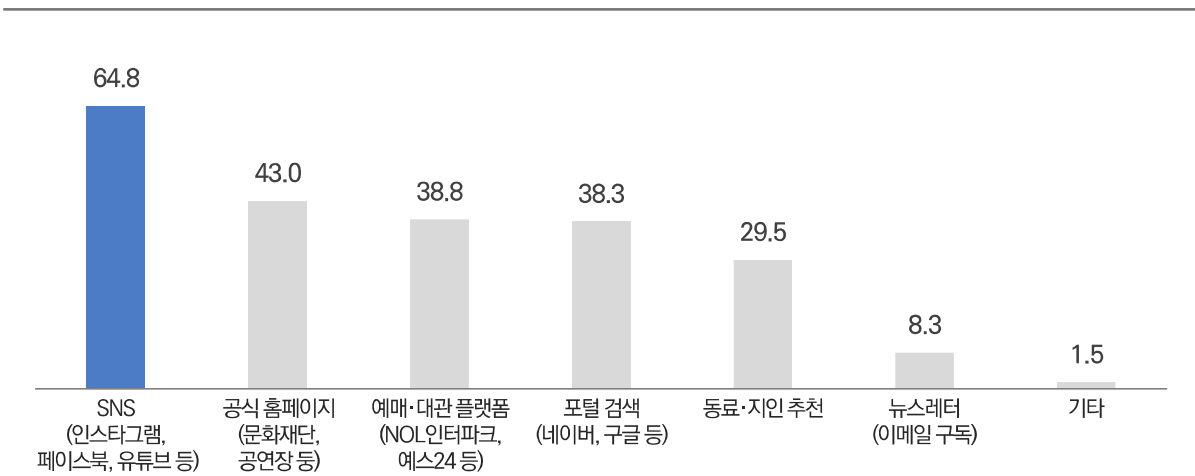
구분		사례수	공연·프로그램 예매 정보 (작품 내용, 후기, 일정, 티켓가격 등)	아티스트 토크· 관객 참여 행사 정보	관람 참고· 현장 이용 정보 (오시는 길, 편의시설, 인근 방문코스 등)	공연 관련 교육·워크숍 정보	네트워킹· 모임 정보	기타
전체		(400)	88.0	31.5	30.3	26.5	9.8	2.3
성별	남성	(82)	86.6	17.1	24.4	23.2	13.4	2.4
	여성	(318)	88.4	35.2	31.8	27.4	8.8	2.2
연령대	18~29세	(104)	94.2	37.5	32.7	26.0	8.7	1.0
	30~39세	(116)	88.8	36.2	28.4	25.0	9.5	0.9
	40~49세	(111)	87.4	27.9	28.8	29.7	9.9	0.9
	50세 이상	(69)	78.3	20.3	31.9	24.6	11.6	8.7
거주지역	서울시	(254)	86.6	33.9	31.9	30.3	10.6	2.8
	인천/경기	(124)	88.7	25.8	29.8	19.4	8.1	0.8
	수도권 외	(22)	100.0	36.4	13.6	22.7	9.1	4.5
직업	학생	(70)	95.7	38.6	28.6	30.0	12.9	1.4
	직장인	(159)	89.3	27.0	27.0	15.1	6.9	1.3
	자영업	(20)	90.0	55.0	35.0	25.0	10.0	5.0
	전업주부	(55)	78.2	16.4	40.0	29.1	9.1	5.5
	프리랜서	(87)	85.1	37.9	31.0	40.2	13.8	2.3
	기타	(9)	88.9	33.3	22.2	55.6	0.0	0.0

2. 공연예술 관련 정보 습득 채널

- 공연예술 관련 정보를 찾아보는 채널로 ‘SNS(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유튜브 등)’가 64.8%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공식 홈페이지(43.0%)’, ‘예매·대관 플랫폼(38.8%)’, ‘포털 검색(38.3%)’ 등의 순으로 나타남
 - ‘SNS’를 통해 정보를 찾아보는 비율은 성별로 ‘남성(54.9%)’ 대비 ‘여성(67.3%)’, 연령별로 ‘18~29세(79.8%)’, 거주지역별로 ‘수도권 외(72.7%)’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그림 3-10〉 공연예술 관련 정보 습득 채널

[Base: 전체, 사례수: 400명, 단위: %, 복수응답]



Q. 공연예술 정보는 주로 어디에서 찾나요? 해당하는 것을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표 3-10〉 공연예술 관련 정보 습득 채널

[단위: %, 복수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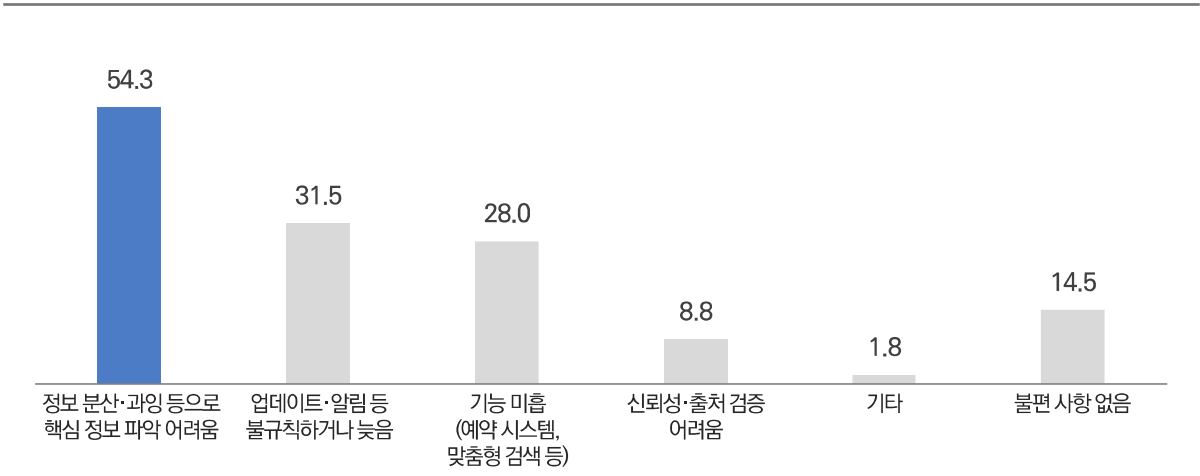
구분		사례수	SNS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유튜브 등)	공식 홈페이지 (문화재단· 공연장 등)	예매· 대관 플랫폼 (NO 인터파크, 예스24 등)	포털 검색 (네이버, 구글 등)	동료· 지인 추천	뉴스레터 (이메일 구독)	기타
전체		(400)	64.8	43.0	38.8	38.3	29.5	8.3	1.5
성별	남성	(82)	54.9	45.1	31.7	45.1	32.9	6.1	0.0
	여성	(318)	67.3	42.5	40.6	36.5	28.6	8.8	1.9
연령대	18~29세	(104)	79.8	43.3	54.8	29.8	30.8	6.7	1.9
	30~39세	(116)	72.4	37.9	37.9	35.3	29.3	6.9	0.0
	40~49세	(111)	60.4	47.7	30.6	44.1	26.1	9.0	1.8
	50세 이상	(69)	36.2	43.5	29.0	46.4	33.3	11.6	2.9
거주지역	서울시	(254)	65.4	44.1	37.8	42.5	29.9	8.3	2.0
	인천/경기	(124)	62.1	43.5	40.3	32.3	33.1	7.3	0.8
	수도권 외	(22)	72.7	27.3	40.9	22.7	4.5	13.6	0.0
직업	학생	(70)	82.9	51.4	57.1	25.7	30.0	5.7	0.0
	직장인	(159)	62.9	37.7	42.1	38.4	22.0	5.7	1.3
	자영업	(20)	60.0	35.0	25.0	50.0	30.0	25.0	5.0
	전업주부	(55)	40.0	43.6	21.8	54.5	40.0	3.6	3.6
	프리랜서	(87)	67.8	48.3	29.9	36.8	36.8	14.9	1.1
	기타	(9)	88.9	33.3	55.6	22.2	22.2	0.0	0.0

3. 대학로 내 공연예술 정보 탐색 시 불편 사항

- 대학로의 공연예술 정보 탐색과 관련해서 불편한 사항으로 ‘정보 분산·과잉 등으로 핵심 정보 파악 어려움’이 54.3%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업데이트·알림 등 불규칙하거나 늦음(31.5%)’, ‘기능 미흡(예약 시스템, 맞춤형 검색 등)(28.0%)’, ‘신뢰성·출처 검증 어려움(8.8%)’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정보 분산·과잉 등으로 핵심 정보 파악 어려움’은 성별로 ‘남성(47.6%)’ 대비 ‘여성(56.0%)’, 연령별로 ‘40~49세(58.6%)’와 ‘50세 이상(58.0%)’, 거주지역별로 ‘인천/경기(56.5%)’, 직업별로 ‘프리랜서(63.2%)’에서 응답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그림 3-11〉 대학로 내 공연예술 정보 탐색 시 불편 사항

[Base: 전체, 사례수: 400명, 단위: %, 복수응답]



Q. 대학로의 공연예술 정보 탐색과 관련해서 불편한 사항은 무엇입니까? 해당하는 것을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표 3-11〉 대학로 내 공연예술 정보 탐색 시 불편 사항

[단위: %, 복수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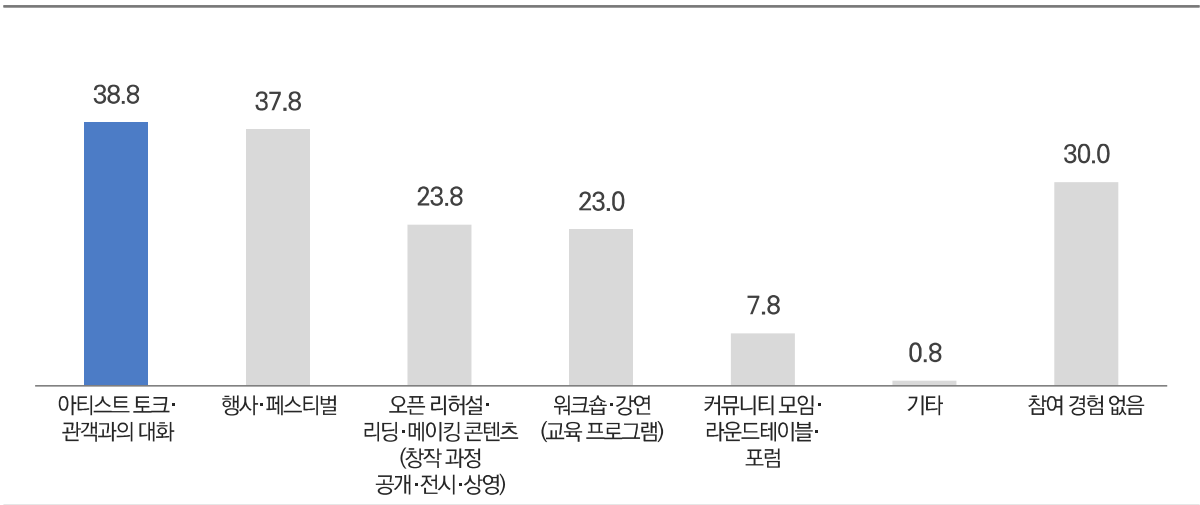
구분		사례수	정보 분산·과잉 등으로 핵심 정보 파악 어려움	업데이트· 알림 등 불규칙하거나 늦음	가능 미흡 (예약 시스템, 맞춤형 검색 등)	신뢰성· 출처 검증 어려움	기타	불편 사항 없음
전체		(400)	54.3	31.5	28.0	8.8	1.8	14.5
성별	남성	(82)	47.6	28.0	25.6	9.8	2.4	19.5
	여성	(318)	56.0	32.4	28.6	8.5	1.6	13.2
연령대	18~29세	(104)	44.2	36.5	33.7	7.7	1.0	15.4
	30~39세	(116)	56.9	34.5	23.3	7.8	2.6	15.5
	40~49세	(111)	58.6	25.2	30.6	10.8	1.8	12.6
	50세 이상	(69)	58.0	29.0	23.2	8.7	1.4	14.5
거주지역	서울시	(254)	53.9	32.3	29.9	10.2	2.4	15.0
	인천/경기	(124)	56.5	30.6	24.2	7.3	0.8	12.9
	수도권 외	(22)	45.5	27.3	27.3	0.0	0.0	18.2
직업	학생	(70)	41.4	38.6	32.9	8.6	1.4	17.1
	직장인	(159)	56.0	27.7	27.7	7.5	1.9	12.6
	자영업	(20)	55.0	25.0	25.0	10.0	0.0	15.0
	전업주부	(55)	50.9	29.1	23.6	12.7	1.8	20.0
	프리랜서	(87)	63.2	36.8	29.9	8.0	2.3	11.5
	기타	(9)	55.6	22.2	11.1	11.1	0.0	22.2

4. 대학로 내 공연예술 관련 프로그램 참여 경험

- 전체 응답자의 70%가 대학로에서 공연예술 관련 교육·프로그램 등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험한 프로그램으로 ‘아티스트 토크·관객과의 대화(38.8%)’와 ‘행사·페스티벌(37.8%)’이 가장 높음
 - ‘아티스트 토크·관객과의 대화’에 참여한 비율은 성별로 ‘남성(26.8%)’ 대비 ‘여성(41.8%)’, 연령별로 ‘18~29세(52.9%)’, 직업별로 ‘학생(54.3%)’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그림 3-12〉 대학로 내 공연예술 관련 프로그램 참여 경험

[Base: 전체, 사례수: 400명, 단위: %, 복수응답]



Q. 귀하께서는 대학로에서 공연예술 관련 교육·프로그램 등에 참여해 본 적이 있습니까? 해당하는 것을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표 3-12〉 대학로 내 공연예술 관련 프로그램 참여 경험

[단위: %, 복수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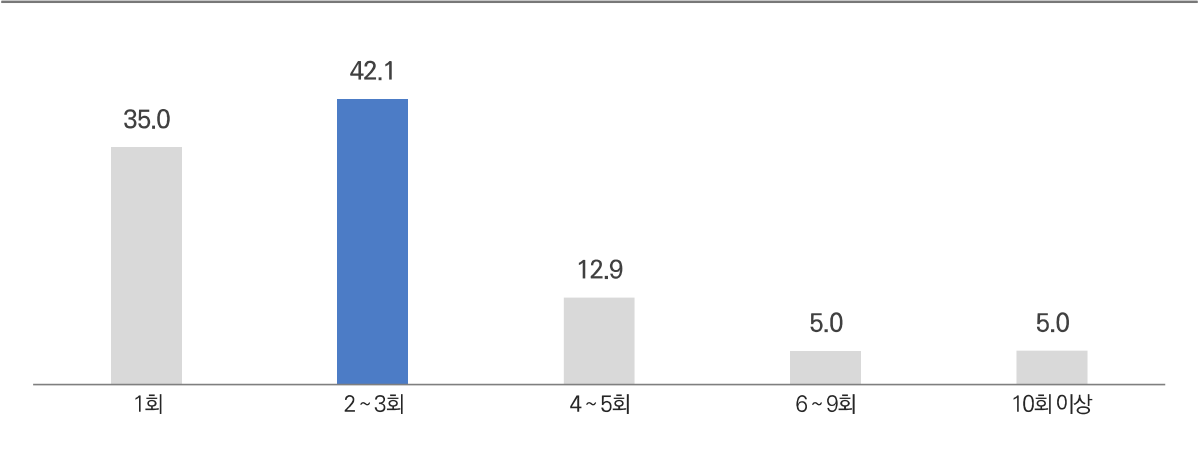
구분		사례수	아티스트 토크· 관객과의 대화	행사· 페스티벌	오픈 리허설· 리딩·메이킹 콘텐츠 (창작 과정 공개·전시· 상영)	워크숍·강연 (교육 프로그램)	커뮤니티 모임· 라운드테이블 ·포럼	기타	참여 경험 없음
전체		(400)	38.8	37.8	23.8	23.0	7.8	0.8	30.0
성별	남성	(82)	26.8	26.8	23.2	24.4	2.4	0.0	30.5
	여성	(318)	41.8	40.6	23.9	22.6	9.1	0.9	29.9
연령대	18~29세	(104)	52.9	40.4	32.7	23.1	5.8	1.0	17.3
	30~39세	(116)	43.1	31.9	25.0	21.6	8.6	0.0	36.2
	40~49세	(111)	30.6	41.4	15.3	27.9	7.2	0.9	31.5
	50세 이상	(69)	23.2	37.7	21.7	17.4	10.1	1.4	36.2
거주지역	서울시	(254)	37.0	42.5	24.4	26.4	8.7	0.8	28.3
	인천/경기	(124)	41.1	32.3	22.6	18.5	7.3	0.8	31.5
	수도권 외	(22)	45.5	13.6	22.7	9.1	0.0	0.0	40.9
직업	학생	(70)	54.3	41.4	35.7	25.7	5.7	0.0	15.7
	직장인	(159)	35.8	34.6	22.6	14.5	5.7	0.6	35.8
	자영업	(20)	40.0	35.0	25.0	15.0	10.0	0.0	25.0
	전업주부	(55)	12.7	40.0	7.3	14.5	5.5	1.8	43.6
	프리랜서	(87)	49.4	39.1	27.6	41.4	13.8	1.1	21.8
	기타	(9)	22.2	44.4	11.1	44.4	11.1	0.0	44.4

5. 대학로 내 공연예술 관련 프로그램 참여 횟수

- 최근 1년간 대학로 내 공연예술 관련 프로그램 참여 횟수로 '2 ~ 3회'가 42.1%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1회(35.0%)', '4 ~ 5회(12.9%)' 등의 순임

〈그림 3-13〉 대학로 내 공연예술 관련 프로그램 참여 횟수

[Base: 대학로 내 공연예술 관련 프로그램 참여자, 사례수: 280명, 단위: %]



Q. 지난 12개월 동안 위와 같은 프로그램에 총 몇 회 참여하셨습니다?

〈표 3-13〉 대학로 내 공연예술 관련 프로그램 참여 횟수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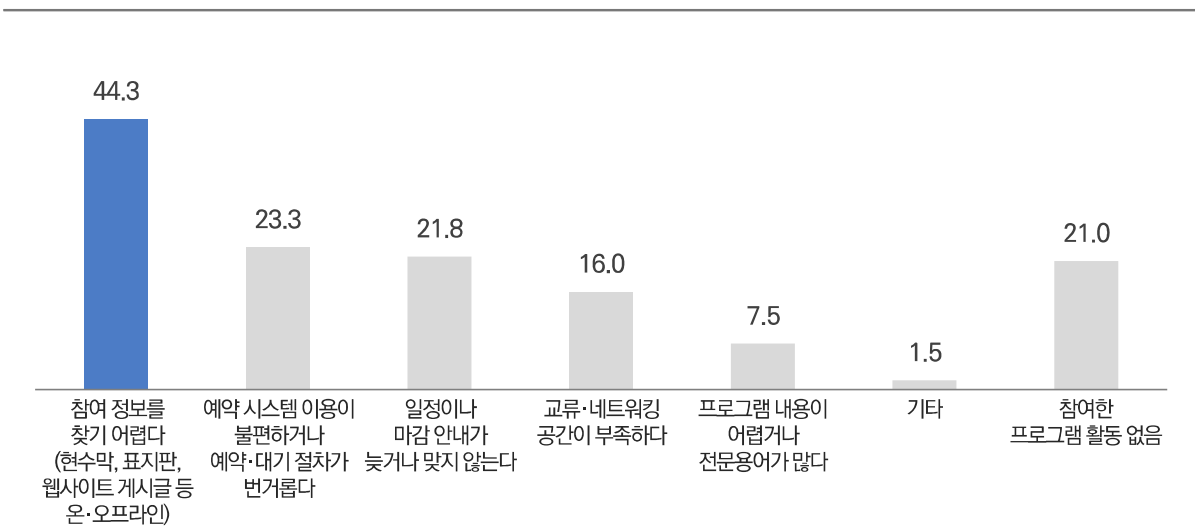
구분		사례수	1회	2 ~ 3회	4 ~ 5회	6 ~ 9회	10회 이상
전체		(280)	35.0	42.1	12.9	5.0	5.0
성별	남성	(57)	45.6	40.4	7.0	0.0	7.0
	여성	(223)	32.3	42.6	14.3	6.3	4.5
연령대	18~29세	(86)	33.7	36.0	17.4	3.5	9.3
	30~39세	(74)	31.1	43.2	14.9	6.8	4.1
	40~49세	(76)	35.5	51.3	6.6	5.3	1.3
	50세 이상	(44)	43.2	36.4	11.4	4.5	4.5
거주지역	서울시	(182)	36.3	38.5	14.8	6.0	4.4
	인천/경기	(85)	32.9	47.1	10.6	3.5	5.9
	수도권 외	(13)	30.8	61.5	0.0	0.0	7.7
직업	학생	(59)	30.5	35.6	16.9	5.1	11.9
	직장인	(102)	38.2	38.2	14.7	3.9	4.9
	자영업	(15)	60.0	33.3	6.7	0.0	0.0
	전업주부	(31)	41.9	45.2	9.7	3.2	0.0
	프리랜서	(68)	26.5	52.9	8.8	8.8	2.9
	기타	(5)	20.0	60.0	20.0	0.0	0.0

6. 대학로 내 공연예술 관련 프로그램 참여 시 불편사항

- 대학로의 공연예술 관련 교육·프로그램 등에 참여할 때 불편한 사항으로 ‘참여 정보를 찾기 어렵다’가 44.3%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예약 시스템 이용이 불편하거나 예약·대기 절차가 번거롭다(23.3%)’, ‘일정이나 마감 안내가 늦거나 맞지 않는다(21.8%)’, ‘교류·네트워킹 공간이 부족하다(16.0%)’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참여 정보를 찾기 어렵다’는 연령별로 ‘40~49세(47.7%)’와 ‘18~29세(46.2%)’, 거주지역별로 ‘서울시(46.9%)’ 거주자에서 응답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그림 3-14〉 대학로 내 공연예술 관련 프로그램 참여 시 불편사항

[Base: 전체, 사례수: 400명, 단위: %, 복수응답]



Q. 귀하께서 대학로의 공연예술 관련 교육·프로그램 등에 참여할 때 불편한 사항은 무엇입니까? 해당하는 것을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표 3-14〉 대학로 내 공연예술 관련 프로그램 참여 시 불편사항

[단위: %, 복수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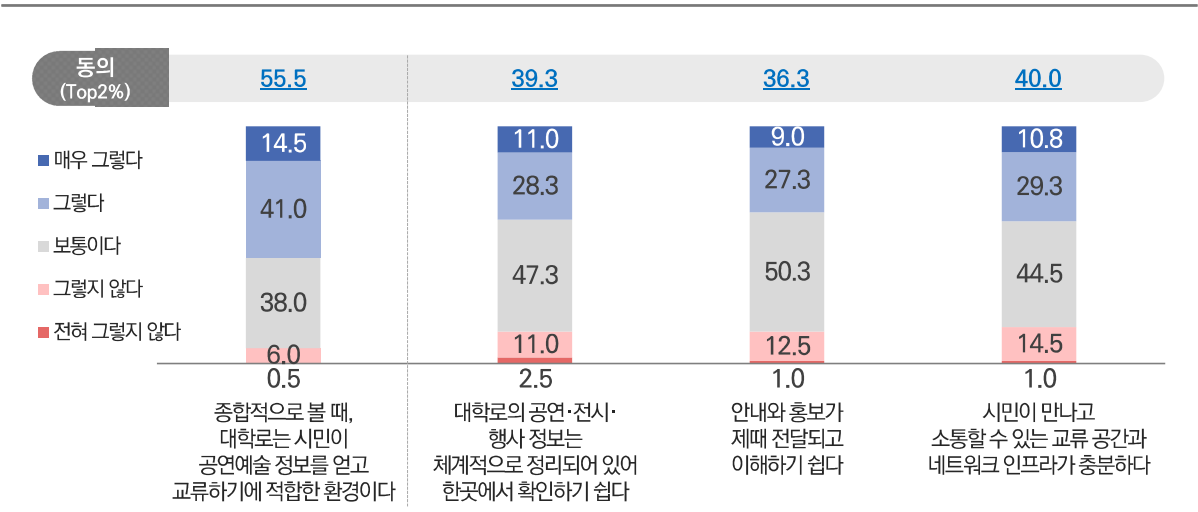
구분		사례수	참여 정보를 찾기 어렵다 (현수막, 표지판, 웹사이트, 게시물 등 온·오프라인)	예약 시스템 이용이 불편하거나 예약·대기 절차가 번거롭다	일정이나 마감 안내가 늦거나 맞지 않는다	교류·네트워킹 공간이 부족하다	프로그램 내용이 어렵거나 전문용어가 많다	기타	참여한 프로그램 활동 없음
전체		(400)	44.3	23.3	21.8	16.0	7.5	1.5	21.0
성별	남성	(82)	40.2	14.6	19.5	15.9	13.4	1.2	26.8
	여성	(318)	45.3	25.5	22.3	16.0	6.0	1.6	19.5
연령대	18~29세	(104)	46.2	25.0	28.8	14.4	6.7	1.9	18.3
	30~39세	(116)	42.2	28.4	16.4	13.8	9.5	1.7	22.4
	40~49세	(111)	47.7	18.0	21.6	18.9	7.2	0.9	19.8
	50세 이상	(69)	39.1	20.3	20.3	17.4	5.8	1.4	24.6
거주지역	서울시	(254)	46.9	26.0	22.0	18.5	6.3	1.6	17.7
	인천/경기	(124)	41.1	17.7	21.0	11.3	10.5	1.6	26.6
	수도권 외	(22)	31.8	22.7	22.7	13.6	4.5	0.0	27.3
직업	학생	(70)	57.1	24.3	30.0	18.6	5.7	0.0	12.9
	직장인	(159)	42.8	24.5	21.4	13.2	6.3	1.3	23.9
	자영업	(20)	60.0	35.0	10.0	10.0	15.0	0.0	15.0
	전업주부	(55)	21.8	12.7	21.8	18.2	9.1	3.6	34.5
	프리랜서	(87)	48.3	23.0	20.7	19.5	8.0	2.3	12.6
	기타	(9)	33.3	33.3	0.0	11.1	11.1	0.0	44.4

7. 공연예술 정보 탐색 및 프로그램 참여를 위한 대학로 환경

- 전체 응답자의 55.5%가 ‘대학로는 시민이 공연예술 정보를 얻고 교류하기에 적합한 환경이다’에 대해 동의함
 - ‘대학로는 시민이 공연예술 정보를 얻고 교류하기에 적합한 환경이다’에 대해 동의한 비율은 성별로 ‘여성(52.5%)’ 대비 ‘남성(67.1%)’, 연령별로 ‘18~29세(67.3%)’, 거주지역별로 ‘인천/경기(61.3%)’, 직업별로 ‘학생(68.6%)’과 ‘기타(66.7%)’에서 응답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 세부 항목 모두 동의하는 비율이 40% 이하로 나타났으며, 이중 ‘안내와 홍보가 제때 전달되고 이해하기 쉽다’에 대해 동의하는 비율이 36.3%로 가장 낮음

〈그림 3-15〉 공연예술 정보 탐색 및 프로그램 참여를 위한 대학로 환경

[Base: 전체, 사례수: 400명, 단위: %]



Q. 귀하께서는 대학로가 시민이 공연예술 정보를 탐색하고, 관련 교육·프로그램·체험·축제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좋은 환경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각 항목에 동의하는 정도를 선택해 주십시오.

〈표 3-15〉 공연예술 정보 탐색 및 프로그램 참여를 위한 대학로 환경

[단위: Top2%]

구분		사례수	종합적으로 볼 때, 대학로는 시민이 공연예술 정보를 얻고 교류하기에 적합한 환경이다	대학로의 공연·전시·행사 정보는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어 한곳에서 확인하기 쉽다	안내와 홍보가 제때 전달되고 이해하기 쉽다	시민이 만나고 소통할 수 있는 교류 공간과 네트워크 인프라가 충분하다
전체		(400)	55.5	39.3	36.3	40.0
성별	남성	(82)	67.1	48.8	52.4	45.1
	여성	(318)	52.5	36.8	32.1	38.7
연령대	18~29세	(104)	67.3	42.3	47.1	48.1
	30~39세	(116)	43.1	36.2	27.6	34.5
	40~49세	(111)	54.1	38.7	36.0	35.1
	50세 이상	(69)	60.9	40.6	34.8	44.9
거주지역	서울시	(254)	52.4	38.2	35.0	40.6
	인천/경기	(124)	61.3	39.5	39.5	39.5
	수도권 외	(22)	59.1	50.0	31.8	36.4
직업	학생	(70)	68.6	44.3	47.1	51.4
	직장인	(159)	49.7	36.5	37.1	40.9
	자영업	(20)	50.0	40.0	15.0	10.0
	전업주부	(55)	54.5	43.6	29.1	41.8
	프리랜서	(87)	56.3	34.5	34.5	34.5
	기타	(9)	66.7	66.7	44.4	44.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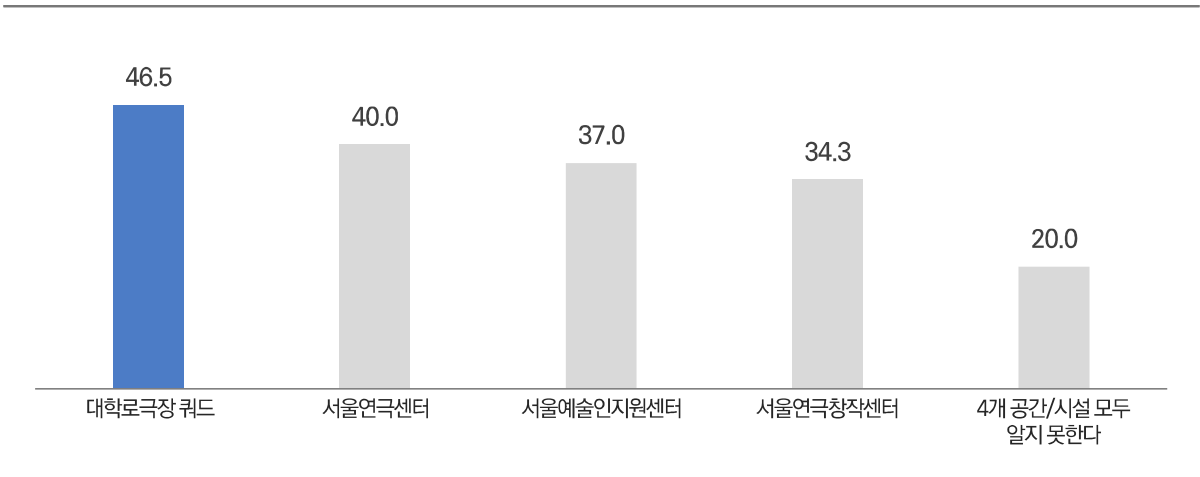
제3절 서울문화재단 운영공간 인식·이용 경험

1. 서울문화재단 운영 공간/시설 인지도

- 대학로 일대에서 서울문화재단이 운영하는 공간/시설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80.0%가 인지하고 있으며, 이중 ‘대학로극장 쿼드’를 인지하는 비율이 46.5%로 가장 높음
 - ‘대학로극장 쿼드’를 인지하고 있는 비율은 성별로 ‘남성(37.8%)’ 대비 ‘여성(48.7%)’, 연령별로 ‘18~29세(64.4%)’, 직업별로 ‘학생(57.1%)’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 이외에 ‘서울예술인지원센터(37.0%)’와 ‘서울연극창작센터(34.3%)’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비율은 40% 미만을 보임

〈그림 3-16〉 서울문화재단 운영 공간/시설 인지도

[Base: 전체, 사례수: 400명, 단위: %, 복수응답]



Q. 귀하께서는 대학로 일대에서 서울문화재단이 운영하는 다음의 공간/시설을 알고 있습니까? 알고 있는 공간/시설을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표 3-16〉 서울문화재단 운영 공간/시설 인지도

[단위: %, 복수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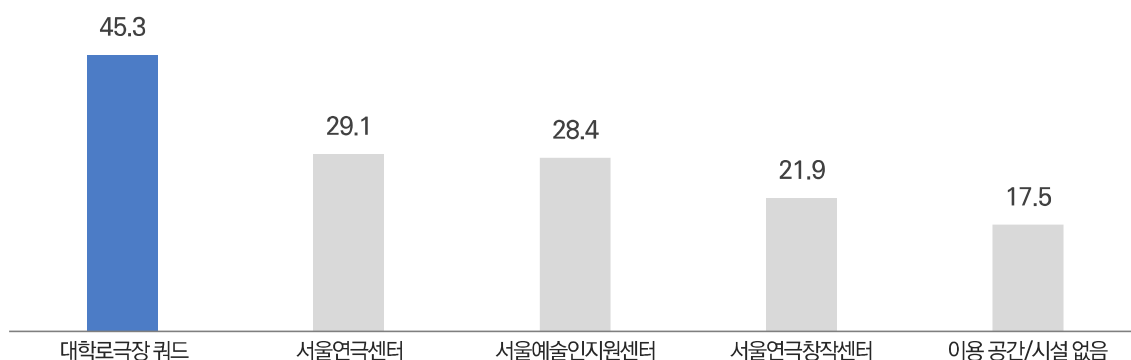
구분		사례수	대학로극장 쿼드	서울연극센터	서울예술인 자원센터	서울연극창작센터	4개 공간/시설 모두 알지 못한다
전체		(400)	46.5	40.0	37.0	34.3	20.0
성별	남성	(82)	37.8	35.4	37.8	34.1	29.3
	여성	(318)	48.7	41.2	36.8	34.3	17.6
연령대	18~29세	(104)	64.4	52.9	40.4	41.3	11.5
	30~39세	(116)	49.1	37.9	44.8	32.8	13.8
	40~49세	(111)	38.7	36.0	34.2	30.6	25.2
	50세 이상	(69)	27.5	30.4	23.2	31.9	34.8
거주지역	서울시	(254)	44.9	41.7	42.1	37.4	16.5
	인천/경기	(124)	49.2	36.3	28.2	30.6	26.6
	수도권 외	(22)	50.0	40.9	27.3	18.2	22.7
직업	학생	(70)	57.1	58.6	41.4	44.3	12.9
	직장인	(159)	49.7	35.8	25.2	28.9	22.0
	자영업	(20)	40.0	35.0	30.0	25.0	25.0
	전업주부	(55)	23.6	29.1	27.3	30.9	36.4
	프리랜서	(87)	50.6	42.5	60.9	43.7	11.5
	기타	(9)	22.2	22.2	55.6	0.0	11.1

2. 서울문화재단 운영 공간/시설 이용 현황

- 서울문화재단 운영 공간/시설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이용 여부를 조사한 결과, '대학로극장 퀴드'를 이용한 비율이 45.3%로 가장 높게 나타남
 - '대학로극장 퀴드'를 이용한 비율은 성별로 '남성(36.2%)' 대비 '여성(47.3%)', 연령별로 '18~29세(65.2%)', 거주지역별로 '인천/경기(54.9%)'와 '수도권 외(52.9%)', 직업별로 '학생(62.3%)'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 이외에 '서울연극창작센터'를 이용한 비율은 21.9%로 가장 낮음

〈그림 3-17〉 서울문화재단 운영 공간/시설 이용 현황

[Base: 서울문화재단 운영 공간/시설 인지자, 사례수: 320명, 단위: %, 복수응답]



Q. 이중 귀하께서 이용한 공간/시설은 무엇입니까?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표 3-17〉 서울문화재단 운영 공간/시설 이용 현황

[단위: %, 복수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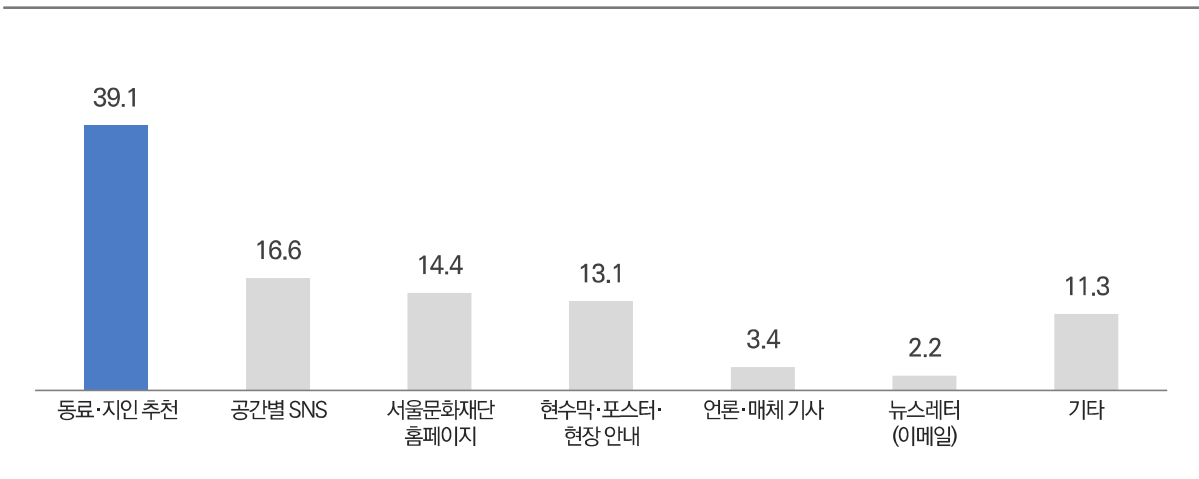
구분		사례수	대학로극장 쿼드	서울연극센터	서울예술인 자원센터	서울연극창작센터	이용 공간/시설 없음
전체		(320)	45.3	29.1	28.4	21.9	17.5
성별	남성	(58)	36.2	36.2	41.4	34.5	1.7
	여성	(262)	47.3	27.5	25.6	19.1	21.0
연령대	18~29세	(92)	65.2	25.0	23.9	20.7	13.0
	30~39세	(100)	43.0	26.0	33.0	24.0	16.0
	40~49세	(83)	34.9	32.5	30.1	15.7	25.3
	50세 이상	(45)	28.9	37.8	24.4	31.1	15.6
거주지역	서울시	(212)	40.6	31.1	31.6	24.5	20.8
	인천/경기	(91)	54.9	25.3	23.1	18.7	9.9
	수도권 외	(17)	52.9	23.5	17.6	5.9	17.6
직업	학생	(61)	62.3	29.5	24.6	27.9	8.2
	직장인	(124)	51.6	30.6	17.7	18.5	16.1
	자영업	(15)	26.7	33.3	13.3	13.3	33.3
	전업주부	(35)	17.1	25.7	14.3	25.7	31.4
	프리랜서	(77)	40.3	29.9	55.8	24.7	16.9
	기타	(8)	25.0	0.0	50.0	0.0	25.0

3. 서울문화재단 운영 공간/시설 인지 경로

- 서울문화재단 운영 공간/시설을 인지한 경로로 ‘동료·지인 추천’이 39.1%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공간별 SNS(16.6%)’, ‘서울문화재단 홈페이지(14.4%)’, ‘현수막·포스터·현장 안내(13.1%)’ 등의 순으로 나타남
 - ‘동료·지인 추천’을 통해 인지한 비율은 연령별로 ‘18~29세(45.7%)’, 거주지역별로 ‘인천/경기(49.5%)’와 ‘수도권 외(47.1%)’, 직업별로 ‘직장인(46.0%)’과 ‘학생(45.9%)’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그림 3-18〉 서울문화재단 운영 공간/시설 인지 경로

[Base: 서울문화재단 운영 공간/시설 인지자, 사례수: 320명, 단위: %]



Q. 해당 공간/시설은 처음 어떻게 알게 되셨습니까?

〈표 3-18〉 서울문화재단 운영 공간/시설 인지 경로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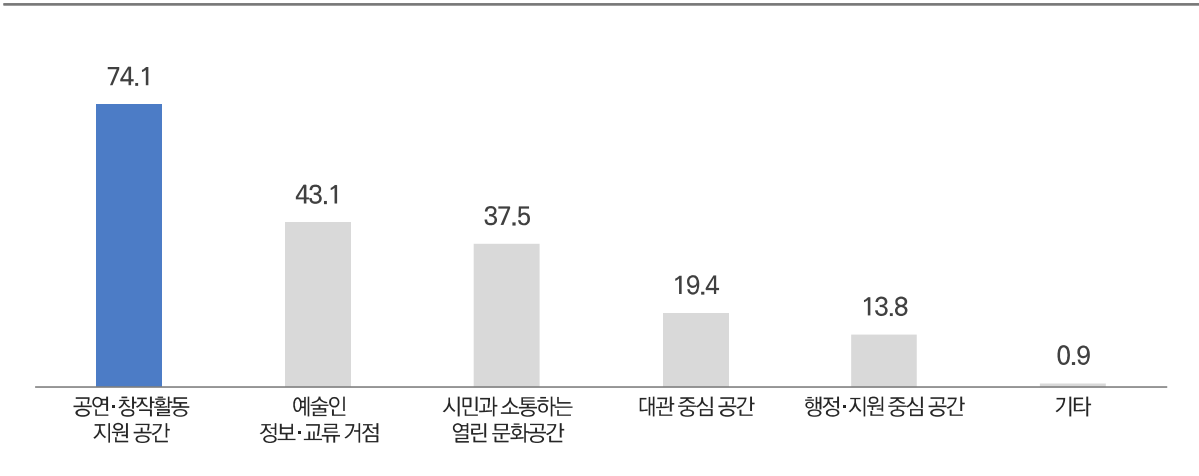
구분		사례수	동료· 지인 추천	공간별 SNS	서울문화재단 홈페이지	현수막· 포스터· 현장 안내	언론· 매체 기사	뉴스레터 (이메일)	기타
전체		(320)	39.1	16.6	14.4	13.1	3.4	2.2	11.3
성별	남성	(58)	39.7	17.2	20.7	5.2	1.7	3.4	12.1
	여성	(262)	38.9	16.4	13.0	14.9	3.8	1.9	11.1
연령대	18~29세	(92)	45.7	18.5	6.5	15.2	1.1	1.1	12.0
	30~39세	(100)	42.0	11.0	20.0	11.0	0.0	2.0	14.0
	40~49세	(83)	31.3	24.1	13.3	15.7	6.0	1.2	8.4
	50세 이상	(45)	33.3	11.1	20.0	8.9	11.1	6.7	8.9
거주지역	서울시	(212)	34.0	15.6	16.5	15.1	4.2	2.4	12.3
	인천/경기	(91)	49.5	18.7	9.9	7.7	2.2	2.2	9.9
	수도권 외	(17)	47.1	17.6	11.8	17.6	0.0	0.0	5.9
직업	학생	(61)	45.9	16.4	3.3	16.4	1.6	1.6	14.8
	직장인	(124)	46.0	12.1	11.3	16.1	4.8	1.6	8.1
	자영업	(15)	40.0	13.3	20.0	13.3	0.0	0.0	13.3
	전업주부	(35)	34.3	17.1	11.4	5.7	11.4	2.9	17.1
	프리랜서	(77)	27.3	24.7	24.7	9.1	0.0	3.9	10.4
	기타	(8)	12.5	12.5	50.0	12.5	0.0	0.0	12.5

4. 서울문화재단 운영 공간/시설 이미지

- 서울문화재단 운영 공간/시설에 대한 이미지로 ‘공연·창작활동 지원 공간’이 74.1%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예술인 정보·교류 거점(43.1%)’, ‘시민과 소통하는 열린 문화공간(37.5%)’, ‘대관 중심 공간(19.4%)’ 등의 순으로 나타남
 - ‘공연·창작활동 지원 공간’은 성별로 ‘여성(75.2%)’ 대비 ‘남성(69.0%)’, 연령별로 ‘40~49세(79.5%)’에서 응답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그림 3-19〉 서울문화재단 운영 공간/시설 이미지

[Base: 서울문화재단 운영 공간/시설 인지자, 사례수: 320명, 단위: %, 복수응답]



Q. 대학로 일대 서울문화재단 운영공간에 대해 떠오르는 이미지를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표 3-19〉 서울문화재단 운영 공간/시설 이미지

[단위: %, 복수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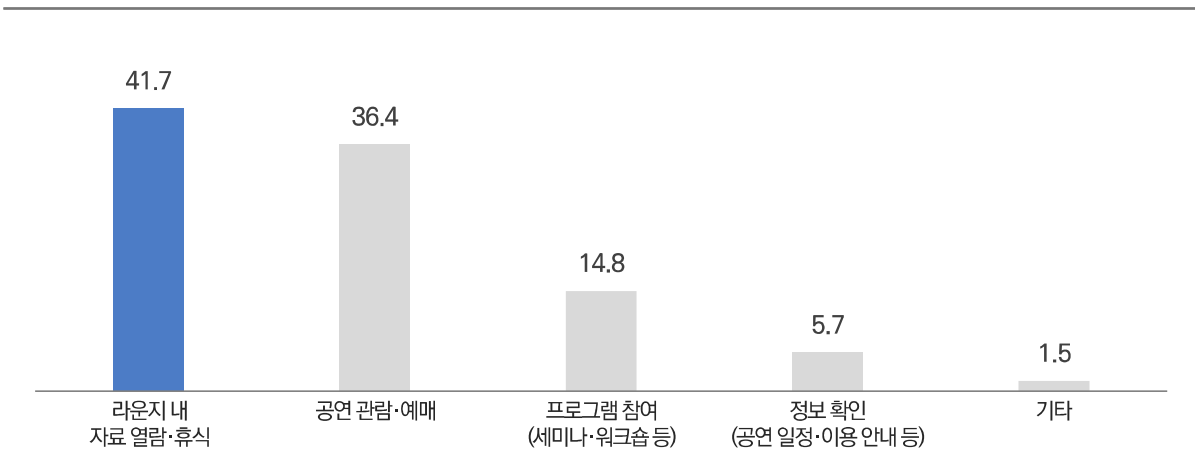
구분		사례수	공연·창작활동 지원 공간	예술인 정보·교류 거점	시민과 소통하는 열린 문화공간	대관 중심 공간	행정·지원 중심 공간	기타
전체		(320)	74.1	43.1	37.5	19.4	13.8	0.9
성별	남성	(58)	69.0	36.2	32.8	24.1	12.1	3.4
	여성	(262)	75.2	44.7	38.5	18.3	14.1	0.4
연령대	18~29세	(92)	71.7	44.6	33.7	21.7	4.3	1.1
	30~39세	(100)	74.0	39.0	39.0	21.0	20.0	2.0
	40~49세	(83)	79.5	45.8	34.9	19.3	15.7	0.0
	50세 이상	(45)	68.9	44.4	46.7	11.1	15.6	0.0
거주지역	서울시	(212)	73.1	44.3	37.3	17.5	15.6	0.0
	인천/경기	(91)	75.8	39.6	35.2	20.9	9.9	2.2
	수도권 외	(17)	76.5	47.1	52.9	35.3	11.8	5.9
직업	학생	(61)	75.4	44.3	32.8	23.0	3.3	1.6
	직장인	(124)	72.6	34.7	41.9	16.9	14.5	0.8
	자영업	(15)	66.7	60.0	33.3	20.0	13.3	0.0
	전업주부	(35)	74.3	28.6	48.6	11.4	11.4	0.0
	프리랜서	(77)	77.9	57.1	27.3	24.7	22.1	1.3
	기타	(8)	62.5	62.5	62.5	12.5	12.5	0.0

5. 서울문화재단 운영 공간/시설 이용 목적

- 서울문화재단 운영 공간/시설을 이용한 응답자를 대상으로 이용 목적을 조사한 결과, ‘라운지 내 자료 열람·휴식’이 41.7%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공연 관람·예매(36.4%)’, ‘프로그램 참여(세미나, 워크숍 등)(14.8%)’, ‘정보 확인(공연 일정, 이용 안내 등)(5.7%)’ 등의 순으로 나타남
- ‘라운지 내 자료 열람·휴식’ 목적으로 이용한 비율은 성별로 ‘남성(19.3%)’ 대비 ‘여성(47.8%)’, 연령별로 ‘18~29세(53.8%)’, 최근 이용 공간/시설별로 ‘대학로극장 퀴드(63.2%)’ 이용자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그림 3-20〉 서울문화재단 운영 공간/시설 이용 목적

[Base: 서울문화재단 운영 공간/시설 이용자, 사례수: 264명, 단위: %]



Q. 귀하께서 최근에 이용한 (공간/시설)은/는 어떤 목적으로 이용하셨습니다까?

〈표 3-20〉 서울문화재단 운영 공간/시설 이용 목적

[단위: %]

구분		사례수	라운지 내 자료 열람·휴식	공연 관람·예매	프로그램 참여 (세미나·워크숍 등)	정보 확인 (공연 일정· 이용 안내 등)	기타
전체		(264)	41.7	36.4	14.8	5.7	1.5
성별	남성	(57)	19.3	54.4	22.8	3.5	0.0
	여성	(207)	47.8	31.4	12.6	6.3	1.9
연령대	18~29세	(80)	53.8	35.0	10.0	1.3	0.0
	30~39세	(84)	46.4	27.4	16.7	6.0	3.6
	40~49세	(62)	30.6	38.7	21.0	8.1	1.6
	50세 이상	(38)	23.7	55.3	10.5	10.5	0.0
거주지역	서울시	(168)	41.7	35.1	16.7	5.4	1.2
	인천/경기	(82)	40.2	40.2	12.2	6.1	1.2
	수도권 외	(14)	50.0	28.6	7.1	7.1	7.1
직업	학생	(56)	55.4	33.9	10.7	0.0	0.0
	직장인	(104)	51.9	32.7	5.8	7.7	1.9
	자영업	(10)	20.0	50.0	10.0	20.0	0.0
	전업주부	(24)	33.3	50.0	8.3	8.3	0.0
	프리랜서	(64)	20.3	37.5	34.4	4.7	3.1
	기타	(6)	33.3	33.3	33.3	0.0	0.0
최근 이용 공간/시설	서울예술인지원센터	(65)	29.2	15.4	44.6	7.7	3.1
	대학로극장 쿼드	(117)	63.2	29.9	4.3	0.9	1.7
	서울연극센터	(39)	23.1	51.3	5.1	20.5	0.0
	서울연극창작센터	(43)	18.6	72.1	7.0	2.3	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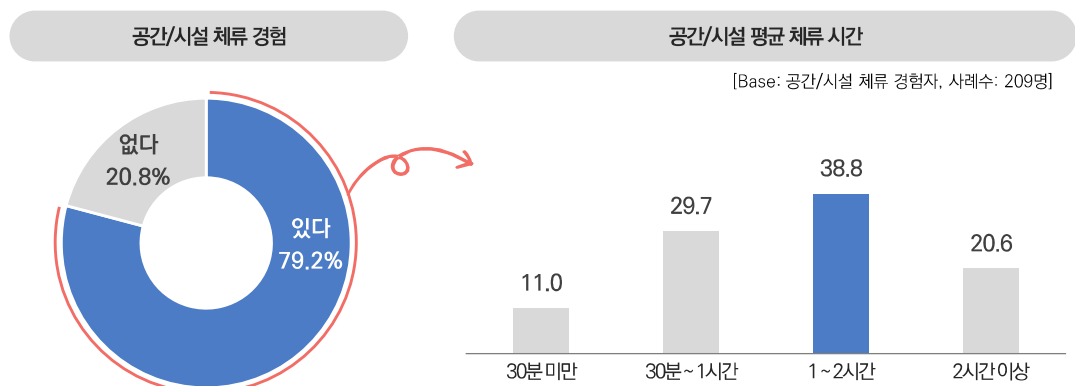
6. 서울문화재단 운영 공간/시설 체류 경험

- 서울문화재단 운영 공간/시설 이용자의 79.2%가 라운지 등에서 머무르며 쉬어본 경험이 있으며, 체류 시간은 '1~2시간'이 38.8%로 가장 많음
 - 서울문화재단 운영 공간/시설에서 체류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성별로 '남성(71.9%)' 대비 '여성(81.2%)', 연령별로 '18~29세(86.3%)', 거주지역별로 '수도권 외(85.7%)'와 '인천/경기(84.1%)', 직업별로 '학생(85.7%)', 최근 이용 공간/시설별로 '대학로극장 쿼드(94.0%)' 이용자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그림 3-21〉 서울문화재단 운영 공간/시설 체류 경험

[Base: 서울문화재단 운영 공간/시설 이용자, 사례수: 264명, 단위: %]

C5. 서울문화재단 운영 공간/시설 체류 경험



- Q. 귀하께서는 (공간/시설)의 라운지 등에서 머무르며 쉬어본 경험이 있습니까?
- Q. 평균 체류 시간은 어느 정도였습니까?

〈표 3-21〉 서울문화재단 운영 공간/시설 체류 경험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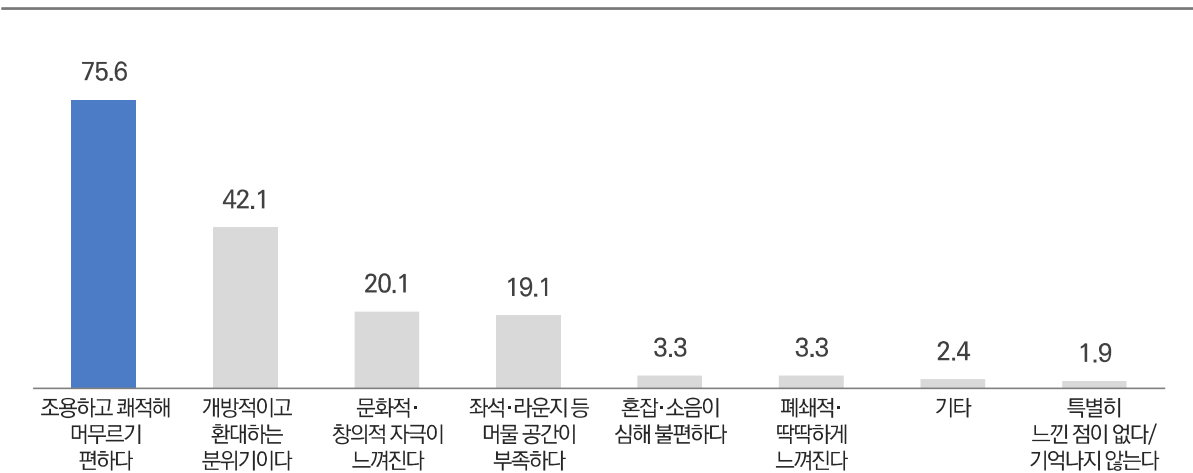
구분		공간/시설 체류 경험			공간/시설 평균 체류 시간				
		사례수	있다	없다	사례수	30분 미만	30분 ~ 1시간	1 ~ 2시간	2시간 이상
전체		(264)	79.2	20.8	(209)	11.0	29.7	38.8	20.6
성별	남성	(57)	71.9	28.1	(41)	7.3	22.0	46.3	24.4
	여성	(207)	81.2	18.8	(168)	11.9	31.5	36.9	19.6
연령대	18~29세	(80)	86.3	13.8	(69)	8.7	27.5	40.6	23.2
	30~39세	(84)	81.0	19.0	(68)	11.8	35.3	35.3	17.6
	40~49세	(62)	72.6	27.4	(45)	20.0	24.4	28.9	26.7
	50세 이상	(38)	71.1	28.9	(27)	0.0	29.6	59.3	11.1
거주지역	서울시	(168)	76.2	23.8	(128)	11.7	26.6	38.3	23.4
	인천/경기	(82)	84.1	15.9	(69)	8.7	34.8	39.1	17.4
	수도권 외	(14)	85.7	14.3	(12)	16.7	33.3	41.7	8.3
직업	학생	(56)	85.7	14.3	(48)	12.5	25.0	41.7	20.8
	직장인	(104)	76.9	23.1	(80)	11.3	33.8	38.8	16.3
	자영업	(10)	70.0	30.0	(7)	42.9	14.3	42.9	0.0
	전업주부	(24)	75.0	25.0	(18)	5.6	33.3	44.4	16.7
	프리랜서	(64)	79.7	20.3	(51)	7.8	31.4	31.4	29.4
	기타	(6)	83.3	16.7	(5)	0.0	0.0	60.0	40.0
최근 이용 공간/시설	서울예술인지원센터	(65)	73.8	26.2	(48)	8.3	14.6	45.8	31.3
	대학로극장 퀴드	(117)	94.0	6.0	(110)	10.9	39.1	34.5	15.5
	서울연극센터	(39)	61.5	38.5	(24)	16.7	25.0	50.0	8.3
	서울연극창작센터	(43)	62.8	37.2	(27)	11.1	22.2	33.3	33.3

7. 서울문화재단 운영 공간/시설 공간 분위기

- 서울문화재단 운영 공간/시설 체류자를 대상으로 공간/시설에 대한 분위기를 조사한 결과, ‘조용하고 쾌적해 머무르기 편하다’가 75.6%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개방적이고 환대하는 분위기이다(42.1%)’, ‘문화적·창의적 자극이 느껴진다(20.1%)’, ‘좌석·라운지 등 머물 공간이 부족하다(19.1%)’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조용하고 쾌적해 머무르기 편하다’는 성별로 ‘남성(63.4%)’ 대비 ‘여성(78.6%)’, 연령별로 ‘18~29세(84.1%)’와 ‘30~39세(83.8%)’, 거주지역별로 ‘수도권 외(83.3%)’, 직업별로 ‘학생(87.5%)’, 최근 이용 공간/시설별로 ‘대학로극장 퀴드(82.7%)’ 이용자에서 응답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그림 3-22〉 서울문화재단 운영 공간/시설 공간 분위기

[Base: 서울문화재단 운영 공간/시설 체류자, 사례수: 400명, 단위: %]



Q. 공간 분위기에 대해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해당하는 것을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표 3-22〉 서울문화재단 운영 공간/시설 공간 분위기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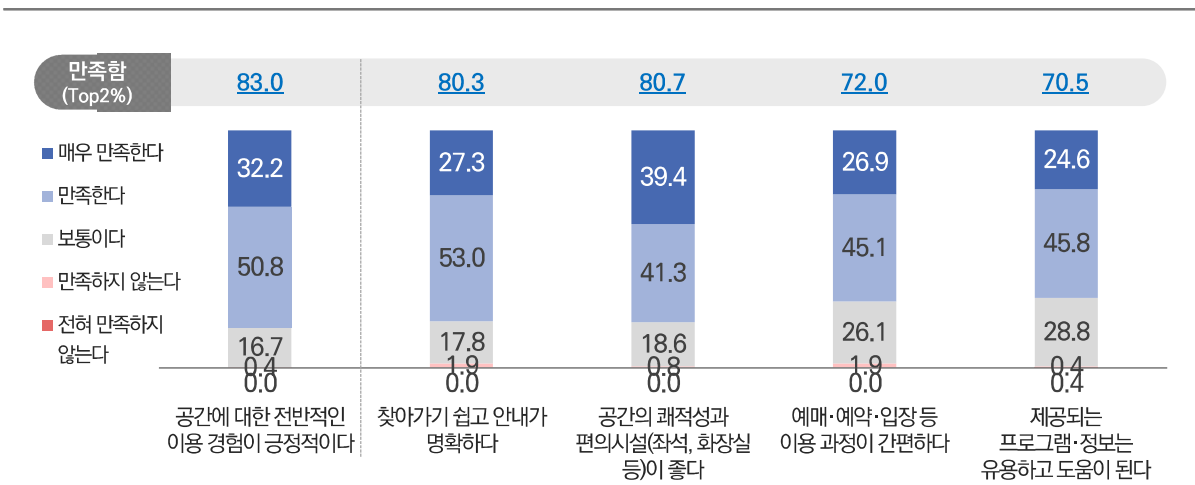
구분		사례수	조용하고 쾌적해 머무르기 편하다	개방적 이고 환대하는 분위기 이다	문화적· 창의적 자극이 느껴진다	좌석· 라운지 등 머물 공간이 부족하다	혼잡· 소음이 심해 불편하다	폐쇄적· 딱딱하게 느껴진다	기타	특별히 느낀 점이 없다/ 기억나지 않는다
전체		(209)	75.6	42.1	20.1	19.1	3.3	3.3	2.4	1.9
성별	남성	(41)	63.4	36.6	31.7	9.8	4.9	2.4	4.9	4.9
	여성	(168)	78.6	43.5	17.3	21.4	3.0	3.6	1.8	1.2
연령대	18~29세	(69)	84.1	46.4	5.8	14.5	4.3	1.4	0.0	4.3
	30~39세	(68)	83.8	38.2	26.5	20.6	1.5	4.4	4.4	1.5
	40~49세	(45)	60.0	44.4	24.4	24.4	6.7	4.4	2.2	0.0
	50세 이상	(27)	59.3	37.0	33.3	18.5	0.0	3.7	3.7	0.0
거주지역	서울시	(128)	78.1	41.4	22.7	18.0	3.1	3.9	1.6	0.8
	인천/경기	(69)	69.6	40.6	15.9	21.7	4.3	2.9	4.3	4.3
	수도권 외	(12)	83.3	58.3	16.7	16.7	0.0	0.0	0.0	0.0
직업	학생	(48)	87.5	47.9	8.3	18.8	2.1	0.0	2.1	4.2
	직장인	(80)	76.3	48.8	21.3	16.3	2.5	1.3	0.0	0.0
	자영업	(7)	42.9	71.4	0.0	28.6	0.0	14.3	0.0	0.0
	전업주부	(18)	66.7	33.3	27.8	16.7	0.0	5.6	0.0	0.0
	프리랜서	(51)	72.5	25.5	29.4	23.5	7.8	5.9	7.8	3.9
	기타	(5)	60.0	40.0	20.0	20.0	0.0	20.0	0.0	0.0
최근 이용 공간/시설	서울예술인지원센터	(48)	68.8	33.3	29.2	6.3	4.2	6.3	4.2	4.2
	대학로극장 쿼드	(110)	82.7	46.4	11.8	27.3	2.7	0.0	0.9	1.8
	서울연극센터	(24)	54.2	37.5	16.7	16.7	4.2	12.5	0.0	0.0
	서울연극창작센터	(27)	77.8	44.4	40.7	11.1	3.7	3.7	7.4	0.0

8. 서울문화재단 운영 공간/시설 만족도

- 서울문화재단 운영 공간/시설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공간에 대한 전반적인 이용 경험이 긍정적이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83.0%로 나타남
 - ‘공간에 대한 전반적인 이용 경험이 긍정적이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연령별로 ‘18~29세(88.8%)’, 직업별로 ‘학생(92.9%)’, 최근 이용 공간/시설별로 ‘서울연극창작센터(93.0%)’ 이용자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 세부 항목별로 ‘공간의 쾌적성과 편의시설(좌석 · 화장실 등)이 좋다(80.7%)’와 ‘찾아가기 쉽고 안내가 명확하다(80.3%)’에 대해서는 80% 이상이 만족하고 있으며, 이외 항목도 70% 정도가 만족함

〈그림 3-23〉 서울문화재단 운영 공간/시설 만족도

[Base: 서울문화재단 운영 공간/시설 이용자, 사례수: 264명, 단위: %]



Q. 귀하께서 이용한 (공간/시설)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각 항목에 대해 만족 정도를 선택해 주십시오.

〈표 3-23〉 서울문화재단 운영 공간/시설 만족도

[단위: Top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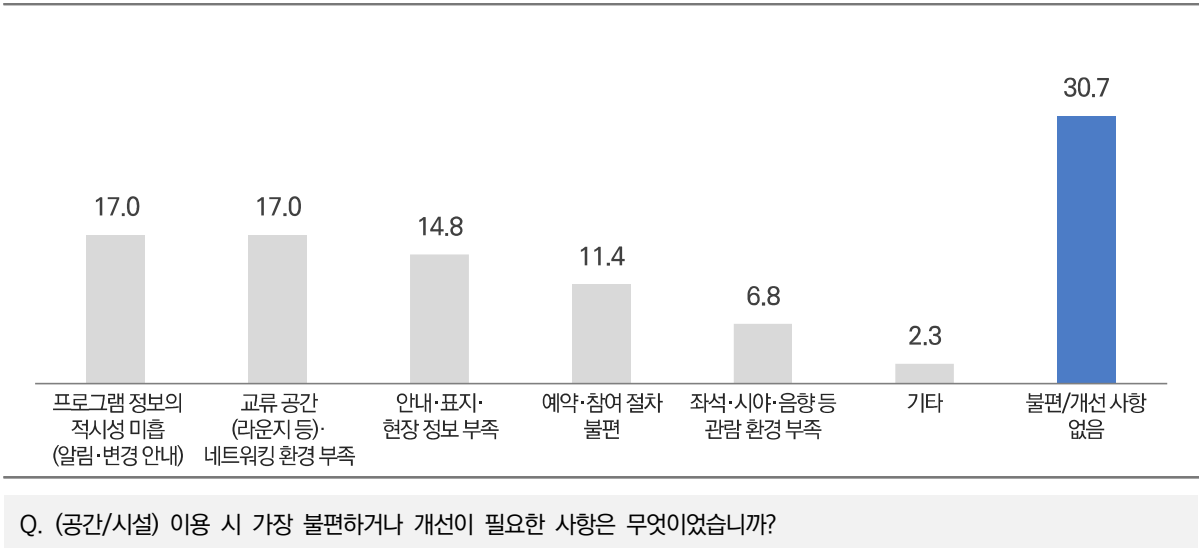
구분		사례수	공간에 대한 전반적인 이용 경험이 긍정적이다	찾아가기 쉽고 안내가 명확하다	공간의 쾌적성과 편의시설 (좌석·화장실 등)이 좋다	예매·예약·입장 등 이용 과정이 간편하다	제공되는 프로그램·정보는 유용하고 도움이 된다
전체		(264)	83.0	80.3	80.7	72.0	70.5
성별	남성	(57)	84.2	78.9	80.7	71.9	71.9
	여성	(207)	82.6	80.7	80.7	72.0	70.0
연령대	18~29세	(80)	88.8	83.8	86.3	83.8	78.8
	30~39세	(84)	83.3	82.1	82.1	70.2	66.7
	40~49세	(62)	77.4	77.4	79.0	64.5	66.1
	50세 이상	(38)	78.9	73.7	68.4	63.2	68.4
거주지역	서울시	(168)	82.1	78.6	81.5	72.0	73.8
	인천/경기	(82)	84.1	80.5	75.6	70.7	62.2
	수도권 외	(14)	85.7	100.0	100.0	78.6	78.6
직업	학생	(56)	92.9	87.5	87.5	87.5	85.7
	직장인	(104)	84.6	83.7	86.5	72.1	63.5
	자영업	(10)	70.0	50.0	50.0	40.0	40.0
	전업주부	(24)	70.8	70.8	70.8	62.5	70.8
	프리랜서	(64)	79.7	76.6	73.4	67.2	71.9
	기타	(6)	66.7	83.3	83.3	66.7	83.3
최근 이용 공간/시설	서울예술인지원센터	(65)	76.9	69.2	75.4	69.2	70.8
	대학로극장 쿼드	(117)	84.6	86.3	83.8	70.9	64.1
	서울연극센터	(39)	76.9	74.4	71.8	69.2	76.9
	서울연극창작센터	(43)	93.0	86.0	88.4	81.4	81.4

9. 서울문화재단 운영 공간/시설 이용 시 불편/개선 사항

- 서울문화재단 운영 공간/시설 이용 시 불편/개선 사항으로 ‘불편/개선 사항 없음’이 30.7%로 가장 높게 나타남
- 불편/개선 사항에 응답한 응답자는 ‘프로그램 정보의 적시성(알림·변경 안내) 미흡’과 ‘교류 공간(라운지 등)·네트워킹 환경 부족’이 17.0%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안내·표지·현장 정보 부족(14.8%)’, ‘예약·참여 절차 불편(11.4%)’ 등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3-24〉 서울문화재단 운영 공간/시설 이용 시 불편/개선 사항

[Base: 서울문화재단 운영 공간/시설 이용자, 사례수: 264명, 단위: %]



〈표 3-24〉 서울문화재단 운영 공간/시설 이용 시 불편/개선 사항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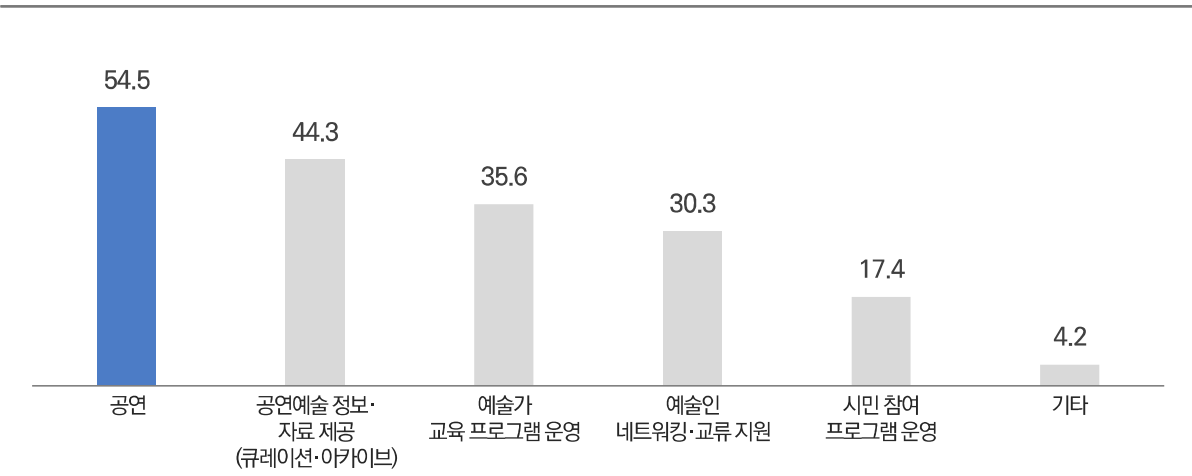
구분		사례수	프로그램 정보의 적시성 미흡 (알림·변경 안내)	교류 공간 (라운지 등) 네트워킹 환경 부족	안내·표지· 현장 정보 부족	예약·참여 절차 불편	좌석·시아· 음향 등 관람 환경 부족	기타	불편/ 개선 사항 없음
전체		(264)	17.0	17.0	14.8	11.4	6.8	2.3	30.7
성별	남성	(57)	21.1	7.0	17.5	14.0	8.8	0.0	31.6
	여성	(207)	15.9	19.8	14.0	10.6	6.3	2.9	30.4
연령대	18~29세	(80)	16.3	12.5	12.5	6.3	8.8	2.5	41.3
	30~39세	(84)	19.0	21.4	16.7	9.5	3.6	1.2	28.6
	40~49세	(62)	11.3	21.0	14.5	19.4	8.1	4.8	21.0
	50세 이상	(38)	23.7	10.5	15.8	13.2	7.9	0.0	28.9
거주지역	서울시	(168)	16.1	17.3	15.5	11.9	8.9	2.4	28.0
	인천/경기	(82)	20.7	13.4	14.6	9.8	3.7	2.4	35.4
	수도권 외	(14)	7.1	35.7	7.1	14.3	0.0	0.0	35.7
직업	학생	(56)	14.3	14.3	16.1	3.6	10.7	0.0	41.1
	직장인	(104)	17.3	20.2	16.3	7.7	4.8	2.9	30.8
	자영업	(10)	20.0	30.0	10.0	40.0	0.0	0.0	0.0
	전업주부	(24)	29.2	12.5	8.3	4.2	0.0	0.0	45.8
	프리랜서	(64)	12.5	14.1	14.1	23.4	10.9	4.7	20.3
	기타	(6)	33.3	16.7	16.7	0.0	0.0	0.0	33.3
최근 이용 공간/시설	서울예술인지원센터	(65)	23.1	13.8	15.4	21.5	9.2	3.1	13.8
	대학로극장 쿼드	(117)	13.7	23.9	13.7	4.3	7.7	2.6	34.2
	서울연극센터	(39)	12.8	10.3	23.1	10.3	5.1	2.6	35.9
	서울연극창작센터	(43)	20.9	9.3	9.3	16.3	2.3	0.0	41.9

10. 서울문화재단 운영 공간/시설의 역할/기능

- 현재 서울문화재단 운영 공간/시설에 대한 역할/기능으로 ‘공연’이 54.5%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공연예술 정보·자료 제공(큐레이션·아카이브)(44.3%)’, ‘예술가 교육 프로그램 운영(35.6%)’, ‘예술인 네트워킹·교류 지원(30.3%)’ 등의 순으로 나타남
 - ‘공연’은 연령별로 ‘18~29세(66.3%)’와 ‘50세 이상(60.5%)’, 거주지역별로 ‘인천/경기(65.9%)’, 최근 이용 공간/시설별로 ‘서울연극창작센터(81.4%)’ 이용자에서 응답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그림 3-25〉 서울문화재단 운영 공간/시설의 역할/기능

[Base: 서울문화재단 운영 공간/시설 이용자, 사례수: 264명, 단위: %, 복수응답]



Q. (공간/시설)은/는 현재 어떤 역할과 기능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해당하는 것을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표 3-25〉 서울문화재단 운영 공간/시설의 역할/기능

[단위: %, 복수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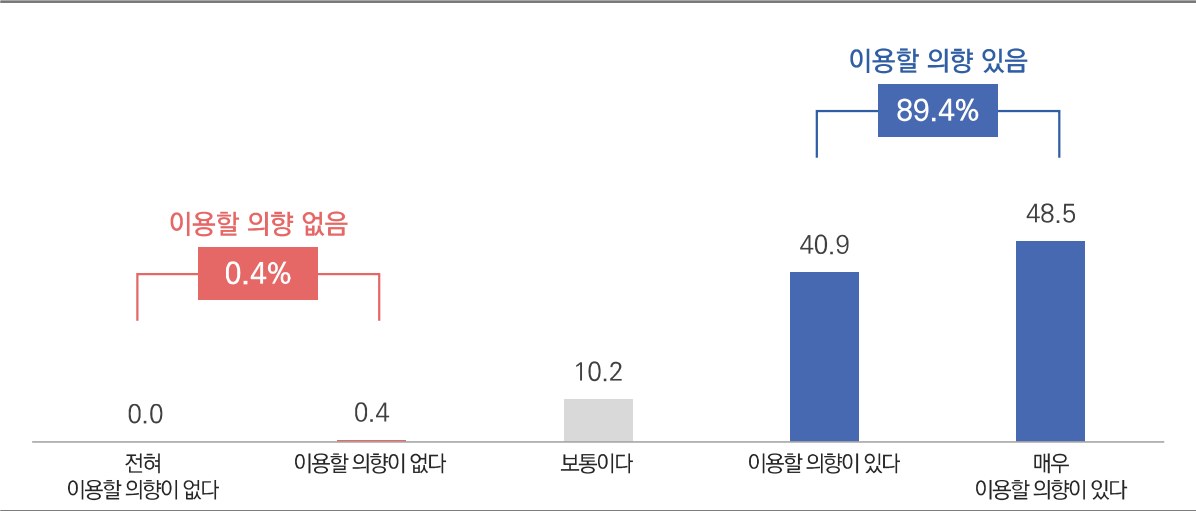
구분		사례수	공연	공연예술 정보·자료 제공 (큐레이션· 아카이브)	예술가 교육 프로그램 운영	예술인 네트워킹· 교류 지원	시민 참여 프로그램 운영	기타
전체		(264)	54.5	44.3	35.6	30.3	17.4	4.2
성별	남성	(57)	54.4	33.3	33.3	15.8	15.8	5.3
	여성	(207)	54.6	47.3	36.2	34.3	17.9	3.9
연령대	18~29세	(80)	66.3	50.0	33.8	26.3	15.0	5.0
	30~39세	(84)	48.8	44.0	33.3	29.8	11.9	7.1
	40~49세	(62)	43.5	40.3	43.5	37.1	17.7	0.0
	50세 이상	(38)	60.5	39.5	31.6	28.9	34.2	2.6
거주지역	서울시	(168)	48.8	44.0	38.7	31.5	17.3	5.4
	인천/경기	(82)	65.9	41.5	28.0	28.0	17.1	2.4
	수도권 외	(14)	57.1	64.3	42.9	28.6	21.4	0.0
직업	학생	(56)	62.5	53.6	33.9	26.8	16.1	3.6
	직장인	(104)	57.7	48.1	23.1	26.0	12.5	3.8
	자영업	(10)	70.0	40.0	40.0	50.0	0.0	0.0
	전업주부	(24)	58.3	37.5	25.0	29.2	29.2	0.0
	프리랜서	(64)	40.6	31.3	57.8	37.5	21.9	7.8
	기타	(6)	33.3	66.7	66.7	33.3	50.0	0.0
최근 이용 공간/시설	서울예술인지원센터	(65)	20.0	33.8	55.4	43.1	26.2	7.7
	대학로극장 쿼드	(117)	67.5	51.3	30.8	25.6	13.7	5.1
	서울연극센터	(39)	43.6	56.4	23.1	17.9	20.5	0.0
	서울연극창작센터	(43)	81.4	30.2	30.2	34.9	11.6	0.0

11. 향후 서울문화재단 운영 공간/시설 이용 의향

- 전체 응답자의 89.4%가 향후 서울문화재단 운영 공간/시설을 다시 이용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함
 - 향후 서울문화재단 운영 공간/시설을 다시 이용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성별로 ‘남성(84.2%)’ 대비 ‘여성(90.8%)’, 연령별로 ‘50세 이상(92.1%)’과 ‘18~29세(91.3%)’, 최근 이용 공간/시설별로 ‘대학로극장 쿼드(94.0%)’ 이용자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 반면, ‘이용할 의향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은 0.4%로 매우 낮음

〈그림 3-26〉 향후 서울문화재단 운영 공간/시설 이용 의향

[Base: 서울문화재단 운영 공간/시설 이용자, 사례수: 264명, 단위: %]



Q. 향후에도 (공간/시설)을/를 다시 이용할 의향이 있습니까? 의향 정도를 선택해 주십시오.

〈표 3-26〉 향후 서울문화재단 운영 공간/시설 이용 의향

[단위: %]

구분		사례수	이용할 의향 없음 (①+②)	전혀 이용할 의향이 없다 ①	이용할 의향이 없다 ②	보통이다 ③	이용할 의향이 있다 ④	매우 이용할 의향이 있다 ⑤	이용할 의향 있음 (④+⑤)
전체		(264)	0.4	0.0	0.4	10.2	40.9	48.5	89.4
성별	남성	(57)	1.8	-	1.8	14.0	40.4	43.9	84.2
	여성	(207)	0.0	-	0.0	9.2	41.1	49.8	90.8
연령대	18~29세	(80)	0.0	-	0.0	8.8	33.8	57.5	91.3
	30~39세	(84)	1.2	-	1.2	11.9	38.1	48.8	86.9
	40~49세	(62)	0.0	-	0.0	11.3	48.4	40.3	88.7
	50세 이상	(38)	0.0	-	0.0	7.9	50.0	42.1	92.1
거주지역	서울시	(168)	0.0	-	0.0	10.1	41.7	48.2	89.9
	인천/경기	(82)	1.2	-	1.2	9.8	40.2	48.8	89.0
	수도권 외	(14)	0.0	-	0.0	14.3	35.7	50.0	85.7
직업	학생	(56)	0.0	-	0.0	7.1	33.9	58.9	92.9
	직장인	(104)	0.0	-	0.0	11.5	44.2	44.2	88.5
	자영업	(10)	0.0	-	0.0	10.0	40.0	50.0	90.0
	전업주부	(24)	0.0	-	0.0	12.5	33.3	54.2	87.5
	프리랜서	(64)	1.6	-	1.6	10.9	45.3	42.2	87.5
	기타	(6)	0.0	-	0.0	0.0	33.3	66.7	100.0
최근 이용 공간/시설	서울예술인지원센터	(65)	1.5		1.5	15.4	35.4	47.7	83.1
	대학로극장 쿼드	(117)	0.0		0.0	6.0	44.4	49.6	94.0
	서울연극센터	(39)	0.0		0.0	15.4	46.2	38.5	84.6
	서울연극창작센터	(43)	0.0		0.0	9.3	34.9	55.8	9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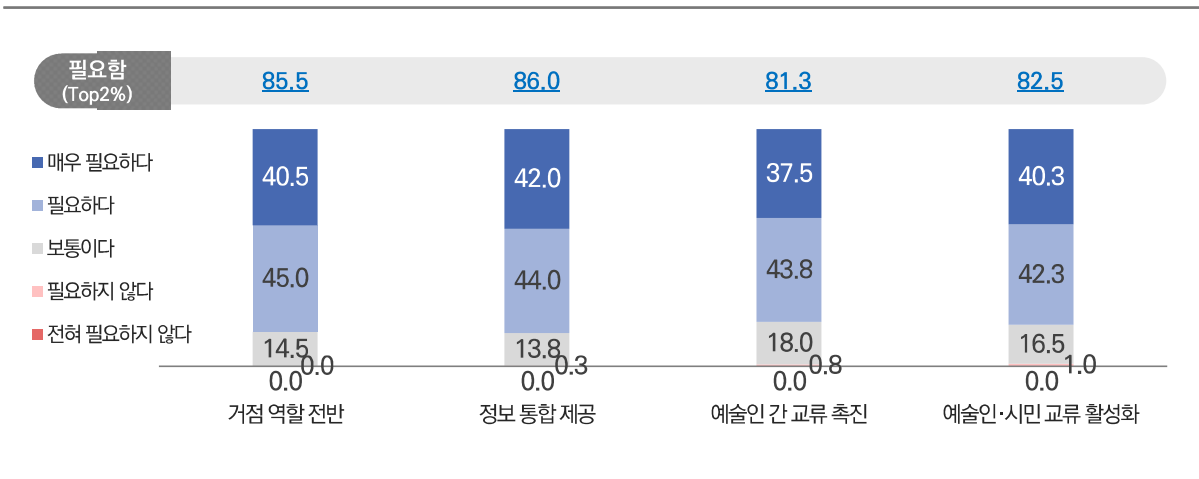
제4절 향후 ‘공연예술 정보·교류 거점’ 역할·기능 인식

1. 서울문화재단 운영 공간/시설 활성화를 위한 필요 기능/역할

- 향후 대학로 공연예술 활성화를 위해 서울문화재단 운영 공간/시설의 필요 기능/역할로 ‘정보 통합 제공(86.0%)’과 ‘거점 역할 전반(85.5%)’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85% 이상을 보임
 - ‘거점 역할 전반’은 연령별로 ‘50세 이상(91.3%)’과 ‘40~49세(88.3%)’, 거주지역별로 ‘서울시(88.6%)’ 거주자에서 응답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 ‘정보 통합 제공’은 연령별로 ‘50세 이상(91.3%)’과 ‘40~49세(89.2%)’, 거주지역별로 ‘인천/경기(87.9%)’, 직업별로 ‘전업주부(92.7%)’에서 응답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 이외에 ‘예술인·시민 교류 활성화(82.5%)’와 ‘예술인 간 교류 촉진(81.3%)’도 80% 이상이 필요하다고 응답함

〈그림 3-27〉 서울문화재단 운영 공간/시설 활성화를 위한 필요 기능/역할

[Base: 전체, 사례수: 400명, 단위: %]



Q. 서울문화재단 운영공간이 ‘공연예술 정보·교류 거점’으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는 일이 향후 대학로 공연예술 활성화에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거점 역할 전반 - 공연, 지원, 대관 정보를 한데 모으고, 예술인·시민 교류를 촉진하는 공공 거점
- 정보 통합 제공 - 공연, 지원, 대관 등 정보 제공
- 예술인 간 교류 촉진 - 협업·매칭·네트워크 강화
- 예술인·시민 교류 활성화 - 참여 프로그램과 만남의 장 운영

〈표 3-27〉 서울문화재단 운영 공간/시설 활성화를 위한 필요 기능/역할

[단위: Top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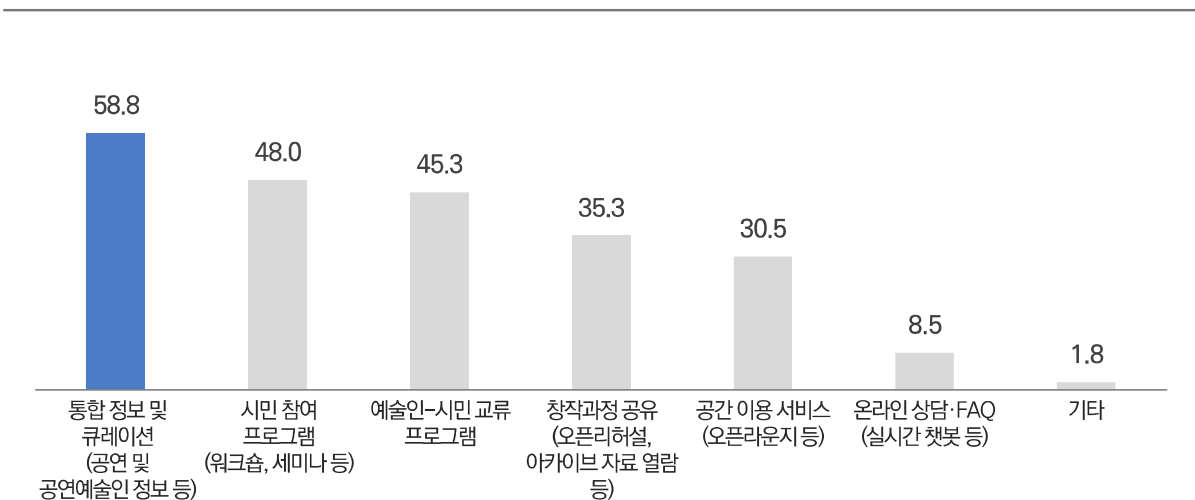
구분		사례수	거점 역할 전반	정보 통합 제공	예술인 간 교류 촉진	예술인·시민 교류 활성화
전체		(400)	85.5	86.0	81.3	82.5
성별	남성	(82)	85.4	86.6	80.5	79.3
	여성	(318)	85.5	85.8	81.4	83.3
연령대	18~29세	(104)	82.7	79.8	78.8	76.9
	30~39세	(116)	81.9	85.3	77.6	80.2
	40~49세	(111)	88.3	89.2	85.6	85.6
	50세 이상	(69)	91.3	91.3	84.1	89.9
거주지역	서울시	(254)	88.6	85.8	82.3	82.7
	인천/경기	(124)	81.5	87.9	83.1	82.3
	수도권 외	(22)	72.7	77.3	59.1	81.8
직업	학생	(70)	87.1	84.3	84.3	81.4
	직장인	(159)	81.1	83.0	79.2	80.5
	자영업	(20)	85.0	85.0	80.0	75.0
	전업주부	(55)	89.1	92.7	80.0	90.9
	프리랜서	(87)	88.5	88.5	82.8	82.8
	기타	(9)	100.0	88.9	88.9	88.9

2. 공연예술 정보·교류 기능 강화를 위해 필요한 프로그램

- 공연예술 정보·교류 기능 강화를 위해 필요한 프로그램으로 ‘통합 정보 및 큐레이션(공연 및 공연예술인 정보 등)’이 58.8%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시민 참여 프로그램(워크숍·세미나 등)(48.0%)’, ‘예술인-시민 교류 프로그램(45.3%)’, ‘창작과정 공유(오픈리허설·아카이브 자료 열람 등)(35.3%)’ 등의 순으로 나타남
- ‘통합 정보 및 큐레이션’은 연령별로 ‘50세 이상(62.3%)’과 ‘40~49세(62.2%)’에서 응답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그림 3-28〉 공연예술 정보·교류 기능 강화를 위해 필요한 프로그램

[Base: 전체, 사례수: 400명, 단위: %, 복수응답]



Q. 공연예술 정보·교류 기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서비스와 프로그램은 무엇입니까? 해당하는 것을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표 3-28〉 공연예술 정보·교류 기능 강화를 위해 필요한 프로그램

[단위: %, 복수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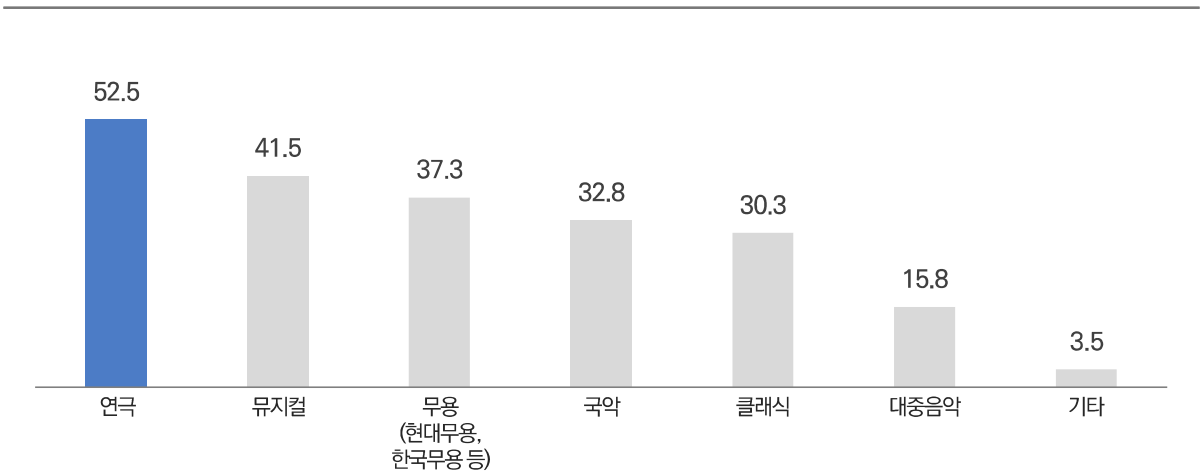
구분		사례수	통합 정보 및 큐레이션 (공연 및 공연예술인 정보 등)	시민 참여 프로그램 (워크숍· 세미나 등)	예술인- 시민 교류 프로그램	창작과정 공유 (오픈리허설· 아카이브 자료 열람 등)	공간 이용 서비스 (오픈라운지 등)	온라인 상담·FAQ (실시간 챗봇 등)	기타
전체		(400)	58.8	48.0	45.3	35.3	30.5	8.5	1.8
성별	남성	(82)	59.8	37.8	50.0	28.0	24.4	4.9	1.2
	여성	(318)	58.5	50.6	44.0	37.1	32.1	9.4	1.9
연령대	18~29세	(104)	56.7	51.0	47.1	40.4	24.0	4.8	1.0
	30~39세	(116)	55.2	40.5	34.5	40.5	31.9	11.2	2.6
	40~49세	(111)	62.2	53.2	53.2	33.3	33.3	8.1	1.8
	50세 이상	(69)	62.3	47.8	47.8	21.7	33.3	10.1	1.4
거주지역	서울시	(254)	59.8	52.0	47.2	40.6	31.9	9.4	1.6
	인천/경기	(124)	58.9	39.5	38.7	25.0	29.0	7.3	2.4
	수도권 외	(22)	45.5	50.0	59.1	31.8	22.7	4.5	0.0
직업	학생	(70)	58.6	51.4	47.1	45.7	25.7	7.1	0.0
	직장인	(159)	57.2	40.3	40.9	27.0	28.3	5.7	0.6
	자영업	(20)	75.0	60.0	60.0	50.0	45.0	5.0	5.0
	전업주부	(55)	56.4	52.7	40.0	20.0	38.2	12.7	1.8
	프리랜서	(87)	58.6	52.9	52.9	48.3	32.2	13.8	4.6
	기타	(9)	66.7	55.6	33.3	33.3	11.1	0.0	0.0

3. 정보 제공 측면에서 강화/보완이 필요한 공연예술 장르

- 공연예술 장르 중 정보 제공 측면에서 강화 또는 보완이 필요한 장르로 ‘연극’이 52.5%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뮤지컬(41.5%)’, ‘무용(37.3%)’, ‘국악(32.8%)’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연극’ 장르에 대한 정보 제공 강화/보완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연령별로 ‘18~29세(59.6%)’와 ‘30~39세(56.0%)’, 거주지역별로 ‘수도권 외(68.2%)’, 직업별로 ‘학생(68.6%)’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그림 3-29〉 정보 제공 측면에서 강화/보완이 필요한 공연예술 장르

[Base: 전체, 사례수: 400명, 단위: %, 복수응답]



Q. 공연예술 장르 중 정보 제공 측면에서 강화 또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장르는 무엇입니까?

〈표 3-29〉 정보 제공 측면에서 강화/보완이 필요한 공연예술 장르

[단위: %, 복수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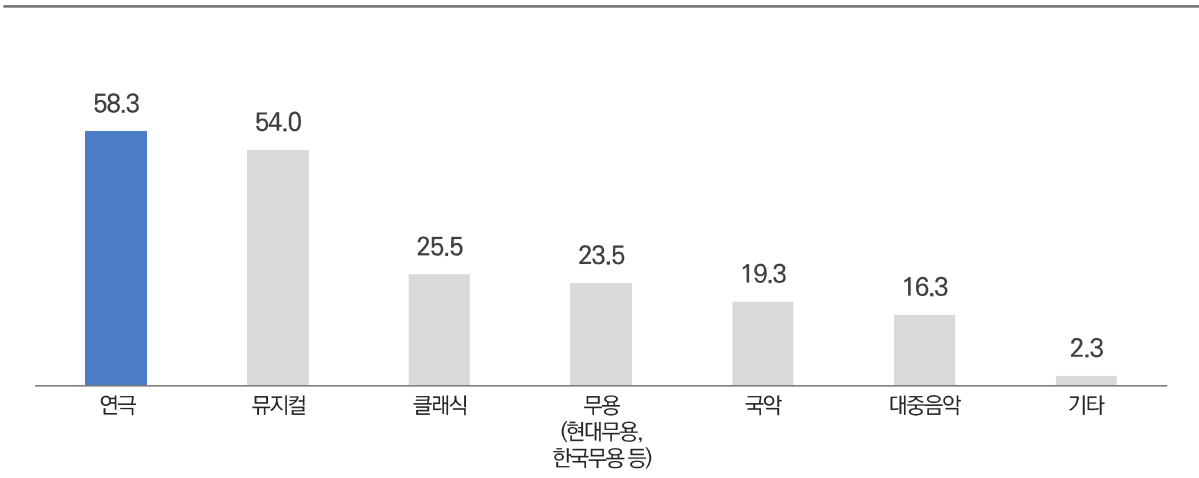
구분		사례수	연극	뮤지컬	무용 (현대무용, 한국무용 등)	국악	클래식	대중음악	기타
전체		(400)	52.5	41.5	37.3	32.8	30.3	15.8	3.5
성별	남성	(82)	52.4	45.1	30.5	26.8	30.5	20.7	1.2
	여성	(318)	52.5	40.6	39.0	34.3	30.2	14.5	4.1
연령대	18~29세	(104)	59.6	36.5	42.3	33.7	29.8	16.3	1.9
	30~39세	(116)	56.0	37.9	46.6	31.9	29.3	12.9	5.2
	40~49세	(111)	49.5	48.6	27.0	33.3	32.4	16.2	2.7
	50세 이상	(69)	40.6	43.5	30.4	31.9	29.0	18.8	4.3
거주지역	서울시	(254)	53.9	43.3	37.0	33.9	34.3	17.7	4.3
	인천/경기	(124)	46.8	37.9	37.1	33.1	24.2	10.5	2.4
	수도권 외	(22)	68.2	40.9	40.9	18.2	18.2	22.7	0.0
직업	학생	(70)	68.6	38.6	45.7	34.3	28.6	15.7	1.4
	직장인	(159)	49.1	47.2	36.5	28.3	28.9	13.2	2.5
	자영업	(20)	45.0	50.0	40.0	30.0	30.0	10.0	5.0
	전업주부	(55)	43.6	38.2	21.8	29.1	32.7	16.4	3.6
	프리랜서	(87)	54.0	32.2	41.4	42.5	33.3	20.7	5.7
	기타	(9)	44.4	55.6	33.3	33.3	22.2	22.2	11.1

4. 정보 교류 또는 네트워킹하고 싶은 공연예술 장르

- 공연예술 장르 중 정보 교류 또는 네트워킹하고 싶은 장르로 ‘연극’이 58.3%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뮤지컬(54.0%)’, ‘클래식(25.5%)’, ‘무용(현대무용, 한국무용 등)(23.5%)’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연극’ 분야 종사자와 정보 교류 또는 네트워킹하고 싶다고 응답한 비율은 성별로 ‘여성(57.5%)’ 대비 ‘남성(61.0%)’, 연령별로 ‘18~29세(72.1%)’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그림 3-30〉 정보 교류 또는 네트워킹하고 싶은 공연예술 장르

[Base: 전체, 사례수: 400명, 단위: %, 복수응답]



Q. 공연예술 장르 중 예술인과 정보 교류 또는 네트워킹하고 싶은 장르는 무엇입니까?

〈표 3-30〉 정보 교류 또는 네트워킹하고 싶은 공연예술 장르

[단위: %, 복수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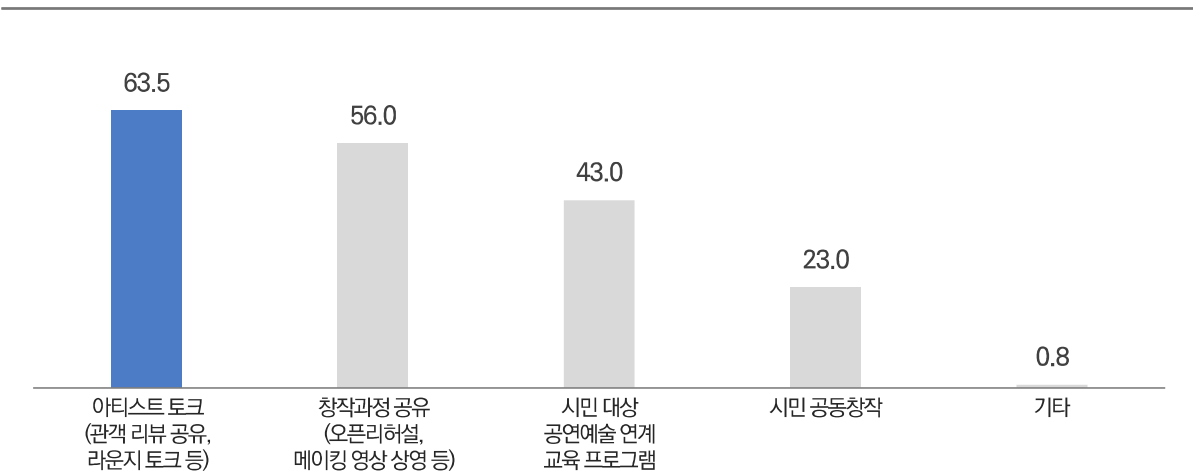
구분		사례수	연극	뮤지컬	클래식	무용 (현대무용, 한국무용 등)	국악	대중음악	기타
전체		(400)	58.3	54.0	25.5	23.5	19.3	16.3	2.3
성별	남성	(82)	61.0	54.9	25.6	18.3	9.8	15.9	0.0
	여성	(318)	57.5	53.8	25.5	24.8	21.7	16.4	2.8
연령대	18~29세	(104)	72.1	62.5	13.5	16.3	12.5	8.7	0.0
	30~39세	(116)	59.5	54.3	27.6	31.0	24.1	17.2	3.4
	40~49세	(111)	50.5	49.5	29.7	23.4	18.0	18.9	2.7
	50세 이상	(69)	47.8	47.8	33.3	21.7	23.2	21.7	2.9
거주지역	서울시	(254)	59.4	54.3	31.5	22.4	22.8	17.3	2.0
	인천/경기	(124)	54.0	50.8	12.9	25.8	12.1	12.9	3.2
	수도권 외	(22)	68.2	68.2	27.3	22.7	18.2	22.7	0.0
직업	학생	(70)	74.3	65.7	11.4	15.7	10.0	7.1	0.0
	직장인	(159)	54.1	58.5	25.2	18.2	15.7	13.8	1.9
	자영업	(20)	50.0	50.0	30.0	30.0	30.0	15.0	0.0
	전업주부	(55)	45.5	45.5	32.7	18.2	16.4	21.8	3.6
	프리랜서	(87)	59.8	41.4	32.2	41.4	32.2	25.3	3.4
	기타	(9)	88.9	66.7	22.2	22.2	22.2	11.1	11.1

5. 예술인과 시민 간 교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프로그램

- 예술인과 시민 간 교류를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프로그램으로 ‘아티스트 토크(관객 리뷰 공유, 라운지 토크 등)’가 63.5%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창작과정 공유(오픈리허설·메이킹 영상 상영 등)(56.0%)’, ‘시민 대상 공연예술 연계 교육 프로그램(43.0%)’, ‘시민 공동창작(23.0%)’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아티스트 토크(관객 리뷰 공유, 라운지 토크 등)’는 성별로 ‘남성(57.3%)’ 대비 ‘여성(65.1%)’, 연령별로 ‘30~39세(72.4%)’, 거주지역별로 ‘수도권 외(72.7%)’에서 응답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그림 3-31〉 예술인과 시민 간 교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프로그램

[Base: 전체, 사례수: 400명, 단위: %, 복수응답]



Q. 예술인과 시민 간의 교류를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서비스와 프로그램은 무엇입니까? 해당하는 것을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표 3-31〉 예술인과 시민 간 교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프로그램

[단위: %, 복수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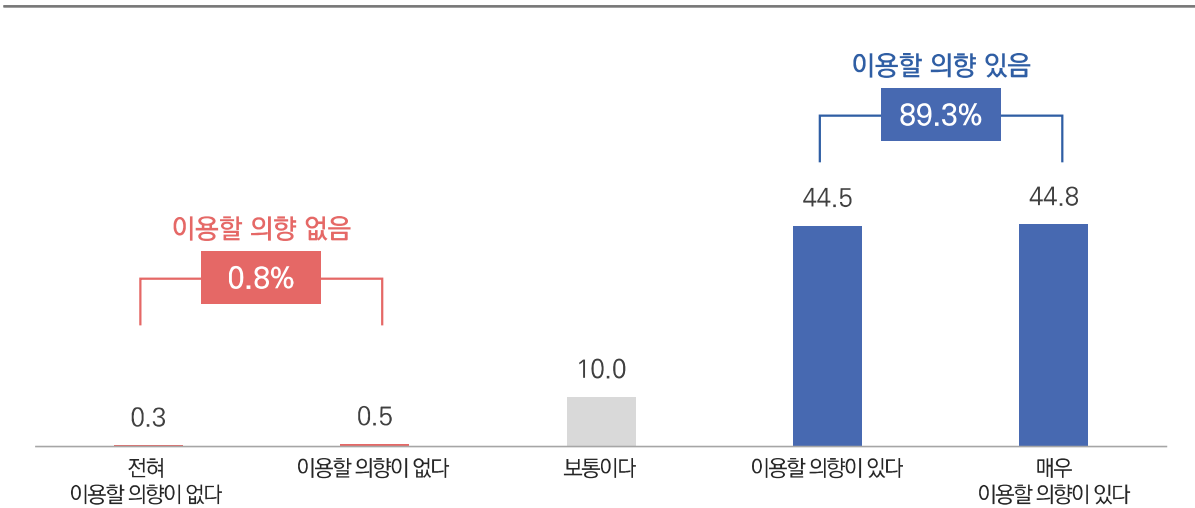
구분		사례수	아티스트 토크 (관객 리뷰 공유, 라운지 토크 등)	창작과정 공유 (오픈리하설· 메이킹 영상 상영 등)	시민 대상 공연예술 연계 교육 프로그램	시민 공동창작	기타
전체		(400)	63.5	56.0	43.0	23.0	0.8
성별	남성	(82)	57.3	51.2	32.9	26.8	0.0
	여성	(318)	65.1	57.2	45.6	22.0	0.9
연령대	18~29세	(104)	65.4	60.6	30.8	21.2	0.0
	30~39세	(116)	72.4	62.1	41.4	19.0	0.9
	40~49세	(111)	61.3	49.5	53.2	27.0	0.9
	50세 이상	(69)	49.3	49.3	47.8	26.1	1.4
거주지역	서울시	(254)	63.0	56.3	47.6	23.2	1.2
	인천/경기	(124)	62.9	54.8	36.3	22.6	0.0
	수도권 외	(22)	72.7	59.1	27.3	22.7	0.0
직업	학생	(70)	64.3	71.4	35.7	18.6	0.0
	직장인	(159)	64.2	49.7	41.5	17.6	0.0
	자영업	(20)	45.0	60.0	50.0	25.0	0.0
	전업주부	(55)	54.5	52.7	45.5	29.1	1.8
	프리랜서	(87)	72.4	56.3	47.1	32.2	2.3
	기타	(9)	55.6	55.6	55.6	22.2	0.0

6. 향후 서울문화재단 운영 공간의 정보·교류 거점 역할 시, 이용 의향

- 향후 대학로 내 서울문화재단 운영 공간이 ‘공연예술 정보·교류 거점’으로 발전한다면, 전체 응답자의 89.3%가 현재보다 더 자주 ‘이용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함
 - 현재보다 더 자주 ‘이용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연령별로 ‘50세 이상(91.3%)’와 ‘40~49세(90.1%)’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 반면, ‘이용할 의향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은 0.8%로 매우 낮음

〈그림 3-32〉 향후 서울문화재단 운영 공간의 정보·교류 거점 역할 시, 이용 의향

[Base: 전체, 사례수: 400명, 단위: %]



Q. 앞으로 대학로 내 서울문화재단 운영공간이 ‘공연예술 정보·교류 거점’으로 발전한다고 할 때, 현재보다 더 자주 이용할 의향이 얼마나 있으십니까?

〈표 3-32〉 향후 서울문화재단 운영 공간의 정보·교류 거점 역할 시, 이용 의향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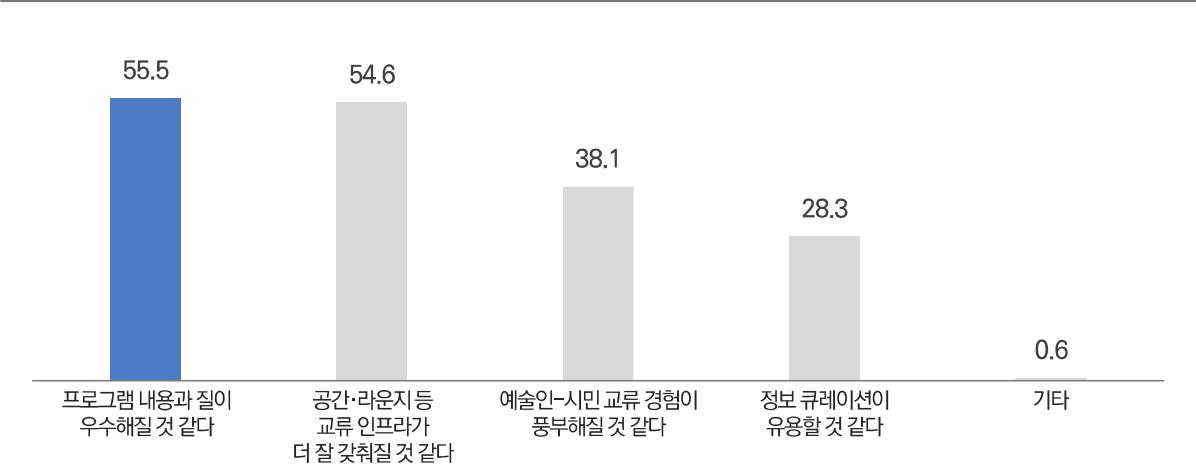
구분		사례수	이용할 의향 없음 (①+②)	전혀 이용할 의향이 없다 ①	이용할 의향이 없다 ②	보통이다 ③	이용할 의향이 있다 ④	매우 이용할 의향이 있다 ⑤	이용할 의향 있음 (④+⑤)
전체		(400)	0.8	0.3	0.5	10.0	44.5	44.8	89.3
성별	남성	(82)	1.2	0.0	1.2	11.0	39.0	48.8	87.8
	여성	(318)	0.6	0.3	0.3	9.7	45.9	43.7	89.6
연령대	18~29세	(104)	1.0	1.0	0.0	11.5	38.5	49.0	87.5
	30~39세	(116)	0.0	0.0	0.0	11.2	47.4	41.4	88.8
	40~49세	(111)	0.0	0.0	0.0	9.9	48.6	41.4	90.1
	50세 이상	(69)	2.9	0.0	2.9	5.8	42.0	49.3	91.3
거주지역	서울시	(254)	0.4	0.4	0.0	8.7	45.7	45.3	90.9
	인천/경기	(124)	1.6	0.0	1.6	8.9	44.4	45.2	89.5
	수도권 외	(22)	0.0	0.0	0.0	31.8	31.8	36.4	68.2
직업	학생	(70)	0.0	0.0	0.0	8.6	41.4	50.0	91.4
	직장인	(159)	1.3	0.6	0.6	8.2	45.9	44.7	90.6
	자영업	(20)	0.0	0.0	0.0	10.0	40.0	50.0	90.0
	전업주부	(55)	1.8	0.0	1.8	7.3	49.1	41.8	90.9
	프리랜서	(87)	0.0	0.0	0.0	16.1	43.7	40.2	83.9
	기타	(9)	0.0	0.0	0.0	11.1	33.3	55.6	88.9

1) 자주 이용할 의향이 있는 이유

- 향후 대학로 내 서울문화재단 운영 공간이 ‘공연예술 정보·교류 거점’으로 발전한다면, 서울문화재단 운영 공간을 자주 이용할 의향이 있는 이유로 ‘프로그램 내용과 질이 우수해질 것 같다’가 55.5%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공간·라운지 등 교류 인프라가 더 잘 갖춰질 것 같다(54.6%)’, ‘예술인·시민 교류 경험이 풍부해질 것 같다(38.1%)’, ‘정보 큐레이션이 유용할 것 같다(28.3%)’ 등의 순으로 나타남
 - ‘프로그램 내용과 질이 우수해질 것 같다’는 연령별로 ‘50세 이상(63.5%)’와 ‘40~49세(63.0%)’에서 응답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 ‘공간·라운지 등 교류 인프라가 더 잘 갖춰질 것 같다’는 성별로 ‘남성(43.1%)’ 대비 ‘여성(57.5%)’, 연령별로 ‘30~39세(59.2%)’에서 응답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그림 3-33〉 자주 이용할 의향이 있는 이유

[Base: 자주 이용할 의향이 있는 응답자, 사례수: 357명, 단위: %, 복수응답]



Q. 더 자주 이용하려는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해당하는 것을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표 3-33〉 자주 이용할 의향이 있는 이유

[단위: %, 복수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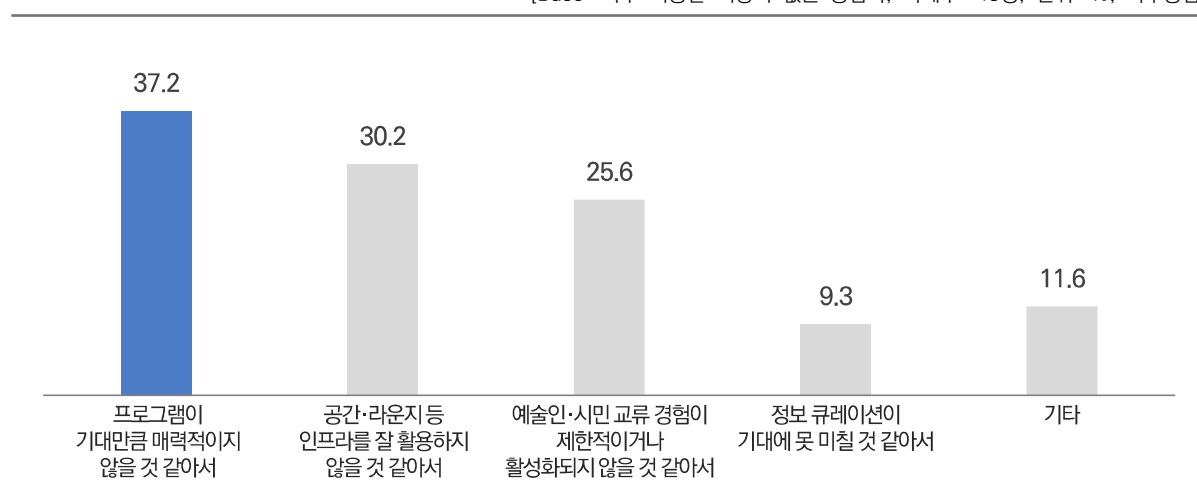
구분		사례수	프로그램 내용과 질이 우수해질 것 같다	공간·라운지 등 교류 인프라가 더 잘 갖춰질 것 같다	예술인·시민 교류 경험이 풍부해질 것 같다	정보 큐레이션이 유용할 것 같다	기타
전체		(357)	55.5	54.6	38.1	28.3	0.6
성별	남성	(72)	54.2	43.1	30.6	33.3	0.0
	여성	(285)	55.8	57.5	40.0	27.0	0.7
연령대	18~29세	(91)	44.0	53.8	34.1	34.1	0.0
	30~39세	(103)	53.4	59.2	34.0	27.2	1.0
	40~49세	(100)	63.0	56.0	40.0	27.0	0.0
	50세 이상	(63)	63.5	46.0	47.6	23.8	1.6
거주지역	서울시	(231)	61.0	51.9	39.8	26.8	0.9
	인천/경기	(111)	43.2	57.7	34.2	29.7	0.0
	수도권 외	(15)	60.0	73.3	40.0	40.0	0.0
직업	학생	(64)	43.8	54.7	32.8	32.8	0.0
	직장인	(144)	52.1	60.4	27.1	28.5	0.7
	자영업	(18)	55.6	50.0	55.6	27.8	0.0
	전업주부	(50)	72.0	42.0	50.0	16.0	2.0
	프리랜서	(73)	60.3	52.1	52.1	31.5	0.0
	기타	(8)	62.5	62.5	37.5	37.5	0.0

2) 자주 이용할 의향이 없는 이유

- 반면, 서울문화재단 운영 공간을 자주 이용할 의향이 없는 이유로 ‘프로그램이 기대만큼 매력적이지 않을 것 같아서’가 37.2%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공간·라운지 등 인프라를 잘 활용하지 않을 것 같아서(30.2%)’, ‘예술인·시민 교류 경험이 제한적이거나 활성화되지 않을 것 같아서(25.6%)’, ‘정보 큐레이션이 기대에 못 미칠 것 같아서(9.3%)’ 등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3-34〉 자주 이용할 의향이 없는 이유

[Base: 자주 이용할 의향이 없는 응답자, 사례수: 43명, 단위: %, 복수응답]



Q. 이용을 망설이는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해당하는 것을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표 3-34〉 자주 이용할 의향이 없는 이유

[단위: %, 복수응답]

구분		사례수	프로그램이 기대만큼 매력적이지 않을 것 같아서	공간·라운지 등 인프라를 잘 활용하지 않을 것 같아서	예술인·시민 교류 경험이 제한적이거나 활성화되지 않을 것 같아서	정보 큐레이션이 기대에 못 마칠 것 같아서	기타
전체		(43)	37.2	30.2	25.6	9.3	11.6
성별	남성	(10)	30.0	20.0	10.0	20.0	20.0
	여성	(33)	39.4	33.3	30.3	6.1	9.1
연령대	18~29세	(13)	46.2	23.1	7.7	15.4	15.4
	30~39세	(13)	46.2	30.8	46.2	7.7	7.7
	40~49세	(11)	27.3	54.5	9.1	9.1	0.0
	50세 이상	(6)	16.7	0.0	50.0	0.0	33.3
거주지역	서울시	(23)	43.5	34.8	26.1	8.7	8.7
	인천/경기	(13)	38.5	23.1	15.4	7.7	15.4
	수도권 외	(7)	14.3	28.6	42.9	14.3	14.3
직업	학생	(6)	33.3	16.7	0.0	16.7	33.3
	직장인	(15)	40.0	13.3	26.7	6.7	13.3
	자영업	(2)	0.0	50.0	50.0	0.0	0.0
	전업주부	(5)	40.0	20.0	20.0	0.0	20.0
	프리랜서	(14)	35.7	57.1	35.7	14.3	0.0
	기타	(1)	100.0	0.0	0.0	0.0	0.0

제2장 정성조사 결과

제1절 대학로 방문 및 문화공간 이용 행태

1. 대학로 이미지

- 대학로는 서울에서 연극과 소극장 공연이 가장 밀집된 공간이자, 연극을 접하는 대표적인 장소로 인식되고 있음

“서울에서 연극을 한다고 하면 자연스럽게 대학로를 떠올리게 되는 것 같아요.” (20대 그룹)
“대학로는 연극의 중심지라는 인식이 강하고, 소극장 연극이 많아서 연극을 시작하는 사람들이 꿈을 펼치는 공간처럼 느껴져요.” (20대 그룹)
“연극이나 뮤지컬을 보러 간다는 목적이 있을 때는 여전히 대학로를 찾게 돼요.” (40대 그룹)
“연극, 공연장, 소극장이 밀집된 동네라는 이미지는 여전히 분명해요.” (50대 이상 그룹)

- 대학로는 젊은 시절의 연애, 공연 관람, 모임을 위해 방문했던 장소로 ‘설렘이 남아 있는 추억의 공간’, ‘낭만적 장소’라는 정서적 이미지가 있음

“대학로는 제 젊은 날의 추억이 정말 많이 남아 있는 곳이에요.” (50대 이상 그룹)
“데이트도 하고 연극도 보고, 친구들과 자주 모이던 장소라 아직도 설렘이 남아 있어요.” (50대 이상 그룹)
“예전의 젊음의 거리보다는 지금은 조금 더 낭만적인 공간으로 바뀌고 있다는 느낌이에요.” (30대 그룹)

- 그러나, 과거에 비해 대학로는 젊은 사람들이 많이 줄어들고, 버스킹 공연 등이 줄어들어 따라 젊고 활기찬 이미지는 약화되고 있음
- 그러나 젊은 세대를 위한 공간/지역을 벗어나 다양한 연령대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지역/공간으로 변화되고 있다고 긍정적으로 인식함

“예전에는 혜화역에서 마로니에공원으로 들어가면 활기찬 분위기가 확 느껴졌는데, 요즘은 그런 모습이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20대 그룹)

“젊은 느낌은 제가 20대였을 때랑 비교하면 확실히 줄어들었어요.” (40대 그룹)
 “요즘 10대, 20대들은 대학로보다 성수나 홍대 쪽을 더 많이 가는 것 같아요.” (40대 그룹)
 “예전만큼 핫플이나 트렌디한 공간이라는 인상은 약해진 것 같아요.” (30대 그룹)
 “요즘 대학로는 특정 세대의 공간이라기보다는 여러 연령대가 섞여 있는 공간처럼 느껴져요.” (30대 그룹)
 “가족 단위 방문객이 늘었고, 연령대가 굉장히 다양해졌다는 느낌을 받아요.” (30대 그룹)
 “저희 세대가 나이가 들어도 계속 즐기던 문화를 이어오다 보니 자연스럽게 연령층이 넓어진 것 같아요.” (40대 그룹)

2. 서울 내 방문 지역

- 전반적으로 문화예술을 즐기는 참여자들은 전시·미술관·갤러리가 밀집되어 있고, 가벼운 산책을 할 수 있는 안국, 광화문, 북촌 등의 지역을 자주 방문하는 것으로 나타남
- 또한, 팝업 스토어, 신규 매장 등 다양한 볼거리가 있는 홍대, 합정, 성수 등도 방문함

“안국동 쪽은 미술관이나 갤러리가 많아서 그냥 걷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져요.” (20대 그룹)
 “종로나 안국 쪽 골목을 혼자 걸어 다니는 걸 좋아해요. 정독도서관도 자주 가고요.” (30대 그룹)
 “광화문이나 시청, DDP는 항상 전시나 이벤트가 있어서 일부러 자주 가려고 해요.” (40대 그룹)
 “광화문에서 북촌까지 이어지는 동선을 좋아해요. 미술관이 밀집돼 있고 풍경도 좋아요.” (50대 이상 그룹)
 “연극이나 뮤지컬 말고는 홍대를 제일 자주 가요. 그냥 돌아다니기만 해도 볼 게 많아요.” (30대 그룹)
 “합정이랑 홍대는 오래 다녀서 편하고, 계속 새로운 가게가 생겨서 좋아요.” (30대 그룹)
 “홍대는 아이랑 같이 가도 되고, 가끔 버스킹도 있어서 분위기가 좋아요.” (40대 그룹)
 “문래동은 공장이 문화 공간으로 바뀐 느낌이 있어서 자주 가게 돼요.” (20대 그룹)
 “성수는 예전 홍대에서 하던 것들이 옮겨간 느낌이에요.” (50대 이상 그룹)
 “성수동에 가보니 중년층도 많고, 새로운 문화가 만들어지는 곳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50대 이상 그룹)

- 반면, 너무 사람이 많거나 새로운 볼거리가 없는 강남, 신촌, 명동 등은 예전에 비해 방문 빈도가 낮아짐

“사람이 너무 많으면 가고 싶은 데를 못 가게 되고, 귀도 피곤해서 점점 안 가게 돼요.” (20대 그룹)
 “홍대는 너무 시끄러워서 이제는 잘 못 가겠어요.” (40대 그룹)
 “동대문이나 명동은 외국인들이 너무 많아진 거리라서 잘 안 가게 돼요.” (40대 그룹)

“프랜차이즈가 너무 많고, 먹는 거 빼면 할 게 없어요.” (20대 그룹)
 “예전처럼 새롭고 재미있는 게 빨리 생기는 느낌이 아니에요.” (20대 그룹)
 “화장품 가게나 브랜드 숍만 남은 느낌이라 굳이 갈 이유가 없어요.” (40대 그룹)
 “강남은 이제 재밌는 게 없는 것 같아요.” (30대 그룹)
 “만나서 그냥 술 마시는 공간보다는 뭔가 할 수 있는 곳을 찾게 돼요.” (40대 그룹)
 “신촌은 좀 죽은 느낌이에요.” (40대 그룹)
 “가로수길은 확실히 예전보다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50대 이상 그룹)

3. 대학로 방문 현황

- 대학로를 방문하는 목적은 무엇보다 공연 관람 목적이 가장 크며, 이외에 우수한 접근성 및 다양한 즐길 거리가 있어 지인들과의 만남의 장소임

“거의 무조건 공연 보러 올 때만 방문하는 것 같아요.” (20대 그룹)
 “대학로에 연극이 많으니까요. 수요나 숫자가 다른 지역보다 많아요.” (30대 그룹)
 “대학로는 여기에서만 하는 공연이 있어서, 그 공연을 보려면 꼭 와야 한다는 느낌이 있어요.” (40대 그룹)
 “제가 원하는 공연이 여기서 상영을 하니까 찾게 돼요.” (50대 이상 그룹)
 “대학로 연극은 실험적인 작품이 많아서 새로운 걸 보고 싶을 때 찾게 돼요.” (20대 그룹)
 “공연 보고 나서 밥 먹거나 다른 걸 하기에 대학로가 제일 편해요.” (20대 그룹)
 “보고, 먹고, 즐기는 게 한 동네에서 해결돼서 자연스럽게 대학로를 떠올리게 돼요.” (30대 그룹)
 “대학로 자체가 좋아서 온다기보다는, 누군가를 만나기 좋은 장소라는 느낌이 커요.” (50대 이상 그룹)

- 그러나, 전반적으로 활기찬 분위기 및 대학로에만 볼 수 있었던 새로운 공연이 줄어들면서 대학로를 방문하는 빈도가 점차 줄어들

“코로나 이후로 대학로의 활기가 확 떨어진 느낌이에요.” (20대 그룹)
 “예전에는 걷기만 해도 공연 기다리는 사람들로 북적였는데, 요즘은 그런 분위기가 거의 없어요.” (20대 그룹)
 “요즘은 계속 하던 연극 위주인 느낌이에요.” (20대 그룹)
 “대학로는 항상 하던 것만 하는 느낌이 들어요.” (50대 이상 그룹)
 “예전에는 대학로에서만 볼 수 있는 공연이 분명히 있었어요.” (50대 이상 그룹)
 “공연 티켓 가격이 거의 두 배 가까이 올라서 자주 보기가 힘들어졌어요.” (30대 그룹)
 “6~7만 원이면 새로운 공연은 도박처럼 느껴져요.” (30대 그룹)
 “관심 있는 공연이 꼭 대학로에서만 열리는 건 아니에요.” (50대 이상 그룹)
 “다른 지역에도 선택지가 너무 많아졌어요.” (50대 이상 그룹)

4. 문화공간 선택 시, 중요 고려요인

- 문화공간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인으로 콘텐츠의 재미와 완성도이며, 이외에 후기, 접근성, 공간의 쾌적성 등도 고려함

“결국 콘텐츠가 제일 중요해요.” (50대 이상 그룹)
“공연의 질이 가장 중요하고, 나머지는 그다음 문제인 것 같아요.” (50대 이상 그룹)
“이 돈을 주고 볼 만한 가치가 있느냐가 제일 중요해요.” (30대 그룹)
“재미없는 공연을 보는데 시간과 돈을 쓰는 게 너무 아까워요.” (20대 그룹)
“리뷰가 많거나 오래 공연한 작품 위주로 보게 돼요.” (20대 그룹)
“협찬 리뷰는 빼고, 직접 보고 쓴 후기만 보려고 해요.” (20대 그룹)
“지하철역이랑 가까운지가 중요해요.” (40대 그룹)
“교통이 편하면 멀어도 갈 수 있어요.” (50대 이상 그룹)
“접근성이 좋아야 선택하게 돼요.” (30대 그룹)
“좌석 간격이 너무 붙어 있는 극장은 힘들어요.” (30대 그룹)
“가서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지도 중요해요.” (50대 이상 그룹)

5. 대학로의 문화 향유 환경에 대한 인식

- 대학로 방문 시, 재미있는 공연 관람, 대학로만의 감성, 활기찬 분위기, 다양한 볼거리 등을 기대하면서 방문함

“공연 같은 경우에는 계획을 하고 오기 때문에 기대감을 더 가지고 오는 편이에요.” (20대 그룹)
“그날 보는 공연 자체가 목적이고, 그 공연에 대한 기대감이 제일 커요.” (30대 그룹)
“재밌는 공연이 있기를 기대해요.” (40대 그룹)
“여기서만 느낄 수 있는 감성, 연극하는 사람들이 오가는 분위기를 기대해요.” (30대 그룹)
“학생들이 생기발랄하게 다니는 모습을 보면 기분이 좋아져요.” (20대 그룹)
“여기는 직장인들만 있는 동네랑 달리 활발한 느낌이 있어서 좋아요.” (20대 그룹)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재미있을 것 같아요.” (40대 그룹)
“길 가다 보면 새로운 게 생겼네, 줄 서 있네 하는 걸 발견하는 재미를 기대해요.” (40대 그룹)
“일부러 이벤트를 찾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볼 게 있는 동선이었으면 좋겠어요.” (40대 그룹)

- 서울 내 다른 지역과 비교하여, ‘연극’이라는 분명한 문화적 키워드를 가진 지역이라는 강점이 있으며, 다양한 볼거리/즐길 거리가 있어 복합 문화·여가 활동을 할 수 있는 지역으로 인식함

“혜화나 대학로 하면 무조건 ‘연극’이 떠오르는 것만으로도 강점이라고 생각해요.” (20대 그룹)
 “연극이라는 명확한 콘셉트가 있는 지역은 대학로밖에 없어요.” (30대 그룹)
 “대학로는 소극장이 많아서 공연을 보러 왔다가 다른 공연에도 자연스럽게 관심이 생겨요.” (20대 그룹)
 “옆 극장에 사람이 많으면 ‘저건 뭐지?’ 하고 찾아보게 되는 매력이 있어요.” (20대 그룹)
 “연극을 보고 나서도 밥을 먹거나 다른 걸 하면서 시간을 이어서 보낼 수 있어요.” (20대 그룹)
 “다른 공연장은 보고 나오면 바로 집에 가게 되는데, 대학로는 이후 선택지가 많아요.” (20대 그룹)
 “복합 문화 공간이라는 점에서는 잘 갖춰져 있다고 봐요.” (30대 그룹)

- 그러나, 대학로 공연 콘텐츠의 새로운 변화가 없어 점차 대학로 공연만의 차별성이 줄어들고 있으며, 불편한 공연장 시설에 불편함을 느낌

“연극들이 대부분 비슷하게 느껴지고, 몇 년째 반복되는 느낌이에요.” (20대 그룹)
 “이미 본 작품들이 많아서 다시 시도해 볼 만한 콘텐츠가 많지 않아요.” (20대 그룹)
 “공간은 좋은데 콘텐츠는 예전이랑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느낌이에요.” (20대 그룹)
 “예전에는 대학로에서만 볼 수 있는 콘텐츠가 분명히 있었어요.” (50대 이상 그룹)
 “요즘은 공연을 대체할 수 있는 문화 요소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20대 그룹)
 “지금은 대학로가 아니면 안 되는 이유가 약해진 것 같아요.” (50대 이상 그룹)
 “오랜만에 와 보니 크게 변한 게 없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50대 이상 그룹)
 “변화가 필요한 시점인데, 예전 모습에 머물러 있는 건 아닐까 싶어요.” (50대 이상 그룹)
 “화장실 문제가 정말 심각해요.” (30대 그룹)
 “입장 직전에는 화장실을 아예 못 쓰는 극장도 있어요.” (30대 그룹)
 “소극장은 너무 좁고, 다리도 아파요.” (40대 그룹)
 “요즘 관객들은 넓고 쾌적한 공간을 더 선호하는 것 같아요.” (40대 그룹)
 “소극장 특유의 낭만은 이해하지만, 불편함은 개선됐으면 좋겠어요.” (40대 그룹)

제2절 대학로의 공연예술 정보 접근 및 교류 환경

1. 평소 공연예술 관련 정보 습득 불편사항

- 전반적으로 20~30대는 SNS, 40~50대는 공공기관 홍보채널을 통해 공연예술 관련 정보를 습득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으며, 이외에 예매 플랫폼, 포털 검색 등을 통해 정보를 습득함
- 그러나 정보 탐색 시, 지나친 후기, 광고성 후기 등으로 공연 정보에 대한 신뢰도가 저하되며, 유사한 정보 및 분산된 정보 채널로 정보 습득 과정에서 불편함을 경험함

“후기가 너무 많아서 오히려 뭐가 진짜 재밌는 건지 모르겠어요. 다들 거의 다 엄청 재밌다고만 써놓으니까, 읽어도 판단이 잘 안 되는 느낌이에요.” (20대 그룹)

“후기를 보긴 보는데, 다 좋다는 이야기뿐이라서 실제로 나한테 맞을지 아닌지를 가늠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20대 그룹)

“저는 일부러 협찬 리뷰는 걸러서 보려고 하는데, 그걸 구분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유명한 공연일수록 협찬 리뷰가 너무 많아서, 이게 진짜 관객 후기인지 헷갈릴 때가 많아요.” (20대 그룹)

“돈 주고 본 사람 입장에서 보면, 협찬 받아서 좋은 말만 써주는 후기들이 너무 많을 때 오히려 신뢰가 떨어지는 느낌이 들어요.” (20대 그룹)

“공연 정보들이 너무 비슷비슷해서 제목이랑 설명만 봐서는 뭐가 다른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떤 걸 골라야 할지 더 헷갈리는 것 같아요.” (20대 그룹)

“소개 글만 보면 다 비슷하게 느껴져서, 결국은 감으로 고르게 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20대 그룹)

“영화처럼 하이라이트 영상이 있으면 훨씬 선택하기 쉬울 것 같아요.” (40대 그룹)

“네이버에서 지역 설정해서 공연을 보면 쪽 나오긴 하는데, 정보가 딱 정리돼 있지 않아서 결국 다시 하나하나 찾아보게 돼요.” (20대 그룹)

“무용이나 국악 같은 장르는 SNS에 정보가 거의 안 떠요. 그 분야 사람을 팔로우하고 있지 않으면 공연이 있는지도 잘 몰라요.” (30대 그룹)

“결국 찾아야만 알 수 있는 구조라서, 관심 없는 사람들은 아예 접할 기회가 없는 것 같아요.” (30대 그룹)

“서울에서 하는 공연을 장르별, 구별로 한 번에 볼 수 있는 통합된 사이트가 있으면 좋겠어요.” (50대 이상 그룹)

“지도로 보면서 ‘여기서 뭐 하지?’ 하고 고를 수 있으면 훨씬 편할 것 같아요.” (50대 이상 그룹)

“다른 공연장들은 오피셜 채널이 잘 관리되는데, 소극장은 그 부분이 좀 약한 것 같아요.” (50대 이상 그룹)

2. 대학로 내 공연예술 관련 정보 습득 불편사항

- 대학로 내 공연 정보를 한 번에 볼 수 있는 통합된 채널이 없는 것에 대한 불편함을 경험하였으며, 분산된 예매처, 관람 연령 미제시, 할인 정보 등도 불편 사항으로 언급함

“한 번에 모아서 볼 수 있는 게 없다고 느껴요. 네이버로 찾아볼 생각도 잘 안 들고, 거기에 없는 공연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20대 그룹)

“공연은 보는 사람이 하나하나 직접 찾아서 취합해야 한다는 느낌이 강해요.” (30대 그룹)

“영화처럼 대학로 전체 공연을 한 번에 볼 수 있는 시스템이 있으면 좋겠어요.” (40대 그룹)

“앱 같은 데에 지도가 있어서 클릭하면 그 공연장 정보가 뜨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20대 그룹)

“어디에 뭐가 있는지 한눈에 볼 수 있으면 훨씬 선택하기 쉬울 것 같아요.” (20대 그룹)

“직접 찾아보지 않으면 정보가 한 번에 들어오는 느낌은 아니에요.” (30대 그룹)

“어플을 깔 수도 있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정리된 정보를 주기적으로 받아볼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30대 그룹)

“같은 공연인데 인터파크랑 예스24로 나뉘어 있어서 다 들어가서 확인해야 해요.” (30대 그룹)

“예스24는 할인되는데 인터파크는 안 된다든지 해서 결국 다 찾아봐야 해요.” (30대 그룹)

“관람 연령 정보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40대 그룹)

“아이랑 같이 볼 수 있는 공연인지 아닌지를 바로 알기 어렵다고 느껴요.” (40대 그룹)

제3절 서울문화재단 운영공간 인식·이용 경험

1. 서울문화재단 운영 공간/시설 이용 경험

- FGI 참석자 중 일부 휴식, 화장실 이용, 콘서트 관람 등을 위해 서울연극센터와 대학로센터에 방문한 경험이 있으며, 해당 공간/시설에 대해 긍정적인 경험을 함

[서울연극센터]

“한여름에 너무 더워서 그냥 피신하듯이 들어갔는데, 안이 되게 시원해서 놀랐어요. 앉아서 쉬고 있는데 관계자분이 와서 센터 소개를 해 주셔서 자연스럽게 전체를 둘러보게 됐어요.” (20대 그룹)

“음료도 나눠주시고, 마침 연극도 하나 하고 있어서 ‘이건 무슨 공연이에요?’ 하고 물어보게 됐어요.” (20대 그룹)

“휴대폰 배터리가 없어서 충전할 데를 찾다가 들어갔는데, 안이 되게 깔끔하고 공연 정보도 기다리면서 볼 수 있어서 좋았어요.” (20대 그룹)

“공연 리플렛을 모으던 시기가 있어서, 리플렛 받으러 자주 갔어요.” (30대 그룹)

“그냥 가면 요즘 뭐 하는지 한눈에 볼 수 있어서 좋아요.” (40대 그룹)

“통창이라서 개방감이 좋았고, 안에 전시 같은 것도 있어서 구경하면서 연극 정보를 볼 수 있었던 기억이 있어요.” (30대 그룹)

“책 읽을 수 있는 공간도 있고, 그냥 쉬어도 되는 공간이 잘 되어 있어요.” (40대 그룹)

“미니 콘서트 할 때 한 번 와서 이용해 본 적은 있어요.” (50대 이상 그룹)

[대학로센터]

“대학로에서 공연 보고 나서 딱히 할 게 없을 때 그냥 여기 와서 쉬다 가기도 해요. 2층 라운지에서요.” (20대 그룹)

“공연 전에 쉬거나 친구 기다릴 때 이용했어요.” (30대 그룹)

“연극센터 같은 데는 들어가면 관계자들만 있는 느낌이 들어서 조금 부담스러운데, 여기는 그냥 자연스럽게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공간 같아요.” (20대 그룹)

“편하게 들어오기 좋은 공간이라는 느낌은 있었어요.” (20대 그룹)

“다른 공연장에 비해서 화장실이 쾌적해서 좋았어요.” (30대 그룹)

“연극하는 공간들이 워낙 열악한 곳도 많다 보니까, 여기는 상대적으로 괜찮다고 느꼈어요.” (40대 그룹)

2. 서울문화재단 운영 공간/시설에 대한 이미지

- 서울문화재단 운영 공간/시설은 예술인을 위한 지원 공간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사무실 같은 이미지’와 ‘센터 명칭’으로 일반인이 쉽게 접근할 수 없는 공간으로 인식됨

“연극인들이 회의하거나 연습 공간이 필요할 때 대관해 주는 곳, 아니면 공연 전후에 시간이 비거나 대기할 때 잠깐 쉬어갈 수 있는 장소라고 생각했어요.” (20대 그룹)

“연극센터는 연극을 주관하고 진행하는 느낌이고, 창작센터는 창작자들을 지원하는 공간, 예술인 지원센터는 청년 공간에 가까운 느낌인 것 같아요.” (20대 그룹)

“연극하시는 분들한테 기회를 주고, 사람들이 모여서 뭔가를 만들 수 있게 지원해 주는 곳이라는 느낌이에요.” (40대 그룹)

“대부분 그냥 사무실인 줄 알았어요. 재단 직원들이 일하는 건물 같은 느낌이라서, 들어와도 되는지도 몰랐어요.” (20대 그룹)

“들어가면 안 될 것 같고, 괜히 혼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애초에 들어갈 생각을 안 했어요.” (20대 그룹)

“‘센터’라고 하면 들어가기 좀 꺼려져요. 뭔가 자격을 증명해야 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20대 그룹)

“‘공간’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그냥 들어가도 될 것 같은데, ‘센터’는 딱 사무실 같은 느낌이에요.” (20대 그룹)

제4절 향후 ‘공연예술 정보·교류 거점’ 역할·기능 인식

1. 향후 공간/시설의 이상적인 기능/역할

- 시민들은 전반적으로 예술인을 지원하고 창작활동을 할 수 있는 기능은 유지하되 관객과 예술인을 연결하는 교류·소통 공간의 기능/역할로 확대되기를 기대하며, 대학로 내 3개 시설에 대한 명확한 목적성도 필요함

“예술인이 독립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전문성을 키울 수 있는 배움의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프리랜서라 소속감을 느낄 기회가 거의 없는데, 이런 공간에서는 신뢰감이나 협력, 소통 같은 걸 느낄 수 있으니까요.” (20대 그룹)

“결국 예술인의 목표는 독립과 자립이고, 그 과정에서 인정받고 존재감을 느끼는 게 중요해요. 부담 없이 와서 공간도 쓰고 사람도 만나고 같이 작업도 해볼 수 있는 장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20대 그룹)

“시민에게 너무 전면적으로 오픈하는 건 조심스러워요. 시민이 다수가 되면 예술인이 밀려나는 느낌을 받을 수도 있어서요. 그래서 약간의 ‘턱’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20대 그룹)

“여기는 일반 관객도 오고 예술인도 오는 장소잖아요. 그런데 관객은 관객대로, 예술인은 예술인대로 연결이 안 돼 있어요. 이 둘을 연결시키는 소통의 장소로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가 있어요.” (30대 그룹)

“공연 피드백 받는 창구라든지, 홍보를 도와줄 수 있는 공간이라든지요. 그런 식으로 연결 기능이 생기면 좋겠어요.” (30대 그룹)

“공간이 세 군데고 위치도 가까우니까 각각의 특색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연극센터는 시민들이 쉬어 갈 수 있는 휴식 공간, 예술인 지원센터는 자립을 도와주는 역할이 더 분명했으면 좋겠어요.” (20대 그룹)

“창작센터는 재미있고 영감을 주는 공간이었으면 좋겠어요. 서로 다른 분야 사람들이 만나야 아이디어가 나오고, 연극은 시민과 함께하는 예술이니까 교류가 자연스럽게 일어나면 좋겠어요.” (20대 그룹)

- 또한, 대학로에 방문한 시민들이 누구나 머물 수 있는 휴식 공간, 시민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공간 등 시민이 자유롭게 방문할 수 있는 공간 조성이 필요하다고 언급함

“혜화에서 연극 보면 티켓 뵙고 기다리는 시간이 항상 생기잖아요. 카페 가기엔 애매하고 그냥 기다리긴 아까운데, 열린 공간이 있으면 대기하면서 자료도 보고 새로운 콘텐츠도 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20대 그룹)

“공연 보러 간 친구를 기다리다 우연히 들어왔는데, 뭘 주문 안 해도 쉴 수 있는 공간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대학로에 이런 ‘쉴 공간’이 정말 부족해서요.” (30대 그룹)

“연극을 그냥 보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맛보기로 참여해 보거나 글쓰기나 연극 활동에 직접 참여할 기회가 있으면 자연스럽게 애정이 생겨요.” (40대 그룹)

“연기나 대본 쓰기 같은 클래스를 통해 시민이 경험해 보고, 그게 시작점이 돼서 작가나 배우가 나올 수도 있잖아요.” (40대 그룹)

“시니어들이 편안하게 와서 쉬고, 대화하고, 자기 표현하고, 소속감을 가질 수 있는 소통의 중심이 되면 좋겠어요.” (50대 이상 그룹)

2. 향후 서울문화재단 운영 공간의 필요 콘텐츠

- 전시 분야에 비해 공연예술은 창작자(배우뿐 아니라 연출, 스태프 등)와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부족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창작자와 소통할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을 기대함

“전시는 작가 연계 프로그램이 많은데 공연은 그런 게 거의 없더라고요. 배우뿐 아니라 무대 디자인이나 소품, 연출 의도 같은 것도 궁금한데 그런 걸 전시처럼 풀어주면 관객 입장에서도 재미있고 홍보도 될 것 같아요.” (20대 그룹)

“공연 끝나고 배우랑 사진 찍고 ‘잘 봤어요’ 정도의 소통이지, 깊은 소통은 거의 없다고 느꼈어요. 전시는 작가랑 이야기할 기회가 많은데 공연은 연출이나 스태프를 만날 기회가 거의 없어서 아쉬워요.” (20대 그룹)

“영화 GV처럼 일정 시간을 정해 두고 관객과 이야기하는 자리가 필요해요. 관객은 궁금증을 어디다 물어볼 데가 없어서 결국 찾아봐야 하잖아요. 프리토크 형태로 만들면 홍보 기간에도 더 알려질 수 있을 것 같아요.” (30대 그룹)

“소극장은 공간이 계속 변화잖아요. ‘이 장면을 이렇게 바꾼 이유가 뭘까’ 같은 게 궁금해서, 배우뿐 아니라 스태프들과 소통할 기회가 있으면 좋겠어요.” (20대 그룹)

“연극도 영화나 드라마처럼 프리뷰나 쇼케이스처럼 하면 홍보도 자연스럽게 되고, 사람들이 그날 몰리듯이 오게 되잖아요.” (40대 그룹)

- 또한, 일회성 행사보다 지속적으로 공연에 대한 관심도를 높일 수 있는 참여형 프로그램 운영도 언급함

“학교 동아리처럼 주기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소모임이 있으면 좋겠어요. 주제를 바꿔가며 계속 만나면 아이디어도 나오고 나중엔 협업도 가능할 것 같아요.” (20대 그룹)

“일회성으로 연기를 배워보는 프로그램에 참여해 본 적이 있는데 되게 좋았어요. 실제 배우들한테 감정 표현이나 연기 같은 걸 배우는 체험형 프로그램, ‘하루만 배우가 되어보기’ 같은 게 있으면 좋겠어요.” (20대 그룹)

“가능하다면 무대에 아무도 없는 시간에 1시간 정도 그냥 서보는 경험만 해도, 그 자체로 진짜 콘텐츠가 될 것 같아요.” (20대 그룹)

“제가 연극을 안 보는 이유 중 하나가 ‘맛을 몰라서’예요. 길거리에서 맛보기 공연을 보면 ‘아 이런 매력이 있구나’ 하면서 애착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30대 그룹)

“일반 시민과 종사자 사이에 지망생들이 있잖아요. 교육적 역할을 한다면 지망생 동기부여나 멘토링이 좋을 것 같아요. 연극 스타들이 와서 멘토링해주면 시민도 만족하고 지망생까지 품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어요.” (40대 그룹)

부록
설문지



부록. 설문지

통계법 33조(비밀의 보호)에 의거 본 조사에서
개인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엄격히 보호됩니다

대학로 공연예술 정보확산 및 교류를 위한 기초조사 (공연예술 분야 종사자)

안녕하세요.

서울문화재단에서는 대학로 공연예술의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하여, 정보확산 및 교류 구조를
실증적으로 진단하고 예술인과 시민이 함께 활용할 수 있는 공연예술 거점 공간의 발전 방향을
도출하고자 예술인과 시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응답하신 내용은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에 따라 절대적으로 비밀이 보장되며, 통계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바쁘시더라도 잠시 시간을 내셔서 설문에 응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2025년 11월

SQ. 응답자 선정 질문

SQ1. 귀하께서는 공연예술 분야에서 종사하고 계십니까?

- ① 예 ② 아니오  설문 종료

SQ2. 최근 1년 이내 대학로에서 활동(창작·리허설·회의·연구·워크숍·공연 관람 등)하거나 공간/시설을
이용한 적이 있습니까?

- ① 예 ② 아니오  설문 종료

DQ. 응답자 정보

DQ1. 귀하의 주 활동 장르는 무엇입니까? 최근 1년 내 활동 비중이 가장 높은 하나만 응답해 주세요.

- | | | |
|--------------------|-------|--------------------|
| ① 연극 | ② 뮤지컬 | ③ 무용(현대무용, 한국무용 등) |
| ④ 클래식 | ⑤ 국악 | ⑥ 대중음악 |
| ⑦ 기타() | | |

DQ2. 귀하께서는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하십니까?

- | | | |
|--------------------|------------|--------------------|
| ① 연출·감독 | ② 배우·퍼포머 | ③ 작가·극작가·작곡가 |
| ④ 기획·프로듀서 | ⑤ 안무가·무용수 | ⑥ 연주가·성악가·보컬 |
| ⑦ 무대기술(조명·음향·영상 등) | ⑧ 행정·매니지먼트 | ⑨ 기타() |

DQ3. 귀하의 주 활동 분야의 경력은 얼마나 됩니까?

- | | | |
|----------|----------|---------|
| ① 0-2년 | ② 3-5년 | ③ 6-10년 |
| ④ 11-15년 | ⑤ 16년 이상 | |

DQ4. 귀하의 성별은 어떻게 되십니까?

- | | |
|------|------|
| ① 남성 | ② 여성 |
|------|------|

DQ5. 귀하의 연령대는 어떻게 되십니까?

- | | | |
|----------|----------|----------|
| ① 18세 미만 | ② 18~29세 | ③ 30~39세 |
| ④ 40~49세 | ⑤ 50~59세 | ⑥ 60세 이상 |

Part A. 대학로 활동 및 공간·시설 이용 행태

A1. 최근 1년 동안 귀하께서는 공연예술 관련 목적으로 대학로에 얼마나 방문하셨습니다?

- ① 연 1-2회 ② 분기 1회 ③ 월 1회
④ 월 2-3회 ⑤ 주 1회 ⑥ 주 2회 이상

A2. 최근 1년 동안 귀하께서는 대학로에서 어떤 활동을 하셨습니다? 해당하는 항목을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복수 응답)

- ① 창작활동(공연·리허설·회의) ② 연구·교육·세미나
③ 공연 관람 ④ 네트워킹·교류(예술가 및 시민)
⑤ 행정 작업·지원 신청 ⑥ 장비·자료 이용(녹음·촬영·편집·아카이브)
⑦ 기타()

A3. 최근 1년 동안 귀하께서는 대학로에서 어떤 공간/시설을 이용하셨습니다? 해당하는 항목을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복수 응답)

- ① 연습실·스튜디오 ② 회의실·세미나실
③ 오픈라운지·카페 ④ 소극장(200석 미만)
⑤ 중·대형극장(200석 이상) ⑥ 기타()

A4. 대학로에서 공간/시설을 이용할 때, 아래 요소들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세부 항목	전혀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지 않다	보통이다	중요하다	매우 중요하다
1) 접근성(거리·교통 등)/동선 편의성	①	②	③	④	⑤
2) 시설/장비 상태	①	②	③	④	⑤
3) 비용/대관료 적정성	①	②	③	④	⑤
4) 운영·예약(운영시간·대관/예약 시스템 등) 편의성	①	②	③	④	⑤
5) 교류 가능성/네트워킹 환경	①	②	③	④	⑤

A5. 대학로에서 공간/시설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가장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무엇입니까?

- ① 공간 정보 접근성 미흡(운영시간·위치·절차 등 안내 부족)
- ② 예약·대관 시스템 이용 불편
- ③ 프로그램·행사 정보 전달 미흡
- ④ 교류공간 부족(오픈라운지 등)
- ⑤ 기타()

Part B. 대학로의 공연예술 정보 접근·교류 환경

B1. 귀하께서는 평소 공연예술 관련해서 어떤 정보를 찾아보십니까? 해당하는 것을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복수 응답)

- ① 공연·예매 정보
- ② 공모·지원사업·정책
- ③ 대관·장비·스튜디오
- ④ 프로그램·교육·워크숍
- ⑤ 네트워킹·모임 정보
- ⑥ 자료·아카이브·리서치
- ⑦ 기타()

B2. 위에서 언급한 공연예술 정보는 주로 어디에서 찾나요? 해당하는 것을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복수 응답)

- ① 공식 홈페이지(문화재단·공연장 등)
- ② SNS(인스타그램·페이스북·유튜브 등)
- ③ 뉴스레터(이메일 구독)
- ④ 예매·대관 플랫폼(NOL인터파크·예스24 등)
- ⑤ 포털 검색(네이버·구글 등)
- ⑥ 동료·지인 추천
- ⑦ 기타()

B3. 대학로의 공연예술 정보 탐색과 관련해서 불편한 사항은 무엇입니까? 해당하는 것을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복수 응답)

- ① 정보 분산·과잉 등으로 핵심 정보 파악 어려움
- ② 업데이트·알림 등 불규칙하거나 늦음
- ③ 기능 미흡(예약 시스템, 맞춤형 검색 등)
- ④ 신뢰성·출처 검증 어려움
- ⑤ 기타()
- ⑥ 불편 사항 없음

B4. 귀하께서는 다른 예술인 또는 다른 장르와 어떤 방식으로 교류하고 있습니까? 해당하는 항목을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복수 응답)

- ① 공동창작·협업
- ② 세미나·포럼·라운드테이블
- ③ 리딩·오픈리허설·쇼케이스
- ④ 관람 이후 네트워킹(모임·간담회)
- ⑤ 행사·페스티벌
- ⑥ 온라인 커뮤니티·메신저 그룹
- ⑦ 기타()
- ⑧ 교류 활동 없음  B7로

B5. 교류 활동의 빈도는 어떻게 됩니까?

- ① 연 1-2회
- ② 분기 1회 정도
- ③ 월 1회 정도
- ④ 주 1회 이상

B6. 교류 활동은 주로 어디에서 이루어집니까?

- ① 주로 오프라인 공간에서(극장·연습실·라운지 등)
- ② 주로 온라인상에서(커뮤니티·화상회의 등)
- ③ 오프라인과 온라인 병행

B7. 귀하께서는 대학로가 예술인 간 교류·네트워크 등이 충분히 잘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교류 기회, 연결 채널, 교류 공간/라운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응답해 주십시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①	②	③	④	⑤

Part C. 서울문화재단 운영공간 인식·이용 경험

※ 지금부터는 서울문화재단에서 운영하는 공간/시설에 대해 알거나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여쭙보겠습니다.

C1. 귀하께서는 대학로 일대에서 서울문화재단이 운영하는 다음의 공간/시설을 알고 있습니까? 알고 있는 공간/시설을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복수 응답)

- ① 서울예술인지원센터 - 혜화역 1번 출구 위치
서울문화재단 대학로센터 2층·5층,
라운지·대관공간



- ② 대학로극장 쿼드 - 혜화역 1번 출구 위치
서울문화재단 대학로센터 지하 2층, 공연장



- ③ 서울연극센터 - 혜화역 4번 출구 위치
1층 라운지, 2층 세미나실 및 공유오피스,
3층 스튜디오



- ④ 서울연극창작센터 - 한성대입구역 6번 출구 위치
1층 서울씨어터 제로, 2층 연극인라운지 및
리스테이지 쇼룸, 3층 연극인오피스,
5층 서울씨어터 202



- ⑤ 4개 공간/시설 모두 알지 못한다  D1로

C1-1. (C1에서 응답한 보기 항목만 제시) 이중 귀하께서 이용한 공간/시설은 무엇입니까?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 | | |
|---------------|------------|
| ① 서울예술인지원센터 | ② 대학로극장 쿼드 |
| ③ 서울연극센터 | ④ 서울연극창작센터 |
| ⑤ 이용 공간/시설 없음 | |

C1-2. (C1-1에서 응답한 보기 항목만 제시) 이 중 가장 최근에 이용한 공간/시설은 무엇입니까?

- ① 서울예술인지원센터 ② 대학로극장 쿼드
③ 서울연극센터 ④ 서울연극창작센터

C2. 해당 공간/시설은 처음 어떻게 알게 되셨습니까?

- ① 서울문화재단 홈페이지 ② 공간별 SNS
③ 뉴스레터(이메일) ④ 동료·지인 추천
⑤ 현수막·포스터·현장 안내 ⑥ 언론·매체 기사
⑦ 기타()

C3. 대학로 일대 서울문화재단 운영공간에 대해 떠오르는 이미지를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복수 응답)

- ① 공연·창작활동 지원 공간 ② 예술인 정보·교류 거점
③ 시민과 소통하는 열린 문화공간 ④ 대관 중심 공간
⑤ 행정·지원 중심 공간 ⑥ 기타()

※ 지금부터는 귀하께서 이용한 서울문화재단 운영공간에 대한 이용 경험을 구체적으로 여쭙보겠습니다.

(C1-2에서 최근에 이용한 공간에 대해 C4~C8 문항 제시)

C4. 귀하께서 최근에 이용한 (C1-2. 이용 공간/시설 제시)은/는 어떤 목적으로 이용하셨습니까?

- ① 창작활동(공연·리허설·회의) ② 연구·교육·세미나
③ 공연 관람 ④ 네트워킹·교류(타 예술가 및 시민)
⑤ 행정 작업·지원 신청 ⑥ 장비·자료 이용(녹음·촬영·편집·아카이브)
⑦ 기타()

C5. 귀하께서 이용한 (C1-2. 이용 공간/시설 제시)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각 항목에 대해 만족 정도를 선택해 주십시오.

세부 항목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만족하지 않는다	보통이다	만족한다	매우 만족한다
1) 찾아가기 쉽고, 이동이 편리하다	①	②	③	④	⑤
2) 시설과 장비 상태가 좋다	①	②	③	④	⑤
3) 운영과 예약 과정이 간편하다	①	②	③	④	⑤
4) 제공되는 프로그램·지원·정보는 유용하고 도움이 된다	①	②	③	④	⑤
5) 공간에 대한 전반적인 이용 경험이 긍정적이다	①	②	③	④	⑤

C6. (C1-2. 이용 공간/시설 제시) 이용 시 가장 불편하거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무엇입니까?

- ① 안내·정보 부족
- ② 예약·참여 절차 불편
- ③ 프로그램 정보의 적시성(알림·변경 안내) 미흡
- ④ 교류 공간(라운지 등)·네트워킹 환경 부족
- ⑤ 기타()
- ⑥ 불편/개선 사항 없음

C7. (C1-2. 이용 공간/시설 제시)은/는 현재 어떤 역할과 기능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해당하는 것을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복수 응답)

- ① 공연장 등 공간·장비 지원
- ② 예술가 교육 프로그램 운영
- ③ 공연예술 정보·자료 제공(큐레이션·아카이브)
- ④ 예술인 네트워킹·교류 지원
- ⑤ 시민 참여 프로그램 운영
- ⑥ 기타()

C8. 향후에도 (C1-2. 이용 공간/시설 제시)을/를 다시 이용할 의향이 있습니까? 의향 정도를 선택해 주십시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①	②	③	④	⑤

Part D. 향후 '공연예술 정보·교류 거점' 역할·기능 인식

D1. 서울문화재단 운영공간이 '공연예술 정보·교류 거점'으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는 일이 향후 대학로 공연예술 활성화에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세부 항목	전혀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다	보통이다	필요 하다	매우 필요하다
1) 거점 역할 전반 - 공연·지원·대관 정보를 한데 모으고, 예술인·시민 교류를 촉진하는 공공 거점	①	②	③	④	⑤
2) 정보 통합 제공 - 공연·지원·대관 정보 제공	①	②	③	④	⑤
3) 예술인 간 교류 촉진 - 협업·매칭·네트워크 강화	①	②	③	④	⑤
4) 예술인-시민 교류 활성화 - 참여 프로그램과 만남의 장 운영	①	②	③	④	⑤

D2. 공연예술 정보·교류 기능 강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프로그램은 무엇입니까? 해당하는 것을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복수 응답)

- ① 정보 큐레이션(지원사업·공모·대관 등)
- ② 장르별 예술인 데이터베이스
- ③ 예술인 네트워킹
- ④ 프로젝트 피칭·쇼케이스
- ⑤ 자료·아카이브 열람
- ⑥ 오픈 라운지(회의·작업 등)
- ⑦ 기타()

D3. 공연예술 장르 중 정보 제공 측면에서 강화 또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장르는 무엇입니까? (복수응답)

- ① 연극
- ② 뮤지컬
- ③ 무용(현대무용, 한국무용 등)
- ④ 클래식
- ⑤ 국악
- ⑥ 대중음악
- ⑦ 기타()

D4. 공연예술 장르 중 정보 교류 또는 네트워킹하고 싶은 장르는 무엇입니까? (복수응답)

- ① 연극
- ② 뮤지컬
- ③ 무용(현대무용, 한국무용 등)
- ④ 클래식
- ⑤ 국악
- ⑥ 대중음악
- ⑦ 기타()

D5. 예술인과 시민 간 교류를 활성화하는 데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프로그램은 무엇입니까? 해당하는 것을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복수 응답)

- ① 오픈 리허설·메이킹 콘텐츠(창작 과정 공개·전시·상영)
- ② 시민 공동창작
- ③ 아티스트 토크(관객 리뷰 공유, 라운지 토크 등)
- ④ 시민 대상 공연예술 연계 교육 프로그램
- ⑥ 기타()

D6. 앞으로 대학로 내 서울문화재단 운영공간이 ‘공연예술 정보·교류 거점’으로 발전한다고 할 때, 현재보다 더 자주 이용할 의향이 얼마나 있으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①	②	③	④	⑤

D6-1. (D6의 ④~⑤ 응답자만) 더 자주 이용하려는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해당하는 것을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복수 응답)

- ① 정보 큐레이션이 유용할 것 같다
- ② 공간·라운지 등 교류 인프라가 더 잘 갖춰질 것 같다
- ③ 예술인 간 네트워킹 기회가 늘어날 것 같다
- ④ 예술인-시민 교류 경험이 풍부해질 것 같다
- ⑤ 기타()

D6-2. (D6의 ①~③ 응답자만) 이용을 망설이는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해당하는 것을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복수 응답)

- ① 정보 큐레이션이 기대에 못 미칠 것 같아서
- ② 공간·라운지 등 인프라를 잘 활용하지 않을 것 같아서
- ③ 프로그램이 기대만큼 매력적이지 않을 것 같아서
- ④ 예술인 간 네트워킹 기회가 제한적일 것 같아서
- ⑤ 예술인·시민 교류 경험이 제한적이거나 활성화되지 않을 것 같아서
- ⑥ 기타()

D7. 대학로 내 서울문화재단 운영공간이 ‘공연예술 정보·교류 거점’으로 자리 잡기 위해, 필요한 지원이나 개선 아이디어가 있다면 자유롭게 적어 주세요.

* 설문에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통계법 33조(비밀의 보호)에 의거 본 조사에서
개인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엄격히 보호됩니다

대학로 공연예술 정보확산 및 교류를 위한 기초조사 (시민)

안녕하세요.

서울문화재단에서는 대학로 공연예술의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하여, 정보확산 및 교류 구조를
실증적으로 진단하고 예술인과 시민이 함께 활용할 수 있는 공연예술 거점 공간의 발전 방향을
도출하고자 예술인과 시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응답하신 내용은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에 따라 절대적으로 비밀이 보장되며, 통계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바쁘시더라도 잠시 시간을 내셔서 설문에 응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2025년 11월

SQ. 응답자 선정 질문

SQ1. 최근 1년 동안, 귀하께서는 서울 종로구 대학로(혜화·동숭·명륜 일대)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까?

- ① 예
- ② 아니오  설문 종료

SQ2. 대학로 방문 시, 아래와 같은 문화 활동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해당하는 항목을 모두 선택해
주세요.

- ① 공연(연극·뮤지컬·무용·음악 등) 관람
- ② 공연예술 관련 프로그램(워크숍·축제 등) 참여
- ③ 공간(카페·라운지) 이용
- ④ 강연·세미나 참여
- ⑤ 이용해 본 적 없음  설문 종료

DQ. 응답자 정보

DQ1. 귀하의 성별은 어떻게 되십니까?

- ① 남성 ② 여성

DQ2. 귀하의 연령대는 어떻게 되십니까?

- ① 18세 미만 ② 18~29세 ③ 30~39세
④ 40~49세 ⑤ 50~59세 ⑥ 60세 이상

DQ3. 현재 거주하시는 지역은 어디입니까?

- ① 서울시 ② 수도권(경기·인천) ③ 기타 지역()

DQ4. 현재 귀하의 직업은 어떻게 되십니까?

- ① 학생 ② 직장인 ③ 자영업
④ 전업주부 ⑤ 프리랜서(예술가 등) ⑥ 기타()

Part A. 대학로 방문 및 문화공간 이용 행태

A1. 최근 1년 동안 귀하께서는 대학로에 얼마나 방문하셨습니까?

- ① 연 1-2회 ② 분기 1회 ③ 월 1회
④ 월 2-3회 ⑤ 주 1회 ⑥ 주 2회 이상

A2. 대학로에 방문하여 머무른 시간은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입니까?

- ① 1시간 미만 ② 1-2시간 ③ 2-4시간 ④ 4시간 이상

A3. 대학로를 방문할 때 주로 누구와 함께 가십니까?

- ① 혼자 ② 가족 ③ 친구·연인 ④ 동료
⑤ 기타()

A4. 대학로를 방문하는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해당하는 것을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복수 응답)

- ① 공연·전시·축제 관람 ② 식사·카페 이용 ③ 모임·약속
 ④ 산책·관광 ⑤ 교육·세미나 참석 ⑥ 쇼핑·기타 여가
 ⑦ 기타()

A5. 대학로 내 문화공간(극장, 라운지 등)은 어떤 목적으로 주로 이용하십니까? (복수 응답)

- ① 공연·전시 관람 ② 체험·프로그램 참여 ③ 카페·라운지 등에서 휴식
 ④ 가족·친구와 여가 ⑤ 교육·강좌 참여 ⑥ 기타()

A6. 문화공간을 선택하고 이용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는 무엇입니까?

- ① 접근성(거리·교통) ② 정보 안내의 명확성 ③ 예약/이용 편의성
 ④ 시설 및 프로그램 수준 ⑤ 교류 가능성(만남·네트워킹) ⑥ 비용 적정성
 ⑦ 기타()

A7. 대학로의 문화 향유 환경에 대해 전반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각 항목에 대해 동의하는 정도를 선택해 주세요.

세부 항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교통과 접근성이 편리하다	①	②	③	④	⑤
2) 공연·전시·체험 등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과 공간이 충분하다	①	②	③	④	⑤
3) 시민이 예술가와 자연스럽게 소통하고 교류할 수 있는 분위기이다	①	②	③	④	⑤
4) 새로운 문화예술을 경험하고 창의적 자극을 받을 수 있는 장소이다	①	②	③	④	⑤
5) 종합적으로, 대학로는 시민이 문화예술을 향유하기에 적합한 환경이다	①	②	③	④	⑤

A8. 귀하께서 대학로를 이용하면서 불편하거나 아쉬웠던 점은 무엇입니까? 해당하는 것을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복수 응답)

- ① 정보 큐레이션 부족 및 안내 미흡 ② 예약·참여 절차 불편
 ③ 프로그램 다양성 부족 ④ 예술인-시민 간 교류 부족 ⑤ 기타()

Part B. 대학로의 공연예술 정보 접근 및 교류 환경

B1. 귀하께서는 평소 공연예술 관련해서 어떤 정보를 찾아보십니까? 해당하는 것을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복수 응답)

- ① 공연·프로그램 예매 정보(작품 내용/후기/일정/티켓가격 등)
- ② 공연 관련 교육·워크숍 정보
- ③ 아티스트 토크·관객 참여 행사 정보
- ④ 관람 참고·현장 이용 정보(오시는 길/편의시설/인근 방문코스 등)
- ⑤ 네트워킹·모임 정보
- ⑥ 기타()

B2. 위에서 언급한 공연예술 정보는 주로 어디에서 찾나요? 해당하는 것을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복수 응답)

- ① 공식 홈페이지(문화재단·공연장 등)
- ② SNS(인스타그램·페이스북·유튜브 등)
- ③ 뉴스레터(이메일 구독)
- ④ 예매·대관 플랫폼(NOL인터파크·예스24 등)
- ⑤ 포털 검색(네이버·구글 등)
- ⑥ 동료·지인 추천
- ⑦ 기타()

B3. 대학로의 공연예술 정보 탐색과 관련해서 불편한 사항은 무엇입니까? 해당하는 것을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복수 응답)

- ① 정보 분산·과잉 등으로 핵심 정보 파악 어려움
- ② 업데이트·알림 등 불규칙하거나 늦음
- ③ 기능 미흡(예약 시스템, 맞춤형 검색 등)
- ④ 신뢰성·출처 검증 어려움
- ⑤ 기타()
- ⑥ 불편 사항 없음

B4. 귀하께서는 대학로에서 공연예술 관련 교육·프로그램 등에 참여해 본 적이 있습니까? 해당하는 것을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복수 응답)

- ① 오픈 리허설·리딩·메이킹 콘텐츠(창작 과정 공개·전시·상영)
- ② 아티스트 토크·관객과의 대화
- ③ 워크숍·강연(교육 프로그램)
- ④ 행사·페스티벌
- ⑤ 커뮤니티 모임·라운드테이블·포럼
- ⑥ 기타()
- ⑦ 참여 경험 없음  B6으로

B5. (B4에서 ①-⑥ 중 하나 이상 선택 시) 지난 12개월 동안 위와 같은 프로그램에 총 몇 회 참여하셨습니다?

- ① 1회 ② 2-3회 ③ 4-5회 ④ 6-9회 ⑤ 10회 이상

B6. 귀하께서 대학로의 공연예술 관련 교육·프로그램 등에 참여할 때 불편한 사항은 무엇입니까? 해당하는 것을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복수 응답)

- ① 참여 정보를 찾기 어렵다(현수막, 표지판, 웹사이트 게시글 등 온·오프라인)
 ② 일정이나 마감 안내가 늦거나 맞지 않는다
 ③ 프로그램 내용이 어렵거나 전문용어가 많다
 ④ 예약 시스템 이용이 불편하거나 예약·대기 절차가 번거롭다
 ⑤ 교류·네트워킹 공간이 부족하다
 ⑥ 기타()
 ⑦ 참여한 프로그램 활동 없음

B7. 귀하께서는 대학로가 시민이 공연예술 정보를 탐색하고, 관련 교육·프로그램·체험·축제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좋은 환경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각 항목에 동의하는 정도를 선택해 주십시오.

세부 항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대학로의 공연·전시·행사 정보는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어 한곳에서 확인하기 쉽다.	①	②	③	④	⑤
2) 안내와 홍보가 제때 전달되고 이해하기 쉽다	①	②	③	④	⑤
3) 시민이 만나고 소통할 수 있는 교류 공간과 네트워크 인프라가 충분하다.	①	②	③	④	⑤
4) 종합적으로 볼 때, 대학로는 시민이 공연예술 정보를 얻고 교류하기에 적합한 환경이다.	①	②	③	④	⑤

Part C. 서울문화재단 운영공간 인식·이용 경험

※ 지금부터는 서울문화재단에서 운영하는 공간/시설에 대해 알거나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여쭙보겠습니다.

C1. 귀하께서는 대학로 일대에서 서울문화재단이 운영하는 다음의 공간/시설을 알고 있습니까? 알고 있는 공간/시설을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복수 응답)

- ① 서울예술인지원센터 - 혜화역 1번 출구 위치
서울문화재단 대학로센터 2층·5층,
라운지·대관공간



- ② 대학로극장 쿼드 - 혜화역 1번 출구 위치
서울문화재단 대학로센터 지하 2층, 공연장



- ③ 서울연극센터 - 혜화역 4번 출구 위치
1층 라운지, 2층 세미나실 및 공유오피스,
3층 스튜디오



- ④ 서울연극창작센터 - 한성대입구역 6번 출구 위치
1층 서울씨어터 제로, 2층 연극인라운지 및
리스테이지 쇼룸, 3층 연극인오피스,
5층 서울씨어터 202



- ⑤ 4개 공간/시설 모두 알지 못한다  D1로

C1-1. (C1에서 응답한 보기 항목만 제시) 이중 귀하께서 이용한 공간/시설은 무엇입니까?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 ① 서울예술인지원센터 ② 대학로극장 쿼드
③ 서울연극센터 ④ 서울연극창작센터
⑤ 이용 공간/시설 없음

C1-2. (C1-1에서 응답한 보기 항목만 제시) 이 중 가장 최근에 이용한 공간/시설은 무엇입니까?

- ① 서울예술인지원센터 ② 대학로극장 쿼드
- ③ 서울연극센터 ④ 서울연극창작센터

C2. 해당 공간/시설은 처음 어떻게 알게 되셨습니까?

- ① 서울문화재단 홈페이지 ② 공간별 SNS
- ③ 뉴스레터(이메일) ④ 동료·지인 추천
- ⑤ 현수막·포스터·현장 안내 ⑥ 언론·매체 기사
- ⑦ 기타()

C3. 대학로 일대 서울문화재단 운영공간에 대해 떠오르는 이미지를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복수 응답)

- ① 공연·창작활동 지원 공간 ② 예술인 정보·교류 거점
- ③ 시민과 소통하는 열린 문화공간 ④ 대관 중심 공간
- ⑤ 행정·지원 중심 공간 ⑥ 기타()

※ 지금부터는 귀하께서 이용한 서울문화재단 운영공간에 대한 이용 경험을 구체적으로 여쭙보겠습니다.

(C1-2에서 최근에 이용한 공간에 대해 C4~C8 문항 제시)

C4. 귀하께서 최근에 이용한 (C1-2. 이용 공간/시설 제시)은/는 어떤 목적으로 이용하셨습니까?

- ① 공연 관람·예매
- ② 프로그램 참여(세미나·워크숍 등)
- ③ 라운지 내 자료 열람·휴식
- ④ 정보 확인(공연 일정·이용 안내 등)
- ⑤ 기타()

C5. 귀하께서는 (C1-2. 이용 공간/시설 제시)의 라운지 등에서 머무르며 쉬어본 경험이 있습니까?

- ① 있다 ② 없다  C8로

C5-1. (C5의 ① 응답자만) 평균 체류 시간은 어느 정도였습니까?

- ① 30분 미만 ② 30분~1시간 ③ 1~2시간 ④ 2시간 이상
- ⑤ 기억나지 않음

C5-2. (C5의 ① 응답자만) 공간 분위기에 대해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해당하는 것을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복수 응답)

- ① 개방적이고 환대하는 분위기이다 ② 조용하고 쾌적해 머무르기 편하다
 - ③ 문화적·창의적 자극이 느껴진다 ④ 혼잡·소음이 심해 불편하다
 - ⑤ 폐쇄적·딱딱하게 느껴진다 ⑥ 좌석·라운지 등 머물 공간이 부족하다
 - ⑦ 기타()
 - ⑧ 특별히 느낀 점이 없다/기억나지 않는다

C6. 귀하께서 이용한 (C1-2. 이용 공간/시설 제시)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각 항목에 대해 만족 정도를 선택해 주십시오.

세부 항목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만족하지 않는다	보통이다	만족한다	매우 만족한다
1) 찾아가기 쉽고 안내가 명확하다	①	②	③	④	⑤
2) 공간의 쾌적성과 편의시설(좌석·화장실 등)이 좋다	①	②	③	④	⑤
3) 예매·예약·입장 등 이용 과정이 간편하다	①	②	③	④	⑤
4) 제공되는 프로그램·정보는 유용하고 도움이 된다	①	②	③	④	⑤
5) 공간에 대한 전반적인 이용 경험이 긍정적이다	①	②	③	④	⑤

C7. (C1-2. 이용 공간/시설 제시) 이용 시 가장 불편하거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무엇이었습니까?

- ① 안내·표지·현장 정보 부족 ② 예약·참여 절차 불편

③ 프로그램 정보의 적시성(알림·변경 안내) 미흡 ④ 교류 공간(라운지 등)·네트워킹 환경 부족

⑤ 좌석·시아·음향 등 관람 환경 부족 ⑥ 기타()

⑦ 불편/개선 사항 없음

C8. (C1-2. 이용 공간/시설 제시)은/는 현재 어떤 역할과 기능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해당하는 것을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복수 응답)

- | | |
|----------------------------|-------------------------|
| ① 공연 | ② 예술가 교육 프로그램 운영 |
| ③ 공연예술 정보·자료 제공(큐레이션·아카이브) | ④ 예술인 네트워킹·교류 지원 |
| ⑤ 시민 참여 프로그램 운영 | ⑥ 기타() |

C9. 향후에도 (C1-2. 이용 공간/시설 제시)을/를 다시 이용할 의향이 있습니까? 의향 정도를 선택해 주십시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①	②	③	④	⑤

Part D. 향후 ‘공연예술 정보·교류 거점’ 역할·기능 인식

D1. 서울문화재단 운영공간이 ‘공연예술 정보·교류 거점’으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는 일이 향후 대학로 공연예술 활성화에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세부 항목	전혀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다	보통이다	필요하다	매우 필요하다
1) 거점 역할 전반 - 공연·지원·대관 정보를 한데 모으고, 예술인·시민 교류를 촉진하는 공공 거점	①	②	③	④	⑤
2) 정보 통합 제공 - 공연·지원·대관 정보 제공	①	②	③	④	⑤
3) 예술인 간 교류 촉진 - 협업·매칭·네트워크 강화	①	②	③	④	⑤
4) 예술인-시민 교류 활성화 - 참여 프로그램과 만남의 장 운영	①	②	③	④	⑤

D2. 공연예술 정보·교류 기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서비스와 프로그램은 무엇입니까? 해당하는 것을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복수 응답)

- ① 통합 정보 및 큐레이션(공연 및 공연예술인 정보 등)
- ② 예술인-시민 교류 프로그램
- ③ 시민 참여 프로그램(워크숍·세미나 등)
- ④ 창작과정 공유(오픈리허설·아카이브 자료 열람 등)
- ⑤ 온라인 상담·FAQ(실시간 챗봇 등)
- ⑥ 공간 이용 서비스(오픈라운지 등)
- ⑦ 기타()

D3. 공연예술 장르 중 정보 제공 측면에서 강화 또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장르는 무엇입니까? (복수응답)

- ① 연극
- ② 뮤지컬
- ③ 무용(현대무용, 한국무용 등)
- ④ 클래식
- ⑤ 국악
- ⑥ 대중음악
- ⑦ 기타()

D4. 공연예술 장르 중 예술인과 정보 교류 또는 네트워킹하고 싶은 장르는 무엇입니까? (복수응답)

- ① 연극
- ② 뮤지컬
- ③ 무용(현대무용, 한국무용 등)
- ④ 클래식
- ⑤ 국악
- ⑥ 대중음악
- ⑦ 기타()

D5. 예술인과 시민 간의 교류를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서비스와 프로그램은 무엇입니까? 해당하는 것을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복수 응답)

- ① 창작과정 공유(오픈리허설·메이킹 영상 상영 등)
- ② 시민 공동창작
- ③ 아티스트 토크(관객 리뷰 공유, 라운지 토크 등)
- ④ 시민 대상 공연예술 연계 교육 프로그램
- ⑤ 기타()

D6. 앞으로 대학로 내 서울문화재단 운영공간이 ‘공연예술 정보·교류 거점’으로 발전한다고 할 때, 현재보다 더 자주 이용할 의향이 얼마나 있으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①	②	③	④	⑤

D6-1. (D6의 ④~⑤ 응답자만) 더 자주 이용하려는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해당하는 것을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복수 응답)

- ① 정보 큐레이션이 유용할 것 같다
- ② 공간·라운지 등 교류 인프라가 더 잘 갖춰질 것 같다
- ③ 프로그램 내용과 질이 우수해질 것 같다
- ④ 예술인-시민 교류 경험이 풍부해질 것 같다
- ⑤ 기타()

D6-2. (D6의 ①~③ 응답자만) 이용을 망설이는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해당하는 것을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복수 응답)

- ① 정보 큐레이션이 기대에 못 미칠 것 같아서
- ② 공간·라운지 등 인프라를 잘 활용하지 않을 것 같아서
- ③ 프로그램이 기대만큼 매력적이지 않을 것 같아서
- ④ 예술인·시민 교류 경험이 제한적이거나 활성화되지 않을 것 같아서
- ⑤ 기타()

D7. 대학로 내 서울문화재단 운영공간이 ‘공연예술 정보·교류 거점’으로 자리 잡기 위해, 필요한 지원이나 개선 아이디어가 있다면 자유롭게 적어 주세요.

* 설문에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서울문화재단